

한글 맹자

이을호 저 | 다산학연구원 편 <현암 이을호 전서>는 이을호(1910~1998)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집대성한 책이다. 선생은 한말韓末 격동기에 출생하여, 일제의 지배를 당하던 환경에서 민족자강운동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옥중에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를 접하고, 다산茶山의 지혜로 시대를 구하고자 정약용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 문화와 고유한 사상에서 형성된 지혜를 체계적으로 탐구하여 우리 민족이 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니 <현암 이을호 전서> 27책이 그것이다. 이는 단순한 저서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밝힌 새로운 보고寶庫로, 현대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올바른 미래 문화의 모델을 갈구하는 뜻있는 이들에게 더할 수 없는 지혜를 제공해 줄 것이다.



OLJE CLASSICS

한글 맹자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जे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사단
법인 **이Je**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게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 고전이나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 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정 기관,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와 〈현암 이을호 전서〉 무료 전자책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도서 유통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올재에서 퍼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원태 님께 감사드립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신 벗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흙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올재 후원하러 가기](#)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 www.olje.or.kr ✉ oljeclassics@olje.or.kr

📱 [@oljeclassics](#) 📘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한 벗들



한글 맵자

한글 맹자

16

이을호 지음 · 다산학연구원 편

간행사

선생이 1998년 88세를 일기로 서세하신 후, 2000년 11월 <이을호 전서> 9책 24권이 출판되었고, 2010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현암 이을호 연구』가 간행되었다. 그리고 10여 년 사이에 몇 가지 학계의 여망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초간본에서 빠트린 글들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대의 독자들을 감안해서 원문 인용문 등도 쉽게 풀이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의 저술들이 가지는 학술적 가치를 고려할 때 몇몇 주요 저술들을 단행본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완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이을호 전서>를 <현암 이을호 전서>로 개명하고, 9책 24권 체제를 각권 27책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수정 증보판을 내놓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선생을 가리켜 다산학 연구의 개척자라 하기도 하고, 현대 한국학의 태두라 하기도 하지만, 이는 그 일면을 지적하는 것일 뿐, 그 깊이와 내용을 올바르게 판단한 것은 아니다. 선생의 학술적

탐구가 갖는 다양한 면모와 깊이는 전체적으로 고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선생의 학문 여정을 돌아볼 때 고보 시절에 이제마(李濟馬, 1838~1900)의 문인으로부터 『동의수세보원』을 익힘으로써, 인간의 근원에 대한 이해, 곧 그때까지 유행하고 있었던 주자의 성리설(性理說)로부터 고경(古經)의 성명론(性命論)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경성약전을 졸업하고 중앙의 일간지에 「종합의학 수립의 전제」 등 여러 논설을 게재하고 『동양의학 논문집』 등의 창간을 주도하면서 ‘동서양 의학의 융합’을 주장하였던 것은 일제하에 허덕이고 있었던 민생을 구하고자 하였던 구세의식의 발로(發露)였다.

27세 때, 민족자강운동을 떠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어 영어의 몸으로서 『여유당전서』를 탐구하였던 것은 다산이 멸망하는 조선조의 운명을, 새로운 이념으로 광정(匡正)하고자 하였던 그 지혜를 배워서, 선생이 당면하였던 그 시대를 구하고자 한 것이었다. 광복과 함께 학교를 열었던 것은 평소에 꿈꾸었던 국가의 부흥을 교육입국을 통하여 현실에 실현시키고자 함이었다.

학술적으로 첫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역 『수은(睡隱) 간양록(看羊錄)』은 우리의 자존심으로서, 일제에 대응하고자 하였던 존엄의식의 발로였다. 마침내 다산의 경학연구로 학문적 토대를 쌓아, 육경사서(六經四書)에 대한 논문과 번역 등 『다산경학사상연구』를 비롯한 많은 저술을 남긴 것은 조선조 500년을 지배한 주자학의 굴레로부터, 학문적 자주성과 개방성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올바른 문화를 열고자 하는 열망을 학술적 차원에서 이룬 것이었다.

선생의 학문은 난국의 시대에 국가의 앞날을 우려하여, 우리의 의

식으로서 새로운 사상적 전환을 이룩하고, 한국학의 독자성을 밝혀, 현대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생의 학문은 깊고 원대한 이상에서 성장해 결실을 맺은 것임을 알 수 있으니, 그 학문세계를 쉽게 말할 수 없다는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생이 가신 지 어언 1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선생의 저술에 대한 기대가 학계에 여전한 것은 오롯이 선생의 가르침과 학술로 거둔 성과다. 문인으로서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선생의 학술이 그 빛을 더하고 남기신 글들이 더욱 널리 퍼지는 것이다. 이 새로운 전집의 간행을 계기로, 선생의 학문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그 자체의 독자성이 심도 있게 탐구되어 대한민국의 학술사에서 선생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전서의 상재(上梓)에 참여한 문인들의 둘도 없는 소망이다.

2013년 납월(臘月)

문인 오종일 삼가 씀

일러두기

- 이 책은 1974년 <박영문고> 42호로 간행된 것인데, 2000년에 발행한 <이을호 전서> 6권 『국역 다산사서』에 수록되었던 것을 독립시킨 것이다.
- 모든 글은 저자의 뜻을 존중하여 그대로 옮겼고, 다만 각주 또는 해설에 인용한 원문이 어려운 경우는 번역하거나 띄어쓰기를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책의 교열 및 교정 책임은 김경훈이다.

서문

필자가 『한글 맹자』의 첫 판을 낸 것은 1958년 2월 15일이다. 이에 앞서 맹자에 대한 많은 주해서들이 다른 경서들과 함께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그야말로 주석(註釋)에 중점을 두었지 이의 번역문 자체에 대하여는 그다지 새로운 점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필자는 느낀 바 있어 새로운 번역 태도를 시도해본 것이 이 『한글 맹자』였던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번역문 자체만으로써 원문의 뜻이 통할 수 있고 자잘한 주석 같은 것은 이미 그 번역문 속에서 저절로 설명이 되어 버리게 하는 방법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풀어서 현대문화하는 길인 것이다.

그 후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잊히지 않는 하나의 사실은 『한글 맹자』가 일반 독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자 『맹자집주』본의 옛 번역문에 대체하여 『한글 맹자』를 완전히 표절한 출판업자가 있었고 그 후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한글 맹자』의 몇 개 자구만을 변

개하여 두 번째로 또다시 『맹자집주』본의 역문과 대체한 사실이다. 이들은 이미 필자의 항의에 의하여 회수 처분하였지만 따지고 보면 이를 표절한 출판윤리를 탓했으면 다행이지 표절당한 『한글 맹자』 자체의 흠결은 아니라는 점에서 즈음히 자위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1963년에 다시금 형설출판사에 의하여 새 판을 냈으나 그도 또한 절판된 지 오래다. 이제 새로운 문고판으로 『한글 논어』와 함께 햇빛을 보게 된 기회를 맞이하여 역문에도 약간의 손질을 가하고 주해는 완전히 새로운 원고를 만들었다. 개고함에 있어서 역점을 둔 것은 7권 260장에 걸쳐 [평설] 표하에 그 장이 지니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를 간결하게 설명해 본 것이다. 그중에는 필자의 독단도 없지 않으리라고 여겨지지만 지금까지 많은 주해자들이 지나치게 구절풀이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는 뜻에서 장구의 전체적 이해의 길을 터 보자는 데 필자의 새로운 의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랄 따름이다.

많은 선배 제현들의 ‘맹자서’와 비교하여 어딘가 새로운 데가 있음을 발견해 주신다면 필자의 행은 이에 더할 데가 없을 것이다. 좋건 좋지 않건 간에 많은 비판이 내려지기를 충심으로 바라 마지않는다.

1974. 8. 25

무등산록(無等山麓) · 서석정사(瑞石精舍)에서
현암학인(玄庵學人) 이을호(李乙浩) 지(識)

현암 이을호 전서

- 1책 『다산경학사상연구』
- 2책 『다산역학연구 I』
- 3책 『다산역학연구 II』
- 4책 『다산의 생애와 사상』
- 5책 『다산학 입문』
- 6책 『다산학 각론』
- 7책 『다산학 강의』
- 8책 『다산학 제요』
- 9책 『목민심서』
- 10책 『한국실학사상연구』
- 11책 『한사상총론』
- 12책 『한국철학사총설』
- 13책 『개신유학각론』
- 14책 『한글 중용·대학』
- 15책 『한글 논어』
- 16책 『한글 맹자』
- 17책 『논어고금주 연구』
- 18책 『사상의학원론』
- 19책 『의학론』
- 20책 『생명론』
- 21책 『한국문화의 인식』
- 22책 『한국전통문화와 호남』
- 23책 『국역 간양록』
- 24책 『다산학 소론과 비평』
- 25책 『현암 수상록』
- 26책 『인간 이을호』
- 27책 『현암 이을호 연구』

한글 맹자
목 차

간행사 _ 5

일러두기 _ 8

서문 _ 9

1. 양혜왕 상 _ 15

2. 양혜왕 하 _ 37

3. 공손추 상 _ 65

4. 공손추 하 _ 89

5. 등문공 상 _ 111

6. 등문공 하 _ 133

7. 이루 상 _ 155

8. 이루 하 _ 181

9. 만장 상 _ 205

10. 만장 하 _ 227

11. 고자 상 _ 247

12. 고자 하 _ 271

13. 진심 상 _ 295

14. 진심 하 _ 323

발문 _ 346

편집후기 _ 349

『현암 이을호 전서』 27책 개요 _ 351

양혜왕 상

맹자가 양혜왕을 만났을 때, 왕이 말하기를 “영감께서 천 리 길도 멀다 하지 않고 일부러 오셨으니, 아마도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여 주시겠지요?”

“왕께서는 왜 하필 이(利)라는 것을 내세우십니까? 오직 인(仁)과 의(義)가 있을 따름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에 이로울까?’ 하시면, 대부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에 이로울까?’ 하며, 사(士) 벼슬아치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에 이로울까?’ 하면서 서로 서로 이끝에만 얽히어 싸우게 되면, 나라는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만승(萬乘)의 나라에서 그의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천승(千乘) 집안 사람인 것이요, 천승의 나라에서 그의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백승(百乘) 집안 사람이니, 만분의 천을 가졌고 천분의 백을 가졌다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지만, 만일 의(義)를 뒤로 미루고 이(利)만을 앞세운다면, 아주 빼앗아 버리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仁)을 아는 사람으로 그의 어버이를 버려두는 일이 없고, 의(義)를 아는 사람으로 그의 임금을 저버리는 일이 없답니다.

왕께서도 ‘인(仁)과 의(義)만이 있을 따름이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지, 왜 하필 이(利)라는 것을 내세우십니까?”

孟子見梁惠王¹⁾ 王曰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²⁾吾國乎 孟子對曰王何必曰利 亦有仁義³⁾而已矣 王曰何以利吾國 大夫曰何以利吾家 士庶人曰何以利吾身 上下交征利 而國危矣 萬乘⁴⁾之國 弑其君者 必千乘之家 千乘之國 弑其君者 必百乘之家 萬取千焉 千取百焉 不爲不多矣 苟爲後義而先利 不奪 不蹙 未有仁而遺其親者也 未有義而後其君者也 王亦曰仁義而已矣 何必曰利⁵⁾

맹자가 양혜왕을 만났을 때, 때마침 왕은 연못가를 거닐다가 문득 물새들과 사슴 떼를 쳐다보면서

“현인도 이런 풍경을 좋아하시는지!”

“어진 사람이라야 이런 풍경을 즐길 줄 알지요. 현인이 아니면 이런 풍경을 보고도 좋은 줄을 모를 것입니다. 옛 시에,

- 1) 양혜왕(梁惠王): 삼진(三晉-韓魏趙)의 일(一)인 위후(魏侯) 위사(魏師)의 후에(孫)로서 이름은 영(瑩)이요, 혜(惠)는 그의 시호이다. 왕(王)이란 전국시대 신사군(臣弑君)의 풍조에 편승한 참칭(僭稱)이다. 위(魏)의 수도는 본시 함읍(咸邑)인데, 혜왕(惠王) 때 대양(大梁)으로 옮기니 그를 양혜왕(梁惠王)이라 부른다. 칠국쟁패(七國爭霸)의 시대에 태어난 혜왕(惠王)은 많은 책사(策士) 논객(論客)들을 초청하여 국운(國運)의 만회를 꾀하던 중, 그의 35년에 맹자를 만나게 되었다. 부국강병의 폐도를 꾀꾸는 야심이 혜왕(惠王)과 인의(仁義)의 왕도를 강조하는 이상주의자 맹자와의 대결에서 어떠한 일치점을 발견하 기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오히려 상반된 그들의 입장 때문에 도리어 뚜렷한 양자(兩者)의 면모를 거기서 간취할 수도 있다.
- 2) 이(利): 안전(眼前)의 실리(實利). 공리적(功利的)인 이익(利益) 여기서는 부국강병책.
- 3) 인의(仁義): 인(仁)이란 사람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순정(純靜) 의(義)란 자아(自我) 양식(良識)의 각성에서 우리나라오는 당위의 의지. 맹자가 특히 의(義)를 인(仁)과 더불어 역설한 것은 공자의 ‘춘추(春秋) 정신(精神)의 계승(繼承)이라.
- 4) 만승(萬乘): 승(乘)은 전차수(戰車數)의 단위. 만승(萬乘)은 전국시대 제후들.
- 5) [평설] 인(仁)과 의(義)는 총괄적인 공자의 인(仁)이 친친(親親)의 인(仁)과 존현(尊賢)의 의(義)로 분화(分化)된 자이다. 주자는 “인자심지덕애지리(仁者心之德愛之理) 의자심지제사지선(義者心之制事之宣)”이라 하여 이를 심성론적(心性論的)인 논리적(論理的)인 사리(事理)로 간주한 데 반하여 다산은 “仁者人人之疊文也 人與人之盡其分謂之仁 故古人謂愛人曰仁 善我曰義”라 하여 자신의 실천윤리를 인(仁)·의(義)의 양면에서 풀이하고 있다. 어쨌든 맹자는 여기서 이(利)와의 대립 요목으로서 의(義)를 뚜렷하게 부각시킨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공자도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論語》, 「里仁」)라 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영대(靈臺)를 지어 볼까
터 닦자 마련하던 날
무리들 모여들어
어느새 이룩하네
서둘지 말라 해도
제 집인 양 짓는 것을!

우리 님 계신 곳은
신령 어린인 들
길들인 사슴들이
제멋대로 엮드린 곳.

알찌 짐승들의
숨털도 빛나고
선학(仙鶴)은 떼를 지어
노래하며 즐기는 곳.

우리 님 계신 곳은
신령 어린 연못
물결은 넘치고
고기는 뛰놀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문왕(文王)은 백성의 힘으로 대를 쌓고 못
을 팠으나 백성들은 이를 진심으로 환영하여 그 대를 영대라 부르며
그 못을 영소(靈沼)라 불렀고 그 안에서 사슴 떼와 물고기들이 흐늘
거리며 뛰노는 것을 마음껏 즐거워하였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백성
들과 함께 기쁨을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잘도 즐길 수 있었던 것이
랍니다. 「탕서(湯誓)」에

이놈의 해는

언제나 없어진담
너도나도
다 함께 죽고지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함께 없어져 버렸으면 하고 투덜댄다면 비록 대(臺)·지(池)가 있고 새짐승들이 있다 한들 어떻게 혼자서 즐길 수 있겠습니까?”

孟子見梁惠王 王 立於沼上 顧鴻雁麋鹿 曰 賢者亦樂此乎⁶⁾ 孟子對曰 賢者而後 樂此⁷⁾ 不賢者 雖有此 不樂也 詩云經始靈臺⁸⁾ 經之營之 庶民攻之 不日成之⁹⁾ 經始勿亟 庶民子來 王在靈囿 麋鹿攸伏¹⁰⁾ 麋鹿濯濯 白鳥鶴鶴 王在靈沼 於物魚躍 文王 以民力爲臺爲沼 而民 歡樂之 謂其臺曰靈臺 謂其沼曰靈沼 樂其有樂麋鹿魚鼈 古之人 與民偕樂故 能樂也 湯誓 曰時日害喪¹¹⁾ 予及女 偕亡 民欲與之偕亡 雖有臺池鳥獸 豈能獨樂哉

양혜왕이 말하기를 “자신은 부덕한 사람이오나 내 나라 일이라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하내지방에 흉년이 들면 하내 백성들은 하동으로 옮기고, 하동지방 양곡은 하내로 보냅니다. 하동이 흉작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나라의 정치하는 것을 보면

-
- 6) 현자역차락호(賢者亦此樂乎): 여기에 현자란 맹자를 가리킨 것인데, “현자로 자칭하는 당신도 이런 즐거움을 아는가?” 하는 혜왕의 비꼬는 말이다. 이 대화는 호화로운 왕궁의 정원에서 주고받은 것이라, 날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이런 영화를 누릴 수 없다고 뽐내는 혜왕의 모습이 눈에 훤히 드러난다.
- 7) 현자이후락차(賢者而後樂此): 여기에 현자는 문왕 같은 고현인(古賢人)을 가리킨 것인데 “당신의 영화는 겉주(桀紂)의 그것처럼 외화(外華)에 불과하다. 여민동락(與民同樂)하는 문왕의 낙(樂)이라고 한다면”고 맹자는 혜왕에게 순수연(諄諄然) 깨우쳐 준다.
- 8) 경시영대(經始靈臺): 『시경(詩經)』, 「대아(大雅)」, ‘영대(靈臺)’ 지편(之篇). 문왕의 덕을 칭송한 노래.
- 9) 불일성지(不日成之): 주자는 부종일(不終日)이라고 했으나 “서로 기한을 정한 바도 없이”(趨岐)가 옳다(다산).
- 10) 복(伏): 엎드리다(주자). 새끼를 베다(趨岐).
- 11) 시일해상(時日害喪): 걸왕(桀王)이 “내가 천하를 보유함은 마치 하늘에 해가 빛나는 것같이 뚜렷하고 유구하리라”라고 호언한 말을 받아서 민중들이 “저 해와 더불어 걸왕(桀王) 너도 없어지거라” 하는 저주의 노래.

저만큼 애쓰는 이도 없는 것 같은데, 이웃 나라의 백성이 더 줄지도 않고, 저의 나라의 백성이 더 불지도 않는 것은 웬일일까요?”

“왕은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에서 비유를 끌어 보겠습니다. 등등 등 북을 울려 무장병졸의 접전이 무르녹자, 갑옷을 내던지고 창칼을 질질 끌면서 도망질을 치는데 어느 놈은 백 보쯤 가다가 멎고 어느 놈은 오십 보쯤 가다가 멎었다 합시다. 오십 보로 백 보를 비웃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야 될 말이요. 백 보만 못 되었을 뿐이지 도망질친 것은 마찬가지지요.”

“왕이 만일 이 점을 아신다면 백성이 이웃 나라보다 많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농사철을 어기지 않으면 곡식이란 이루 다 먹지 못할 만큼 되리다. 고기 웅덩이에 자꾸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물고기도 먹고 남으리만큼 있으리다. 솔밭에 도끼질도 때가 있는 것이니 그렇게만 하면 재목도 쓰고 남으리만큼 넉넉하리다. 식량과 물고기가 먹고도 남고 재목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형편이면 이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살림이나 죽은 이의 치상(致喪)에나 아무런 걱정도 없게 하는 것이니, 산 사람을 길러내고 죽은 이를 치상 치는 데 걱정 없는 그것이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출발인 것입니다.

농삿집 둘레에 뽕나무를 심으면 오십 난 노인도 명주옷을 입게 됩니다. 닭·돼지·개 같은 집안 짐승도 철따라 잡고 철따라 깨이면 칠십 난 늙은이도 고기를 먹게 됩니다. 농민들의 논밭갈이 때 징용나오란 일만 없으면 몇 식구 먹여 살리기에는 문제가 없으리다. 교육기관을 부지런히 감독하여 효(孝)·제(悌)의 대의(大義)를 철저히 가르친다면 머리 흰 늙은이가 붓짐을 지고 길거리를 헤매는 일이 없

을 것입니다. 칠십 난 늙은이가 비단 옷에 고기를 먹게 되고 일반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얼어 떨지 않게 되고서도, 그리고도 왕 노릇을 못할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개돼지가 사람 먹이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둬들일 줄을 모르고 있으며, 부양 난 사람들이 길 가에서 굴러도 쌀을 풀어 낼 줄을 모르고 있으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내 죄가 아니야. 시절이 잘못된 것을……’

이라고 한다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도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칼이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까? 왕께서 시절에다 허물을 씌우시지만 앉으시면 천하 백성들이 다 모여들 것입니다.”

梁惠王 曰寡人¹²⁾之於國也 盡心焉耳矣 河內凶則移其民於河東 移其粟於河內 河東 凶 亦然 察隣國之政 無如寡人之用心者 隣國之民 不加少 寡人之民 不加多 何也 孟子對曰王 好戰 請以戰喻 填然鼓之¹³⁾ 兵刃既接 棄甲曳兵而走 或百步而後 止 或五十步而後 止 以五十步 笑百步則何如 曰不可 直不百步耳 是亦走也 曰王如知此則無望民之多於隣國也 不違農時¹⁴⁾ 穀不可勝食也 數罟 不入洿池 魚鼈 不可勝食也 斧斤 以時入山林 材木 不可勝用也 穀與魚鼈 不可勝食 材木 不可勝用 是 使民養生喪死 無憾也 養生喪死 無憾 王道之始也 五畝之宅¹⁵⁾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雞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百畝之田¹⁶⁾ 勿奪其時 數口之家可以無飢矣 謹庠序之教 申之以孝悌之義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 七十者衣帛食肉 黎民 不飢不寒 然而不王者未之有也 狗彘食人食而

12) 과인(寡人): 제후의 겸칭(謙稱).

13) 전연고지(填然鼓之): 전법(戰法)에 북을 치면 진군(進軍)하고 징을 치면 퇴각(退却)한다.

14) 농시(農時): 농번기.

15) 오묘지택(五畝之宅): 농부의 주택. 오묘(五畝)는 대지의 넓이.

16) 백묘지전(百畝之田): 주제(周制)의 정전법(井田法)에 의하면 구백묘(九百畝)를 정형(井形)으로 구분(區分)하여 중앙을 공전(公田)이라 하여 공동경작(共同耕作)하고, 나머지는 사전(私田)이라 하여 여덟 농가가 사유(私有)한다. 그러므로 일가(一家)의 차지가 백묘(百畝)인 것이다.

不知檢 塗有餓孳而不知發 人死則曰非我也 歲也 是何異於刺人而殺之曰
非我也 兵也 王無罪歲 斯天下之民 至焉¹⁷⁾

양혜왕이 말하기를 “원컨대 이제 차분히 선생의 가르치심을 받고
싶습니다.”

맹자가 대하기를 “사람을 죽이되 창대로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
는 것과 다를 것이 있을까요?”

“다를 리가 없지요.”

“칼로 죽이는 것과 정치의 잘못으로 죽이는 것과 다를 것이 있을
까요?”

“다를 리가 없지요.”

“찬간에는 기름진 고깃덩이가 그득하고 마구간에는 살찐 망아지
가 있는데, 백성의 얼굴에는 주린 빛이 떠돌고 들녘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시글시글 굴러 있으니, 이것은 마치 짐승떼를 몰아다가 사람
을 잡아먹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짐승들이 저희끼리 잡아먹는 것도
사람들은 못내 이를 미워하는데 백성의 부모가 되어 정치를 한다 하
면서 짐승떼를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정도를 벗지 못한다
면 백성의 부모라고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니님은 말씀하시기를

‘맨 처음 허수아비를 만든 놈은 아마 제 뒷이 없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이는 사람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 썼기 때문인가
합니다. 그런데 제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
니까?”

17) [평설] 짐승이 사람먹이를 먹는 해는 흉년이요 길거리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해는 흉년인 것
이다. 그러므로 풍흉(豐凶) 간에 상평법(常平法)을 써서 곡식의 출납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梁惠王 曰寡人 願安¹⁸⁾承教 孟子對曰殺人以梃與刃 有以異乎 曰無以異也 以刃與政 有以異乎 曰無以異也 曰庖有肥肉 廐有肥馬 民有飢色 野有餓莩 此 率獸而食人也 獸相食 且人 惡之 爲民父母 行政 不免於率獸而食人 惡在其爲民父母也 仲尼¹⁹⁾曰始作俑²⁰⁾者其無後乎 爲其象人而用之也 如之何其使斯民飢而死也

양혜왕이 말하기를 “진나라가 천하에 최대 강국이었던 것은 영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 때에 와서 동녘 제나라에게 패할 때 큰아들이 죽고, 서녘 진나라에게 칠백리의 토지를 빼앗기고 남쪽에서는 초나라에게 욕을 보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한 번 설욕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방 백리를 가지고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께서 만일 백성들에게 인정(仁政)을 베풀어 형벌을 덜고 세금을 적게 하여 주며, 가리는 깊게 하고 김은 부지런히 매게 하며, 청장년들에게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효·제·충·신의 길을 닦게 하되 집안에서는 부형을 섬기고 사회에 나와서는 웃어른을 섬길 줄 알게 만들어 놓으면, 장대를 가지고도 능히 진·초 같은 나라의 굳은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를 내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네들은 백성들에게 밭 갈고 김매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 어미 아버 하나도 못 먹여 살리게 되니, 그들의 부모는 얼어 떨어져 굶주리고 형제 처자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네들 백성들이 친구령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되거든 그 때 왕께서는 쫓아가 정벌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누가 왕께 덤벼들 놈이

18) 원안(願安): 원안(願馬).

19) 중니(仲尼): 공자의 자(字).

20) 용(俑): 옛날에 짚으로 사람의 모형을 만들어 죽은 사람과 함께 묻었는데 이는 인정에 어긋난 풍습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인간의 순정(純情)을 거슬리는 이러한 악풍(惡風)을 조작(造作)한 자를 못내 미워한 것이다.

있으리까! 그러므로

‘인자(仁者)에게는 적이 없느니라’라는 말이 있으니 왕께서는 내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梁惠王 曰晉國²¹⁾ 天下 莫强焉 叟之所知也 及寡人之身 東敗於齊 長子死焉²²⁾ 西喪地於秦七百里 南辱於楚²³⁾ 寡人 恥之 願比²⁴⁾死者 一洒之 如之何則可 孟子對曰地方百里而可以王²⁵⁾ 王如施仁政於民 省刑罰 薄稅斂 深耕易耨 壯者以暇日 修其孝悌忠信 入以事其父兄 出以事其長上 可使制梃 以撻秦楚之堅甲利兵矣 彼奪其民時 使不得耨耨 以養其父母 父母凍餓 兄弟妻子離散 彼陷溺其民 王 往而征之 夫誰與王敵 故 曰仁者無敵 王請勿疑

맹자가 양혜왕을 만나고 나와서 어느 사람더러

“보아하니 군왕 같지도 않고 가까이 대해 보니 위품도 보잘것없는데 졸연히 묻기를

“천하대세는 어떻게 결정이 날 것입니까?” 하기에

“통일이 되어야 안정될 것입니다.”

“누가 통일할 수 있을까요?” 하기에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통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지요.

“누가 그런 사람의 편이 될까요?” 하기에 나는

21) 진국(晉國): 진(晉)이 삼분(三分)하여 한(韓)·위(魏)·조(趙)가 되었으므로 진(晉)은 위(魏)의 전신(前身)이요, 양혜왕(梁惠王)은 곧 위왕(魏王)으로서 그의 조부(祖父)인 문후(文侯)와 아버지 무후(武侯) 때 진국(戰國)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22) 장자사언(長子死焉): 혜왕 30년에 태자(太子) 신(申)이 포로로 잡혀가 죽었다.

23) 남욕어초(南辱於楚): 초장(楚將) 소양(昭陽)과 싸워 칠읍(七邑)을 빼앗겼다.

24) 비(比): 위(爲).

25) 지방백리이개이왕(地方百里而可以王): 맹자의 왕도는 토지의 광협(廣狹)이 문제가 아니라, 시정(施政)의 시비가 문제다. 시정(施政)이 올바르면 천하도 귀복(歸服)하게 되기 때문이다.

“온 천하에 그런 사람의 편이 안 될 사람은 없습니다. 왕은 저 읍
 듣는 어린 싹을 아시는지! 7, 8월 무더운 여름에 가뭄이 들면 어린
 싹들은 시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뭉게뭉게 검은 구름을
 몰아다가 주룩주룩 소낙비를 내려주면 어린 싹들은 힘차게 소생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되면 그 누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
 니까? 대체 요즘 목민관치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온 천
 하의 백성들은 목을 높이 쳐들고 그를 우러러볼 것입니다. 정말 그
 령계만 한다면 백성이 따르기를 물이 아래로 쏟아지듯 할 것이니,
 썩어 하고 쏟아지는 그런 힘을 그 누가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孟子見梁襄王²⁶⁾ 出語人曰望之不似人君²⁷⁾ 就之而不見所畏焉 卒然問曰
 天下 惡乎²⁸⁾定 吾對曰定于一 孰能一之 對曰不嗜殺人者能一之 孰能與
 之 對曰天下莫不與也 王 知夫苗乎 七八月之間 旱則苗槁矣 天 油然作
 雲 沛然下雨則苗浡然興之矣 其如是 孰能禦之 今夫天下之人牧 未有不
 嗜殺人²⁹⁾者也 如有不嗜殺人者則天下之民 皆引領而望之矣 誠如是也 民
 歸之由水之就下 沛然 孰能禦之

제선왕이 문기를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의 사적을 좀 들려주
 실 수 있을까요?”

26) 양양왕(梁襄王): 혜왕의 아들. 이름은 혁(赫), 양(襄)은 그의 시호. 맹자가 혜왕을 만난 그 이듬해에 혜왕이 죽자 양왕(襄王)이 그 뒤를 계승하였다.

27) 인군(人君): 목민관으로서의 군왕(君王). 인(人)은 천(天)에 대한 인(人).

28) 오호(惡乎): 오호(烏乎).

29) 기살인(嗜殺人): 창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정치의 잘못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도 살인의 범주 안에 든다.

“중니님의 학도치고는 환·문의 사적을 논의하는 사람이 없답니
다. 그러므로 후세에 전해진 바가 없어서 신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왕도(王道)에 대한 말씀은 어떠하올지?”

“인덕(人德)이 어떠해야 왕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백성을 사랑하고 복돋아 주면서 왕노릇을 하면 아무도 이를 방
해하지 못하리다.”

“저 같은 사람도 백성을 애호할 줄 알까 몰라?”

“그야 되지요.”

“무엇을 보고 저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신이 호흠에게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왕께서 당상에 앉아 계실 적에 소를 끌고 당하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그 소는 어디로 가는 소냐?’

‘혼중에 쓸 것입니다.’

‘그만두려무나. 부들부들 떨면서 죄 없이 주검터로 끌려가는 그런
것은 내 차마 볼 수 없구나.’

‘그러면 혼중은 그만두오리까?’

‘어찌 그만둘 수야 있니. 양(羊)하고 바꾸려무나’라고 하신 일이
있었다니 글썽올시다. 그런 일이 있으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씨로 넉넉히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
더러 아끼는 마음이 나서 그랬다고 하지만, 신은 왕께서 차마 그러
실 수 없어서 그러신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소. 정말이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나라가 비록

작다고 하더라도 내 어찌 소 한 마리쯤 아끼겠소? 부들부들 떨면서 죄 없이 주검터로 끌려가는 그런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양과 바꾸라고 한 것입니다.”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께서 인색하여 그랬다고 하더라도 괴이하게 여기실 것은 없습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과 바꾸셨으니 그들이야 왕의 참뜻을 어찌 알 것입니까?”

왕께서 죄 없이 주검터로 가는 일에 마음을 태우셨다면 왜 소와 양을 구별하셨습니까?”

왕은 웃으면서 “그거 참! 나도 모를 내 마음이구려! 나는 재물이 가까워서 양과 바꾸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나더러 인색하여 그랬다고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그런 것쯤 마음에 꺼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진 이들의 마음씨입니다. 소는 눈으로 보시었고 양은 미처 못 보신 까닭입니다. 어진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 새나 짐승을 대할 적에 그 산 모습을 보고는 그 죽어가는 꼴을 차마 보지 못하며, 그 애끓는 소리를 듣고는 그 고기를 차마 먹지 못한답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찬간과 부엌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왕은 빙그레 웃으면서 “옛 시에 ‘남의 마음을 내 마음에 비추어 미루어 보고 헤아려 보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아마 선생을 두고 이른 말인가 봅니다. 내가 한 노릇이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내가 내 마음을 알 수 없더니, 선생이 말씀하시니 내 마음에도 그럴듯이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씨가 왕노릇하는 데 알맞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께 이렇게 아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백 균의 무게는 넉넉히 들 수 있지만 깃 한 개는 들 수 없는걸. 내 눈으로 아주 잔털은 가려볼 수 있지만 한 차 실어 놓 장작더미는 볼 수 없는걸’이라고 한다면 왕은 정말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될 말이지요.”

“이제 왕의 은혜가 새나 짐승들에게는 미치고도 남으면서 왕의 공이 백성들에게는 씩워지지 않으니 도대체 웬일일까요? 그렇다면 깃 한 개를 못 든다는 것은 힘을 쓰지 않는 까닭이요, 한 차 북더기의 장작을 못 본다는 것은 보려고 하지 않는 까닭이요, 백성들이 사랑을 못 받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는 까닭이니, 그러므로 왕께서 왕노릇을 못 하시는 것은 안 하시는 것이지 못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태산을 옆에 끼고 북해를 뛰어넘는 일을 ‘나는 못한다’고 남더러 말한다면 그야 정말 못 하는 일이지만, 웃어른을 위해서 나뭇가지 한 개쯤 꺾는 일을 ‘나는 못 한다’라고 남더러 말한다면 그야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왕노릇을 안 하시는 것은 태산을 끼고 북해를 뛰어넘는 따위가 아니라, 왕께서 왕노릇을 안 하시는 것은 나뭇가지를 꺾는 따위의 일입니다.

내 집 늙은이를 생각하듯 남의 늙은이도 생각하고 내 집 어린것을 생각하듯 남의 어린것도 생각하면 천하라도 손바닥 위에서 놀리듯 할 수 있습니다. 옛 시에

착하다 본보기를 마누라에게 보이고서
형이나 아우에게도 덩달아 보인다면
어찌 다 태평시절을 못 만들손 있으랴.

이런 구절이 있으니, 이는 그런 마음씨를 남에게도 퍼서 미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은혜를 널리 펼치면 넉넉히 온 천하도 쓸어안을 수 있지만 은혜를 널리 베풀지 못하면 제 처자 하나도 단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훨씬 뛰어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남에게까지 잘 미치도록 한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날 군은(君恩)이 새나 짐승들에게는 미치고도 남으면서 군공(君功)이 백성들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웬일일까요?

달아 보아야만 가볍고 무거운 것을 알고, 재어 보아야만 길고 짧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물건치고는 다 그런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더욱 유난한 것이니 왕께서는 잘 헤아려 보십시오.

대체 왕께서는 무장 병졸을 동원하고 신하들을 위협한 곳으로 몰아넣어 여러 제후들과 원수를 사야만 마음에 쾌하시겠습니까?”

“아니 내 어찌 그런 일에 쾌할 리가 있겠소! 내 큰 소망을 이루어 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왕의 그 큰 소망이란 무엇인지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왕은 웃기만 하고 아무 말이 없다.

“기름지고 달콤한 것이 그래도 입에 부족하신가요? 가볍고 따뜻한 것이 그래도 몸에 부족하신가요? 그러면 아롱아롱 좋은 빛깔이 눈의 만족을 채우기에 부족하신가요? 풍악소리가 귀의 만족을 채우기에 그래도 부족하신가요? 여жат한 무리들을 앞에서 부리기에 그래

도 부족하신가요? 왕 외 여러 신하들은 이런 것쯤이야 다 바쳐드리고 있을 것이니 왕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실 리는 없으시겠지요!”

“아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왕의 큰 소망이란 잘 알 수 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여 진·초 같은 나라의 조공을 받고 중국에 군림하면서 사방 변족들을 회유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소망을 이루시려는 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잡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도 억지스러운 일일까요?”

“억지란 그보다도 더한 억지지요.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란 못 잡아도 후환이야 없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소망을 이루시려 하시면 전심전력을 쏟아 애를 쓰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추나라 사람과 초나라 사람과 전쟁을 한다면 왕은 어느 편이 이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나라 사람이 이길 터이지요.”

“그렇다면 작은 것은 아무래도 큰 것을 적대할 수 없으며, 적은 것은 아무래도 많은 것과 적대할 수 없고 약자는 아무래도 강자와 적대하지 못할 것이니, 이 땅덩이 안에 사방 천리를 가진 자만 아홉이 있는데, 제나라는 통틀어 그의 한간을 차지했으니, 하나를 가지고 여덟을 때려눕히려는 것이 어찌 추나라가 초나라를 적대하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그러시다면 도로 그 근본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왕께서 정책을 세우시되 인정(仁政)을 펴시어 천하의 벼슬아

치들로 하여금 자진해서 왕의 조정에 나서게 하시며, 농부들도 제각기 왕의 영지를 경작하고 싶게 하시며, 장사치들도 다 왕의 저잣거리엔 짐을 푸고 싶게 하시며, 길 가는 무리들도 다 왕의 길거리를 지나고 싶게 하시며, 어디서나 그들의 지도자를 싫어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다 왕께 좇아와서 그들의 원한을 호소하게, 꼭 그렇게만 하신다면 그 누가 이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리석은 탓으로 거기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내 진의를 양찰하시어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제가 비록 못나기는 하였지만 한 번 실제로 노력해 볼까 합니다.”

“항산(恒産)이 없더라도 항심(恒心)을 간직할 수 있기란 오직 선비들만이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반 사람들이야 항산이 없으면 그때문에 항심도 못 가지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항심이 없으면 함부로 하고 고집부리고 간사하고 사치스런 행동을 제멋대로 해 내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죄에 빠지도록 해 놓고 그러고서 그들을 처벌한다면 마치 백성들을 그물코로 낚아 내는 셈이니, 어찌 사리를 아는 어른이 통치의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그물코로 낚아 내는 따위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명철하신 군왕이 국민산업을 통제함에 있어서 언제나 위로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저이들 처자를 길러 낼 수 있게 하여 주며, 풍년이 들면 평생을 배부르도록 하고 흉년이라도 죽음쯤 면하게 하여 주되, 그렇게 하여 놓고 착한 길로 착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까닭에 백성들이 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국민산업을 통제한다는 것이 위로 부모를 섬기기에다 부족하고 아래로 처자를 길러 내기에도 웅색하며, 풍년이라도 평생을

고생하고 흉년이면 죽음을 못 면하니, 이렇게 되면 죽음에서 벗어나 기에도 오히려 부족을 느끼는데 어느 여가에 예의를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한 번 실행하여 보고 싶으시다면 왜 그 근본문제로 돌아오지 않으십니까? 농삿집 둘레에 뿔나무를 심으면 오십 난 노인도 명주옷을 입게 됩니다. 닭·돼지·개 같은 집안 짐승도 철따라 잡고 철따라 깨이면 칠십 난 늙은이도 고기를 먹게 됩니다. 농민들의 눈발같이 때 징용 나오란 일만 없으면 여덟 식구쯤은 먹여 살릴 수 있으리다. 교육기관을 부지런히 정비하여 효제의 대의를 철저히 가르친다면 머리 흰 늙은이가 붓짐을 지고 길거리에서 헤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늙은이가 비단옷에 고기를 먹고 일반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얼어 떨지 않게 되고서도, 그러고도 왕노릇을 못 하는 이는 절대로 없습니다.”

齊宣王³⁰⁾ 問曰齊桓³¹⁾晉文³²⁾之事 可得聞乎 孟子對曰仲尼之徒無道桓文之事者 是以 後世 無傳焉 臣 未之聞也 無以則王乎 曰德 何如則可以王矣 曰保民而王 莫之能禦也 曰若寡人者 可以保民乎哉 曰可 曰何由 知吾 可也 曰臣 聞之胡齋 曰王 坐於堂上 有牽牛而過堂下者 王 見之 曰牛 何之 對曰將以饗鐘³³⁾ 王曰舍之 吾不忍其觶觶若無罪而就死地 對曰然則廢鐘與 曰何可廢也 以羊易之 不識 有諸 曰有之 曰是心 足以王矣 百姓 皆以王爲愛也 臣 固知王之不忍也 王曰然 誠有百姓者 齊國 雖褊小 吾何愛一牛 卽不忍其觶觶若無罪而就死地 故 以羊易之也 曰王無異於百姓之王爲愛也 以小易大 彼惡知之 王若隱其無罪而就死地則牛羊 何擇焉 王 笑曰是誠何心哉 我非愛其財而易之以羊也 宜乎百姓之謂我愛也 曰無傷也 是乃仁術也 見牛 未見羊也 君子之於禽獸也 見其生

30) 제선왕(齊宣王): 성(姓)은 전민(田民). 이름은 벽강(辟疆). 선(宣)은 그의 시호.

31) 제환공(齊桓公): 제(齊)나라 패업(覇業)을 성취(成就)하였으니 때에 관중(管仲)이 그를 도왔다.

32) 진문공(晉文公): 진(晉)나라 패업을 성취하였으니 그도 오패(五覇)의 1인이다.

33) 혼중(饗鐘): 종(鍾)을 새로 만들었을 때 짐승의 피를 뽑아 그 뜸에 칠하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

不忍見其死 聞其聲 不忍食其肉 是以 君子 遠庖廚也 王 說曰詩云他人有心³⁴⁾ 予忖度之 夫子之謂也 夫我乃行之 反而求之 不得吾心 夫子言之於我心 有戚戚焉 此心之所以合於王者 何也 曰有復於王者曰吾力足以舉百鈞³⁵⁾而不足以舉一羽 明足以察秋毫之末而不見輿薪 則王 許之乎 曰否 今 恩足以禽獸而功不至於百姓者 獨何與 然則一羽之不舉 爲不用力焉 輿薪之不見 爲不用明焉 百姓之不見保 爲不用恩焉 故 王之不王 不爲也 非不能也 曰不爲者 與不能者之形 何以異 曰挾太山以超北海 語人曰我不能 是誠不能也 爲長者折枝 語人曰我不能 是 不爲也 非不能也 故 王之不王 非挾太山以超北海之類也 王之不王 是折枝³⁶⁾之類也 老吾老 以及人之老 幼吾幼 以及人之幼 天下 可運於掌 詩云刑于寡妻³⁷⁾ 至于兄弟 以御于家邦 言舉斯心 加諸彼而已 故 推恩 足以保四海 不推恩 無以保妻子 古之人 所以大過人者 無他焉 善推其所爲而已矣 今 恩足以禽獸而功不至於百姓者 獨何與 權然後 知輕重 度然後 知長短 物皆然 心爲甚 王請度之 抑王 興甲兵 危士臣 構怨於諸侯然後 快於心與 王曰否 吾何快於是 將以求吾所大欲也 曰王之所大欲 可得聞與 王 笑而不言 曰爲肥甘 不足於口與 輕煖 不足於體與 抑爲采色 不足視於目與 聲音 不足聽於耳與 便嬖不足使令於前與 王之諸臣 皆足以供之 而王 豈爲是哉 曰否 吾不爲是也 曰然則王之所大欲 可知已 欲辟土地 朝秦楚 莅中國而撫四夷也 以若所爲 求若所欲 猶緣木而求魚也 王曰若是其甚與 曰殆有甚焉 緣木求魚³⁸⁾ 雖不得魚 無後災 以若所爲 求若所欲 盡心力而爲之 後必有災 曰可得聞與 曰鄒人 與楚人戰則王 以爲孰勝 曰楚人 勝 曰然則小固不可以敵大 寡固不可以敵衆 弱固不可以敵強 海內之地方千里者九 齊集有其一 以一服八 何以異於鄒敵楚哉 蓋亦反其本矣 今王 發政施仁 使天下仕者 皆欲立於王之朝 耕者 皆欲耕於王之野 商賈 皆欲藏於王之市 行旅 皆欲出於王之塗 天下之欲疾其君者皆欲赴愬於王 其若是 孰能禦之 王曰吾惛 不能進於是矣 願夫子 輔吾志 明以教我 我雖不敏 請嘗試之 曰無恒產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則無恒產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及陷於罪然後 從而刑之 是 罔³⁹⁾民也 焉有仁人 在位 罔

34) 타인유심(他人有心): 『시경(詩經)』, 「소아(小雅)」, ‘교언(巧言)’편.

35) 균(鈞): 삼십근(三十斤). 백근(百鈞)이면 삼천근(三千斤).

36) 절지(折枝): 지(枝)를 재(肢)로 하면 장자(長者)를 위한 안마(按摩)가 되고 지(枝)를 그대로 보면 장자(長者)를 위하여 나뭇가지를 꺾어드린다는 뜻이 된다. 양설(兩設)을 그대로 둔다.

37) 형우과처(刑于寡妻): 「대아(大雅)」, 「사제(思齊)」편.

38) [참조] 연목구어(緣木求魚)의 목(木)을 복수로 하여 삼림 숲으로 푸는 설도 있다.

民 而可爲也 是故 明君 制民之產 必使仰足以事父母 俯足以畜妻子 樂歲 終身飽 凶年 免於死亡 然後 驅而之善故 民之從之也輕 今也 制民產 仰不足以事父母 俯不足以畜妻子 樂歲 終身苦 凶年 不免於死亡 此惟救死而恐不贍 奚暇 治禮義哉 王欲行之則盍反其本矣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鷄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百畝之田 勿奪其時 八口之家可以無飢矣 謹庠序之教 申之以孝悌之義 頽白者不負戴於道路矣 老者衣帛食肉 黎民 不飢不寒 然而不王者未之有也⁴⁰⁾

39) 망(罔): 그물이니 속여서 짐승을 잡는 도구다. 그러므로 속인다는 뜻.

40) [평설]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 본유의 불인지심(不忍之心)에 근거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특히 그 점이 강조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양혜왕 하

장포가 맹자를 만나서 하는 말이 “내가 왕을 만나 뵈었더니, 왕은 나더러 자기는 음악을 좋아하노라고 하십데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대답도 못 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노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왕이 것처럼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제나라 통치쯤이야 문제가 아닐걸!”

며칠 후에 왕을 만나서 “왕께서 언젠가 장씨(莊氏)더러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다니 사실인가요?”

왕은 얼굴빛을 달리하며 “제가 선왕의 아악(雅樂)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저 향간에 떠도는 속된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왕께서 이처럼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제나라 통치쯤이야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현대의 음악도 고대의 음악과 같은 것입니다.”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는지!”

“혼자서 음악을 즐기는 것과 남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즐거울까요?”

“남들과 함께함만 같지 못하지요.”

“소수의 사람과 더불어 음악을 즐기는 것과 다수의 사람과 더불어 음악을 즐기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즐거울까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함만 같지 못하지요.”

“그러면 신이 음악에 대하여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여기서 북과 장구를 치신다고 합시다. 백성들이 왕의 징·북 소리와 피리·젓대 소리를 듣고 모두 골치를 앓고 상을 찌푸리면서 서로 중얼중얼하기를 ‘우리 왕은 북·장구도 좋아하시더라. 왜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까! 아버와 아들은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형제 처자는 갈가리 흩어지게 되다니.’ 또 이제 왕께서 사냥을 나오셨다고 합시다. 백성들이 왕의 마차쇠를 들으며 깃발이 으리으리한 것을 보고 모두들 골치를 앓고 상을 찌푸리면서 서로 중얼중얼하기를 ‘우리 왕은 사냥도 좋아하시더라. 왜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까! 아버와 아들은 만나지 못하고 형제 처자는 갈가리 흩어지게 되다니.’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는 다름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즐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께서 여기서 북과 장구를 치신다고 합시다. 백성들이 왕의 징·북 소리와 젓대 소리를 듣고 모두들 병실병실 좋아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우리 왕께서는 아마도 무병하신 거야. 어찌면 이렇게도 북·장구를 잘 치실까!’ 또 이제 왕께서 여기에 사냥을 나오셨다고 합시다. 백성들이 왕의 마차소리를 들으며 깃발이 으리으리한 것을 보고 모두들 병실병실 좋아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우리 왕께서는 아마도 무병하신 거야. 어찌면 이렇게도 사냥을 잘하실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는 다름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즐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께서도 백성들과 함께 즐기신다면 정말

왕이 되실 것입니다.”

莊暴¹⁾見孟子曰 暴見於王 王語暴以好樂 暴未有以對也曰好樂 何如 孟子曰 王之好樂 甚則齊國 其庶幾乎 他日見於王曰 王嘗語莊子以好樂 有諸 王變乎色曰 寡人 非能好先王之樂²⁾也 直好世俗之樂³⁾耳曰王之好樂 甚則齊其庶幾乎 今之樂 由古之樂也 曰可得聞與 曰獨樂樂⁴⁾ 與人樂樂孰樂 曰不若與人 曰與少樂樂 與衆樂樂孰樂 曰不若與衆臣請爲王言樂 今王鼓樂於此 百姓聞王鐘鼓之聲 管籥之音 舉疾首蹙頰而相告 曰吾王之好鼓樂 夫何使我至於此極也 父子不相見 兄弟妻子離散 今王田獵於此 百姓聞王車馬之音 見羽旄之美 舉疾首蹙頰而相告 曰吾王之好田獵 夫何使我至於此極也 父子不相見 兄弟妻子離散 此無他 不與民同樂⁵⁾也 今王鼓樂於此 百姓聞王鐘鼓之聲 管籥之音 舉欣欣然 有喜色而相告曰 吾王庶幾無疾病與 何以能鼓樂也 今王田獵於此 百姓聞王車馬之音 見羽旄之美 舉欣欣然有喜色而相告曰 吾王庶幾 無疾病與 何以能田獵也 此無他 與民同樂也今王與百姓同樂則王矣⁶⁾

제선왕이 묻기를 “문왕의 사냥터는 사방이 70리라 하는데 그랬던
가요?”

“옛 기록에 있습니다.”

“그렇게도 컸던가요?”

“백성들은 그도 작다고 생각하였답니다.”

“제가 가진 사냥터는 사방이 40리인데 백성들은 그도 오히려 크
다고 하니 웬일입니까?”

1) 장포(莊暴): 제(齊)나라 신하(臣下).

2) 선왕지악(先王之樂): 정악(正樂) 곧 아악(雅樂).

3) 세속지악(世俗之樂): 유행가(流行歌)의 류(類).

4) 호악·악락(好樂·樂樂): 이 낙(樂)을 열락(悅樂)·환락(歡樂)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를 취하지 않는다.

5) 여민동락(與民同樂): 인정(仁政)의 극치요, 왕도의 기초가 된다.

6) 왕의(王矣): 왕도의 실천자로서의 왕(王)이 된다.

“문왕의 사냥터는 사방이 70리이지만 초군·목동도 드나들며 꿩잡이·토끼잡이도 드나들어 백성들과 함께 쓰셨으니, 백성들이 작다고 생각한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국경선까지 와서 이 나라의 엄중한 국법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뒤에야 겨우 들어왔는데, 그때 듣기에는 성 밖 어느 목안에 사방 40리 되는 사냥터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슴을 죽인 자는 살인죄와 같이 다스린다니 이는 사방 40리 되는 함정을 나라 안에다가 파놓은 셈이라 백성들이 크다고 생각함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齊宣王問曰 文王之囿⁷⁾ 方七十里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 曰若是其大乎 曰民猶以爲小也 曰寡人之囿 方四十里 民猶以爲大何也 曰文王之囿 方七十里 芻蕘⁸⁾者往焉 雉兔者往焉 與民同之 民以爲小不亦宜乎 臣始至於境 問國之大禁⁹⁾然後 敢入 臣聞郊關¹⁰⁾之內 有囿方四十里 殺其麋鹿者 如殺人之罪 則是方四十里 爲阱於國中 民以爲大 不亦宜乎

제선왕이 묻기를 “이웃 나라와 사귀는 데도 방법이 있습니까?”

“있지요. 인자(仁者)라야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탕왕이 갈나라를 섬겼고, 문왕이 곤이를 섬겼습니다. 지자(智者)라야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왕이 훈육을 섬겼고 구천이 오나라를 섬겼습니다.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의 뜻을 즐기는 것이요,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의 뜻을 두려워하는

7) 유(囿): 원(苑)의 둘레에 담을 친 것.

8) 추요(芻蕘): 추(芻)는 풀이요, 요(蕘)는 나무인데 합하여 나무꾼의 뜻.

9) 대금(大禁): 국법의 금지사항.

10) 교관(郊關): 교(郊)는 교외요 관(關)은 관문이다.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즐기면 천하를 차지할 것이요, 하늘의 뜻을 두려워하면 제 나라를 보존할 것입니다. 옛 시에

두려워하라 하늘의 무서움을!
그러면 자신을 보존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저는 무용(武勇)을 좋아합니다.”

“왕께서는 좀스런 무용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대체 칼자루를 어루만지며 눈살을 흘려가면서 ‘제 놈이 어찌 나에게 덤빌 텐가!’ 하는 따위는 즐장부의 용기라, 한 놈밖에 감당 못 하는 것이니 왕께서는 좀 더 크게 나오십시오. 옛 시에

왕이 한번 얼굴을 붉혀 꾸짖자
백만 군졸이 정연히 늘어서다.
떼를 지어 침략하는 무리의
그들의 길목을 막아 버리니
주나라의 복지는 날로 두터워가고
천하의 기대에도 어긋남이 없어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는 문왕의 용기입니다. 문왕이 한 번 화를 내시매 천하의 백성들은 안정을 얻었습니다.

『서경』에

하늘이 백성을 내실 적에 그중에서 그들의 군왕도 마련하고 그

들의 법관도 마련하여 ‘네 상제를 돕는지라, 사방 백성들의 괴임을 받게 하노라’ 하셨으니, 죄가 있건 죄가 없건 다 내게 달린 것이니, 그 뜻을 어길 수 있단 말이냐!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한 사람일지라도 천하를 휘젓고 다니는 놈이 있으면 무왕이 이를 자기의 수치로 여겼으니, 이는 무왕의 용기입니다. 무왕이 또한 한 번 화를 내시매 천하의 백성들은 안정을 얻었습니다.

이제 왕께서 또한 한 번 화를 내시어 천하의 백성들이 안정을 얻게 된다면, 백성들은 오히려 왕께서 무용을 좋아하지 않을까 저어할 것입니다.”

齊宣王問曰 交隣國有道乎 孟子對曰 有惟仁者 爲能以大事小 是故湯事葛¹¹⁾ 文王事昆夷¹²⁾ 惟智者 爲能以小事大 故大王¹³⁾事獯鬻¹⁴⁾ 句踐¹⁵⁾事吳¹⁶⁾以大事小者 樂天者也 以小事大者 畏天¹⁷⁾者也 樂天者保天下 畏天者保其國詩云畏天之威¹⁸⁾ 于時保之 王曰 大哉言矣 寡人有疾 寡人好勇 對曰王請無好小勇 夫撫劍疾視曰彼惡敢當我哉 此匹夫之勇 敵一人者也 王請大之 詩云王赫斯怒¹⁹⁾ 爰整其旅 以遏徂莒 以篤周祜 以對于天

11) 갈(葛): 은나라 탕왕이 호(亳) 땅에 있을 때 그 이웃 갈백(葛伯)이란 학민(虐民)의 군주였었다.

12) 곤이(昆夷): 서쪽 만족(蠻族).

13) 대왕(大王): 문왕의 조부 주나라를 세운 후에 추존한 칭호.

14) 훈족(獯鬻): 북쪽 오랑캐. 아마도 흉노족인 듯.

15) 구천(句踐): 월(越)나라 왕.

16) 오(吳): 시방의 상해 부근. 월(越)의 이웃. 그때 군왕은 부차(夫差).

17) 인자락천·지자외천(仁者樂天·智者畏天): 국가를 보존하고 인민(人民)을 안정(安定)케 함은 왕자(王者)의 책임이다. 인민은 통치자의 도구가 아니다. 그러므로 왕자(王者)는 이대사소(以大事小)하면서 폭군(暴君)의 자멸(自滅)을 대기(待機)하는 것이니 이것이 인자락천(仁者樂天)이요, 왕자(王者)는 이소사대(以小事大)하면서 폭군(暴君)의 침략에서 자체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니 이것이 지자외천(智者畏天)이다.

18) 외천지위(畏天之威): 「주송(周頌)」, ‘아장(我將)’편.

19) 왕赫스노(王赫斯怒): 「대야(大雅)」, ‘황의(皇矣)’편.

下 此文王之勇也 文王一怒而安天下之民 書曰 天降下民²⁰⁾ 作之君作之師 惟曰其助上帝 寵之四方 有罪無罪 惟我在 天下曷敢有越厥志 一人衡行於天下 武王恥之 此武王之勇也 而武王亦一怒而安天下之民 今王亦一怒而安天下之民 民惟恐王之不好勇也

제선왕이 맹자를 설궁에서 만났는데, 그때 왕은 “현인도 이러한 즐거움이 있으신지?”

“있고 말고요. 사람들은 이러한 즐거움을 못 가지면 도리어 윗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못 가지게 된다고 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백성들의 윗사람이 되어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즐기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백성의 즐거움을 즐겁게 하여 주면 백성들도 또한 그의 즐거움을 즐겨하여 드리고, 백성의 근심을 근심하여 주면 백성들도 또한 그의 근심을 근심하여 줍니다. 천하 사람과 함께 즐기며 천하 사람과 함께 근심하되 그런데도 왕노릇을 못 할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언젠가 제나라 경공이 안자에게 묻기를 ‘나는 전부산·조무산을 구경하고 바다를 따라 남으로 빠져 낭야로 내려갈까 하는데, 내 자신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옛 임금들의 노심과 견줄 수 있게 될까요?’

한즉 안자는 ‘정말 좋은 질문을 하십니다. 천자가 제후에게 가는 것을 순수라 하는데 순수란 지키고 있는 곳을 순시하는 것이요, 제후가 천자를 뵈옵는 것을 술직이라 하는데, 술직이란 제 직책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나 일거리 아님이 없으니, 봄에는 밭갈이를 돌보아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태 주며, 가을에는 추수의 형편

20) 천강하민(天降下民): 「주서(周書)」, ‘태서(泰誓)’편.

을 살펴보아 그들의 모자라는 힘을 도와줍니다. 하나라 속담에 이르기를

우리 왕이 안 노시는데 내 어찌 설 수 있나. 우리 왕이 틈 없으신데 내 어찌 도움을 받을까. 한 번 놀고 한 번 틈을 내시는데도 다 재후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 군대를 출동시켜 국민의 식량을 소비하며, 배고파도 먹을 것이 없고 고되어도 설 틈이 없으니 흘깃흘깃 쳐다보면서 중얼중얼 옥지거리에 백성들은 더욱더 원망만 하게 됩니다. 천명을 어기어 백성들을 확대하고 음식 치닥거리가 장마철 물굽이 흐르듯 하니 유연황망(流連荒亡)이 제후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였는데, 내려 흐르기만 하지 돌아올 줄 모르는 것을 유(流)라 하고, 치올라 썰 줄만 알지 내려올 줄 모르는 것을 연(連)이라 하고, 짐승 사냥에 냇을 잃고 덤비기만 하는 것을 황(荒)이라 하고, 술독 속에 빠져 헤어날 줄 모르는 것을 망(亡)이라 하는 것입니다. 옛 임금들에게는 이러한 유연의 형락과 황망의 행동이 없었으니 왕께서 하시기에 달렸습니다'라고 하였더니, 이 말을 들은 경공은 기쁨에 넘쳐 국민들에게 널리 훈계를 내리시고, 몸소 들 밖으로 나아가 밤을 새워가면서 식량을 풀어 백성들의 곤궁을 덜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사(大師)를 불러 '그대는 나를 위하여 군신들이 즐길 수 있는 노래를 지으라' 하시니 치소·각소란 것이 곧 그것입니다.

그 시에 '우리 임금 잘되라고 말리는데 무슨 허물 있으랴' 하였으니, 임금이 잘되라고 잘못을 말리는 것은 그들의 임금을 좋아하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齊宣王 見孟子於雪宮²¹⁾ 王曰 賢者亦有此樂乎 孟子對曰 有人不得則非其上矣 不得而非其上者非也 爲民上而不與民同樂者 亦非也 樂民之樂者 民亦樂其樂 憂民之憂者 民亦憂其憂 樂以天下 憂以天下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昔者 齊景公²²⁾ 問於晏子²³⁾曰 吾欲觀於轉輔²⁴⁾朝舞²⁵⁾ 遵海而南 放于琅邪²⁶⁾ 吾何修而可以比於先王觀也 晏子對曰 善哉問也 天子適諸侯曰 巡狩 巡狩者巡所守也 諸侯朝於天子曰 述職 述職者述所職也 無非事者 春省耕而補不足 秋省斂而助不給 夏諺曰 吾王不遊 吾何以休 吾王不豫 吾何以助 一遊一豫 爲諸侯度 今也不然 師行而糧食 飢者弗食 勞者弗息 賄賂胥讒 民乃作慝 方命虐民 飲食若流 流連荒亡 爲諸侯憂 從流下而忘反謂之流 從流上而忘反謂之連 從獸無厭謂之荒 樂酒無厭謂之亡 先王無流連之樂 荒亡之行 惟君所行也 景公說 大戒於國 出舍於郊 於是始興發 補不足 召太師²⁷⁾曰 爲我作君臣相說之樂 蓋徵招角招²⁸⁾是也 其詩曰 畜君何尤 畜君者好君也²⁹⁾

제선왕이 문기를 “남들은 나더러 명당을 헐어 버리라 하는데 헐으리까? 그만두리까?”

“명당이란 왕자(王者)의 집입니다. 왕께서 왕정(王政)을 시험하고 싶으시거든 헐지 마십시오.”

“왕정에 대하여 좀 들려주실 수 없으는지!”

21) 설궁(雪宮): 왕(王)의 리궁(離宮). 재청주림치현동북육리허(在靑州臨淄縣東北六里許)

22) 제경공(齊景公): 선왕(宣王)의 10대조. 이름 자구(杵臼).

23) 안자(晏子): 제경공(齊景公)의 신하. 이름은 영(嬰). 자(字)는 평중(平仲).

24) 전부산(轉輔山): 현(現) 지부산(之罘山).

25) 조무산(朝舞山): 현(現) 성산(成山).

26) 낭야(琅邪): 제(齊)나라 동남단에 있는 고을 이름.

27) 대사(大師): 음악을 맡은 관리.

28) 치초, 각초(徵招, 角招): 음악에는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의 5음이 있는데 치음(徵音)은 영사(營事), 각음(角音)은 백성이란 뜻이 있고, 초(招)는 순(舜)의 음악인 소(韶)의 악장(樂章)이니, 이는 모두 백성을 위한 음악이란 뜻이다.

29) [평설] 구절(句節)에 있어서 하연왈(夏諺曰) 이후 1. 오하이조(吾何以助) 2. 위제후탁(爲諸侯度) 3. 위제후우(爲諸侯憂)의 삼설(三說)이 있는데 유연황망(流連荒亡)은 하연(夏諺)의 글이므로 다산은 제3설을 취하고 있다.

“옛날에 문왕이 기(岐)땅을 다스릴 때 농민에게는 구일제(九一制)를 쓰시고 벼슬아치들에게는 세습제를 쓰시고, 길목이나 저잣거리에 서는 왈패들을 단속하되 세금은 받지 않았고, 웅덩이에 고기잡이도 금하지 않았으며, 죄인의 처자라도 종으로 삼지 않았습시다. 마누라 없는 늙은이를 환(鰥)이라 하고, 이녁이 없는 할멈을 과(寡)라 하고, 자식 없는 늙은 아버를 독(獨)이라 하고 어려서 아버지 잃은 아이를 고(孤)라 하는데, 이 넷은 천하에 호소할 곳 없는 불쌍한 무리들입니다. 문왕은 정책을 세워 인정을 펴실 때 무엇보다도 먼저 이 네 부류들의 일을 걱정하여 주었으니, 옛 시에

좋다 뿐인가 넉넉한 이들이야
시들고 외로운 무리들이 불쌍도 하여!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를 두고 이른 말입니다.”

“웁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왕께서 만일 이를 좋게 생각하시면 왜 실천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제게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저는 재물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공류는 재물을 좋아하였는데, 옛 시에

노적이라 창고라 쌓인 곡식들
그중에도 볏은 쌀은 전대나 푸대 속에
빛나는 정전(征戰) 때 쓰려는 것입니다.

화살 걸어 썩이다 간(干)·과(戈)·척(戚) 양(揚)
이러고서 나서는 출진의 장행(壯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아 있는 사람에게는 노적쌀이 있고 떠나는 사람에게는 푸대쌀이 있으니, 그렇게 되고서야 정말 출진의 장행을 떠나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 만일 재물을 좋아하시더라도 백성들과 함께하시면 왕노릇쯤이야 문제가 아닙니다.”

“제게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저는 계집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대왕은 계집을 좋아하시어 그의 부인을 못내 귀여워하시었습니다. 옛 시에

고공단보 오시다. 아침부터 말을 달려.
서수 가를 스쳐서 기산 밑에 이르시다.
거기에 강성녀 있거늘 데려다 함께 살자 드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는 집안에서 공방에 우는 여인이 없었고, 밖으로는 짝 없는 홀아비가 없었으니, 왕께서 만일 계집을 좋아하시더라도 백성들과 함께하시면 왕노릇쯤이야 문제가 아닙니다.”

齊宣王問曰 人皆謂我毀明堂³⁰⁾ 毀諸已乎孟子對曰 夫明堂者 王者之堂也 王欲行王政則 勿毀之矣 王曰 王政可得聞與 對曰 昔者文王之治岐也 耕者九³¹⁾一 仕者世祿³²⁾ 關市 譏而不征 澤梁無禁 罪人不孥 老而無妻曰鰥 老而無夫曰寡 老而無子曰獨 幼而無父曰孤 此四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 文王發政施仁 必先斯四者 詩云 哿矣富人³³⁾ 哀此殍獨 王曰 善哉

30) 명당(明堂): 태산의 동북쪽에 있는데 주나라 천자가 동순(東巡)할 때 제후의 조회(朝會)를 받던 곳이다. 제(齊)나라 영지 안에 있다.

31) 구(九): 정전법에 의한 징세(徵稅).

32) 세록(世祿): 세습제.

33) 가의부인(哿矣富人): 「소아(小雅)」, 정월지편(正月之篇).

言乎 曰王如善之則何爲不行 王曰 寡人有疾 寡人好貨 對曰 昔者公劉³⁴⁾ 好貨 詩云乃積乃倉³⁵⁾ 乃裹餼糧 于橐于囊 思戢用光 弓矢斯張 干戈戚³⁶⁾揚³⁷⁾ 爰方啓行 故居者有積倉 行者有裹糧也然後 可以爰方啓行 王如好貨 與百姓同之 於王何有 王曰 寡人有疾 寡人好色 對曰 昔者大王好色 愛厥妃 詩云 古公³⁸⁾亶父³⁹⁾ 來朝走馬 率西水⁴⁰⁾滸 至于岐⁴¹⁾下 爰及姜女⁴²⁾ 聿來胥宇 當是時也 內無怨女 外無曠夫 王如好色 與百姓同之 於王何有

맹자가 제선왕더러 “왕의 신하 중에 만일 제 처자를 그의 친구에게 맡기고 초나라로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본즉 그의 처자들을 추위에 얼리고 굶주리게 하여 놓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자와는 절교할 것입니다.”

“재판관이 그들의 부하를 통솔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는 파면입니다.”

“나라 구석이 잘 통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은 곁에 있는 사람 쪽을 돌아보면서 못 들은 척하고 탄말을 꺼내었다.

孟子謂齊宣王曰 王之臣 有託其妻子於其友而之楚遊者 比其反也 則凍餒其妻子 則如之何 王曰 棄之曰士師⁴³⁾不能治士 則如之何 王曰已之 曰四

34) 공류(公劉): 주나라 선조인 후직(后稷)의 증손(曾孫).

35) 내적내창(乃積乃倉): 「대아(大雅)」, 공유지편(公劉之篇).

36) 척(戚): 부(斧).

37) 양(揚): 월(鉞).

38) 시운고공(詩云古公): 「대아(大雅)」, ‘면(緜)’편.

39) 고공단보(古公亶父): 고공(古公)은 대왕(大王)의 호(號). 단보(亶父)는 그의 이름.

40) 서수(西水): 현(現) 위수(渭水).

41) 기(岐): 주나라 옛 터.

42) 강성녀(姜姓女): 대왕(大王)의 왕비인 태강(太姜).

43) 사사(士師): 옥사(獄事) 담당관.

境之內不治 則如之何 王顧左右而言他

맹자가 제신왕을 만나서 “소위 오래된 나라란 큰 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래 내려오는 신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친밀한 신하가 없습니다. 어제 채용한 사람도 오늘 가보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던데요.”

“어떻게 하여야 미리 그들의 무능한 것을 알고 쓰지 않을 재주는 없을까요?”

“임금이 어진 사람을 뽑아 쓰는데는 어쩔 수 없어서 쓰는 것같이 하여야 합니다. 지체 낮은 사람을 높은 데로 올려 세우고, 먼 남을 친척의 위에 앉히는 것이니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들 ‘어진 사람이올시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여러 대부들이 모두들 ‘어진 사람이올시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들 ‘어진 사람이올시다’ 하거든 그때 비로소 잘 조사하여 그가 참으로 어진 사람인 것을 확인한 연후에 채용하시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들 ‘안 됩니다’ 하더라도 듣지 마십시오.

여러 대부들이 모두들 ‘안 됩니다’ 하더라도 듣지 마십시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들 ‘안 됩니다’ 하거든 그때 비로소 잘 조사하여 그가 안 된다는 이유를 확인한 연후에 그를 버리시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들

‘죽여야 합니다’ 하더라도 듣지 마십시오. 여러 대부들이 모두들 ‘죽여야 합니다’ 하더라도 듣지 마십시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들 ‘죽여야 합니다’ 하거든 그때 비로소 잘

조사하여 그를 죽여야 할 이유를 확인한 연후에 죽이십시오.

그러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를 죽인 것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비로소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孟子見齊宣王曰 所謂故國⁴⁴⁾者 非謂有喬木之謂也 有世臣⁴⁵⁾之謂也 王無親臣矣 昔者所進 今日不知其亡也王曰 吾何以識其不才而舍之 曰國君進賢 如不得已 將使卑踰尊 疏踰戚 可不慎與 左右皆曰賢 未可也 諸大夫皆曰賢未可也 國人皆曰 賢然後 察之 見賢焉然後用之 左右皆曰 不可勿聽 諸大夫皆曰 不可勿聽 國人皆曰 不可然後察之 見不可焉然後去之 左右皆曰 可殺勿聽 諸大夫皆曰 可殺勿聽 國人皆曰 可殺然後察之 見可殺焉然後殺之 故曰國人殺之也如此然後 可以爲民父母⁴⁶⁾

제선왕이 묻기를 “탕왕이 걸왕을 내쫓고 무왕이 주왕을 정벌하셨다니 사실인가요?”

“옛 기록에 있습니다.”

“신하로서 그의 주군을 죽였는데 그래도 옳을까요?”

“인(仁)을 깨뜨린 자를 적(賊)이라 하고, 의(義)를 깨뜨린 자를 잔(殘)이라 하는데, 잔적(殘賊)을 일삼는 자는 한 놈의 알패라고 부릅니다. 한 놈의 알패 주(紂)를 죽였다고 들었지 그의 주군을 죽였다고는 듣지 않았습니다.”

齊宣王問曰 湯放桀⁴⁷⁾ 武王伐紂⁴⁸⁾ 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 曰臣弑其

44) 고국(故國):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

45) 세신(世臣): 누대(累代) 내려오는 신하.

46) [평설] 좌우(左右) 근신(近臣)의 의사보다도 국민(國人)의 의사를 존중한 것은 맹자의 민본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위민부모(爲民父母)로서의 왕자(王者)는 곧 목민자(牧民慈)의 근거가 되는 자라 할 수 있다.

47) 걸(桀): 하나라를 망친 최후의 폭군.

君可乎 曰賊仁者謂之賊 賊義者謂之殘 殘賊之人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⁴⁹⁾

맹자가 제선왕을 만나서 “큰 집을 짓자면 반드시 목수를 불러 큰 토막을 구하여 오도록 하고 목수가 큰 토막을 얻어 오면 왕께서는 만족하게 여겨 그 사람은 제 소임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목공장이가 그 토막을 조그맣게 깎아 버리면 왕께서는 그놈은 제 소임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라 하시며 화를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것은 그가 커서 그것을 써먹자는 것인데 왕께서는 ‘내가 배운 것은 저리 치어 놓고 나 하라는 대로 하라’ 하시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제 여기에 거친 옥이 있다고 합시다. 만일(萬鎰)짜리라 하더라도 반드시 옥 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갈고 다듬게 하실 텐데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대하여서만 ‘내가 배운 것은 저리 치어 놓고 나 하라는 대로 하라’ 하시면 옥 가는 사람에게 옥 다듬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孟子見齊宣王曰 爲巨室則 必使工師求大木 工師得大木 則王喜以爲能勝其任也 匠人斲而小之 則王怒以爲不勝其任矣 夫人幼而學之 壯而欲行之 王曰 姑舍女所學而從我則何如 今有璞玉於此 雖萬鎰⁵⁰⁾ 必使玉人彫琢之 至於治國家 則曰姑舍女所學 而從我 則何以異於教玉人彫琢玉哉

제나라 사람들이 연나라를 쳐서 이겼다. 선왕이 묻기를 “어느 사

48) 주(紂): 은나라를 망친 최후의 폭군.

49) [평설] 멸망 직전에 있어서는 겹(桀)·주(紂)는 다 같이 천자의 위(位)에 있었다. 그러므로 제선왕의 신사군(臣弑君)의 논리는 성립이 된다. 그러나 맹자는 인의(仁義)를 몰각한 자는 일부(一夫) 또는 독부(獨夫)라 하였고 그의 천자의 위(位)는 허위(虛位)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여기에 맹자사상에 있어서의 역성혁명의 근거가 있는 것이다.

50) 일(鎰): 이십사량중(二十四兩重). 만일(萬鎰)이면 이십사만량중(二十四萬兩重).

람은 나더러 차지하지 말라 하고, 어느 사람은 나더러 차지하라 합니다. 만승의 나라가 만승의 나라를 두 달도 못 된 날짜로 정벌하였으니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지하지 않으면 하늘의 재앙이 있고야 말 것이니 차지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차지하는데 연나라 백성들이 좋아하거든 차지하십시오. 옛사람에 그렇게 한 이가 있으니 그는 무왕이십니다. 차지하는데 연나라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거든 차지하지 마십시오. 옛사람에 그렇게 한 이가 있으니 그는 문왕이십니다.

만승의 나라로 만승의 나라를 정벌할 제 밥바구니와 물병을 들어 메고 왕의 군대를 맞이하여 준 것은 어찌 다른 뜻이 있어서였으리까? 물불 같은 재화를 피하자는 데에서 그런 것이니 물난리가 더욱 깊어 가고 불꽃이 더욱 뜨거워지면 운명이란 다시 거꾸로 돌아 버리는 것입니다.”

齊人伐燕⁵¹⁾勝之 宣王問曰 或謂寡人勿取 或謂寡人取之 以萬乘之國伐萬乘之國 五旬而舉之 人力不至於此 不取 必有天殃 取之何如 孟子曰 取之而燕民 悅則取之 古之人 有行之者 武王是也⁵²⁾ 取之而燕民 不悅則勿取 古之人 有行之者 文王是也⁵³⁾ 以萬乘之國 伐萬乘之國 簞食壺漿 以迎王師 豈有他哉 避水火也 如水益深 如火益熱 亦運而已矣⁵⁴⁾

51) 연(燕): 전국시대 칠웅(七雄)의 일(-). 지방 북경의 동북지방이다. [평설] 혹은 제민왕(齊湣王) 때라 하기도 하고 혹은 제선왕 때라 하기도 하나 맹자는 후자의 설을 취한 것으로 보아 맹자의 견해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

52) [평설] “무왕시어(武王是也)”는 무왕벌주(武王伐紂) 때 은나라 백성들이 좋아한 사실을 의미한다.

53) [평설] “문왕시어(文王是也)”는 아직도 은주(殷紂)의 역성(易姓)을 좋아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의미한다.

54) [평설] 어디까지나 역성(易姓)의 근거는 민심 속에 깃들어 있음을 가리킨 말이다.

제나라 사람들이 연나라를 정벌한 후 이를 차지하니 여러 제후들은 연나라를 구원하려고 의논들을 한다. 이에 선왕은 “제후들이 대부분 나를 치려고 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신은 70리로 천하를 정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탕왕이 곧 그런 분입니다. 천 리를 가지고 남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옛 글에

탕왕이 한 번 정벌하자 하실 때 갈나라로부터 시작하셨다. 온 천하가 다 그를 믿고 동쪽을 향하여 진군하면 서쪽 무리들이 원망하고 남쪽을 향하여 진군하면 북쪽 무리들이 원망하며 ‘왜 우리들만 뒤로 미루시나?’

이렇게 말했다니 민중들의 기대란 긴 가뭄에 구름 피어오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 저자로 모여드는 무리도 끊이지 않고 밭갈이 군도 한결같이 일을 하거늘, 그들의 폭군을 죽여 없애고 그의 백성들의 분을 풀어 주니, 알맞은 비가 내린 듯하므로 민중들은 여간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옛 글에도

‘우리 임금님 기다렸더니 임금님 오셨구려. 이제는 살았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연나라는 그들의 백성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왕께서는 나아가 정벌하셨으니, 백성들은 인제 우리들을 물불 같은 재난 속에서 건져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밥바구니와 물병을 들고 군대를 환영했던 것인데, 만일 그들의 부형을 죽이고 그들의 자제들을 묶어 가며 그들의 종묘를 헐고 그들의 귀중한 제기(祭器)를 빼앗아 간다면 어떻게 그 일을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가 그야 제나라의

강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게다가 또 영토를 곱절이나 넓히고 그러고도 인정(仁政)을 베풀지 않는다면 이는 천하의 병력을 동원시키는 셈이 됩니다.

왕께서는 속히 포고령을 내리사, 늙은이와 어린것들은 돌려보내 시고, 귀중한 제기의 반입도 중지시키고, 연나라 백성들과 협의하여 그들의 임금을 마련하여 준 뒤에 철퇴하신다면 동란의 미연방지도 어찌면 가능할까 합니다.”

齊人伐燕取之 諸侯將謀救燕 宣王曰諸侯多謀伐寡人者 何以待之 孟子對曰 臣聞七十里爲政於天下者 湯是也 未聞以千里畏人者也 書曰 湯一征⁵⁵⁾ 自葛始 天下信之 東面而征 西夷怨 南面而征 北狄怨 曰奚爲後我 民望之 若大旱之望雲霓⁵⁶⁾也 歸市者不止 耕者不變 誅其君而吊其民 若時雨降 民大悅 書曰 侯我后⁵⁷⁾ 後來其蘇 今燕虐其民 王往而征之 民以爲將拯己於水火之中也 簞食壺漿 以迎王師 若殺其父兄 係累⁵⁸⁾其子弟 毀其宗廟 遷其重器⁵⁹⁾ 如之何其可也 天下固畏齊之彊也 今又倍地而不行仁政 是動天下之兵也 王速出令 反其旄倪⁶⁰⁾ 止其重器 謀於燕衆 置君而後 去之 則猶可及止也⁶¹⁾

추나라와 노나라 사이에 사변이 터졌다. 목공이 묻기를 “우리 군대의 장교로서 전사한 자가 33인이나 되는데, 백성들은 한 놈도 그

55) 서왕탕일정(書曰湯一征): 『서경(書經)』, 「중혜지고(仲虺之誥)」.

56) 대한지망운예(大旱之望雲霓): 왕자(王者)를 기다리는 민중의 애틋한 모습의 비유.

57) 서왕혜아후(書曰侯我后): 상동(上同).

58) 계루(係累): 묶어서 포로로 잡아간다.

59) 중기(重器): 중요한 보기(寶器).

60) 모예(旄倪): 모(旄)는 8, 90세의 노인인요 예(倪)는 영아(嬰兒), 곧 어린이.

61) [평설] 다른 나라를 병탄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 하나는 민심의 영합이요 다른 하나는 왕정(王政)의 시행인 것이다. 이처럼 피아가 일치하지 않는 한 그의 병합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놈이 없습니다. 께쌌한 놈들을 죽여 버리자니 그 수를 다 죽일 수 없고, 안 죽이면 그들의 장교들의 죽음을 흘깃흘깃 떠보면서 구해낼 마음을 안 가질 터이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흉년이 들어 기근이 닥쳐왔을 때 주군의 백성들 중에 늙고 약한 무리들은 친구령창에서 덩굴고, 청장년은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진 수효가 수천 명이 되건만 주군의 창고는 뽁뽁이 들어차고 보물창고도 다복다복 차 있으면서 일한다는 분들은 모르는 척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이는 윗사람이 게을러서 아랫사람을 못살게 군 셈이 됩니다. 증자께서 ‘조심하라. 조심해. 네게서 나간 것은 내게로 돌아오느니라’라고 하시었는데 민중들은 이제야 그 값을 돌려 보내준 셈입니다. 주군은 그들을 허물치 마십시오. 주군께서 인정(仁政)을 베푸시면 이들 민중들은 그들의 윗사람을 따르며 그들의 어른을 위하여 죽기라도 할 것입니다.”

鄒與魯⁶²⁾ 閔 穆公⁶³⁾ 問曰 吾有司死者三十三人而民莫之死也 誅之則不可 勝誅 不誅 則疾視其長上之死而不救 如之何則可也 孟子對曰 凶年饑歲 君之民 老弱轉乎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 而君之倉廩實 府庫充 有司莫以告 是上慢而殘下也 曾子⁶⁴⁾ 曰 戒之戒之 出乎爾者反乎爾者也 夫民今而後 得反之也 君無尤焉君行仁政 斯民親其上 死其長矣⁶⁵⁾

등문공이 묻기를 “등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제·초 두 나라

62) 노(魯): 현(現) 산둥지방(山東地方). 주공(周公)의 아들 백공(伯禽)의 봉국(封國).

63) 목공(穆公): 추(鄒)나라 군주.

64) 증자(曾子): 공자의 제자. 이름은 삼(參).

65) [평설] 처벌보다도 선정(善政)·인정(仁政)·왕정(王政)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이에 끼어 있으니 제나라를 섬길까요? 초나라를 섬길까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나는 무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꼭 어떻게 하여 달라시면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연못을 더 파고 성터를 다 쌓아 민중들과 함께 지키되 죽더라도 민중들이 그 자리를 버리지 않는다면 한번 해 봄 직한 일입니다.”

滕文公⁶⁶問曰 滕小國也 間於齊楚 事齊乎 事楚乎 孟子對曰 是謀非吾所能及也 無已則 有一焉 鑿斯池也 築斯城也 與民守之 效死⁶⁷而民弗去 則是可爲也⁶⁸

등문공이 묻기를 “제나라 사람들이 설(薛) 땅에다가 성을 쌓으려 하는데 저는 적지 않은 위협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옛날 대왕이 빈(邠) 땅에 사실 적에 북방 민족이 밀려오므로 그곳을 떠나 기산 밑으로 가서 사셨으니 그곳을 갈아 잡으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좋은 일만 행하여 놓으면 뒷날 자손 중에서 반드시 왕노릇할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군자가 사업을 일으켜 전통이 뺏어나게 하는 것은 그 뒤를 이어나가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못 하는 것은 천명인 것이니, 그 일이야 주군께서도 어찌할 수 있으리까? 거저 힘써 선정만 베푸시면 될 것입니다.”

滕文公問曰 齊人 將築薛⁶⁹ 吾甚恐 如之何則可 孟子對曰 昔者大王居

66) 등문공(滕文公): 문왕의 아들인 숙수(叔綸)의 후손으로 태자(太子) 때부터 맹자를 섬겼다. 등(滕)나라는 소국(小國)이다.

67) 효사(效死): 치사(致死).

68) [명설] 대국(大國) 사이에 낀 소국(小國)의 내수정책(內守政策)도 민심의 단합이 선결조건인 것이다.

邠⁷⁰⁾ 狄人侵之 去之岐山之下 居焉 非擇而取之 不得已也 苟爲善 後世
子孫 必有王者矣 君子創業垂統 爲可繼也 若夫成功則天也 君如彼何哉
疆⁷¹⁾爲善而已矣⁷²⁾

등문공이 문기를 “등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있는 힘을 다
쏟아 큰 나라를 섬겨도 박해를 면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옛날 대왕이 빈 땅에 사실 적에 북방 민족이 밀려오므로 가족과
비단을 가져다 바쳐도 박해를 못 면했고, 개나 말을 가지고 섬겨도
못 면했으며, 진주며 구슬을 싸다 주어도 면할 길이 없어서 마침내
지방 부로들을 모이게 하여 놓고 말씀하시기를 ‘북쪽 놈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토지인 것입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길러내는 그 토지 때문에 도리어 사람에게 해롭게 만들지는 않는다
고 하니 여러분은 군주가 없음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이
곳을 떠나려 합니다’ 하시고 빈 땅을 떠나 양산을 넘어 기산 밑에
고을터를 잡고 사시니 빈 땅 사람들이 ‘그이는 어진 분이야. 놓쳐서
는 안 되지’ 하면서 뒤따라 모여든 것이 한 저자로 모여들 듯하였다
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대로 지켜오던 곳이라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
는 것이다. 죽더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말을 하니 주군께

69) 설(薛): 등(滕)나라와 인접한 소국(小國). 제(齊)나라가 이를 정복한 후, 등(滕)나라를 엿보기 위하여
거기다가 성(城)을 쌓다.

70) 빈(邠): 빈(邠)의 속자(俗字).

71) 강(疆): 강(強)

72) [평설] 대외정책은 서두르지 말고 내정의 충실을 기해야 한다. 인사의 한계밖에는 천명이 있음도 알
아야 할 것이다.

서는 이 두 길 중에서 한 길을 골라잡으십시오.”

滕文公問曰 滕小國也 竭力以事大國 則不得免焉 如之何則可 孟子對曰 昔者 大王 居邠 狄人侵之 事之以皮幣⁷³⁾ 不得免焉 事之以犬馬 不得免焉 事之以珠玉 不得免焉 乃屬其耆老⁷⁴⁾而告之曰 狄人之所欲者 吾土地也 吾聞之也 君子不以其所以養人者 害人 二三者 何患乎無君 我將去之 去邠踰梁山 邑于岐山之下居焉 邠人曰仁人也 不可失也 從之者 如歸市 或曰 世守也 非身之所能爲也 效死勿去 君請擇於斯二者⁷⁵⁾

노평공이 외출하려 하는데 시신(侍臣)인 장창이란 자가 말하기를 “먼저는 주군께서 외출하실 때 반드시 유사에게 어디로 가신다고 일러 놓으시더니 오늘은 가마도 벌써 준비가 다 되었는데 유사가 아직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는지?”

“맹자를 만나보려 하오.”

“웬일이십니까? 주군께서 경솔하게 몸을 움직여 한갓 하찮은 사내를 먼저 찾아보려 하시니 그를 현인으로 생각하시는지? 예의는 현인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맹자의 나중 상례(喪禮)가 먼저 상례보다 나았다 합니다. 주군은 그를 만나실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약정자가 들어가 보고 “주군께서는 왜 맹자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맹자의 나중 상례가 먼저 상례보다 나았다’ 그렇게 말하기에 가서 만나지 않은 것이오.”

73) 피폐(皮幣): 피(皮)는 호표미록(虎豹麋鹿)의 가죽이요, 폐(幣)는 비단이다.

74) 기노(耆老): 60세 이상의 늙은이.

75) [평설] 외침의 위협하에 있는 소국의 고민. 그의 극복책은 자가역량(自家力量)의 축적과 민심의 단합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대왕(大王)의 거민(去邠)은 중국(中國)이라는 동일지역 동일민족 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따름이다. 외족(外族)의 침략하에 어찌 국토를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왜 주군께서 소위 나왔다는 것은 앞 선에는 사(士) 벼슬이었고 뒤에는 대부 벼슬이었기 때문에 앞 선에는 삼정(三鼎)의 예를 치르고 뒤에는 오정(五鼎)의 예를 치른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오. 그것이 아니라 관곽과 수의가 아름다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빈부의 정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악정자가 맹자를 보고 “제가 주군께 아뢰어 주군께서 와 뵈옵기로 한 것인데 시신들 중에 장창이란 자가 있어 주군을 만류한 까닭에 주군께서도 떨치고 오시지 못하였답니다.”

“가는 데에도 그 무엇이 가도록 하여 주고 그만두는 데에도 그 무엇이 그렇게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 간다거나 그만둔다거나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노후(魯侯)와 만나지 못한 것은 천명인 것이니 장씨집 아이눔이 어찌 나로 하여금 못 만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魯平公將出 嬖人臧倉者 請曰他日君出則必命有司所之 今乘輿已駕矣 有司⁷⁶⁾未知所之 敢請 公曰將見孟子 曰何哉 君所爲輕身 以先於匹夫者 以爲賢乎 禮義由賢者出而孟子之後喪 踰前喪 君無見焉 公曰諾 樂正子⁷⁷⁾入見曰 君奚爲不見孟軻也 曰或告寡人曰 孟子之後喪 踰前喪 是以不往見也 曰何哉 君所謂踰者 前以士 後以大夫 前以三鼎⁷⁸⁾而後以五鼎⁷⁹⁾與 曰否 謂棺槨衣衾之美也 曰非所謂踰也 貧富不同也 樂正子見孟子曰 克

76) 유사(有司): 계원(係員), 장창(臧倉)의 비서(秘書).

77) 악정자(樂正子): 악정(樂正)은 성(姓), 이름은 극(克), 맹자의 제자.

78) 삼정(三鼎): 사(士)의 상전상제지예(喪奠喪祭之禮).

79) 오정(五鼎): 대부(大夫)의 상전상제지예(喪奠喪祭之禮).

告於君 君爲來見也 嬖人有臧倉者沮君 君是以不果來也 曰行或使之 止或尼之 行止非人所能也 吾之不遇魯侯⁸⁰⁾天也 臧氏之子⁸¹⁾ 焉能使予不遇哉⁸²⁾

80) 노후(魯侯): 노평공(魯平公).

81) 장씨지자(臧氏之子): 장씨(臧氏)의 아들놈이란 뜻이니 장창(臧倉)을 업신여긴 말.

82) [평설] 여기서 천(天)이라 한 것은 정명론적(定命論的)이다. “행지비인소능(行止非人所能)”이란 곧 인간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자이기 때문이다.

공손추 상

공손추가 묻기를 “선생님이 제나라 정치 요로에 서 계시면 관중이나 안자의 공적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오! 참, 군도 제나라 사람이지. 관중이나 안자의 이력만을 아는군. 어느 사람이 증서더러 묻기를 ‘선생님과 자로와 누가 더 나오신지요?’ 증서는 머뭇머뭇하면서 ‘제 선고(先考)께서도 어렵게 여기시던 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관중과는 누가 더 나오신지요?’

증서는 얼굴빛을 달리하여 언짢은 말씨로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관중에게 비하는 거요. 임금의 총애를 것처럼 독차지하고, 국정을 맡아본 지 것처럼 오래였건만 나타난 공적이란 것처럼 보잘 것이 없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그런 데다가 비하는 거요.’”

맹자는 다시 말을 이어 “관중의 한 일은 증서도 하지 않으려 하였는데 군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셈인가?”

“관중은 그의 주군을 패자로 만들었고 안자는 그의 주군의 이름을 드날리게 하였는데 그래도 관중 안자는 본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십니까?”

“제나라를 가지고 왕노릇하기란 손바닥 뒤집기 같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점점 어리둥절하여집니다. 문왕 같은 신덕으로도 백 년 만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천하를 골고루 적시게 하지 못했고, 무왕과 주공이 그 뒤를 잇자 비로소 크게 떨치었으니, 이제 말씀같이 왕노릇이 그렇게 쉽다면 문왕도 그다지 본받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문왕을 어찌 당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탕왕으로부터 무정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어지신 임금이 6, 7인이 났고, 천하의 인심이 은나라로 쏠린 지가 오래라, 오래면 변하기도 어려운 것이야. 무정이 제후의 조공을 받으면서 천하를 차지하기를 마치 손바닥 위에서 놀리듯 하였으니 주왕(紂王)과 무정 사이가 그리 멀지 않은지라, 오래된 집안에 남겨놓은 습관, 내려오는 감화, 좋은 정책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게다가 미자·미중·왕자·비간·기자·교격들은 다 현인들이다. 서로 합심하여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오래된 뒤에야 천하를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다. 한 패기 토지도 그의 소유 아닌 것이 없었으며, 한 사람의 백성도 그의 신하 아닌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중에서 문왕은 사방 백리로 일어섰으니 그러므로 어려웠던 것이다.

제나라 사람들은 흔히 ‘제아무리 지혜가 있더라도 시세를 잘 타느니만 같지 못하고, 제아무리 좋은 농구를 가졌다 하더라도 시절을 잘 만나느니만 같지 못하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시대야말로 아주 용이한 것이다.

하후·은·주의 전성기에 있어서도 영토란 천 리를 벗지 못했던 것인데 제나라는 그만큼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닭의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잇달아 들리어 사방 국경까지 다다르며,

또한 그만큼의 인구도 있을 것이니 토지는 더 넓힐 것이 없고 백성들은 또다시 모여들지 않더라도 인정(仁政)을 베풀면서 왕노릇을 한다면 아무도 막아 내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이 시대처럼 오래도록 왕노릇할 이가 나지 않은 시대도 없을 것이며 이 시대처럼 백성들이 몹쓸 학정에 시달린 시대도 없을 것이니, 굶주린 자에게는 먹이기가 쉽고,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축여 주기가 쉬운 법이다.

공자는 ‘덕화가 퍼져가는 품은 역마의 전령보다 빠르니라’ 하셨는데, 이런 시대를 당하여 만승의 나라가 인정을 베풀다면 백성들은 거꾸로 매달려진 것을 풀어놓아 준 듯이 좋아할 것이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일거리로 공은 곱절이나 세울 수 있는 시절이란 이때를 두고 이른 말일 것이다.”

公孫丑¹⁾問曰 夫子當路於齊 管仲晏子之功 可復許乎 孟子曰 子誠齊人也 知管仲²⁾晏子而已矣 或問乎曾西曰 吾子與子路孰賢 曾西³⁾蹴然曰 吾先子之所畏也 曰然則吾子與管仲孰賢 曾西蹙然不悅曰 爾何曾比予於管仲 管仲 得君 如彼其專也 行乎國政 如彼其久也 功烈 如彼其卑也 爾何曾比予於是曰管仲 曾西之所不爲也 而子爲我願之乎 曰管仲 以其君霸 晏子 以其君顯 管仲晏子 猶不足爲與曰以齊王 由反手也 曰若是則弟子之惑 滋甚 且以文王之德 百年⁴⁾而後崩 猶未治於天下 武王周公 繼之然後大行 今言王若易然 則文王 不足法與 曰文王 何可當也 由湯至於武丁 聖賢之君 六七作 天下歸殷久矣 久則難變也 武丁⁵⁾朝諸侯有天下 猶運之

1) 공손추(公孫丑): 맹자의 제자. 제인(齊人).

2) 관중(管仲): 이름은 이오(夷吾). 제(齊)나라 대부로 환공(桓公)을 도와 패업을 이룩한 명상(名相). 『관자(管子)』란 저술이 전해 내려온다.

3) 증서(曾西): 증자의 손자(일설에는 증자의 아들).

4) 문왕백년(文王百年): 문왕이 97세에 죽었으니 백년(百年)이란 그의 개수(概數)다.

5) 무정(武丁): 은(殷)나라 증엽(中葉)의 현군(賢君).

掌也 紂之去武丁未久也 其故家遺俗 流風善政 猶有存者 又有微子⁶⁾微仲王子比干箕者膠鬲 皆賢人也 相與輔相之故 久而後失之也 尺地 莫非其有也 一民 莫非其臣也 然而文王 猶方百里起 是以難也齊人 有言曰 雖有智慧 不如乘勢 雖有鎡基 不如待時 今時 則易然也 夏后⁷⁾殷周之盛地未有過千里者也 而齊有其地矣 鷄鳴狗吠 相聞而達乎四境 而齊有其民矣 地不改辟矣 民不改聚矣 行仁政而王 莫之能禦也 且王者之不作 未有疏於此時者也 民之憔悴於虐政 未有甚於此時者也 飢者 易爲食 渴者 易爲飲 孔子曰 德之流行 速於置郵⁸⁾而傳命 當今之時 萬乘之國 行仁政 民之悅之 猶解倒懸也 故事半古之人 功必倍之 惟此時爲然⁹⁾

공손 추가 묻기를 “선생님이 제나라 재상의 지위에 올라 도(道)를 실천하실 수 있게 된다면 비록 패도가 되었거나 왕도가 되었거나 별달리 여기실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시다면 마음이 흔들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다. 내 나이 40이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시다면 선생님은 맹분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그건 어렵잖은 거야. 고자(告子) 같은 사람도 나보다 먼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데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있지. 북궁유가 용기를 기를 적에 살결을 애어도 꺾이지 않고, 눈을 찔러도 까딱 않았으며, 사소한 일로라도 남에게 굴욕을 당하면 마치 저갯거리나 조정의 정사 마당에서 매 맞는 거나 다름없이 알았

6) 미자(微子): 주(紂)의 형(兄). 미자계(微子啓)는 공자의 선조.

7) 하후(夏后): 우왕조(禹王朝).

8) 치우(置郵): 빠른 말을 치(置)라 하고 빠른 걸음을 우(郵)라 한다.

9) [평설] 맹자의 정치가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함을 엿볼 수 있다. 공자도 그의 공적을 찬양한 관중마저도-공자는 관중이 아니드면 피발좌단(被髮左袒)했으리라 했다-맹자는 대견하게 여기지 않은 그의 기개는 왕정에 대한 그의 강한 신념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 훌렁훌렁한 거친 옷을 입은 천한 사람에게도 안 당했거니와 만승의 군왕에게서도 안 당할 일은 안 당했다. 만승의 군왕을 찢러 죽이는 것쯤이야 한 놈의 막별이꾼을 찢러 죽이듯 하였다. 제후라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언짢은 소리가 들리면 기어코 보복하고야 말았다.

맹시사가 용기를 기를 적에 그는 ‘못 이길 판이라도 이길 듯이 덤빈다. 적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부터 살핀 뒤에 쫓아가는 것과, 이 판은 이길 판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서 나아가 싸우는 따위는 다 적군을 두려워하는 무리들의 짓이다. 나라고 어찌 꼭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그저 두려워하지 않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맹시사는 증자와 비슷하고 북궁유는 자하와 비슷한데 이 두 사람의 용기로 말하면 누가 더 나은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맹시사의 태도에는 요령이 있다.

언젠가 증자가 자랑더러 ‘군은 무용을 좋아하는가? 나는 전에 선생님에게서 대용(大勇)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를 반성한 결과 내가 바르지 않으면 내 어찌 막별이꾼이라고 해서 그를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자기를 반성한 결과 내가 바르다면 비록 천만인이 가로막더라도 나는 뚫고 나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맹시사가 하는 노릇은 기(氣)라 증자의 태도에 요령이 있는 것만은 못하다.”

“그러시다면 선생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고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어디가 다른지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고자는 ‘말로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거든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라. 알 수 없는 일이거든 억지로 기(氣)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알 수 없는 일을 억지로 기(氣)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 한 것

은 옳은 말이거니와, 말로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거든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라 한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뜻이란 기(氣)를 통솔하고 기(氣)란 온몸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니, 뜻이 앞을 서고 기(氣)는 그 뒤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뜻을 든든하게 간직하고 그 기(氣)만이 함부로 날뛰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이 있다.”

“앞서는 ‘뜻이 앞을 서면 기(氣)는 그 뒤를 따른다’라 하시고, 또 ‘그 뜻을 든든하게 간직하고 그 기(氣)만이 함부로 날뛰지 않도록 하라’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뜻이 온전하면 기(氣)를 움직이는 것이요, 기(氣)가 온전하면 뜻을 움직이는 것이다. 자! 이제 땀을 뛰다가 미끄러지거나 달음질쳐 달아나는 따위는 기(氣)의 짓이겠지만 드디어 그의 마음을 그리로 쏠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남보다 나오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말을 알고, 나는 나의 너그러운 기분을 잘 기를 줄 안다.”

“너그러운 기분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 기분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아주 크고 아주 강해서 그대로 곧장 흠결 없이 길러 내면 하늘과 땅 사이에 뻑뻑이 차게 된다.

그 기분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의(義)와 도(道)에 연결되었으니 그 점이 없으면 허전하리라.

이는 의(義)가 쌓이고 쌓여서 거기서 저절로 우러나는 것이지 의(義)가 난데없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하는 일이 어쩐지 마음에 찝찝한 것 같으면 그것이 허전한 것이니 그러므로 ‘고자는 아직 의(義)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하는 것이다.

그는 의(義)란 밖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이란 언제든지 있는 것이지만 꼭 그렇게 되리라고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고, 억지로 키우지도 말라. 어느 송나라 사람처럼 하여서는 안 된다. 어느 송나라 사람이 새싹이 잘 자라지 않는데 속이 타서, 그것을 뽑아 놓은 위인이 있었는데, 얼빠진 사람처럼 흐늘흐늘 돌아와서 집안사람더러 한다는 소리가 ‘오늘은 고달파 죽겠네. 내가 새싹이 잘 자라도록 해 놓고 왔지.’ 이런 말을 듣고 그의 아들이 쫓아가 본즉 싹들은 벌써 말라빠져 버렸더라는 것이다. 천하 사람들 중에도 새싹이 자라나도록 억지로 도와주는 따위의 짓을 하지 않는 이도 드물다. 그럴 것은 무어 있나! 하고 내버려두는 사람은 싹을 가꾸어 주지 않는 사람이요, 자라나도록 도와준다는 사람은 싹을 뽑아 자치는 사람이니, 아무 코에도 당찮은 일일 뿐 아니라, 도리어 생채기 현 데를 빚어내게 하는 짓이다.”

“말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치우친 말씨에는 한 가닥 접어놓은 데가 있음을 알고 풍 떠는 말씨에는 텅 빈 구석이 있음을 알고, 야릇한 말씨에는 엉뚱한 데가 있음을 알고, 슬슬 빼는 말씨에는 궁한 구석이 있음을 아는 것이니, 이런 말씨가 마음에서 우러나면 정치를 그르치는 것이요, 정치에 나타나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니, 성인이 다시 나오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 말과 같이 하실 것이다.”

“재아·자공은 말을 잘하시던 분이요, 염우·민자·안연은 좋은 말씨에 덕행이 겸비했던 분인데, 공자는 보다 더 뛰어나셨지만 ‘나는 말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벌써 성인이 되신 셈이군요!”

“뭐라고? 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언젠가 자공이 공자더러 문기를 ‘선생님은 성인이신걸!’ 한즉,

공자는 ‘성인이란 될 말이나. 나는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으면서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자공은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는 것은 지(智)요,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인(仁)이라 인인(仁人)이요 지자(智者)이시니, 선생님은 이미 성인이십니다’라고 하였다. 글썽 성인이란 공자도 내사 안 될 말이라고 하셨는데 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듯합니다. 자하·자유·자장은 다 성인의 일면을 갖추고 있으며, 염우·민자·안연은 전체를 갖추었으나 아록 사록할 정도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느 경지에 계신는지!”

“그런 이야기는 그만두자.”

“백이나 이윤은 어떻습니까?”

“서로 걸어온 길이 다르다. 군왕다운 군왕이 아니면 섬기지 않고, 백성다운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고, 평화시절에는 나아가고, 난세에는 물러선 이가 백이요, 누구를 섬긴들 군왕이 아니며, 누구를 부린들 백성이 아니라. 평화시절에도 나아가고, 난세에도 나아가는 이가 이윤이다. 벼슬을 삼직하면 벼슬을 살고 그만둬 직하면 그만두고 오래 있음 직하면 오래 있고, 속히 물러섬 직하면 속히 물러선 이가 공자시니, 다 옛 성인들이시다. 나야 그런 일을 해 보지 못했지만 이제 내 소원을 말하자면 공자를 배우고 싶은 것이다.”

“백이나 이윤이 공자와 함께 그렇게 나란히 설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다. 인류 창생 이래로 공자 같은 분은 없었다.”

“그러면 같은 점은 있는가요?”

“있지. 백 리의 토지를 얻어 그곳의 군주가 되면 제후의 조공을 받으면서 천하를 보유하려니와, 조금치라도 의 아닌 일을 행하거나 애매한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천하를 차지하는 따위의 일을 저지르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점은 다 같으시다.”

“그러면 어느 점이 다르실까요?”

“재아·자공·유약으로 말하면 지혜는 넉넉히 성인을 알아봄직한 분들이요, 지체가 떨어지더라도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첨하지는 않을 것이다.

재아는 ‘내가 보는 바로는 우리 선생님은 요순보다도 훨씬 잘나신 분이다’ 하였고, 자공은 ‘그들의 예를 보면 그들의 정치를 알 수 있고,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이니 백 세 뒤에 앉아서 백 세 후의 군왕들을 이리저리 따져보더라도 조금도 엇나갈 이치는 없을 것이니, 인류 창생 이래로 우리 선생님 같으신 분은 없다’ 하였고,

유약은 ‘어찌 인간에게만 한한 일일 것인가! 땅 짐승에 있어서의 기린이요, 날짐승에 대한 봉황새요, 길 언덕에 대한 태산이요, 개울 물에 대한 큰 바다가 다 그렇거늘 백성들 중에 성인이 또한 그런 부류인 것이다. 제 부류 중에서 뛰어나게 두각을 높이 드러낸 것이니 인류 창생 이래로 공자만큼 뛰어난 인물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公孫丑問曰 夫子加齊之卿相 得行道焉 雖由此霸王 不異矣 如此則動心
否乎 孟子曰 否 我四十不動心¹⁰⁾ 曰若是則夫子過孟賁¹¹⁾ 遠矣 曰是不

10) 부동심(不動心): 확호기불가발(確乎其不可拔)의 신념을 밑받침으로 하는 의지(意志)의 태세.

11) 맹분(孟賁): 제인(齊人). 산 소의 뿔을 뺀 장사. 나중에 진(秦)나라에 귀화하였다. 그는 ‘오십부동심(五十不動心)’의 말을 들던 사람이다.

難 告子¹²⁾ 先我不動心曰不動心 有道乎 曰有 北宮黝¹³⁾之養勇也 不膚撓 不目逃 思以一毫挫於人 若撻之於市朝 不受於褐寬博 亦不受於萬乘之君 視刺萬乘之君 若刺褐夫 無嚴諸侯 惡聲至 必反之 孟施舍¹⁴⁾之所養勇也 曰 視不勝 猶勝也 量敵而後進 慮勝而後會 是畏三軍者也 舍豈能爲必勝哉 能無懼而已矣孟施舍 似曾子 北宮黝 似子夏 夫二子之勇 未知其孰賢 然而孟施舍 守約也 昔者 曾子謂子襄¹⁵⁾曰 子好勇乎 吾嘗聞大勇於夫子矣 自反而不縮 雖褐寬博 吾不懼焉 自反而縮 雖千萬人 吾往矣孟施舍之守氣 又不如曾子之守約也 曰敢問夫子之不動心 與告子之不動心 可得聞與 告子曰 不得於言 勿求於心¹⁶⁾ 不得於心 勿求於氣¹⁷⁾ 不得於心 勿求於氣 可 不得於言 勿求於心 不可 夫志 氣之帥也 氣體之充也 夫志至焉 氣次焉 故曰 持其志 無暴其氣 既曰 志至焉 氣次焉 又曰 持其志 無暴其氣者 何也 曰志壹 則動氣 氣壹則動志也 今夫蹶者趨者 是氣也而反動其心 敢問夫子 惡乎長 曰我知言¹⁸⁾ 我善養吾浩然之氣¹⁹⁾敢問何謂浩然之氣 曰難言也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於天地之間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 餒也 是集義所生者 非義襲而取之也 行有不慊於心則餒矣 我故 曰告子未嘗知義 以其外之也 必有事焉而勿正²⁰⁾

-
- 12) 고자(告子): 이름은 불해(不害, 一云 이름은 勝). 맹자의 성론(性論)을 변란하여 일가견을 세운 학자로서 맹자와는 대척적인 입장에서 성선을 부정하여 순자(荀子)의 선구자가 되었고 사십전부동심(四十前不動心)의 말을 들던 인물이다.
 - 13) 북궁유(北宮黝): 자객의 한 사람.
 - 14) 맹시사(孟施舍): 성(姓)은 맹(孟) 이름은 화(會). 자객.
 - 15) 자양(子襄): 증자의 제자.
 - 16) 부득어언, 물구어심(不得於言, 勿求於心): 이는 고자의 말인데 맹자는 이를 불가(不可)하다 하였으니 왜냐하면 말이란 마음의 표현이어늘 정언(正言)을 얻지 못할 때는 내 마음을 자성(自省)하여 부동심(不動心)의 태세를 갖추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구어심(勿求於心)”하라 하였기 때문이다.
 - 17) 부득어심, 물구어기(不得於心, 勿求於氣): 이는 고자의 언(言)에 맹자가 공명한 구절이니, 왜냐하면 심지(心志)는 기(氣)를 통수(統帥)하는 자이니 부동(不動)의 심지(心志)가 서지 않고 기(氣)를 동(動)하게 하면 난동(亂動)이 되기 때문이다.
 - 18) 지언(知言): 고자는 “부득어언(不得於言)”이라 하였으나 맹자는 “아지언(我知言)”이라 하였다. 북궁유(北宮黝)·맹시사(孟施舍)의 부동심은 맹목적이지만 맹자의 부동심은 지언(知言)의 부동심이다. 여기의 언(言)은 “천하언재(天何言哉)”의 언(言)이요, “상천지재무성무취(上天之載無聲無臭)”의 언(言)이기도 하고, “순순언명지(諄諄命之)”의 언(言)이기도 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을 창조”한 그 말이기도 하다. “로고스.”
 - 19) 호연지기(浩然之氣): 유유자적할 수 있는 심경, 지성인으로서 남부끄럽지 않는 생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정의란 무언인가를 자각하게 되리라. 가슴속에서 우리나라오는 어떠한 울부짖음[知言]. 아니 어떠한 기운, 그것을 느꼈다면 그는 자신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호연지기(浩然之氣)는 우주에 충만한 도의(道義)의 원천이기도 하고, 인간 속에 내재한 도의심(道義心)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心勿忘 勿助長也 無若宋人²¹⁾然 宋人 有閔其苗之不長而掘之者 芒芒然歸 謂其人 曰今日 病矣 予助苗長矣 其子趨而往視之 苗則槁矣 天下之不助苗長者 寡矣 以爲無益而舍之者 不耘苗者也 助之長者 掘苗者也 非徒無益 而又害之 何謂知言 曰諛辭 知其所蔽 淫辭 知其所陷 邪辭 知其所離 遁辭 知其所窮 生於其心 害於其政 發於其政 害於其事 聖人復起 必從吾言矣 宰我子貢 善爲說辭 冉牛閔子顏淵 善言德行 孔子兼之 曰我於辭命則不能也 然則夫子既聖矣乎 曰惡 是何言也 昔者 子貢問於孔子 曰 夫子 聖矣乎 孔子曰 聖則吾不能 我學不厭而教不倦也 子貢曰 學不厭 智也 教不倦 仁也 仁且智 夫子 既聖矣 夫聖 孔子 不居 是何言也 昔者 竊聞之 子夏子游子張 皆有聖人之一體 冉牛閔子顏淵 則具體而微 敢問所安 曰姑舍是 曰伯夷伊尹何如 曰不同道 非其君不事 非其民不使 治則進 亂則退 伯夷也 何事非君 何使非民 治亦進 亂亦進 伊尹也 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 可以久則久 可以速則速 孔子也 皆古聖人也 吾未能有行焉 乃所願則學孔子也 伯夷²²⁾伊尹²³⁾ 於孔子 若是班乎 曰否 自有生民而來 未有孔子也 曰然則有同與 曰有得百里之地而君之 皆能以朝諸侯有天下 行一不義 殺一不辜而得天下 皆不爲也 是則同曰敢問其所以異 曰宰我子貢有若²⁴⁾ 智足以知聖人 汙不至阿其所好宰我曰 以予觀於夫子 賢於堯舜遠矣 子貢曰 見其禮而知其政 聞其樂而知其德 由百世之後 等百世之王 莫之能違也 自生民以來 未有夫子也 有若 曰豈惟民哉 麒麟之於走獸 鳳凰之於飛鳥 太山之於邱垤 河海之於行潦 類也 聖人之於民 亦類也 出於其類 拔乎其萃 自生民以來 未有盛乎孔子也²⁵⁾

“세력으로 인(仁)을 가장하는 자는 패자(覇者)이니 패자는 반드시

20) 정(正): 기필(期必)

21) 송인(宋人): 송(宋)나라 사람은 우직(愚直)하다

22) 백이(伯夷): 고죽군(孤竹君)의 장자(長子)로서 주옥(紂玉)을 피하여 은거하던 중 무양이 별주(伐紂)하매 입산아사(入山餓死)하다.

23) 이윤(伊尹): 탕왕(湯王)을 도와 은(殷)나라의 기초를 세운 현신(賢臣).

24) 재야·자공·염우·민자·안연·자하·자유·자장·유약(宰我·子貢·冉牛·閔子·顏淵·子夏·子游·子張·有若): 모두 공자의 제자.

25) [평설] 공손추는 맹자사상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다. 부동심과 용기와 지기(志氣)와 지언(知言) 등에 대한 맹자의 견해는 그의 철학적 바탕을 이루는 자들이다. 그의 심(心)·기(氣)·언(言)은 다 같이 의(義)와 도(道)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義)와 도(道)를 떠난 심(心)·기(氣)·언(言)이 있다면 그것은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공자가 창도한 군자지도(君子之道)로서의 시중(時中)의 대의(大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큰 나라를 차지해야만 하고, 덕으로 인을 행하는 자는 왕자(王者)이니 왕자는 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탕왕은 70리로써 왕이 되었고, 문왕은 백 리로써 왕이 되었다.

세력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면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면 마음속에서 우러난 기쁨에 겨워 성심으로 복종하게 되는 것이니, 70 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하는 따위가 곧 그것이다. 옛 시에

서에서 동에서 남에서 북에서
복종하지 않는 이는 하나도 없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孟子曰 以力假仁者霸²⁶⁾ 霸必有國 以德行仁者王²⁷⁾ 王不待大 湯以七十里 文王以百里 以力服人者 非心服也 力不贍也 以德服人者 中心悅而誠服也 如七十子²⁸⁾之服孔子也 詩云自西自東 自南自北 無思不服²⁹⁾ 此之謂也³⁰⁾

“인(仁)을 실천하면 번영하고 인을 실천하지 않으면 욕을 본다. 이제 욕받기를 싫어하면서 인 아닌 짓을 하는 이는 친구령을 싫어하면서 서 보충보충한 맨바닥에 앉으려는 것과 같다.

26) 패(霸): 군국주의(軍國主義)

27) 왕(王): 민본주의(民本主義).

28) 칠십자(七十子): 삼천(三千)제자 중 육예(六藝)에 통한 70인.

29) 무사불복(無思不服): 사(思)는 의미 없는 조사(助辭). 시구(詩句)에 많이 쓰인다.

30) [평설] 왕도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패도와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곧 이를 일러 맹자의 왕패론(王霸論)이라 한다.

만일 굴욕이 싫거든 덕을 귀하게 여기며 선비를 존경하여야 한다. 현인이 제자리에 앉고 유능한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나라일은 한가로워진다. 그런 틈을 타서 정치와 형벌을 명랑하게 하면 큰 나라일 지라도 반드시 그를 두렵게 알 것이다. 옛 시에

날씨가 흐려 비 오기 전에
뽕나무 뿌리에 묻은 흙일랑
모아다 창문을 엮어나 두자
여보소 저 아래 계신 사람들
그래도 나를 업신여겨 볼 텐가!

이런 구절이 있는데, 공자는 ‘이 시를 엮은 사람은 도를 아는 사람인가! 제 나라를 잘 다스리기만 하면 누가 감히 그들을 업신여길 것인가’라고 하였다.

요즈음 나라가 한가로운 그런 틈이 생기면 먹자판 놀자판으로 향락을 일삼으니 제 손으로 불행을 끌어오는 것이다. 화건 복이건 제 손으로 당겨오지 않는 것이란 없는 법이니, 옛 시에

길이길이 태어난 천명이라 하지만
잘살고 못살기는 나 하기에 마련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고, 「태감」에 ‘하늘이 낸 잘못은 피할 수나 있지만 제가 저지른 잘못은 피해날 길도 없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孟子曰 仁則榮 不仁則辱 今惡辱而居不仁 是猶惡濕而居下也 如惡之 莫

如貴德而尊士 賢者在位 能者在職 國家閒暇 及是時 明其政刑 雖大國必畏之矣 詩云 迨³¹⁾天³²⁾之未陰雨 徹彼桑土 綢繆牖戶 今此下民 或敢侮予 孔子曰 爲此詩者 其知道乎 能治其國家 誰敢侮之今國家閒暇 及是時 般樂怠放 是自求禍也 禍福無不自己求之者 詩云永言³³⁾配命 自求多福 太甲³⁴⁾曰 天作孽猶可違 自作孽不可活³⁵⁾ 此之謂也³⁶⁾

“현인을 존경하고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여 뛰어난 인물을 제자리에 앉히면, 천하의 선비들이 모두 기꺼이 그이의 조정에 나오기를 바랄 것이다. 저잣거리에서 점포세는 받되 상품세는 받지 말거나 조합비 정도로 받되 점포세도 받지 않는다면, 천하의 장사치들이 모두 기꺼이 그이의 저잣거리에 짐을 풀려고 할 것이다. 길목에서는 왈패만 취체하되 통행세를 받지 않는다면, 천하의 돌패들이 모두 기꺼이 그이의 길로 나서려 할 것이다.

농부들에게서는 공전(公田)에의 조력만 빌되 다른 잡부금을 받지 않으면, 천하의 농군이 모두 기꺼이 그이의 들에서 밭갈이하기를 원할 것이다.

점포에 부리세(夫里稅)를 받지 않는다면, 천하와 민중이 모두 기꺼이 그이의 백성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꼭 이상 다섯 가지만 실천한다면 이웃 나라 백성들이 제 부모나 다름없이 우러러볼 것이니, 그들의 자제들로 하여금 그들의 부모를 치게 하여 성공한 예는 인류

31) 태(迨): 급(及).

32) 시운태천(詩云迨天): 「유풍(幽風)」, 「치효(鷓鴣)」편.

33) 시운영언(詩云永言): 「대아(大雅)」, 「문왕(文王)」편.

34) 태갑(太甲): 「서경(書經)」, 「상서(商書)」.

35) 활(活): 추(追). 피한다.

36) [평설] 호현낙선(好賢樂善)하면서 운명은 스스로 창조해야 함을 강조한다. 인생화복(人生禍福)이란 결코 결정적인 것이 아니니 맹자의 천(天)은 정명론적(定命論的)이지만 윤리적 화복은 비결정론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유가의 윤리적 숙명관이 깃들여 있다.

창생 이래 절대로 없다. 이렇게 되면 천하에 덤빌 자 없으리니, 천하에 적이 없는 그이는 하늘이 낸 벼슬아치라 그렇게 되고도 왕노릇을 못 할 이는 절대로 없다.”

孟子曰 尊賢使能 俊傑在位則天下之士 皆悅而願立於其朝矣市廛而不征³⁷⁾ 法³⁸⁾而不廛³⁹⁾則天下之商 皆悅而願藏於其市矣關譏⁴⁰⁾而不征則天下之旅 皆悅而願出於其路矣 耕者助⁴¹⁾而不稅則天下之農 皆悅而願耕於其野矣 廛無夫里之布⁴²⁾則天下之民 皆悅而願爲之氓矣 信能行此五者則隣國之民 仰之若父母矣 率其子弟 攻其父母 自生民以來 未有能濟者也 如此則 無賊於天下 無賊於天下者 天吏⁴³⁾也 然而不王者 未之有也⁴⁴⁾

“사람에게는 다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옛날 임금 들에게는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에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가 있는 것이니,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를 하면 천하를 다스리기란 손바닥 위에서 놀리듯 될 것이다. 사람마다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이유는, 가령 누구나 철모르는 떡아기가 뽕뽕 삼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는 즉시, 가슴이 선듯하여 아차 불쌍하다는 마음이 우러날 것이니, 이는 이 아이의 부모와 은근히 사귄 길을 트자

37) 징(征): 영업세(營業稅). 통행세(通行稅).

38) 법(法): 시장(市場) 조합비(組合費) 같은 것.

39) 전(廛): 점보(店輔). 가옥세(家屋稅).

40) 기(譏): 알패들의 취체(取締).

41) 조(助): 공전(公田)의 경작(耕作)만을 노력(努力)으로 돕는 것이니 구일제(九一制)의 세법(稅法)이다.

42) 부리포(夫里布): 농가에서는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칠 의무가 있는데 상인(商人)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마포(麻布)를 대납(代納)시키는 것이니 이를 부리포(夫里布)라 하여 가혹한 세법의 하나다.

43) 천리(天吏): 천자(天子). 왕자(王者).

44) [평설] 현자의 등용과 세정의 공정이 왕정의 요체인 것이다. 이는 곧 천리(天吏)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다.

는 데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마을 어른들이나 친구들에게서 치하의 말을 듣지는 데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이렇다 저렇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仁)의 싹이요,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의(義)의 싹이요, 사양하는 마음은 예(禮)의 싹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은 지(智)의 싹이다. 사람에게는 이 네 가지 싹이 있으니, 이는 마치 우리에게 네 팔다리가 있는 것과 같다. 이 네 가지 싹을 지니고도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제 손으로 제 자신을 망치는 사람이요, 우리 임금은 그리 못 하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제 임금을 망치는 사람이다.

대체로 제가 지니고 있는 네 가지 싹을 모두 넓히고 충실하게 만들 줄 안다면, 마치 불꽃이 금방 타오르듯 샘물이 금방 툭 터져 나오듯 할 것이니, 정말 이 점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면 온 세상을 차지하고도 남으려니와, 정말 이 점을 충실하게 할 수 없다면 제 부모 하나 섬기기에 힘도 들 것이다.”

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 先王有不忍人之心 斯有不忍人之政矣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治天下 可運之掌上 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惻隱之心 仁之端⁴⁵)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 有是四端而自謂不能者 自賊者也 謂其君不能者 賊其君者也 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⁴⁶⁾矣 若火之始然⁴⁷⁾泉之始達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苟不充之 不足以事父母⁴⁸⁾

“활장이에게는 왜 갑옷장이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것인가! 그러나 활장은 행여나 사람이 상하지 않을까 저어하며, 갑옷장은 행여나 사람이 상할까 저어하는 것이니, 무당과 관장사의 관계도 또한 이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기술도 신중히 갈아잡지 않아서는 안 된다.

공자는 ‘인이란 집에 살아야만 아름다운 것이니, 인의 집을 골라 살 줄 모르면 뉘라서 지혜롭다 하겠는가’ 하였으니, 그 인(仁)이란 하늘이 마련해 준 귀여운 벼슬이요, 사람이 깃들일 수 있는 편안한 집이다. 말리는 사람도 없는데, 인(仁)에서 벗어난 짓을 하니 이는 지혜롭지 못한 탓이다. 인정도 없고 지혜도 없고 예의도 모르고 의리도 모르면 남의 심부름꾼일 수밖에! 남의 심부름꾼이면서 심부름을 창피로 아는 것은 마치 활장이가 활 만들기를 창피로 아는 거나 살장이가 살 만들기를 창피로 아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것을 창피로 안다면 사람다운 짓을 하는 것만 같지 못하리라. 사람다운 짓을 하는 이는 활 쏘는 사람 같으니, 활 쏘는 사람은 제 몸을 바로잡은 후에야 텅 활을 쏜다. 쏘아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를 이긴 사람

45) 단(端): ‘끝’이 아니라 ‘씩’이다. ‘끝’이란 생명이 없는 물건의 한 부분이요, ‘씩’이란 무럭무럭 자라나는 생명의 옴이니, 차마 하지 못하는 인간의 심정은 인의예지의 끝이 아니라 그의 썩이기 때문이다.

46) 확충(擴充): 확(擴)은 외적 확장이요 충(充)은 내적 충실이다.

47) 연(然): 연(燃).

48) [평설] 맹자 사단론의 근거도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에 있으니 곧 성선의 단시(端始)가 되는 것이다. 단시(端始)이기 때문에 확충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주자의 단시설(端時說)은 확충이 불가능하므로 성립될 수가 없다. 다산의 단시설이 성립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제게 허물이 있거나 않은가 할 따름이다.”

孟子曰 矢人豈不仁於函人哉 矢人惟恐不傷人 函人惟恐傷人 巫匠亦然 故術不可不慎也 孔子曰 里仁爲美⁴⁹⁾ 擇不處仁 焉得智 夫仁天之尊爵也 人之安宅也 莫之禦而不仁 是不智也不仁不智 無禮無義 人役也 人役而恥爲役 由弓人而恥爲弓 矢人而恥爲矢也如恥之 莫如爲仁 仁者如射 射者正己而後發 發而不中 不怨勝己者 反求諸己而已矣⁵⁰⁾

“자로는 남이 와서 제 허물을 알려주면 좋아라 하였다. 우임금은 좋은 말을 들으면 절을 하였다. 위대한 순임금은 보다 더 훌륭하였으니, 좋은 일은 여럿이 같이 하시며, 자기 고집을 버리시고 남의 말을 따르셨다. 남의 장점을 본떠다가 내 것을 만들기를 좋아하셨다. 밭같이하고 질그릇 굽고 고기잡이하던 그런 시절부터 제왕이 될 때까지 어느 것 하나 남에게서 본뜨지 않은 것이 없다. 남에게서 본떠다가 내 것을 삼는 그것이 남과 함께 선을 행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군자에게는 남과 함께 선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은 없는 것이다.”

孟子曰 子路人告之以有過則喜 禹聞善言則拜 大舜有大焉 善與人同 舍己從人 樂取於人 以爲善自耕稼陶漁 以至爲帝 無非取於人者 取諸人以爲善 是與人爲善者也 故君子莫大乎⁵¹⁾與人爲善⁵²⁾

49) 이인위미(里仁爲美): 리(里)는 거야(居也)요 인(仁)은 인지안택(人之安宅)이니 이인(里仁)은 ‘인(仁)이란 집에 산다’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논어(論語)』, 「이인(里仁)」편 참조.

50) [평설] 환경이 인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각한 것이다. 동시에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이를 일러 자율성 또는 주체성이라 해야 할는지 모른다.

51) 호(乎): 어(於). 비교급(比較級).

52) [평설] 수기(修己)의 선행도 공동선행(共同善行)에 미치지 못한다. 여민동락(與民同樂) 또는 여인위선(與人爲善)이란 곧 맹자의 공동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가 아닐 수 없다.

“백이는 군왕다운 군왕이 아니면 섬기지 않고, 친구다운 친구가 아니면 사귀지 않고, 못된 무리들이 모인 조정에는 나서지도 않고, 못된 무리들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못된 무리들이 모인 조정에 나서서 못된 무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예복(禮服)과 예모(禮帽)를 갖추고 진흙밭에 앉는 느낌을 가졌다. 그가 악을 미워하는 품을 보면 시골뜨기들과 함께 섰을 적에 그들이 쓴 관이 비뚤어지기라도 했으면 본체만체 훨훨 그 자리를 떠나 자기도 한 물에 싸일 것 같이 생각하는 듯하였다. 그러므로 제후들이 좋은 말로 그를 모시러 오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나가는 일을 그리 선선하게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하혜는 좀 지꺼분한 군왕이라도 수치로 알지 않았으며, 하찮은 벼슬도 낫다 생각지 않고 나서서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자기의 좋은 재주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

버림을 받더라도 원망하지 않았고, 곤궁하게 되더라도 가슴을 태우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너는 너요 나는 나지. 내 곁에서 웃옷을 벗고 빨가숭이가 된들 그대가 어찌 나를 더럽힐 수 있을 것인가!’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양 서로 시시덕거리면서 까딱하지 않았다. 끝면서 그대로 앉히면 그대로 주저앉았으니, 끝면서 그대로 앉히면 그대로 주저앉는 것은 떨쳐버리는 것도 그다지 선선하게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맹자는 다시 “백이는 외통수요 유하혜는 터분하다. 외통수나 터분한 그런 짓을 군자는 하지 않는다.”

孟子曰 伯夷非其君不事 非其友不友 不立於惡人之朝 不與惡人言 立於

惡人之朝 與惡人言 以朝衣朝冠 坐於塗炭 推惡惡之心 思與鄉人立 其冠不正 望望然去之 若將浼焉 是故諸侯雖有其辭命而至者 不受也 不受也者 是亦不屑就已 柳下惠⁵³⁾不羞汙君 不卑小官 進不隱賢 必以其道 佚而不怨 阨窮而不憫 故曰爾爲爾 我爲我 雖袒裼裸裎於我側 爾焉能浼我哉 故由由然⁵⁴⁾與之偕不自失焉 援而止之而止 援而止之而止者 是亦不屑去已 孟子曰 伯夷隘 柳下惠不恭 隘與不恭 子不由也⁵⁵⁾

53) 유하혜(柳下惠): 노나라 대부 전금(展禽)인데 유하(柳下)에 살았고, 혜(惠)는 그의 시호다.

54) 유유연(由由然): 유유연(愉愉然).

55) [평설] 맹자는 지나친 결백이나 지나친 타협주의나 다 같이 실중(失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이(伯夷)나 유하혜(柳下惠)의 양극을 취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

공손추 하

맹자가 말하기를 “적절한 시기도 지세의 유리함만 같지 못하고, 지세의 유리도 인심이 화합함만 같지 못하니라. 둘레 3리의 성과 둘레 7리의 외곽을 둘러싸고 공격을 하더라도 못 이기는 수가 있으니, 대체 둘러싸고 공격할 때는 적절한 시기를 골랐을 것이언만 그래도 못 이기는 것은 이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유리한 지세만 못하기 때문이다.

성벽이 높지 않은 바 아니요, 구렁이 깊지 않은 바 아니요, 병기가 튼튼하고 날카롭지 않은 바 아니요, 군량이 넉넉하지 않은 바 아니로되, 그대로 버리고 도망질치는 것은 이는 지세의 유리한 것도 인심이 화합함만 같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백성을 나누되 영토적인 경계로 하지 말고, 국초(國礎)를 든든하게 하는 데도 산골짜기의 험난한 것을 이용하지 말고, 천하를 호령하되 병기의 예리한 것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바른길을 얻으면 돕는 이가 많고, 바른길을 잃으면 돕는 이가 적다. 아주 돕는 이가 적어지면 친척도 그를 배반하고 아주 돕는 이가 많아지면 천하도 그를 따를 것이다. 온 천하가 따르는 힘으로 친척도 배

반하는 부류를 공격하게 되므로 군자는 싸우려 하지 않으나 싸우기
만 하면 이기고야 마는 것이다.”

攻親戚孟子曰 天時¹⁾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 三里之城 七里之郭 環而攻之而不勝 夫環而攻之 必有天時者矣 然而不勝者 是天時不如地利也 城非不高也 池非不深也 兵革非不堅利也 米粟非不也 委²⁾而去之 是地利不如人和也 故曰域民不以封疆之界 固國不以山谿之險 威天下不以兵革之利 得道者多助 失道者寡助 寡助之至 親戚畔之 多助之至 天下順之 以天下之所順 之所畔 故君子有不戰 戰必勝矣³⁾

맹자가 왕을 뵈러 가셨더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제가
가서 뵈을까 하였더니 감기로 바람을 쏘이면 안 되겠기에 그러하오
니, 내일 아침절에 조회를 받을 때 어떠실는지 좀 만나 주실 수 없으
실는지!”

“안되었습니다마는 몸이 아파서 조정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이튿날 나와서 동곽씨에게 조문을 갔다. 공손추가 말하기를
“어제는 아프단 핑계로 거절하시고, 오늘은 조문을 나가시니 아무래
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어제는 앓다가 오늘은 나았는데 왜 조문을 못 갈 것이냐?”

왕이 사람을 보내어 병문을 하고 의원도 딸려 보냈다. 맹중자가
말하기를 “어제는 왕명이 있었으나 몸이 불편해서 나가 뵈옵지 못했

1) 천시(天時): 적절한 시기. 시일(時日)의 간지(干支)·고허(孤虛)·왕상(旺相) 따위를—주자설—가리킨 것이 아니다. 북쪽 흑한지방의 적인(狄人)을 겨울에 공격하는 것은 천시(天時)를 어기는 것이요, 풍우(風雨)를 이용하여 역습하는 것은 천시(天時)를 역용(逆用)하는 것이다. 남방에서 우기(雨期) 휴전(休戰)도 천시불리(不利)하기 때문인 것이다.

2) 위(委): 버린다.

3) [평설] 인화(人和)가 천시(天時)·지리(地利)에 우선하는 것이지만 인화(人和)도 또한 왕정(王政)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득도(得道)란 곧 득왕도(得王道)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는데, 오늘은 좀 나왔기 때문에 바빠 청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마 도착하셨을 법도 합니다마는” 그리고선 여러 사람을 시켜 길목에 지켜섰다가 “제발 집으로 오시지 말고 청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맹자는 이리기도 저리기도 딱해서 하는 수 없이 경축씨에게로 가서 쉬었다. 경축씨는 “집안에서는 부자요, 밖에서는 군신이 윤리관계의 가장 큰 것입니다. 부자간에는 은혜를 주로 삼고, 군신 간에는 존경을 주로 삼는데, 제가 보기로는 왕은 선생께 경의를 표하는 데 선생께서는 왕께 경의를 표하는 것 같은 그런 점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나라 사람들이 왕과 함께 인의를 논하지 않는 것은 왜 인의란 하찮은 것이라 해서 그럴 리가 있겠소? 속으로는 ‘그이와 뭘! 인의를 논의할 필요가 있나’ 하고 짐작으로만 지난다면 이보다 더한 불경(不敬)이 어디 있겠소? 나는 요순의 도가 아니면 왕의 앞에 아무것도 여쭙지 않으니 그러므로 제나라 사람에 나만큼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기』에 ‘아버지가 부르시거든 추근거리지 말라. 고로 왕이 부르시면 멩에 멘다고 미적거리지 말자’ 이런 구절이 있는데 곧장 가 뵈오려고 했다가 왕명을 듣고는 그만 주저앉아 버리니 『예기』에 쓰인 말과는 좀 엇나가는 것만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런 뜻일까! 증자는 ‘진·초의 재물은 따를 재간이 없으나, 그가 그의 재물을 가지고 대들면 나는 나의 인(仁)으로 갚고, 그가 그의 벼슬로 대들면 나는 나의 의(義)로 갚을 것이니, 내게는 서운할

것이 없단 말이다’ 하였으니, 왜 의(義) 아닌 것을 증자께서 말씀하였겠소. 이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에 셋이 있는데 벼슬자리가 그 하나요, 나이가 그 하나요, 인격이 그 하나입니다. 조정에서는 벼슬자리를 당하지 못하고, 마을에서는 나이를 당하지 못하고, 사회를 돕고 백성을 지도하는 데는 인격을 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둘을 가진 이를 업신여길 수 있단 말이요?

그러므로 장차 큰일을 함 직한 군왕에게는 불러내지 못할 신하가 반드시 있는 것이라, 그가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는 가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존중하고 도를 즐기는 마음이 이렇지 않으면 그와 함께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탕왕이 이윤에게 대하여 그에게서 배운 후에 신하로 삼았기 때문에 힘 안 들이고 왕자가 된 것이며, 환공이 관중에게 대해서도 그에게서 배운 후에 그를 신하로 삼았기 때문에 힘 안 들이고 패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 나라의 영토도 비슷비슷하며 덕망도 거의 거기 감직하여 누가 위가 되어야 할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이는 다른 까닭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면서 씀 직한 신하를 좋아하고 자기가 배움 직한 신하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탕왕이 이윤에게 대해서나 환공이 관중에게 대해서나 함부로 불러대지 못했습니다. 관중도 함부로 못 불러냈는데, 하물며 관중 따위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불러댁니까?”

孟子將朝王⁴⁾ 王使人來曰寡人如就見者也 有寒疾不可以風 朝將視朝 不識 可使寡人得見乎 對曰不幸而有疾 不能造朝 明日出吊於東郭氏⁵⁾ 公孫

丑曰 昔者辭以病 今日吊 或者不可乎 曰昔者疾 今日愈 如之何不吊 王使人問疾 醫來 孟仲子⁶對曰 昔者有王命 有采薪之憂⁷ 不能造朝 今病少愈 趨造於朝 我不識 能至否乎 使數人 要於路曰 請必無歸而造於朝 不已而之景丑氏⁸宿焉 景子曰內則父子 外則君臣 人之大倫也 父子主恩 君臣主敬 丑見王之敬子也未見所以敬王也 曰惡 是何言也 齊人 無以仁義與王言者 豈以仁義爲不美也 其心曰是何足與言仁義也云爾 則不敬莫大乎是 我非堯舜之道 不敢以陳於王前 故齊人 莫如我敬王也 景子曰否 非此之謂也 禮⁹曰父召無諾 君命召不俟駕 固將朝也 聞王命而遂不果 宜與夫禮 若不相似然 曰豈謂是與 曾子曰 晉楚之富不可及也 彼以其富 我以吾仁 彼以其爵 我以吾義 吾何慊¹⁰乎哉 夫豈不義而曾子言之 是或一道也 天下有達¹¹尊三 爵一齒¹²一德一 朝廷莫如爵 鄉黨莫如齒 輔世長民莫如德 惡得有其一 以慢其二哉 故將大有爲之君 必有所不召之臣 欲有謀焉則就之 其尊德樂道不如是 不足與有爲也 故湯之於伊尹 學焉而後臣之 故不勞而王 桓公之於管仲 學焉而後臣之 故不而霸今天下地醜德齊 莫能相尚 無他 好臣其所教而不好臣其所受教 湯之於伊尹 桓公之於管仲 則不敢召 管仲且猶不可召 而況不爲管仲者¹³乎¹⁴

진진이 문기를 “앞서 제나라에서 왕이 좋은 금 100일(鎰)을 보내도 받지 않으시고 송나라에서는 70일을 보냈는데 받으시고 설나라에서는 50일을 보냈는데 받으셨으니, 앞서 안 받으신 것이 옳다면

4) 왕(王): 제선왕.

5) 동곽씨(東郭氏): 제나라 대부.

6) 맹중자(孟仲子): 맹자의 종제(從弟).

7) 채신자우(采薪之憂): 신병 때문에 땀나무를 못한다는 뜻.

8) 경추씨(景丑氏): 제나라 대부. 성이 경(景)이니 경자(景子)라 함.

9) 예(禮): 『예기』.

10) 겸(慊): 부족하다.

11) 달(達): 통(通).

12) 치(齒): 나이.

13) 불위관중자(不爲管仲者): 맹자 자신을 가리킨 말이다.

14) [평설] 맹자의 신념에 찬 고집이 엿보인다. 맹자에게는 벼슬산다는 것보다도 도를 행할 수 있는나의 여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지금 받으신 것은 잘못이요, 지금 받으신 것이 옳다면 앞서 안 받으신 것은 잘못이니, 선생님은 그중 어느 한편이어야 하실 것입니다.”

“다 옳다. 송나라에 있을 때에는 내가 먼 길을 떠나려던 무렵이니, 길 떠나는 사람에게는 노자를 주는 법이라 ‘노자로 드립니다’ 말을 하며 주니 내 어찌 안 받을 수 있겠는가?

실나라에 있을 적엔 신변을 조심해야 할 일이 있는 때라 ‘신변은 조심하셔야 할 일이 있다 하기로 호위를 두시라고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내 어찌 안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제나라에 있을 적에는 이렇다 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 일도 없을 적에 보내 주었으니, 이는 매수하자는 것이라 어찌 군자가 되어 매수를 당해서야 되겠는가!”

陳臻¹⁵⁾問曰 前日於齊 王餽兼金¹⁶⁾一百而不受 於宋餽七十鎰¹⁷⁾而受 於薛餽五十鎰而受 前日之不受是則 今日之受非也 今日之受是則 前日之不受非也 夫子必居一於此矣 孟子曰皆是也 當在宋也 予將有遠行 行者必以贖 辭曰餽贖 予何爲不受 當在薛也 予有戒¹⁸⁾心 辭曰聞戒 故爲兵餽之 予何爲不受若於齊則未有處也 無處而餽之 是貨之¹⁹⁾也 焉有君子而可以貨取乎²⁰⁾

맹자가 평육지방에 들러 그곳 대부더러 “창을 든 당신의 병졸이 하루에 세 번씩이나 뒤떨어지면 죽이겠소? 안 죽이겠소?”

15) 진진(陳臻): 맹자의 제자.

16) 겸금(兼金): 은(銀) 또는 금(金).

17) 일(鎰): 20냥(兩).

18) 계(戒): 만일에 대비하는 경계.

19) 화지(貨之): 돈을 준다. 돈으로 산다.

20) [평설] 명분이 맞는 재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재물이 있다. 전자는 사양할 필요가 없지만 후자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됨은 물론이다. 반드시 재화가 뒤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세 번까지 안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뒤떨어진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요. 흥년이 들어 마구 굶는 시절에 당신의 백성으로 늙은이 젊은이가 진구렁에서 구르고, 청장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방으로 풍긴 자만도 몇 천 명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야 거심(距心)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남의 소나 양을 그 임자를 위해서 길러주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는 이를 위해서 목장이나 목초를 구해야만 할 것이다. 목장이나 목초를 구하지 못할 때는 그 임자에게 도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까? 그렇잖으면 뻘히 서서 죽어가는 꼴을 그대로 볼 것입니까?”

“그야 거심 나의 죄입니다.”

그 후에 왕을 찾아 뵈옵고 “왕의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 중에 신이 아는 사람으로는 다섯이 있습니다. 제 죄를 아는 사람은 공거심뿐이 더군요” 하면서 지난 이야기를 쪽 되풀이했더니 왕이 “그야 제 죄입니다”라고 하였다.

孟子之平陸²¹⁾ 謂其大夫曰 子之持戟之士 一日而三失伍 則去之 否乎 曰 不待三 然則子之失伍也亦多矣 凶年饑歲 子之民 老羸轉於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幾千人矣 曰此非距心²²⁾之所得爲也 曰今有受人之牛羊而爲之牧²³⁾之者 則必爲之求牧與芻矣 求牧與芻而不得 則反諸其人乎 抑亦立而其死與 曰此則距心之罪也 他日見於王曰 王之爲都²⁴⁾者 臣知五人焉 知其罪者 惟孔距心 爲王誦之 王曰此則寡人之罪也²⁵⁾

21) 평릉(平陸): 제나라 고을 이름.

22) 공거심(孔距心): 제나라大夫.

23) 목(牧): 기른다. 목초지(牧草地).

24) 도(都): 선군(先君)의 묘가 있는 곳.

맹자가 지와더러 “당신이 영구 고을 벼슬을 사임하고 사법관이 된 것은 잘 하신 일 같습니다. 진언하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아직 아무 말씀도 못 드렸는가요?”

지와가 왕께 다른 말을 드렸으나 대꾸하여 주지 않으므로 신하의 직분을 사임하고 떠나 버렸다. 제나라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기를 “지와를 위하여 하신 일은 잘 하신 일이나, 자기의 하는 일은 정말 알 수 없단 말이야.”

이런 말을 공도자가 맹자에게 아뢰는즉 “나는 이렇게 배웠다. 벼슬자리를 지키는 직분을 다 못하게 될 때에는 떠나야 한다고. 진언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떠나야 하고. 그러나 내게는 벼슬자리도 없고 내게는 진언의 책임도 없으니, 내가 오고 가는 마당에 무엇이 거리낄 것이 있겠는가!”

孟子謂蚺(26)曰 子之辭靈丘(27)而請士師似也 爲其可以言也 今既數月矣 未可以言與 蚺(28)諫於王而用 致爲臣而去 齊人曰所以爲蚺(29)則善矣 所以自爲則吾不知也 公都子(28)以告 曰吾聞之也 有官守者不得其職則去 有言責者 不得其言則去 我無官守 我無言責也 則吾進退 豈不綽綽然(29)有餘裕哉(30)

맹자가 제나라 경(卿) 벼슬에 있을 때 등나라로 조문을 나갔다. 왕

25) [평설] 목자(牧者)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 책임감이 강해야 한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벼슬이 아니라 민생(民生)을 위한 양민관(養民官)이기 때문이다.

26) 지와(蚺): 제(齊)나라 대부(大夫).

27) 영구(靈丘): 제나라 고을 이름.

28) 공도자(公都子): 맹자 제자.

29) 작작연(綽綽然): 관유(寬裕)한 모습. 너그러운 모양.

30) [평설] 신하는 간언(諫言)의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상위자(上位者)는 간언(諫言)의 길-언로(言路)-를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개지방 대부 왕관을 부사(副使)로 삼아 보냈다. 왕관은 아침저녁으로 만났으나 제나라에서 등나라로 돌아오도록 용무에 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었다. 공손추가 말하기를 “제나라 경의 지위는 작은 자리가 아니며 제·등 두 나라 사이의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닌데, 갔다 오시는 도중에 한 마디도 용무에 관한 이야기는 없으셨다니 무슨 까닭이십니까?”

“그야 그 사람이 다 잘 처리하여 버리는 것을 내가 무어라고 할 것이냐!”

孟子爲卿於齊 出吊於滕 王使蓋³¹⁾大夫王驩³²⁾ 爲輔行 王驩 朝暮見反³³⁾齊滕之路 未嘗與之言行事也 公孫丑曰 齊卿之位 不爲小矣 齊滕之路 不爲近矣 反之而未嘗與言行事何也 曰夫既或治之 予何言哉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 노나라로 가서 장례를 지내고 다시 제나라로 돌아와서 영 땅에서 머물렀다. 충우가 알고자 하여 묻기를 “앞전에 제가 못한 위인인 것을 모르시고 저로 하여금 관을 두껍게 만들도록 하셨는데 너무 바빠서 여쭙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조용히 한 말씀 여쭙어 보고 싶사운데 그때 나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관이나 외관에 표준이 없었다. 중년에 와서야 관 두께는 일곱 치요 외관은 그에 따라서 만들었다. 이는 제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보기 좋도록 꾸미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풀리기 때문이었다. 것처럼 못 만들게 되어도 만족할

31) 개(蓋): 제나라 고을 이름.

32) 왕환(王驩): 왕이 총애하는 신하의 한 사람.

33) 반(反): 다시 돌아온다.

수 없고 재목이 없어도 만족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재목도 있으면 옛날 사람들은 모두 그런 것을 썼던 것이다. 왜 나만 그렇게 못 한다는 말이냐?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 흙이 살결에 단지 않도록 해놓으면 마음에 어찌 후련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배웠다. 군자는 천하를 주고라도 제 아버이를 위해서 재물을 아끼지 않는다고.”

孟子自齊葬於魯 反於齊 止於贏³⁴⁾ 充虞³⁵⁾請曰前日 不知虞之不肖 使虞敦³⁶⁾匠事³⁷⁾嚴 虞不敢請 今願竊有請也 木³⁸⁾若以美然 曰古者 棺槨無度 中古棺七寸 槨稱之 自天子達於庶人 非直爲觀美也 然後盡於人心 不得不可以爲悅 無財³⁹⁾ 不可以爲悅 得之爲有財 古之人 皆用之 吾何爲獨不然且比⁴⁰⁾化者 無使土親膚 於人心 獨無校乎 吾聞之也 君子不以天下儉其親⁴¹⁾

심동이 가만히 묻기를 “연나라는 정벌해도 좋을까요?”

“좋지요. 자회도 다른 사람에게 연나라를 줄 수 없으며, 자지도 자회에게서 연나라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벼슬살이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에 든다고 해서 왕께 아뢰지도 않고 당신의 벼슬자리를 넘겨주거나 또한 그 사람도 왕

34) 리(贏): 제나라 고을 이름.

35) 충우(充虞): 맹자 제자.

36) 둔(敦): 후이(厚也) 음(音) 퇴.

37) 장사(匠事): 관 만드는 일.

38) 목(木): 관(棺).

39) 재(財): 재(材)로 통합.

40) 비(比): 위(爲).

41) [평설] 유가에 있어서의 후장(厚葬)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능력의 한도 내에서는 후장을 허용하며 그것은 또 자손의 도리요 겸하여 기쁨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명이 없이 당신에게서 옳아 받는다면 옳은 일이 되겠소? 이와 어디가 다르단 말이요.”

제나라 사람들이 연나라를 정벌하니 어떤 사람이 묻기를 “제나라 더러 연나라를 정벌하라 하셨다니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심동이 ‘연나라를 정벌해도 좋을까요?’ 하고 묻기에 나는 그 말끝에 ‘좋지요’라고 대답했는데 그들이 그래서 정벌한 것입니다.

그가 만일 ‘누가 그를 정벌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면 나는 바로 ‘하늘이 보낸 일꾼이거든 정벌해도 좋지요’라고 대답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사람을 죽인 놈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사람이 묻기를 ‘그놈을 죽여야 할까요?’ 한다면 바로 ‘그래야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누가 그놈을 죽여야 합니까?’라고 물으면 ‘사법관이거든 죽여도 좋지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제 연나라 같은 나라가 연나라를 정벌했으니 어찌하여 그 일을 권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沈同⁴²⁾以其私問⁴³⁾曰 燕可伐與 孟子曰可 子噲⁴⁴⁾不得與人 燕 子之⁴⁵⁾不得受燕於子噲 有仕於此 而子悅之 不告於王而私與之 吾子之祿爵 夫士也亦無王命而私受之於子 則可乎 何以異於是 齊人伐燕或問曰 勸齊伐燕有諸 曰未也 沈同問燕可伐與 吾應之曰可 彼然而伐之也 彼如曰 孰可以伐之則將應之曰爲天吏則可以伐之 今有殺人者 或問之曰 人可殺與 則將應之曰可 彼如曰 孰可以殺之 則將應之曰爲士師則可以殺之 今以燕伐

42) 침동(沈同): 제나라 신하.

43) 사문(私問): 왕명(王命)이 아니다.

44) 자괘(子噲): 연(燕)나라 왕.

45) 자지(子之): 연나라 재상.

연나라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니 왕이 말하기를 “나는 진정 맹자를 볼 날이 없소.”

진고가 말하기를 “왕께서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왕의 생각으로 는 주공에 비해서 누가 더 어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요?”

“주공이 관숙을 시켜 은나라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관숙이 은나라를 배경 삼아 모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그 일을 맡겼다면 이는 어진 이의 할 짓이 아니요, 그럴 줄을 모르고 그 일을 맡겼다면 이는 지혜가 없는 짓입니다. 어질고 지혜로운 일은 주공도 제대로 다 못 했는데 하물며 왕께서 하겠습니까? 제가 만나 뵈옵고, 이 문제를 풀어 오겠습니다.”

맹자를 만나서 묻기를 “주공은 어떤 인물입니까?”

“옛 성인입니다.”

“관숙을 시켜 은나라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관숙이 은나라를 배경 삼아 모반하였다니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주공이 그가 모반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시켰던가요?”

“몰랐었지요.”

“그렇다면 성인도 그런 실수가 있습니까?”

46) 이연벌연(以燕伐燕): 앞에 나온 연(燕)은 나라 이름이기는 하지만 ‘연(燕)나라와 같은 나라’라는 상징적 의미로 쓰인 것이다.

47) [평설] 전쟁수단에 의한 정벌은 탕무(湯武)의 예에서처럼 응징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침략·야욕의 정벌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는 비진론(非戰論)이 아니라 의진론(義戰論)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주공은 아우요 관숙은 형이니 주공의 실수도 당연하지 않소?”

그런데 옛날 군자는 실수하면 곧 고치는데, 요새 군자랍신 이들은 실수하고도 그대로 밀어댑니다. 옛날 군자는 그의 잘못이 마치 일식이나 월식 같아서 백성들이 모두 보고 있으며, 그를 바로잡으면 백성들이 모두 우러러보는데, 요새 군자랍신 이들은 이를 밀어댈 뿐 아니라, 게다가 뭐라뭐라 변명까지 하려고 합니다.”

燕人畔⁴⁸⁾ 王⁴⁹⁾曰吾甚慙於孟子 陳賈⁵⁰⁾曰王無患焉 王自以爲與周公孰仁且智 王曰惡 是何言也 曰周公使管叔⁵¹⁾監殷 管叔以殷畔⁵²⁾ 知而使之是不仁也 不知而使之 是不智也 仁智周公未之盡也 而況於王乎 賈請見而解之 見孟子問曰 周公何人也 曰古聖人也 曰使管叔監殷 管叔以殷畔也 有諸曰然 曰 周公知其將畔而使之與 曰不知也 然則聖人且有過與 曰周公弟也 管叔兄也 周公之過不亦宜乎 且古之君子 過則改之 今之君子 過則順之 古之君子 其過也如日月之食 民皆見之 及其更也 民皆仰之 今之君子 豈徒順之 又從而爲之辭⁵³⁾

맹자가 사임하고 돌아가려 한즉 왕이 찾아가서 “전자에게는 뵈옵고 싶었어도 그렇게 안 되다가 조정에서 함께 모시게 되니 기쁨을 이루다 여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저를 버리고 떠나려 하시니 어떠신가요? 계속해서 뵈옵도록 하여 주실 수 없으신지?”

“억지로 청할 수는 없지만 그야 내 소원입니다.”

48) 반(畔): 반(叛).

49) 왕(王): 제선왕.

50) 진고(陳賈): 제나라 대부.

51) 관숙(管叔): 무왕의 아우요 주공의 형. 이름은 선(鮮).

52) 이은반(以殷畔): 관숙이 은나라 총감(統監)으로 가서 도리어 은나라와 합세하여 반란을 일으킨 고사.

53) [평설] 맹자의 친친사상(親親思想)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주공이 그의 아우 관숙의 불인(不仁)을 알고도 감은(監殷)의 지위를 준 것은 존현(尊賢)이 아니라 친친(親親)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뒷날 왕이 사자더러 “나는 우리나라 복판에다가 맹자의 주택을 마련하여 드리고 만종의 녹을 드려 제자들을 기르게 할 것이며, 여러 관리나 국민이 존경하고 또 본받게 할 것이니, 그대는 나를 위해서 이 뜻을 전해 줄 수 없을까?”

사자는 진자를 통해서 이 뜻을 맹자에게 전하도록 한즉 진자는 사자의 말대로 맹자에게 알리니, 맹자가 말하기를 “그런가. 사자란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알 것인가. 내가 만일 부자가 되고 싶었더라면 십만을 싫다 하고 만을 받는 것이 그것이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인가!”

계손이 말하기를 “이상도 하여라. 자숙의는 자기에게 정치를 맡겼을 때 쓰여 주지를 앓으면 그만두면 두었지 또 제 자제들을 시켜 경벼슬을 살게 하니 말이요, 사람마다 누구나 부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부귀 그 가운데에서 홀로 몰래 드높은 언덕을 차지하려는 자가 있단 말이야라고 하였는데, 옛날에 저자를 본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안 가진 것과 바꾸는 일이었으니, 이를 관리들이 나가서 감독할 따름이었다. 그런데 비루한 작자 한 놈이 있어 그놈은 언제나 드높은 언덕을 찾아 올라가서는 이리저리 돌레 돌레 돌아다보면서 저갯거리의 이익은 모조리 긁어모으고자 들었다. 사람마다 그놈더러 비루하다고 하기 때문에 쫓아가서 그놈에게서 세금을 받아 냈으니, 장사치에게서 세금을 받아 내는 법이란 이 비루한 작자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孟子致爲臣⁵⁴)而歸 王就見孟子曰 前日願見而不可得 得侍同朝甚喜 今又棄寡人而歸 不識 可以繼此而得見乎 對曰不敢請耳 固所願也 他日王謂

時子曰 我欲中國而授孟子室 養弟子以萬鍾⁵⁵⁾ 使諸大夫國人 皆有所矜式 子盍爲我言之 時子⁵⁶⁾因陳子⁵⁷⁾而以告孟子 陳子以時子之言 告孟子 孟子曰然 夫時子惡知其不可也 如使子欲富 辭十萬而受萬 是爲欲富乎 季孫曰異哉 子叔疑⁵⁸⁾ 使己爲政 不則亦已矣 又使其子弟爲卿 人亦孰不欲富貴 而獨於富貴之中 有私龍斷⁵⁹⁾焉 古之爲市者 以其所有易其所無者 有司者治之耳 有賤丈夫焉 必求龍斷而登之 以左右望而罔⁶⁰⁾市利 人皆以爲賤故 從而征之 征商自此賤丈夫始矣⁶¹⁾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 주 땅에서 묵고 있는데 왕을 위해서 그가 떠나는 길을 멈추게 하려는 사람이 곁에 앉아서 이야기하지만 대꾸도 하지 않고 안석에 기댄 채 비스듬히 누워 버렸다. 그 사람은 속이 좀 언짢아서

“제가 몸단속을 깨끗이 하고 나와서 어렵게 여쭙는 말씀을 선생님은 누워서 듣지도 않으시니 다시는 뵈옵잘 것도 없습니다.”

“거기 앉게나. 내 그대에게 똑똑히 알려줄 테니. 옛날에 노나라 목공이 자사의 곁에 사람이 없었으므로 자사를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했고, 설류·신상은 목공의 곁에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들 자신이 편하지를 못했다. 그대가 나이 많은 어른을 위해서 염려는 하여 주지만 자사를 생각하듯 그렇게 못 했으니 그대가 나이 많은 어른과

54) 치위신(致爲臣): 치사(致仕). 벼슬을 돌려보낸다.

55) 종(鍾): 6곡(斛) 4두(斗).

56) 시자(時子): 제나라 신하.

57) 진자(陳子): 진진(陳轅).

58) 계손·자숙의(季孫·子叔疑): 이인(二人) 공(共)히 미상(未詳).

59) 용단(龍斷): 용(龍)은 농(壟), 단(斷)은 단애(斷崖).

60) 망(罔): 주(綯). 그물질하다.

61) [평설] 벼슬을 그만두기로 한다면 만종(萬鍾)이나 십만종(十萬鍾)의 재물도 아랑곳없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어찌 시리(市利)를 농단(壟斷)하는 천장부(賤丈夫)처럼 몰염치(沒廉恥)한 탐리(貪吏)가 될 수가 있겠는가?

의를 끊는 것인가! 나이 많은 어른이 그대와 의를 끊는 것인가?”

孟子去齊 宿於晝⁶²⁾ 有欲爲王留行者 坐而言 不應 隱⁶³⁾几而臥 客不悅 曰 弟子齊宿而後敢言 夫子臥而不聽 請勿復敢見矣 曰坐 我明語子 昔者 魯繆公 無人乎子思之側 則不能安子思 泄柳⁶⁴⁾申詳⁶⁵⁾無人乎繆公之側 則不能安其身 子爲長者慮而不及子思 子絕長者⁶⁶⁾乎 長者絕子乎⁶⁷⁾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니 윤사가 어느 사람더러 “왕이 탕왕이나 무왕같이 될 수 없는 것을 몰랐다면 현명하지 못하기에 그런 것이요, 안 될 줄 알면서도 오셨다면 그는 혜택을 입어보자는 것이었으리라, 천 리 길을 터벅터벅 찾아와서 왕을 만났으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떠나는 사람이 사흘씩이나 묵고서 주 땅을 벗어나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머뭇머뭇하는 거요? 나는 그것이 좀 불쾌하다는 말이에요.”

고자가 그렇게 전한즉, 맹자가 말하기를 “윤사란 사람이 어찌 내 속을 알 것이냐! 천 리 길을 터벅터벅 찾아와서 왕을 만난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는 것은, 어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럴 것이냐! 나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사흘 되도록 묵고 나서 주 땅을 떠났지만 내 마음에는 그래

62) 주(晝): 제나라 서남에 있는 고을 이름.

63) 은(隱): 방(憑)

64) 설류(泄柳): 노나라 사람.

65) 신상(申詳): 자장(子張)의 아들.

66) 장자(長者): 맹자 자칭.

67) [평설] 맹자의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냉엄한 태도는 공자의 이직보원(以直報怨)의 태도와도 방불하다. 제왕(齊王)의 결례를 어찌 객의 일시적 권유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인가? 맹자의 냉정한 태도는 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멀리 제왕(齊王)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도 빨랐던 것 같다. 왕이 행여나 마음을 돌려주었으면 했던 것이니, 왕이 만일 마음을 돌려주었다면 반드시 나를 불렀을 것이다.

보게나. 주 땅을 떠났으나 왕은 내 뒤를 쫓아 주지 않았다. 그러기에 나는 문득 떠날 결심을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 한들 나야 어찌 왕을 버리겠느냐! 왕은 그래도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니, 왕이 만일 나를 써 주시면 비단 제나라 백성들만 안정시킬 것인가?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안정을 얻을 터이니 왕께서는 행여나 마음을 돌리시기를 나는 날마다 날마다 바라는 것이다.

내가 어찌 그런 줄장부 같은 짓을 하겠는가! 그의 군왕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받아 주지 않는다고 뿌루통해가지고, 푸르락노르락 화를 풍겨 가면서 떠나되, 저저 도망치듯 한종일 가다가 해 지는 곳에서 묵을 것인가!”

윤사는 이 말을 듣고서 말하기를 “사, 저는 정말 소인입니다.”

孟子去齊 尹士⁶⁸語人曰不識王之不可以爲湯武則是不明也 識其不可 然且至則是干⁶⁹澤也 千里而見王 不遇 故去 三宿而後出晝 是濡滯也 士則茲不悅 高子⁷⁰以告 曰夫尹士 惡知予哉 千里而見王 是予所欲也 不遇故去豈予所欲哉 予不得已也 予三宿而出晝 於予心 猶以爲速 王庶⁷¹幾改之 王如改諸 則必反予 夫出晝而王不予追也 予然後浩然有歸志 予雖然 豈舍王哉 王由足用爲善 王如用予 則豈徒齊民安 天下之民舉安 王庶幾改之 予日望之 予豈若是小丈夫然哉 諫於其君而不受則怒 悻悻然見於其面 去則窮日之力而後宿哉 尹士聞之曰 士誠小人也⁷²

68) 윤사(尹士): 제인아(齊人也).

69) 간(干): 구(求).

70) 고자(高子): 제인아(齊人也) 맹자의 제자.

71) 서기(庶幾): 거의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72) [평설] 맹자는 언제나 제후에 의한 왕정(王政) 실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성(成)·불성(不成)은 천명에 달려 있지만 인사의 극진한 노력은 어찌 한 시인들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맹자가 제나라를 떠날 때 충우가 길에서 묻기를

“선생님은 불쾌하신 듯한데 앞서 제가 선생님께 듣자옴기를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허물치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때요, 지금은 지금이다. 백 년 만에 반드시 왕노릇할 분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반드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있다.

주나라가 이룩된 이후로 백 년이 되었는데 햇수로 보아서는 훨씬 지나쳤고, 시대의 정세로 보아서는 꼭 알맞은 때다.

그런데 하늘이 아직 천하를 바로잡자 하시지 않는다. 만일 천하를 바로잡자 하신다면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나를 내놓고 누가 있을 것이냐? 왜 불쾌할 까닭이 있느냐?”

孟子去齊 充虞路問曰 夫子若有不豫色然 前日虞聞諸夫子 曰君子不怨天不尤人⁷³⁾ 曰彼一時 此一時也 五百年 必有王者興 其間必有名世者 由周而來 七百有餘歲矣 以其數則過矣 以其時考之則可矣 夫天未欲平治天下也 如欲平治天下 當今之世 舍我其誰也 吾何爲不豫哉⁷⁴⁾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 후 땅에 있을 때 공손추가 “벼슬을 살면서 봉록을 받지 않는 것이 옛날 사람들의 태도인가요?”

“그렇지 않다. 송 땅에서 나는 왕을 뵈을 수가 있었는데, 물러 나와서는 떠나버리기로 했으니, 그 마음이 변하기 싫어서 받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바로 동원령이 내렸기 때문에 차마 여쭙지 못했으나 제나라에 오래 머문 것은 내 본뜻은 아니었던 것이다.”

73) 불원천불우인(不怨天不尤人): 『논어』 「현문」 편.

74) [평설] 요순우(堯舜禹)에서 탕왕(湯王)까지. 탕왕(湯王)에서 문무왕(文武王)까지 거의 5백여 년이오 그 사이에 고요(皐陶)·목양(穆梁)·이윤(伊尹)·내주(萊朱)·태공망(太公望)·산의생(散宜生) 같은 이름난 현인들이 나왔다. 맹자의 자신 있는 사명감은 자신을 이들에게 견주어가면서 가위(可謂) 유아독존(唯我獨存(尊)의 의기(義氣)에 불타고 있는 것이다.

孟子去齊居休⁷⁵⁾ 公孫丑問曰 仕而不受祿 古之道乎曰非也 於崇⁷⁶⁾ 吾得見
王 退而有去志 不欲變 故不受也繼而有師命 不可以請 久於齊 非我志也⁷⁷⁾

75) 휴(休): 지명(地名).

76) 숭(崇): 지명(地名).

77) [평설] 제왕(齊王)에 대한 맹자의 태도는 왕정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회의적이다.
“가지불욕변(去志不欲變)”은 이 점을 분명히 한 자라 할 수 있다.

등문공 상

등문공이 세자 때 초나라로 가는 길에 송나라를 지나면서 맹자를 만났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이라 하며 말끝마다 요순을 찬양하였다. 세자는 초나라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맹자를 만났다.

맹자가 말하기를 “태자께서는 내 말을 의심하십니까? 길이란 하나뿐인 것입니다.

성간이 제경공더러 ‘그도 대장부요 나도 대장분데 내가 어찌 그를 두려워할 까닭이 있겠소?’ 하고,

안연은 ‘순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기만 한다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일!’이라 하고,

공명익은 ‘문왕은 나의 스승이시다. 그렇게 말한 주인공이 어찌 나를 속일 것인가!’ 하였습니다.

이제 등나라가 지나친 점은 잘라내고 모자라는 점을 고친다면 사방 오십 리밖에 안 되지만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합니다. 옛 글에 ‘약에 아찌르르한 기운이 없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 것과 같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滕文公¹⁾爲世子²⁾ 將之楚 過宋而見孟子 孟子道³⁾性善⁴⁾ 言必稱堯舜 世子自楚反 復見孟子 孟子曰 世子疑吾言乎 夫道一而已矣 成闞⁵⁾謂齊景公曰 彼丈夫也 我丈夫也 吾何畏彼哉 顏淵曰 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 公明儀⁶⁾曰 文王我師也 周公豈欺我哉 今滕⁷⁾絕長補短 將五十里也 猶可以爲善國 書曰若藥⁸⁾不暝眩 厥疾不瘳⁹⁾

등문공이 흥거하였다.

세자가 연우더러 “전날 맹자께서 송나라에서 나더러 하신 말씀을 나는 마음속에 새겨두고, 언제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불행히 아버님의 상사(喪事)를 당하였으니 나는 그대를 보내어 맹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상례를 치를까 합니다.”

연우가 추나라로 가서 맹자에게 물은즉

-
- 1) 등문공(滕文公): 정공(定公)의 아들.
 - 2)世子(世子): 천자의 장자는 태자(太子)라 하고, 제후의 장자는 세자(世子)라 한다.
 - 3)도(道): 언(言).
 - 4)성선(性善): 참새가 숲을 좋아하고 나비는 꽃을 즐긴다. 범은 짐승을 쫓고 물고기는 바다를 헤엄친다. 모두가 타고난 그들의 성(性) 때문이다. 인간은 ‘호선오악(好善惡惡)’하니, 이는 그들의 성(性)이 선(善)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곧 성선(性善)이기 때문이다. 악(惡)은 어디로부터 올까? 형기지사욕(形氣之私慾) 때문이다. 사욕(私慾)을 버려라, 그러면 선(善)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공자는 “성상근어(性相近也) 습상원아(習相遠也)”라 하였다. 인간의 순수한 본성(本心)이 아니다라는 곧 남이나 나나 선(善)하기를 좋아하고 선(善)하기를 바란다. 제아무리 악인이라도 인간이란 회오(悔悟)할 줄 아는 동물이다. 회오(悔悟)는 성선(性善)의 반면(反面)이다. 회오(悔悟)를 모르면 근어금수(近於禽獸)가 아니냐. 악인들에게도 자기변호(自己辯護)가 있다. 이는 선(善)을 자성(自性) 속에서 보기 때문이요, ‘자기(自己)의 생명(性命)’이 지엄(至嚴)하기 때문이다. 왜 악인은 솔성(率性)하지 못하는가? 인육(人慾)에 함닉(陷溺)하기 때문이니 인간이 악(惡)을 범(犯)하되 그것이 어찌 인간의 본성이겠느냐? 인류(人類)는 ‘호생오사(好生惡死)’하며 ‘문화(文化)를 존승(尊崇)하고, 횡포를 염오(厭惡)’하니 이를 일러 ‘낙선오악(樂善惡惡)’이라 할 수 있다. 낙선오악(樂善惡惡)이란 인간의 성(性)이기에 그렇다. 인간이란 선(善)을 좋아하기에 곧 성선(性善)이기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자사는 ‘솔성(率性)하라’ 했고 맹자는 바로 ‘성선(性善)이다’라 한 것이다.
 - 5)성간(成闞): 인명(人名).
 - 6)공명의(公明儀): 노나라의 어진 선비.
 - 7)등(滕): 문왕의 아들 착재(錯錡) 주(紂)를 봉했던 나라다.
 - 8)서일약약(書曰若藥): 『서경(書經)』 「상서(商書)」 「열명(說命)」 편(篇). 약(藥)도 격렬한 반응이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듯이 정치도 우물쭈물 흐리멍덩하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뜻.
 - 9) [평설] 성선(性善)은 천하가 대동(大同)함을 역설하고 있다.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친상(親喪)에는 본래 제 힘자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증자가 말하기를 “살았을 때 섬기기를 예로써 하고 죽었을 때 장사를 예로써 하고 제사를 예로써 모시면 효자라 할 수 있으리라” 하였는데, 제후의 예는 아직 배우지 못했으나, 그러나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3년상을 치러야 하는 것과 허술한 상복을 입어야 하는 것과 미음을 먹어야 하는 것은 제왕으로부터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하·은·주 삼대가 모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연우가 돌아와서 복명한즉 3년상으로 결정하였다. 집안 어른들과 여러 벼슬아치들이 모두 싫어하여 말하기를

“우리 종주국인 노나라의 선군들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나라 선군들께서도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때에 와서 이 법을 뒤집는 것은 잘못입니다. 옛날 책에도 ‘장사나 제사는 선조가 하신 대로 하라’ 하였습시다.”

“나는 그렇게 배운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답하고 연우더러 “나는 전에 학문은 하지 않고 말달리거나 칼부림만 좋아한지라, 이제 집안어른이나 여러 벼슬아치들이 내 말을 시원찮게 여깁니다. 대사를 제 마음먹은 대로 치르지 못할까 저어하오니, 그대가 나를 위해서 맹자에게 좀 물어봐 주구려.”

연우가 다시 추나라로 가서 맹자에게 물은즉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더러 어떻게 하여 달란 문제가 아닙니다. 공자는 ‘군왕이 돌아가시면 그동안 정사는 총재가 보살피는 것이다. 세자는 죽을 마시며 얼굴은 검정 때 낀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통곡을 하면 모든 벼슬아치나 심부름꾼들이 슬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다. 이는 남 먼저 그렇게 하는 까닭이니, 위에서 좋아하는 일에 아래서는 보다 더 유난한 것이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니, 풀 위에 바람이 스치면 반드시 넘어지리라’ 하셨으니 이는 세자께서 하시기에 달렸습시다.”

연우가 돌아와서 그대로 아뢰즉, 세자가 말하기를 “그렇소. 정말 나 하기에 달렸소.”

하고 다섯 달 동안 풀집 속에서 살며 명령이나 훈계 같은 것을 내는 일이 없었다. 여러 벼슬아치나 친척들이 ‘알기는 아는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장례를 모실 때가 된즉 사방에서 모여와서 참관하였다. 얼굴빛이 초라해지고 슬피 흐느껴 우는지라, 조문객들은 크게 만족하였다.

滕定公¹⁰薨 世子謂然友¹¹曰 昔者 孟子嘗與我言於宋 於心終不忘 今也不幸 至於大故¹² 吾欲使子問於孟子然後 行事 然友之鄒 問於孟子 孟子曰 不亦善乎 親喪固所自盡也 曾子曰¹³ 生事之以禮 事葬之以禮 祭之以禮 可謂孝矣 諸侯之禮 吾未之學也 雖然吾嘗聞之矣 三年之喪 齊疏之服 飭粥之食 自天子達於庶人 三代共之 然友反命 定爲三年之喪 父兄百官皆不欲曰 吾宗國魯先君莫之行 吾先君亦莫之行也 至於子之身而反之不可 且志曰喪祭從先祖 曰吾有所受之也 謂然友曰 吾他日未嘗學問 好馳馬試劍 今也父兄百官不我足也 恐其不能盡於大事 子爲我問孟子 然友復之鄒 問孟子 孟子曰 然不可以他求者也 孔子曰¹⁴ 君薨 聽於冢宰¹⁵ 歆粥 面深墨 卽位而哭 百官有司 莫敢不哀 先之也 上有好者 下必有甚焉

10) 등정공(滕定公): 등문공의 아버지.

11) 연우(然友): 세자의 스승.

12) 대고(大故): 부친상(父親喪).

13) 증자왈(曾子曰): 『논어』 「위정」편 참조.

14) 공자왈(孔子曰): 『논어』 「헌문」편 참조.

15) 총재(冢宰): 국무총리(國務總理), 수상(首相).

者矣 君子之德¹⁶⁾風也 小人之德草也 草尙之風必偃 是在世子 然友反命
世子曰然 是誠在我 五月居廬 未有命戒 百官族人 可謂曰知 及至葬 四
方來觀之 顏色之戚 哭泣之哀 吊者大悅¹⁷⁾

등문공이 나라 다스리는 법을 물은즉,

“백성의 일은 미룩미룩해서는 안 됩니다. 옛 시에

낮이면 띠를 뜯고 밤이면 새끼 꼬아
네 집 지붕 위를 서둘러 오르렸다.
백곡은 이르고서야 씨 뿌리게 될 거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들이란 이런 것이니 향산(恒産)이 있으면 향심(恒心)이 있고 향산이 없으면 향심도 없습니다. 정말이지 향심이 없으면 함부로 하고 고집부리고 간사하고 사치스런 행동을 제멋대로 해 내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죄에 빠지도록 해 놓고 그러고서 그들을 처벌한다면 마치 백성들을 그물코로 낚아내는 셈이니, 어찌 사리를 아는 어른이 통치의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그물코로 낚아내는 따위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은 언제나 겸손하고 검박하여 아래 사람에게도 예로써 대하여 백성들의 것을 거둬들이는 데도 한도가 있습니다.

양호는 ‘부자가 되자면 어진 사람은 못 되고, 어진 사람이 되자면 부자는 못 된다’ 하였습니다.

16) 군자지덕(君子之德): 『논어』 「안연」편 참조.

17) [평설] 유가의 3년상은 맹자시대에는 결정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말하자면 단상풍조(短喪風潮)에 따른 권장사항이었던 것이다. 유가의 후장제도(厚葬制度)는 등문공의 체택으로 굳어진 느낌이지만 어쨌든 선인(先人)에 대한 자손의 애정(愛情)-애정(哀情)-은 후장(厚葬)이 아니고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하후씨는 50마지기를 주어 공세(貢稅)를 내게 하고, 은나라 사람들은 70마지기를 주어 조경(助耕)을 시키고, 주나라 사람들은 백 마지기를 주어 철세(徹稅)를 내게 하였으니, 실상은 모두 십일조를 내게 한 것입니다. 철세란 함께 갈고 거두어 똑같이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조경이란 힘으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용자는 ‘토지를 관리하는 데는 조경에 덮을 법이 없고, 공세보다 더 나쁜 법은 없느니라’ 하였는데, 공세란 여러 해 수확을 평균하여 연액으로 정한 것이니, 풍년에는 쌀알이 시글시글하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는 소리는 없지만 흉년에는 논밭을 쓱쓱 쓸어도 부족한데 꼭 제 수량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 가지고 백성들이 원한의 눈초리로 흘깃흘깃 쳐다보면서, 한 해 한 뭇을 빼 빠지게 일을 해도 제 부모 하나 봉양할 수 없게 하며, 또 게다가 빚을 주어 빨아들이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부담을 더욱 많이 하여 늙고 어린 것들이 진구렁창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도록 한다면 백성의 부모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대로 봉록을 주는 제도는 등나라에서는 본래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옛 시에

우리 공전(公田)에 비를 주소서
그러고서 우리 사전(私田)에 부어지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대체로 조경법에는 공전이 있으므로 이 점을 미루어 보면 주나라라 하더라도 역시 조경법이었던 것입니다.

교육기관을 세워 백성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상(庠)이란 기르는 것이요, 교(校)란 가르치는 것이요, 서(序)란 활 쓰는 것이니 하나라에

서는 ‘교’라 하였고, 은나라에서는 ‘서’라 하였고, 주나라에서는 ‘상’이라 하였고, 학(學)은 하·은·주 삼대가 공통된 제도였으니, 모두 인륜을 밝히자는 것이었습니다. 인륜이 위에서 밝혀지면 백성들은 아래서 친목하게 됩니다. 왕자(王者)가 나오면 반드시 자진하여 이 법을 쓸 것이니, 이것이 곧 왕자의 스승이 되는 길입니다. 옛 시에

주나라는 그야 역사 깊은 나라지만
천명은 아무렴 새로운 거야.

이런 구절이 있는데, 문왕을 두고 이른 말입니다. 당신도 애써 실행하시면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으리다.”

필전을 보내어 정전법을 알아오게 한즉

“그대의 주군이 인정(仁政)을 펴보시려고 그대를 골라 보내신 것이니, 그대는 꼭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인정이란 반드시 경계를 바로잡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경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논밭 차지가 고르지 않고 수확도 우뻑지뻑합니다. 그러므로 고약스런 군왕이나 지꺼분한 벼슬아치들은 으레 경계를 흐리부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경계만 올바르다면 논밭을 나누고 수확을 마련하는 것쯤이야 앉은자리에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나라는 기름진 땅이 적지만 군자가 되려는 사람도 있고, 농군이 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군자가 없어도 농군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요, 농군이 없어도 군자를 길러 주지 못할 것입니다.

들에서는 구일제(九一制)에 조경법을 쓰고, 성안에서는 십일조법을 써서 각기 서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 벼슬 이하에게는 반드시 제답(祭畓)을 주어야 합니다. 제답은 50마지기가 기준입니다. 한 살림을 못 차리는 사내에게는 스물다섯 마지기를 줍니다. 죽거나 이사를 해도 그 고을은 못 떠나게 합니다. 한 고을에서 같은 논밭에 얽매어 있는 사람은 들고 날 때 서로 따라 다니도록 하며, 망루의 수비도 서로 돕게 하며, 병이 났을 때에도 서로 북돋아 주게 하면, 백성들이 서로 오손도손 살게 될 것입니다. 사방 1리로 한 정(井)을 만드니 한 정은 900마지기입니다. 그 복판이 공전이니 여덟 가족이 다 100마지기씩 차지하고 다 같이 공전을 가꾸게 하는데 공사가 끝난 연후에라야만 제 사사 일을 보도록 마련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농군들을 구별하여 놓는 방법입니다.

이상은 그의 대략이니 이것을 실정에 알맞게 하고 안 하기는 주군과 그대의 하기에 달렸습니다.”

滕文公 問爲國孟子曰 民事不可緩也 詩云 晝爾¹⁸⁾于茅 宵爾索綯 亟其乘屋 其始播百穀 民之爲道也 有恒產者 有恒心 無恒產者 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己 及陷乎罪然後 從刑之 是罔民也 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 是故賢君必恭儉 禮下 取於民 有制陽虎¹⁹⁾曰 爲富不仁也 爲仁不富矣 夏后氏五十而貢²⁰⁾ 殷人七十而助²¹⁾ 周人百畝而徹²²⁾ 其實皆什一也 徹者徹也 助者藉也 龍子²³⁾曰 治地莫善於助 莫不善於貢 貢者校數歲之中 以爲常 樂歲粒米狼戾 多取之而不爲虐 則取之 凶年糞其田而不足 則必取盈焉 爲民父母 使民矜矜然將終歲勤動 不得以養其父母

18) 시운주이(詩云晝爾): 『시경(詩經)』 「빈풍(邠風)」 칠월지편(七月之篇).

19) 양호(陽虎): 노나라 계씨(季氏)의 가신(家臣).

20) 공(貢): 여러 해 수확을 평균하여 매년 일정한 세를 받는 세법.

21) 조(助): 공전(公田)의 경작을 돕는다는 뜻에서 조세법(助稅法)이라 한다.

22) 철(徹): 이도 조법(助法)과 같은 것으로 공동경작분(共同耕作分)을 관가에서 거둬들인다는 뜻에서 철세법(徹稅法)이라 한다.

23) 용자(龍子): 고(古) 현인(賢人).

又稱貸而益之 使老稚轉乎溝壑 惡在其爲民父母也夫世祿 際固行之矣詩云 雨我公田²⁴⁾ 遂及我私 惟助爲有公田 由此觀之 雖周亦助也 設爲庠序學校 以教之 庠者養也 校者 教也 序者 射也 夏曰教 殷曰序 周曰庠 學則三代共之 皆所以明人倫也 人倫 明於上 小民 親於下有王者起 必來取法 是爲王者師也 詩云 周雖舊邦²⁵⁾ 其命維新 文王之謂也 子力行之 亦以新子之國 使畢戰²⁶⁾ 問井地²⁷⁾ 孟子曰 子之君 將行仁政 選擇而使子子必勉之 夫仁政 必自經界始 經界不正 井地不均 穀祿不平 是故 暴君汚吏必慢其經界 經界既正 分田制祿 可坐而定也夫滕壤地偏小 將爲君子焉 將爲野人焉 無君子 莫治野人 無野人 莫養君子請野一而助 國中什一 使自賦卿以下 必有圭田²⁸⁾ 圭田 五十畝餘夫²⁹⁾ 二十五畝死徙 無出鄉 鄉田同井 出入 相友 守望³⁰⁾ 相助 疾病 相扶持 則百姓 親睦 方里而井 井九百畝 其中爲公田 八家皆私百畝 同養公田 公事畢然後 敢治私事 所以別野人也此其大略也 若夫潤澤之則君與子矣³¹⁾

신농씨의 말을 떠받드는 허행이란 사람이 초나라에서 등나라로 와서 문공의 앞에 이르러 말하기를 “먼 곳 사람으로 주군께서 인정을 베푸신다는 소문은 듣고, 한 자리 터를 얻어 귀국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문공이 그에게 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니, 그들의 떼족이 수십 인인데 모두 거친 털옷을 입었고 신발을 삼고 명석을 짜서 그것으로

24) 시운이아공전(時云爾我公田): 「소아(小雅)」 대전지편(大田之篇).

25) 시운주수구방(詩云周雖舊邦): 「대아(大雅)」 문왕지편(文王之篇).

26) 필전(畢戰): 등나라 신하.

27) 정지(井地): 정전법.

28) 구전(圭田): 깨끗한 밭, 곧 제답(祭畝).

29) 여부(餘夫): 정전(井田)의 여덟 가족에 끼지 않은 덧붙이.

30) 망루(守望): 외적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한 높은 층대(層臺).

31) [평설] 구일제(九一制)에 의한 정전식(井田式) 세법(稅法)이 이상적 세계임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서 야 민생(民生)의 항산(恒産)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설] 군자와 야인의 구분은 자칫하면 계급의 차를 형성하게 되지만 이는 상호부조(相互扶助)의 체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평설] 항산위주(恒産爲主) 정책이 있어도 명륜(明倫)의 교육은 한시도 등한히 할 수 없음이 강조되고 있다.

생계를 삼았다.

진량의 무리인 진상이 그의 아우 신을 데리고 쟁기와 보습을 둘러 메고 송나라에서 등나라로 와서 말하기를 “주군께서 성인의 정치를 베푸신다는 소문을 들으니 그러면 성인이실시 분명합니다. 성인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진상이 허행을 만나게 되자 몹시 반겨하고 제가 배웠던 것은 다 팽개치고 그에게서 다시 배우더니, 진상이 맹자를 만나 허행의 학설을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등나라 임금은 참으로 현명하신 군주이십니다. 그러나 아직 도는 모르시는 듯합니다. 현인은 민중 속에 끼어서 서로 함께 밭갈이하여 제 손으로 아침저녁을 끓여 먹으면서 다스린다 하는데, 이제 등나라에는 창고와 부고가 있으니 이는 백성들을 괴롭혀서 제 배를 채우는 것이니 어찌 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허자는 반드시 조를 심어 그것을 먹는가?”

“그렇습니다.”

“허자는 반드시 베를 짜서 그것을 입는가?”

“아닙니다. 허자는 거친 털옷을 입습니다.”

“허자는 관을 쓰는가?”

“관을 씩니다.”

“어떤 관인가?”

“보통 험수룩한 관입니다.”

“자기 손으로 짜는가?”

“아닙니다. 조하고 바꿉니다.”

“허자는 왜 자기 손으로 짜지 않을까?”

“밭갈이에 방해가 됩니다.”

“허자는 솔이나 시루로 꿩이며 쇠붙이로 밭갈이하는가?”

“그렇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드는가?”

“아닙니다. 조하고 바꿉니다.”

“조와 기계와 바꾸는 것이 질그릇장과 야장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면, 질그릇장이나 야장이가 기계와 조와 바꾼다 하더라도 어찌 농부를 괴롭힌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허자는 왜 질그릇장이나 야장이 노릇은 않는가? 무엇이든지 제 집 속에서 꺼내어 쓰지 않고 왜 시끌땡땡하게 쫓아다니며 여러 공장이들과 바꾸려 하는가? 왜 허자는 이런 짓을 귀찮게 여기지도 않는고?”

“여러 공장이들의 일은 본래 밭갈이하면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만은 밭갈이하면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큰 인물이 할 일이 있고 작은 인물이 할 일이 있습니다. 더구나 한 사람의 몸으로 백공의 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만일 제가 꼭 만들어 써야 한다면 이는 천하 사람을 모조리 길거리로 끄집어내는 셈이니 그러므로

‘머리를 썩이는 사람이 있고, 골신(骨身)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머리를 썩이는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고 골신을 부리는 사람은 남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이 있지. 남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남을 먹여 살리고, 남을 다스리는 사람은 남에게 얻어먹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어디나 있는 일이야.

요임금 시절에는 천하가 아직 고르게 되지 않은 시절이라 큰 흉수가 이리저리 밀려서 천하를 뒤덮고, 나무가 뿅뿅이 들어차 새나 짐승들이 우글우글하고 곡식은 익지 않고, 새나 짐승들은 사람을 떠밀

고 달려드니 짐승의 발자취와 새들의 발티로 이루어진 길이 나라를 온통 엮어매 놓았는데, 요임금만은 이룬 염려하여 순을 데려다가 이를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순임금은 익에게 장화(掌火) 벼슬을 준 즉 익은 산과 진털밭을 태워 버리니 새나 짐승들은 도망가고 숨고 야단이었습니다. 우 임금은 아홉 갈래의 강을 통하게 하고 제수와 답수를 파헤쳐 바다로 쏟게 했습니다. 여수와 한수의 길을 끊고 회수와 사수를 떠밀어다가 강으로 쏟게 하니 그렇게 된 뒤에야 나라 사람들이 먹고살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절에 있어서 우임금은 8년을 밖으로만 다니면서 제집 문 앞을 세 번이나 지나쳤지만 한번도 들어가지 못했으니 밭갈이하고 싶어도 할 수 있을 것인가?

후직이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는데, 곡식을 심어 가꾸도록 하였습니다. 곡식이 익으므로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자, 사람이 사는 길이란 배부르고 등 다습고 편한 살림이라 하더라도 교육이 없으면 새짐승에 가깝습니다. 성인이 이를 걱정하여 설에게 사도벼슬을 주어 인간윤리를 가르치게 하였으니 부자간에는 친애의 정으로, 군신 간에는 의리를 주로, 부부간에는 직분을 달리하고, 장유는 차례를 따지고, 봉우 간에는 신의를 맺어야 함을 가르친 것입니다. 방훈은 ‘달래라. 따르게 하라. 바로잡아 주라. 곧게 나가도록 하라. 북돋아 주라. 얼싸안아 주라. 저절로 깨우치게 하여 또 이를 떨치게 하라’ 하였으니, 성인이 백성의 일을 걱정하는 품이란 이와 같으니 어느 짬에 밭갈이하겠는가?

요임금은 순 같은 사람을 얻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걱정으로 삼았고, 순임금은 우나 고요 같은 사람을 얻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걱정으로 삼았으니, 100마지기의 토지를 잘못 다스릴까 봐 그것으로 제

격정을 삼는 것이 농군인 것입니다.

남에게 재물을 나누어주는 것을 혜(惠)라 하고, 남에게 착한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을 충(忠)이라 하고, 천하를 위해서 인물을 얻으려 하는 것을 인(仁)이라 하니, 그러므로 천하를 남에게 주어 버리기는 쉬워도 천하를 위해서 인물을 얻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공자는 ‘크시도다. 요의 임금 됄이여! 하늘의 크심이여! 요임금만은 그를 본받도다. 툭 트이고 아득하여 백성들은 무어라 부를 줄조차 모르도다. 임금다웁구나! 순이여! 뽕양계 높으시니 천하를 차지하셨건만 내사 아랑곳없으신 양하였다’ 하셨으니, 요순이 천하를 다스릴 적에 왜 그 점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을까마는 발같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중국 문화로 되놈의 풍속을 바꾸자는 말은 들었어도 되놈의 풍속에 되바꿈을 당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진양은 초나라에서 낳고, 주공과 공자의 가르치심에 마음이 쏠려 북으로 와서 중국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방학자들도 그보다 나은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 그도 또한 뛰어난 인물이기는 합니다. 그대의 형제들도 수십 년 동안 그를 섬겼지만 스승이 돌아가시니 결국 그를 배반하고 마는구려! 옛날 공자께서 돌아가신 후 3년이 지났는지라 제자들은 짐작을 꾸려 가지고 돌아가려 할 때 안으로 들어가 자공께 인사하고 서로 마주 보며 통곡하였습니다. 모두 목이 메이도록 실성하게 된 후에야 서로 갈리었는데, 자공만은 묘 앞뜰에 초당을 짓고 혼자서 또다시 3년을 치른 뒤에야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자하·자장·자유가 유약은 성인의 품격이 있으므로 공자를 섬기듯 그를 섬기자고 증자에게 우겼더니 증자는 ‘그것은 안 됩니다. 강한수에 씻

고 가을땀에 말렸거니 하얀 그 위에 덧씌워서 안 됩니다’ 하였습니다.

요즈음 남녘 되놈 뱀새 같은 무리들은 임금들의 가르치심을 비난 하는데 그대는 그대의 스승을 배반하고 그 같은 놈들에게서 배우자고 하니 글썽 증자와는 다르구려! 나는 으스스한 골짜기에서 나와서 높은 나무로 옮긴다는 말은 들었어도 나무에서 내려와 으스스한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노송(魯頌)에 ‘서용·북적의 버릇을 고치고, 남쪽 형·서 패들을 골려대잔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주공은 놈들의 버릇을 고쳐주는데 그대는 그것이 옳다고 배우니 그것이 잘못 변했다는 것입니다. 허자의 말대로 하면 저잣거리 물건값이 똑같아서 온 나라를 통틀어 속임수가 없으리니, 어린애를 시켜 저자를 보아오라 하더라도 속힐 리는 없을 것입니다. 포묵도 길이가 같으면 값도 같을 것이요, 여러 가지 실꾸러미도 무게가 같으면 값도 같을 것이요, 곡식도 분량이 같으면 값도 같을 것이요, 신발도 크기가 같으면 값도 같으리다.

그런데 물건치고는 같지 않은 그것이 물건의 실정입니다. 어느 것은 곱절도 되고 네 곱절도 되고 어느 것은 열 곱절도 되고 백 곱절도 되고 어느 것은 천 곱절 만 곱절도 되는데 그대는 늘어놓고 똑같이 보려 하니, 이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자는 것입니다. 큰 신발 작은 신발이 같은 값이라면 누가 그것을 만들자고 할 것입니까? 허자의 말을 따른다면 이놈 저놈 서로 뒤형클어져 거짓부렁이만 하게 될 것이니, 그래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有爲神農之言³²⁾者 許行³³⁾ 自楚之際 踵門而告文公曰 遠方之人 聞君行

仁政 願受一塵而爲氓 文公與之處 其徒數十人 皆衣褐 捫屨織席 以爲食 陳良³⁴⁾之徒陳相³⁵⁾ 與其弟辛³⁶⁾ 負耒耜而自宋之滕 曰聞君行聖人之政 是亦聖人也 願爲聖人氓 陳相 見許行而大悅 盡棄其學而學焉 陳相 見孟子 道許行之言曰 滕君則誠賢君也 雖然 未聞道也 賢者 與民並耕而食 饗飧而治 今也 滕有倉廩府庫 則厲民而以自養也 惡得賢 孟子曰 許子 必種粟而後 食乎 曰然 許子 必織布而後 衣乎 曰否 許子衣褐 許子 冠乎 曰冠 曰奚冠 曰冠素 曰自織之與 曰否 以粟易之 曰許子 奚爲不自織 曰害於耕曰許子 以釜鬲爨 以鐵耕乎 曰然 自爲之與 曰否 以粟易之 以 粟易械器者 不爲厲陶冶 陶冶亦以其械器易粟者 豈爲厲農夫哉 且許子 何不爲陶冶 舍皆取諸其宮中而用之 何爲紛紛然與百工交易 何許子之不 憚煩 曰百工之事 固不可耕且爲也 然則治天下 獨可耕且爲與 有大人之 事 有小人之事 且一人之身而百工之所爲備 如必自爲而後 用之 是率天 下而路也 故曰 或勞心 或勞力 勞心者 治人勞力者 治於人 治於人者 食 人 治人者 食於人 天下之通義也 當堯之時 天下猶未平 洪水橫流 汎濫 於天下 草木暢茂 禽獸繁殖 五穀不登 禽獸逼人 獸蹄鳥跡之道 交於中國 堯獨憂之 舉舜敷治焉 舜使益³⁷⁾掌火 益烈山澤而焚之 禽獸逃匿 禹疏九 河 濬濟漯而注諸海 決汝漢 排淮泗而注之江然後 中國可得而食也 當是 時也 禹八年於外 三過其門而不入 雖欲耕 得乎 后稷³⁸⁾教民稼穡 樹藝穀 五穀熟而民人育 人之有道也 飽食煖衣 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 聖人有 憂之 使契³⁹⁾爲司徒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放勳 曰勞之來之 匡之直之 輔之翼之 使自得之 又從而振德之 聖人之憂民如此而暇耕乎堯以不得舜爲己憂 舜以不得禹臯陶爲己憂 夫以 百畝之易爲己憂者 農夫也 分人以財 謂之惠 教人以善 謂之忠 爲天下得 人者 謂之仁 是故以天下與人易爲天下得人難 孔子曰 大哉 堯之爲君 惟 天爲大 惟堯則之 蕩蕩乎民無能名焉 君哉舜也 巍巍乎 有天下而不與焉

32) 신농지인(神農之言): 엄제신농씨(炎帝神農氏)는 농가자류(農家者流)의 시조. 그의 말을 받드는 일파 라는 뜻.

33) 허행(許行): 농가자류(農家者流)의 인물.

34) 진량(陳良): 초나라의 유학도(儒學徒).

35) 진상(陳相): 진양(陳良)의 제자.

36) 신(辛): 진상(陳相)의 아우.

37) 익(益): 순(舜)의 어진 신하.

38) 후작(后稷): 상동(上同).

39) 설(契): 상동(上同).

堯舜之治天下 豈無所用心哉 亦不用於耕耳 吾聞用夏變夷者 未聞變於夷者也 陳良 楚產也 悅周公仲尼之道 北學於中國 北方之學者 未能或之先也 彼所謂豪傑之士也 子之兄弟事之數十年 師死而遂倍之 昔者 孔子沒三年之外門人 治任將歸 入揖於子貢 相嚮而哭 皆失聲然後 歸子貢 反築室於場 獨居三年然後 歸 他日 子夏子張子游 以有若似聖人 欲以所事孔子 事之彊曾子 曾子曰 不可 江漢以濯之 秋陽以暴之 皜皜乎不可尚已今也 南蠻馱舌之人 非先王之道 子倍子之師而學之 亦異於曾子矣吾聞出於幽谷 遷于喬木者 未聞下喬木而 入於幽谷者 魯頌曰 戎狄⁴⁰是膺 荊舒是懲 周公方且膺之 子是之學 亦爲不善變矣 從許子之道則市賈不貳 國中無僞 雖使五尺之童適市 莫之或欺 布帛長短 同則賈相若 麻縷絲絮輕重 同則賈相若 五穀多寡同則賈相若 履大小同則賈相若 曰夫物之不齊 物之情也 或相倍蓰 或相什伯 或相千萬 子比而同之 是亂天下也 巨履小履 同賈 人豈爲之哉 從許子之道 相率而爲僞者也 惡能治國家⁴¹

목적학과 이지가 서벽을 시켜 맹자에게 면회를 청한즉

“나는 전부터 만나고 싶었으나 나는 아직도 몸이 언짢다. 병이 나으면 내가 가서 이자를 만날 것이니 올 것은 없다.”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맹자를 만나게 하여 달라고 청을 넣으니,
 “나는 시방 만날 수는 있지만 똑바르지 않으면 도란 분명치 않거든. 내가 똑바로 알려주지. 나는 이자가 목적학과란 말을 들었는데 목적학파가 치상을 치르는 데는 그럭저럭 김박하게 치르는 것을 그들의 도로 삼고, 이자는 천하의 풍습을 그렇게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어찌 그 법을 옳지 않다고 하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이자는 제 아버지의 장례를 후하게 모시었으니, 이는 그가

40) 노송왕용적(魯頌曰戎狄): 『서경』 「노송(魯頌)」 ‘문궁(聞宮)’편(篇).

41) [평설] 농본사상이 만일 농일변도(農一邊倒)라면 그것은 맹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복합사회구조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농경시대 또는 농경사회를 대변하는 사상이지만 그것은 결코 농경위주의 균질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자와 농민 또는 야인과 교자의 공존을 설한 맹자의 탁견은 현대사회에서도 길이 그의 빛을 발하리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천하게 여기는 것으로 아버이를 섬긴 셈이다.”

서자가 이대로 이자에게 알리니,

이자가 말하기를 “‘유생(儒生)들의 도에도 옛사람이 갓난애 다루듯 하나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는 무슨 뜻일까. 나는 이것을 사람에는 차별이 없으며, 이를 제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서자가 이대로 맹자에게 전한즉,

“그렇다면 이자는 사람들이 제 형의 아들을 친애하기를 제 이웃 사람의 갓난애를 친애하듯 생각한다고 믿는가? 그것은 판 의미로 쓰인 글이다. 갓난애가 샘 속으로 뿔뿔 기어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갓난애의 책임이 아니다. 하늘이 만물을 마련할 적에 그 근본은 하나로 된 것을 이자는 그 근본이 둘인 까닭인가 보다.

그런데 오랜 옛적에 그 아버이를 장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이가 죽자 들것으로 들어다가 진구렁에 버렸던 것이다. 뒷날 그곳을 지나다가 여우와 늑대가 파먹고 파리와 구더기가 빨아먹는 것을 보니, 그의 이마에서는 진땀이 흘렀다. 그는 결눈으로 보았지 바로 보지도 못했다. 그 진땀이란 남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서 우러나 얼굴에 나타난 것이리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덮개를 가져다가 덮어놓았던 것이니, 덮어놓은 것이 참으로 옳은 일이라면 효자나 어진 이들이 그의 아버이를 덮는 데도 반드시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자가 그대로 이자에게 전한즉 이자는 한동안 넋 잃은 사람처럼 있다가 “좋은 말씀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였다.

墨者⁴²⁾夷之⁴³⁾因徐辟⁴⁴⁾而求見孟子 孟子曰 吾固願見 今吾尙病 病愈我且往見 夷子不來 他日又求見孟子 孟子曰 吾今則可以見矣 不直則道不見 我且直之 吾聞夷子墨者 墨之治喪也 以薄爲其道也夷子思以易天下 豈以爲非是而不貴也 然而夷子葬其親厚 則是以所賤事親也 徐子以告夷子 夷子曰 儒者之道 古之人 若保赤子⁴⁵⁾ 此言何謂也 之則以爲愛無差等 施由親始 徐子以告孟子 孟子曰 夫夷子信以爲人之親其兄之子 爲若親其隣之赤子乎 彼有取爾也 赤子匍匐將入井 非赤子之罪也且天之生物也 使之一本 而夷子二本故也 蓋上世嘗有不葬其親者 其親死則舉而委之於壑 他日過之 狐狸食之 蠅蚋姑嘬之 其類有泚 睨而不視 夫泚也 非爲人泚 中心達於面目 蓋歸反纍棺而掩之 掩之誠是也 則孝子仁人之掩其親 亦必有道矣徐子以告夷子 夷子慙然⁴⁶⁾爲間曰命之矣⁴⁷⁾

42) 묵자(墨者): 묵자거파(墨子擧派)니 그들은 겸애(兼愛-無差別愛) 절장(節葬)을 주장한다.

43) 이지(夷之): 묵자학파의 한 사람. 이지(夷子)는 이지(夷之)의 존칭.

44) 서벽(徐辟): 맹자의 제자. 서자(徐子)란 그의 존칭.

45) 약보적자(若保赤子): 「주서(周書)」 ‘강고(康誥)’ 편.

46) 무연(慙然): 망연자실(茫然自失).

47) 명지(命之矣): 명(命)은 교(教), 지(之)는 이지(夷之)의 자칭. [평설] 장래의 기원과 그의 이론적 근거로 친애(親愛)의 정(情)을 앞세우고 있다. 이는 묵자학파들의 절장론에 대한 반박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등문공 하

진대가 말하기를 “제후를 만나시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좀 좁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 만나시기만 하면 크면 왕자(王者)가 될 수 있고 적으면 패자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 글에도 ‘자를 굽혀 깊이를 고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한 번 그렇게 해 봄 직합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옛날 제경공이 사냥을 나가셨을 때, 사냥터지기를 부르는 데 정기를 쓰셨더니 오지 않으므로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지사는 진구렁에 빠질 각오가 되어 있으며, 용사는 제 목 달아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다. 공자는 어느 점을 취했느냐 하면 저를 부르는 예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선 그 점이다. 저 부르는 예를 기다리지 않고 가봤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 자를 굽혀 깊이를 고친다는 것은 이해를 주로 한 말이니, 이해로 따진다면 깊이를 굽혀 자를 고치더라도 그래도 좋을까?

옛날 조각자가 왕량더러 그의 괴임을 받는 신하 해와 함께 사냥마차를 타게 하였다. 진중일 걸려도 새라고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의 괴임 받는 신하 해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천하에 원! 서투

른 쟁이입데다.’

어느 사람이 이 말을 왕량에게 이른다,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여 주십시오.”

억지로 정하여 겨우 승낙을 얻었는데, 하루아침에 여남은 마리를 잡았다. 대신 해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천하에 참! 재주꾼입데다.”

간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네 전임으로 해 주마.”

그리고 왕량더러 그 뜻을 이야기했더니, 양은 싫다 하면서 “내가 그이를 위해서 내 말달리기의 본보기를 보여 주었더니, 진종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그이를 위해서 횡수를 썼더니 하루아침에 열 마리나 잡았습니다. 옛 시에

본 법대로 달리어 어긋남이 없거늘
화살을 쏘니 빠개듯 맞혀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소인과 더불어 타는 데는 서툴러서 그만두겠습니다” 하였다. 망아지꾼도 그런 활꾼에게 아침하는 것을 수치로 알고, 아침하여 산더미 같은 새 짐승이 생긴다 치더라도 하지 않았는데, 만일 내 도를 굽혀 그 사람 하자는 대로 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 글썄 군의 생각이 잘못이다. 자기를 굽히는 사람으로 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법이다.”

陳代¹⁾曰 不見諸候 宜若小然 今一見之 大則以王 小則以霸 且志 曰枉尺 而直尋 宜若可爲也 孟子曰 昔齊景公 田²⁾招虞人³⁾以旌⁴⁾ 不至 將殺之

1) 진대(陳代): 맹자의 제자.

2) 전(田): 사냥.

志士 不忘在溝壑 勇士 不忘喪其元 孔子 奚取焉 取非其招不往也 如不待其招而往 何哉且夫枉尺而直尋者 以利言也 如以利則枉尋直尺而利 亦可爲與 昔者 趙簡子⁵⁾使王良⁶⁾ 與嬖⁷⁾奚乘 終日而不獲一禽 嬖奚反命曰 天下之賤工也 或以告王良 良曰 請復之 彊而後可 一朝而獲十禽 嬖奚反命曰 天下之良工也 簡子曰 我使掌與女乘 謂王良 良不可曰 吾爲之範我馳驅 終日不獲一 爲之詭遇 一朝而獲十 詩云 不失⁸⁾其馳 舍矢如破 我不貫與小人乘 請辭 御者 且羞與射者比 比而得禽獸 雖若丘陵 弗爲也 如枉道而從彼 何也 且子過矣 枉己者 未有能直人者也⁹⁾

경춘이 말하기를 “공손연·장익은 어찌 대장부라 하지 않을 수 있겠소? 한 번 꾸짖자 제후들이 벌벌 떨고, 잠자코 앉았어도 천하가 조용한 것을!”

맹자가 말하기를 “그렇다고 어찌 대장부가 될 수 있나? 그대는 예를 배우지 않았는가? 사내가 장가들 때는 아버가 타이르고, 계집애가 시집갈 때는 어미가 타이르는데, 갈 때 문간까지 나아가 보내면서 주의를 시키되 ‘네 시집에 가거든 남편을 공경하고 조심하여 그의 말을 어기지 말라’ 하니, 유순한 것만을 옳다고 여기는 것은 부녀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천하의 넓은 고장에서 살며,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길을 걷다가 뜻대로 되면 백성과 더불어 나아가고, 뜻대로 안 되면

3) 우인(虞人): 사냥터지기.

4) 정(旌): 예법에 대부를 부를 때 쓰는 기.

5) 조간자(趙簡子): 진나라 대부 조양(趙鞅).

6) 왕양(王良): 사냥 마차를 잘 부리던 사람.

7) 폐신(嬖臣): 사랑을 받는 신하.

8) 시운불실(詩云不失): 『시경(詩經)』, 「소아(小雅)」, ‘거공(車攻)’편.

9) [평설] 정도를 귀(貴)히 여기고 부정을 천(賤)히 여김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군자의 도(道)도 속세의 이익 때문에 굽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공자가 “군자유어의(君子喻於義) 소인유어리(小人喻於利)”라 한 것도 이 점을 설파한 자라 해야 할 것이다.

혼자서 제 길을 걸을 뿐이니, 부귀도 그를 더럽히지 못하고, 빈천도 그의 뜻을 변하게 못 하고, 위무도 그를 굽히게 하지 못하는 그라야 대장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景春¹⁰⁾曰公孫衍張儀¹¹⁾ 豈不誠大丈夫哉 一怒而諸侯懼 安居而天下熄
孟子曰 是焉得爲大丈夫乎 子未學禮乎 丈夫之冠也 父命之 女子之嫁也
母命之 往送之門 戒之曰 往之女家 必敬 必戒 無違夫子 以順爲正者 妾
婦之道也 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 得志 與民由之 不
得志 獨行其道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此之謂大丈夫¹²⁾

주소가 묻기를 “옛날 군자들도 벼슬살이하려고 했던가요?”

맹자가 말하기를 “했습니다. 옛 기록에 ‘공자는 석 달 군왕을 섬기지 못하면 들썩들썩하였다. 국경을 벗어날 때는 반드시 선물을 싣고 나섰다’ 하였으며,

공명익는 ‘옛날 사람은 석 달 군왕을 섬기지 못하면 조문을 간다’고 하였습니다.”

“석 달 군왕을 섬기지 못했다고 조문하는 것은 너무 급하지 않을까요?”

“벼슬아치가 제 직위를 잃는 것은 마치 제후가 나라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예기』에 ‘제후가 밭갈이하어 제곡(祭穀)을 바치고 부인은 누에고치를 쳐서 제복(祭服)을 만든다’ 하였는데, 희생이 마련되지 않고 제곡이 깨끗지 않으며 제복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좀처럼 제사

10) 경춘(景春): 인명(人名).

11) 공손연·장의(公孫衍·張儀): 다 위인(魏人) 설객(說客).

12) [평설] 순종만이 결코 대장부의 미덕일 수는 없다. 때로는 정도를 위하여 불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장부의 기개는 어찌면 독행독존(獨行獨尊)에서 찾아야 할는지 모른다.

를 모시지 못하는 법이요, 또 벼슬아치에게 제전(祭田)이 없어도 제사를 못 올리는 것이니, 고기나 제기나 제복이 너저분해서 좀처럼 제사를 못 모신다면 연회도 좀처럼 못 벌일 것이니, 그래도 조문할 것까지야 없다고 하겠습니까?”

“국경을 벗어날 때는 반드시 선물을 신고 나선다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선비들이 벼슬살이하는 것은 마치 농부들이 밭갈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들이 국경을 벗어날 때 어찌 그들의 농구를 버리고 갈 수 있겠소?”

“진나라도 벼슬살이함 직한 나라지만 벼슬살이를 것처럼 급하게 서두른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벼슬살이를 것처럼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것이면 군자들의 벼슬살이가 것처럼 어려운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사내는 본래 장가들고 싶어 하는 것이요, 계집애는 본래 시집가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부모는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지만, 부모의 명령이나 중매쟁이의 말도 듣지 않고 담구멍을 뚫고 서로 끼웃거리거나 울장을 넘나들면서 서로 만나보는 따위는 부모나 나라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기는 것이니, 벼슬살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정당한 길을 밟지 않는 그런 짓을 싫어하였던 것입니다. 정당한 길을 밟지 않는 따위는 모두 담구멍을 뚫는 따위와 같은 것입니다.”

周霄¹³⁾問曰 古之君子 仕乎 孟子曰 仕 傳曰 孔子三月無君 則皇皇如也 出疆 必載質¹⁴⁾ 公明儀¹⁵⁾曰 古之人 三月無君則吊¹⁶⁾三月無君則吊 不以

急乎 曰士之失位也 猶諸侯之失國家也 禮曰 諸侯耕助 以供粢盛 夫人蠶繅 以爲衣服 犧牲不成 粢盛不潔 衣服不備 不敢以祭 惟士無田則亦不祭 牲殺器皿衣服 不備 不敢以祭 則不敢以宴 亦不足吊乎出疆 必載質何也 曰士之仕也 猶農夫之耕也 農夫豈爲出疆 舍其耒耜哉 曰晉國 亦仕國也 未嘗聞仕 如此其急 仕如此其急也 君子之難仕 何也 曰丈夫生而願爲之有室 女子生而願爲之有家 父母之心 人皆有之 不待父母之命 媒妁之言 鑽穴隙相窺 踰牆相從則父母國人 皆賤之 古之人 未嘗不欲仕也 又惡不由其道 不由其道而往者 與鑽穴隙之類也¹⁷⁾

팽경이 문기를 “뒤에는 수십 차의 수레가 따르게 하고 수백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제후들은 차례차례 찾아다니면서 먹더리를 하시니, 너무 거창스럽지 않을까요?”

맹자가 말하기를 “도리에 맞지 않으면 한 그릇 밥일망정 남에게 받아서는 안 되지만 도리에 맞으면 순이 요의 천하를 받아도 거창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니, 군은 그것을 거창스럽게 여기는가?”

“아닙니다. 선비가 아무 일도 없이 얻어만 먹는 것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이 만일 남이 만든 것과 되바꿈질을 하여 남는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여 주지 않는다면 농부는 너무 곡식이 남고 여자는 너무 옷감이 남게 될 것이나, 군이 만일 되바꿈질을 하게 한다면 공

13) 주소(周霄): 위인(魏人).

14) 질(質): 선물. 지(贄)의 뜻.

15) 공명의(公明儀): 노인(魯人).

16) 삼월무군즉직(三月無君則吊): 옛사람들은 실위거국(失位去國)하게 되면 석 달 동안 상례(喪禮)로 자처(自處)하니라.

17) [팽경] 사(士)는 사(仕)니 벼슬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사(士)가 지위를 잃으면 마치 부모를-사실은 군왕(君主)이지만-잃은 것처럼 된다. 그러나 결코 서두르거나 아무런 방법이거나 상관없이 덤벼서는 안 된다. 목적이 바르더라도 방법이 문제인 것이니, 목적만으로는 결코 방법-수단-을 미화시킬 수는 없다. 벼슬이란 결코 줌도적처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른길-방법-만이 그를 위하여 트여 있을 따름이다.

장이들은 다 군의 덕으로 얻어먹게 될 것이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자. 집안에서는 효성스럽고 밖에 나와서는 공손하며 선왕의 도를 지켜가면서 후학을 또한 기다리고 있는데도 군의 덕으로 생활을 못 하고 있으니, 군은 왜 공장이들만 귀하게 여기면서 인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가볍게 여기는가!”

“공장이들은 그의 뜻이 먹고사는 데 있지만 군자가 그의 도를 펴자는 데도 그 뜻이 역시 먹고살자는 데 있는 것일까요?”

“군은 그 뜻이 어떤 데 있다고 생각하는가? 군에게 공이 있는 사람은 먹일 만하기에 먹여 살릴 것이니, 그러면 군은 그 뜻을 보고 먹이는가? 그 공을 보고 먹이는가?”

“그 뜻을 보고 먹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자. 기왓장은 깨 버리고 벽에는 진흙을 칠하면서 그의 뜻이 먹고살자는 데 있다고 하면 군은 그를 먹여 살리겠는가?”

“그리 못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뜻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다.”

彭更¹⁸⁾問曰 後車數十乘 從者數百人 以傳食於諸侯 不以泰乎 孟子曰 非其道則 一簞食 不可受於人 如其道則舜受堯之天下 不以爲泰 子以爲泰乎 曰否 士無事而食 不可也 曰 子不通功易事 以羨補不足 則農有餘粟 女有餘布 子如通之 則梓匠輪輿 皆得食於子 於此有人焉 入則孝 出則悌 守先王之道 以待後之學者 而不得食於子 子何尊梓匠輪輿而輕爲仁義者哉 曰梓匠輪輿 其志¹⁹⁾將以求食也 君子之爲道也 其志亦將以求食與 曰

18) 팽경(彭更): 맹자의 제자.

子何以其志爲哉 其有功²⁰⁾於子 可食而食之矣 且子 食志乎 食功乎 曰食志 曰有人於此 毀瓦畫墁 其志將以求食也 則子食之乎 曰否 曰然則子非食志也 食功也²¹⁾

만장이 묻기를 “송은 작은 나라입니다. 이제 왕정을 펴보려 하는데 제·초 두 나라가 껄뽀히 여겨 정벌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맹자가 말하기를 “탕왕이 박 땅에 계실 적에 갈 나라와 이웃이었는데 갈백이 방탕하여 제사를 모시지 않았다. 탕왕이 사람을 보내어 묻기를 ‘왜 제사를 모시지 않소?’

‘바칠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탕왕이 소와 양을 보내주도록 분부하였더니 갈백은 그것을 먹어 버리고, 그래도 제사는 모시지 않았다. 탕왕이 또 사람을 보내어 묻기를 ‘왜 제사를 모시지 않소?’

‘바칠 곡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탕왕이 박 땅 사람을 보내어 밭갈이를 하여 주도록 하니, 그중에 늙고 약한 무리들은 일꾼들의 먹을 것을 날라 주었다. 갈백은 그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술과 밥과 곡식을 가져오는 길목에 지켜 섰다가 모조리 빼앗아 버리고 안 주는 사람은 죽이기까지 했었다. 어떤 아이 하나가 기장밥과 고기를 가지고 가는 것을 죽여 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니 옛 글에

‘갈백이 먹을 것을 바치는데 원수로 여기다’ 하였는데 이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19) 지(志): 지향(志向), 목적(目的).

20) 공(功): 성공(成功), 결과(結果).

21) [평설] 목적론적-동기론적-이기보다는 결과론적이다. 더욱이 기술문화면보다도 정신문화면이 강조되고 있다. 진실로 인의(仁義)를 숭상하는 지도자에 대한 대우는 후(厚)해야 할 것이다.

이 아이를 죽였기 때문에 그를 정벌한 것이라, 온 세상 사람들은 모두 ‘천하의 부를 탐내서가 아니라 성명없는 사내 계집들을 위해서 복수한 것이다’ 하였다.

탕왕이 첫 정벌을 갈나라로부터 시작하여 열한 번째에 이르니 천하에 대적할 자 없었다. 동쪽을 향하여 진군하면 서쪽무리들이 원망하고 남쪽을 향하여 진군하면 북쪽무리들이 원망하며 ‘왜 우리들만 뒤로 미루시나’ 하였더니, 백성들의 기대는 큰 가뭄에 구름 피어오르기를 기다리는 듯하였다. 자로 모여드는 무리도 그치지 않고, 김매기꾼도 한결같이 일을 하였으며, 그들의 폭군을 죽여 없애고, 그들 백성들의 분을 풀어주니 알맞은 비가 내린 것 같아서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였던 것이다. 옛 글에

‘우리 임금을 기다리노니, 임금이 오시면 이제는 별 없으리’ 이런 구절이 있다.

항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자 동쪽을 정벌하여 그곳 남녀들을 편안하게 하여 주매, 광주리에 검누른 비단을 싣고 우리 주나라 왕의 아리따움을 본다고 하면서, 큰 고을 주나라의 신하가 되었다. 그곳 군자들도 광주리에 검누른 비단을 그득히 채워 가지고 주나라의 군자를 맞이하여 주고 그곳 소인들은 단지 밥과 물병을 들고 주나라의 소인들을 환영하여 주니, 이는 백성들을 물불 같은 환란 중에서 건져주고, 잔악한 무리만을 잡아내준 까닭이다.

「태서」에 이르기를

우리 무위를 떨치도다.

그들의 강역에 들어가 잔악한 무리들을 잡아내도다.

놈들을 죽이고 정벌하여 널리 떨치니
탕왕보다 더욱 빛나도다

하였다.

왕정을 펴지 않는다면 그야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왕정을 편다면
은 천하가 다 머리를 들고 우리러보며 내 임금을 삼자고 할 것이니
제·초 두 나라가 비록 크다 한들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萬章²²⁾問曰 宋小國也 今將行王政 齊楚惡而伐之則如之何 孟子曰 湯居
亳 與葛爲隣 葛伯²³⁾放而不祀 湯使人問之曰 何爲不祀 曰無以供犧牲也
湯使遣之牛羊 葛伯食之 又不以祀 湯又使人問之曰 何爲不祀 曰無以供
粢盛也 湯使亳衆 往爲之耕 老弱饋食 葛伯帥其民 要其有酒食黍稻者奪
之 不授者殺之 有童子以黍肉餉 殺而奪之 書曰葛伯²⁴⁾仇餉 此之謂也爲
其殺是童子而征之 四海之內 皆曰非富天下也 爲匹夫匹婦 復讐也 湯始
征 自葛載 十一征而無敵於天下 東面而征 西夷怨 南面而征 北狄怨 曰
奚爲後我 民之望之 若大旱之望雨也 歸市者弗止 芸者不變 誅其君 吊其
民 如時雨降 民大悅 書曰徯我后 後來 其無罰 有攸不爲臣²⁵⁾ 東征綏厥
士女 匪厥玄黃 紹我周王見休 惟臣附于大邑周 其君子 實玄黃于匪 以迎
其君子 其小人簞食壺漿 以迎其小人 救民於水火之中 取其殘而已矣 太
誓 曰我²⁶⁾武惟揚 侵于之彊 則取于殘 殺伐用張 于湯有光 不行王政云爾
苟行王政 四海之內 皆舉首而望之 欲以爲君 齊楚雖大 何畏焉²⁷⁾

맹자가 대불승더러 “당신은 당신의 왕을 좋은 왕으로 만들고 싶

22) 만장(萬章): 맹자의 제자.

23) 갈백(葛伯): 갈(葛)은 국명(國名), 백(伯)은 백작(伯爵).

24) 서왈갈백(書曰葛伯): 『서경』 「상서(商書)」 중원(仲虺)편.

25) 유수불위신(有修不爲臣): 「주서(周書)」 ‘무성(武成)’편의 일문(逸文).

26) 태서왈아(太誓曰我): 「주서(周書)」 ‘태서(太誓)’편.

27) [평설] 학정(虐政)은 끝내 의전(義戰)의 구실이 될 수밖에 없다. 궤계(詭計)는 또한 진실 앞에 무력한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결국 왕정(王政)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맹자의 굳은 신념인 것이다.

으신지! 내가 당신에게 똑똑히 알려드리지요. 여기에 초나라 대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그의 아들에게 제나라 말을 쓰도록 하고 싶을 때 제나라 사람으로 선생을 삼겠습니까? 초나라 사람으로 선생을 삼겠습니까?”

“제나라 사람으로 선생을 삼겠습니다.”

“단 한 사람의 제나라 사람이 선생이 되고, 여러 초나라 사람들과 서로 증얼댄다면 날마다 못매질을 하면서 제나라 말을 하라 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를 끌고 와서 제나라 산중에 몇 해만 두어두면 날마다 못매질을 하면서 초나라 말을 하라 해도 그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설거주를 좋은 선비라 하여 왕의 계신 곳에서 살게 하니, 왕 계신 곳에 있는 무리들이 어른, 아이, 높은 이, 낮은 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설거주 같은 무리라면 왕이 누구를 데리고 좋지 않은 일을 할 것이며, 왕 계신 곳에 있는 무리들이 어른, 아이, 높은 이, 낮은 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설거주 같은 무리가 아니라면 왕이 누구를 데리고 착한 일을 할 수 있겠소? 한 사람의 설거주로서 송나라 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孟子謂戴不勝²⁸⁾曰 子欲子之王之善與 我明告子 有楚大夫於此 欲其子之齊語也 則使齊人傳諸 使楚人傳諸²⁹⁾ 曰使齊人傳之 曰一齊人 傳之 衆楚人 咻之 雖日撻而求其齊也 不可得矣 引而置之莊嶽³⁰⁾之間 數年 雖日撻而求其楚 亦不可得矣 子謂薛居州³¹⁾善士也 使之居於王所 在於王所者

28) 대불승(戴不勝): 송(宋)나라 신하.

29) 자(譖): 지호(之乎).

30) 장악(莊嶽): 제나라 거리(街里) 이름이다.

長幼卑尊 皆薛居州也 王誰與爲不善 在王所者 長幼卑尊 皆非薛居州也
王誰與爲善 一薛居州 獨如宋王何³²⁾

공손추가 묻기를 “제후를 만나지 않으시는 것은 어떤 이유이신지?”
맹자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신하가 안 되면 만나지 않았다. 단간
목은 담을 뛰어넘어 피신하였고, 설류는 문을 꼭 닫아걸고 못 들어
오게 하였다. 이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기는 하지만 억지로 졸리면
만나도 좋을 것이다.

양화가 공자를 만나고 싶었으나 무례하다고 할까 봐서, 그때 대부
가 사(士)에게 선사할 때에 집에서 받을 수가 없으면 그 집 문 앞으
로 가서 배례하는 법이라, 양화는 공자 없는 틈을 타서 공자께 삶은
돼지를 보내드렸더니, 공자도 그가 없는 틈을 타서 나아가 배사(拜
謝)하였다. 그때 양화가 선수로 나왔으니 어찌 안 만날 수 있겠는가?

증자는 ‘어깨를 들먹거리며 너털웃음에 간사를 부리기란 여름 락
약벌에서 밭갈이하기보다 더 고된 노릇이다.’

자로는 “마음에는 맞지 않으면서 그럴듯이 말을 할 때 그의 얼굴
빛을 보면 새빨개진다. 나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였으니, 이런 점
으로 미루어 보면 군자들의 수양하는 목표가 어디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公孫丑問曰 不見諸侯 何義 孟子曰 古者 不爲臣 不見段干木³³⁾ 踰垣而

31) 설거주(薛居州): 상동(上同).

32) [평설] 한 사람의 충성은 중인(衆人)의 훼방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왕(王)의 주변에는 많은
현인들이 병풍처럼 둘러싸 있어야 하는 것이다. 중인(衆人)의 충성이야말로 국기(國基)의 초석이 됨
을 알아야 할 것이다.

33) 단우목(段于木): 위문후(魏文侯) 때 사람.

辟之 泄柳³⁴⁾ 閉門而不內 是皆已甚 迫斯可以見矣 陽貨³⁵⁾ 欲見孔子而惡無禮 大夫有賜於士 不得受於其家 則往拜其門 陽貨 矚孔子之亡也 而饋孔子蒸豚 孔子亦矚其亡也 而往拜之 當是時 陽貨先 豈得不見 曾子曰 魯肩諂笑 病于夏畦 子路曰 未同而言 觀其色 赧赧然 非由之所知也 由是觀之 則君子之所養 可知已矣³⁶⁾

대영지가 말하기를 “십일제법을 쓰되, 통관세나 영업세의 부과는 철폐하고 싶으나, 금년에는 아직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조금 가볍게 해 놓았다가 내년에는 철폐할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가령 어떤 사람이 날마다 이웃 집 닭을 훔쳐가는데 어느 사람이 그 사람더러 ‘그런 것은 점잖은 사람의 할 짓이 아니야’ ‘그러면 좀 줄여서 한 달에 한 마리씩 훔치다가 내년이나 그만둘까 합니다.’

이것이 의리에 당찮은 줄 안다면 그야 속히 그만두는 것이 옳지 왜 내년까지 기다리겠소!”

戴盈之³⁷⁾曰 什一 去關市之征³⁸⁾ 今茲未能 請輕之 以待來年然後已 何如 孟子曰 今有人 日攘其隣之鷄者 或告之曰 是非君子之道 曰請損之 月攘一鷄 以待來年然後已 如知其非義 斯速已矣 何待來年³⁹⁾

34) 설류(泄柳): 노무공(魯繆公) 때 사람.

35) 양호(陽虎): 노나라 대부.

36) [평설] 벼슬과 예(禮)와는 결국 바꿀 수 없다는 데까지 논리가 전개된다. 악무례(惡無禮)하기 때문에 제후에게 불사불견(不仕不見)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험견도소(魯肩諂笑) 따위라거나 교언영색을 군자는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37) 대영지(戴盈之): 송나라 대부.

38) 관시지정(關市之征): 상인세(商人稅).

39) [평설] 선(善)을 행(行)하는데 어찌 유예(猶豫)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쫓기듯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잘못을 안다면 어찌 고치기를 머뭇거리질 수 있겠는가? 끓는 물에서 손을 빼내듯 얼른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공도자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선생님은 변론을 좋아하신다고 하니 왜 그렇게 말들을 할까요?”

맹자가 말하기를 “내가 왜 변론을 좋아하겠소! 할 수 없어 그러는 것이지. 세상에 사람이 난 지도 오래라 한때는 평화요 한때는 난세지.

요임금 시절에 물이 거꾸로 올라 채서 온 나라를 휩쓸어 넘쳤으며, 배암이나 용이 거기서 살고 백성들은 살 곳조차 없었다오. 낮은 바닥 사람은 새집 같은 집을 짓고 높은 데 사람은 굴을 파고 살았답니다. 옛 글에

‘큰물이 나를 놀라게 한다’ 하였는데, 큰물이란 홍수란 말입니다. 우를 시켜 이를 다스리게 한즉 우는 땅을 파가지고 물을 바다로 쏟게 하였습니다. 물짐승들은 몰아다가 진땀풀밭으로 쫓았고, 물은 땅속으로 꿰어 나가게 했으니, 강·회·하·한이 곧 그것입니다. 험상궂은 고장이 멀어지고, 사람을 해하는 짐승들이 없어진 연후에야 사람들이 평지에 모여 살게 된 것입니다.

요순은 이미 돌아가시고 성인의 도는 시드는지라, 못된 군왕들이 가름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간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연못을 만드니 백성들의 쉼 곳이 없어졌고, 밭을 무질러 유원지를 만드니 백성들의 먹고 입을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릇된 사설(邪說)과 육대기로 다그치는 버릇이 다시 생기고, 유원지며 연못이며 진털밭이 많아져서 짐승떼들이 모여드니 주왕 때 와서 천하는 다시 크게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주공이 무왕을 도와 주왕을 주살하고 엄 나라를 정벌한 지 3년 만에 그곳 군주의 죄를 다스렸고, 비림을 바닷가로 쫓아 버린 후 한 칼로 목을 베니, 나라를 없앤 수효만 하더라도 50이었고, 호랑이·표범·물소·코끼리 따위도 멀리 쫓아 버리

니 천하가 기쁨에 넘쳤답니다. 옛 글에

‘끔찍이도 밝으실손, 문왕의 꺾여. 잘도 이으셨네, 무왕의 공이여. 우리 같은 뒷사람을 북돋아 인도하시되 모두 바르게 바로잡아 주시니 흠잡을 데 없게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세태는 시들고 도의는 희미하여 그릇된 사설과 억지스런 폭행이 다시 생기니, 신하로서 그의 주군을 죽이는 자가 있고, 아들로서 그의 아버지를 죽이는 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이를 못내 저어하사 『춘추』를 지으셨으니, 『춘추』란 천자의 일을 쓴 글입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나를 알아주는 이도 그야 『춘추』 때문이겠지! 나를 허물하는 이도 그야 『춘추』 때문이겠지!’ 라고 하셨습니다.

성왕은 나지 않고 제후들은 함부로 굴며, 처사(處士)들은 함부로 지껄이니 양주·묵적의 학설이 천하에 그득하고 천하의 논설이 양씨에게 따르지 않으면 묵씨에게 기울어졌습니다. 양씨는 나만을 위하는 것이니 이는 군왕을 부인하는 것이요, 묵씨는 겸애를 주장하니 이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군왕도 없고 아버지도 없으면 이는 짐승의 세계입니다.

공명이는 ‘찬마루에는 기름진 고깃덩어리가 그득하고 마구간에는 살찐 망아지가 있는데 백성의 얼굴에는 주린 빛이 떠돌고 들녘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시글시글하다. 이는 짐승떼를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양씨·묵씨의 도가 찾아들지 않으면 공자의 도는 들쳐지지 못하리니 이는 그릇된 사설이 온 나라 사람을 속이고 인의의 길을 가로막아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인의의 길이 가로막히지면 짐승떼를 몰아다가 사람을 먹게 하고 사람들은

저희끼리 서로 잡아먹게까지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옛 성인의 도를 옹호하여 양씨·목씨의 도를 배격하는 것이요, 풍 떠는 소리를 멀리하여, 그릇된 사설을 퍼뜨리는 자가 못 나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우리나라면 일을 그르치는 것이요, 그 일에서 우리나라면 그 정치를 그르치는 것이니 성인이 다시 나오신다 하더라도 내 말은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옛날에 우임금이 홍수를 막아내니 천하가 태평하게 되었고, 주공이 민족들을 통합하고 짐승들을 멀리 쫓으니 백성들은 편안하게 되었고, 공자가 『춘추』를 지으니 난신적자들이 벌벌 떨어졌습니다. 옛 시에

서용·복적의 버릇을 고치고
남쪽 형·서 패를 골려대리라.
그러면 그 누가 나를 이겨낼 텐가?

이런 구절이 있으니, 아비도 부인하고 군왕도 부인하면 이는 주공이 버릇을 고쳐주자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나도 인심을 바로잡고, 그릇된 사설이 잦아들도록 하며, 치우친 행동을 배격하며, 풍 떠는 소리를 멀리하게 하여, 세 성인의 전통을 계승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 왜 변론을 좋아하겠소? 나는 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능히 양씨·목씨의 학설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의 무리일 것입니다.”

公都子曰 外人 皆稱夫子好辯 敢問何也 孟子曰 予豈好辯哉 予不得已也

天下之生 久矣 一治一亂 當堯之時 水逆行 氾濫於中國 蛇龍居之 民無所定 下者爲巢 上者爲營窟 書曰 洚水⁴⁰警余 洚水者 洪水也 使禹治之 禹掘地而注之海 驅蛇龍而放之菹 水由地中行 江淮河漢是也 險阻既遠 鳥獸之害人者 消然後 人得平土而居之 堯舜既沒 聖人之道衰 暴君代作 壞宮室以爲汙池 民無所安息 棄田以爲園囿 使民不得衣食 邪說暴行又作 園囿汙池沛澤 多而禽獸至 及紂之身 天下又大亂 周公相武王 誅紂 伐奄⁴¹三年 討其君 驅飛廉於海隅而戮之 滅國者五十 驅虎豹犀象而遠之 天下大悅 書曰 丕顯⁴²哉 文王謨 丕承哉 武王烈 佑啓我後人 咸以正無缺 世衰道微 邪說暴行 有作 臣弑其君者 有之 子弑其父者 有之 孔子懼 作春秋 春秋 天子之事也 是故 孔子曰 知我者 其惟春秋乎 罪我者 其惟春秋乎 聖王不作 諸侯放恣 處士橫議 楊朱墨翟之言 盈天下 天下之言 不歸楊則歸墨 楊氏 爲我 是無君也 墨氏 兼愛 是無父也 無父無君 是禽獸也 公明儀曰 庖有肥肉 廄有肥馬 民有飢色 野有餓殍 此率獸而食人也 楊墨之道 不息 孔子之道不著 是邪說誣民 充塞仁義也 仁義充塞 則率獸食人 人將相食 吾爲此懼 閑先聖之道 距楊墨 放淫辭 邪說者不得作 作於其心 害於其事 作於其事 害於其政 聖人復起 不易吾言矣 昔者 禹抑洪水而天下平 周公兼夷狄驅猛獸而百姓寧 孔子成春秋而亂臣賊子懼 詩云 戎狄是膺 荊舒是懲 則莫我敢承 無父無君 是周公所膺也我亦欲正人心 息邪說 距詖行 放淫辭 以承三聖⁴³者 豈好辯哉 予不得已也能言距楊墨者 聖人之徒也⁴⁴

광장이 말하기를 “진중자는 왜 깨끗한 선비가 아닐까! 오름에 있을 때 사흘을 굶으니 귀가 딱딱하고 눈이 캄캄하였습니다. 우물가에 배 한 개가 있었는데 굶병이가 알맹이는 거의 다 파먹은 것이었습니

40) 서알강수(書曰洚水): 『서경』 「우서(虞書)」 「대우모(大禹謨)」 편.

41)奄(奄): 동방에 있는 나라로서 주(紂)를 도왔다.

42) 서알비현(書曰丕顯): 『서경(書經)』 「주서(周書)」 「군어(君牙)」 편.

43) 삼성(三聖): 우(禹) · 주공(周公) · 공자(孔子).

44) [평설] 양주 · 목적은 맹자-유가-가 배척하는 바이지만 유가의 독선기신(獨善其身)은 양주의 위아(爲我)에 가깝고 그의 겸선천하(兼善天下)는 목적의 겸애(兼愛)를 방불하게 한다. 다만 그들은 수기치인의 일방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공맹의 시중지(時中之義)와 벗어나는 집일(執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어찌 양주(楊朱)는 인인(吝人)이요 목적(墨翟)은 광객(狂客)이라 하여 이를 전적으로 배척할 수 있었는가? 그들도 다 고대의 현인이지만 집중(執中)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을 따름이다. [평설] 맹자의 입념은 오로지 선왕의 왕도를 재현함에 있음을 맥맥이 엿볼 수 있다.

다. 뽀뽀 기어가서 먹어보려고 하였는데 세 번 빨아넘긴 뒤에야 귀가 트이고 눈이 보였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제나라 선비들 중에서 나는 중자만큼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은 하나 그러나 어찌 깨끗하다고 할 수야 있소? 중자의 절조를 철저히 실행한다면 지렁이처럼 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지렁이란 벌레는 위에서는 마른 흙을 먹고 밑에서는 황토물을 마시는데, 중자가 사는 집은 백이가 지은 것인가? 그렇잖으면 도척이 지은 것인가? 먹고 있는 좁쌀은 백이가 심은 것인가? 그렇잖으면 도척이 심은 것인가? 그야 알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야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는 제 손으로 신을 삼고, 마누라는 모시를 켜서 그것으로 바꾸어 먹고살기 때문입니다.”

“중자는 제나라 세가(世家)집 사람입니다. 그의 형 대의 개지방의 봉록이 만종이었습니다. 형의 녹이 불의의 녹이라 하여 먹지 않고 형의 집은 불의의 집이라 하여 살지 않고 형을 피하여 어미와 갈려 어릉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와 본즉 자기 형에게서 산 거위를 보내준 것이 있었습니다.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웬걸 끼웁 끼웁 하는 것을 어찌잔 말이냐?’ 하고, 그다음 어느 날 그의 어미가 거위를 죽여서 함께 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이 밖으로부터 돌아와서 ‘그것이 끼웁끼웁새의 고기야’ 한즉, 밖으로 나가서 게워 버렸습니다. 어미가 마련해 준 것은 먹지 않고 마누라가 마련해 준 것은 먹으며, 형의 집에서는 살지 않고 어릉에서는 살고 있으니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절조를 잘 지키는 사람 중에 들어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자같이 지내려고 할 것 같으면 지렁이같이 되어야만 그의 절조를 철저히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匡章⁴⁵⁾曰陳仲子⁴⁶⁾ 豈不誠廉士哉 居於陵⁴⁷⁾ 三日不食 耳無聞 目無見也 井上有李 蝻食實者過半矣 匍匐往將食之 三咽然後 耳有聞 目有見 孟子曰 於齊國之士 吾必以仲子爲巨擘焉 雖然仲子 惡能廉 充仲子之操 則蚓而後可者也 夫蚓上食槁壤 下飲黃泉 仲子所居之室 伯夷之所築與 抑亦盜跖之所築與 所食之粟 伯夷之所樹與 抑亦盜跖之所樹與 是未可知也 曰是何傷哉 彼身織屨 妻辟纊 以易之也 曰仲子 齊之世家也 兄戴 蓋祿萬鐘 以兄之祿 爲不義之祿而不食也 以兄之室 爲不義之室而不居也 辟兄離母 處於於陵 他日 歸則有饋其兄生鵝者 己頻顛曰 惡用是鴟鴞者爲哉 他日其母殺是鵝也 與之食之 其兄 自外至曰 是鴟鴞之肉也 出而哇之 以母則不食 以妻則食之 以兄之室則弗居 以於陵則居之 是尙爲能充其類也乎 若仲子者 蚓而後 充其操者也⁴⁸⁾

45) 광장(匡章): 제인(齊人).

46) 진중자(陳仲子): 제인(齊人).

47) 오릉(於陵): 지명.

48) [평설] 유가의 청사(淸士)는 백이처럼 청렴해야 하겠지만 정도가 넘쳐서 형제의 윤리까지 끊을 수는 없는 것 아닐까? 진중자(陳仲子)의 엄사(廉士)로서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루 상

맹자가 말하기를 “이루의 밝은 눈과 공수자의 교묘한 솜씨로도 킴퍼스와 곡척을 안 가지고 모난 것 둥근 것을 만들지 못하며, 사광의 밝은 귀로도 6률이 아니고는 5음을 고르지 못하며, 요순 같은 이의 도로도 인정(仁政)이 아니고는 천하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제 인애로운 마음씨를 가졌고 인자하다는 소문을 들어도 백성들이 그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후세에 본보기를 남기지 못하는 것은, 옛 성왕의 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착하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바로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니요, 단순히 법이라는 것만으로는 저절로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니, 옛 시에

허물이 없고 잘못도 없음은
옛 법을 그대로 따르는 까닭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옛 성왕의 법도를 따르면 실수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성인이 이미 안력(眼力)을 쓸 대로 쓰시고 게다가 킴퍼스며 곡척이

며 수준기며 먹줄까지 마련해 주시니, 그것으로 우리는 모난 것, 둥근 것, 반반한 것, 곧은 것을 만드는 데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청력을 쓸 대로 쓰시고 게다가 6률을 마련해 주시니 5음을 고르는 데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미 정신을 차릴 대로 차리시고 게다가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의 정치를 마련해 주시니, 그 때문에 인정이 천하를 덮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높게 만들자면 반드시 언덕을 이용하고 낮게 만들자면 반드시 개울창을 이용하라’ 한 것이니 정치를 하되 옛 성왕의 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지자(智者)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인애로운 이가 마땅히 높은 벼슬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니, 인애롭지 못한 사람이 높은 벼슬자리에 앉으면 이는 악의 씨를 민중에게 퍼트리는 셈이 된다.

윗사람에게 아무런 도덕적 규범이 없고, 아랫사람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며, 조정에서는 도를 믿지 않고, 공장이는 자를 믿지 않으며, 군자랍신 이는 의(義)에 벗어나는 일을 하고 소인들은 형벌을 무시하는데, 그리고도 나라가 남아 있다면 그야말로 요행일 것이다. 그러므로 ‘성곽이 튼튼하지 않다거나 병기가 많지 않다거나 하는 것도 국가의 재난이 아니요, 들밭이 개간되지 않았거나 재물이 많이 모이지 않은 것들도 국가의 손해는 아니니, 윗사람이 예를 무시하고 아랫사람에게 교육이 없으면 도적의 무리가 떼로 일어나 감쪽하는 사이에 그 나라는 없어지고 말 것이다’ 하였으니, 옛 시에

하늘이 금방 뒤엎자 드시니
그렇게 설설(泄泄)하게 굴지 말아요.

이런 구절이 있는데, ‘예예’란 답답하다는 말이다.

군왕을 섬길 때 의리를 몰각하며, 나아가고 물러섬에 예의를 무시하며, 말끝마다 옛 성왕의 도를 비방하는 사람은 답답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기 힘든 일을 주군에게 요구하는 것을 공(恭)이라 이르고, 선한 일을 늘어놓고 사특한 일을 막아내는 것을 경(敬)이라 이르고, 우리 주군은 할 수 없을 것이야 하는 따위를 적(賊)이라 이른다’ 하는 것이다.”

孟子曰 離婁¹⁾之明 公輸子²⁾之巧 不以規矩 不能成方員 師曠³⁾之聰 不以六律⁴⁾ 不能正五音⁵⁾ 堯舜之道 不以仁政 不能平治天下 今有仁心仁聞而民不被其澤 不可法於後世者 不行先王之道也 故曰徒善⁶⁾不足以爲政 徒法不能以自行 詩云不愆⁷⁾不忘 率由舊章 遵先王之法而過者 未之有也 聖人既竭目力焉 繼之以規矩準繩 以爲方員平直 不可勝用也 既竭耳力焉 繼之以六律 正五音 不可勝用也 既竭心思焉 繼之以不忍人之政而仁覆天下矣 故曰爲高必因丘陵 爲下 必因川澤 爲政 不因先王之道 可謂智乎是以惟仁者 宜在高位 不仁而在高位 是播其惡於衆也 上無道揆也 下無法守也 朝不信道 工不信度 君子犯義 小人犯刑 國之所存者幸也 故曰城郭不完 兵甲不多 非國之災也 田野不辟 貨財不聚 非國之害也 上無禮 下無學 賊民興 喪無日矣 詩曰天之方蹶⁸⁾ 無然泄泄 泄泄猶沓沓也 事君無義 進退無禮 言則非先王之道者 猶沓沓也 故曰責難於君謂之恭 陳善閉

1) 이루(離婁): 옛날에 눈 밝기로 이름난 사람. 『장자』 「천지(天地)」편에는 리주(離朱)라 하였다.

2) 공수자(公輸子): 노(魯)나라 사람. 이름은 반(班). 손재주로 이름난 사람.

3) 사광(師曠): 진(晉)나라 악사(樂師). 5음을 밝히 알던 사람.

4) 육률(六律): 육률육려(六律六呂)로서 황중(黃鍾)·대유(大蕤)·고선(姑洗)·유빈(蕤賓)·이척(夷則)·무역(無射)의 육률(六律)(陽)과 대려(大呂)·래중(來鍾)·중려(仲呂)·인중(林鍾)·남呂(南呂)·응중(應鍾)의 육려(六呂)(陰)를 의미한다.

5) 오성(五聲):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

6) 도선(徒善): 인정(仁政)에 기초를 두지 않은 선(善)은 도선(徒善)이다. 도(徒)는 공(空)이니 도선(徒善)은 실질적인 선(善)이 아니다.

7) 시운불건(詩云不愆): 「대야(大雅)」 ‘가악(假樂)’편.

8) 시왈천지방궐(詩曰天之方蹶): 「대야(大雅)」 ‘판(板)’편.

邪謂之敬 吾君不能謂之賊⁹⁾

맹자가 말하기를 “김퍼스와 곡척은 모난 것, 둥근 것의 극치요, 성인인 인륜의 극치다.

군왕이 되려고 하면 군왕다운 길에 정진해야 하고, 신하가 되려고 하면 신하다운 길에 정진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다 요순을 본떠야만 하는 것이다. 순이 요를 섬기듯 그렇게 군왕을 섬기지 않으면 그의 군왕을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요, 요가 백성을 통치하지 않으면 그의 백성을 쪼먹는 사람인 것이다.

공자는 ‘길이란 돌이니 인애롭거나 인애롭지 않은 그것뿐이다’라고 하셨다.

백성들을 함부로 학대하면 저도 죽고 나라도 멸망할 것이요, 설령 그만 못하다 하더라도 제 몸이 위태롭고 나라는 깎이울 것이니 그들이 ‘유(幽)’·‘려(厲)’란 시호를 얻게 되면 제아무리 효자요 알뜰한 자손이라도 몇백 대가 되도록 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옛 시에

은나라를 거울삼되 그리 멀지도 않아
하후씨의 시대에 있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孟子曰 規矩 方員之至也 聖人 人倫之至也 欲爲君 盡君道 欲爲臣 盡臣道 二者 皆法堯舜而已矣 不以舜之所以事堯事君 不敬其君者也 不以堯

9) [평설] 척도는 곧 법도요 법도도 제도-예-이기도 한 것이다. 왕정(王政)-인정(仁政)-은 어찌면 예악의 법도인지도 모른다. 인정(仁政)이 다른 아닌 천하의 법도가 됨은 이 까닭인 것이다.

之所以治民治民 賊其民者也孔子曰 道二 仁與不仁而已矣 暴其民甚則身
弑國亡 不甚則身危國削 名之曰幽厲¹⁰⁾ 雖孝子慈孫 百世不能改也 詩云
殷鑒¹¹⁾不遠 在夏后¹²⁾之世 此之謂也¹³⁾

맹자가 말하기를 “삼대가 천하를 얻은 것은 인정(仁政) 때문인 것
이요, 그들이 천하를 잃은 것은 인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천지가 인애롭지 못하면 천하를 보유하지 못하고 제후가 인애롭
지 못하면 사직을 보존하지 못하고, 경·대부가 인애롭지 못하면 중
묘를 보형(保亨)하지 못하고, 사·서인이 인애롭지 못하면 일신을 보
장하지 못하리라.

이제 죽기나 망하기를 싫어하면서 인애롭지 못한 짓을 즐겨하니
이는 술 취하기를 싫어하면서 억지로 술 마시는 것과 같다.”

孟子曰 三代¹⁴⁾之得天下也以仁 其失天下也以不仁 國之所以廢興存亡者
亦然 天子不仁 不保四海¹⁵⁾ 諸侯不仁 不保社稷¹⁶⁾ 卿大夫不仁 不保宗
廟 士庶人不仁 不保四體 今惡死 亡而樂不仁 是猶惡醉而強酒¹⁷⁾

10) 명지알유려(名之曰幽厲): 유(幽)는 암(暗)이요 려(厲)는 학(虐)이니 왕(王)이 이런 시호를 얻으면 시범
은 엄정한지라 후손도 이를 고치지 못한다.

11) 시운은감(詩云殷鑒): 「대아(大雅)」 ‘탕(湯)’편.

12) 하후(夏后): 걸왕(桀王)을 가리킴.

13) [평설] 인정(仁政)과 불인(不仁)과의 차이는 요순(堯舜)과 걸주(桀紂)와의 격차를 가져온다. 민주주의
와 전체주의의 격차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규구(規矩)가 방원(方員)의 표준이듯 성인(聖人) - 왕
정(王政)의 표상 - 이 인정(仁政)의 기준이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14) 삼대(三代): 하(夏)·은(殷)·주(周).

15) 사해(四海): 사해지내(四海之內)로서의 천하.

16) 사직(社稷): 토지와 곡물(穀物)의 신(神)인데 국가라는 뜻.

17) [평설] 인(仁)은 흥기(興起)와 존립(存立)의 원동력이요 불인(不仁)은 그의 반대인 것이다. 천하·국가
로부터 사(士)·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이 원칙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맹자 “남을 사랑하되 그 사람이 따르지 않거든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돌이켜 보라. 남을 다스리되 그 사람이 다스려지지 않거든 나의 지혜를 돌이켜 생각해 보라. 남에게 예의를 갖추어도 그 사람의 응답이 없거든 나의 공경하는 마음이 부족하지나 않나 돌이켜 생각해 보라.

그대로 실천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때는 그 원인이 제 자신에 있거나 않나 반성해 보라. 제 자신이 바르면 천하도 그를 따르리니, 옛 시에

길이길이 태어난 천명이라 하지만
잘살고 못살기는 나 하기에 마련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다.”

孟子曰 愛人不親 反其仁 治人不治 反其智 禮人不答 反其敬 行有不得者 皆反求諸己 其身正而天下歸之 詩云¹⁸⁾永言配命 自求多福¹⁹⁾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에 모두들 ‘천하국가’라 하는데,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가정에 있고 가정의 근본은 제 자신에 있는 것이다.”

孟子曰 人有恒言 皆曰天下國家 天下之本在國 國之本在家 家之本在身²⁰⁾

18) 사운(詩云): 「대아(大雅)」 ‘문왕(文王)’편.

19) [평설] 구복(求福)의 비결정론적인 면을 지적하고 있다. 회복은 오직 개개인의 윤리적 행동 속에서 배태되는 것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정치하기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큰 집안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큰 집안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요, 온 나라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온 천하가 바라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주르륵주르륵 비가 쏟아지듯 하는 도덕적 교화가 사해에 넘쳐흐르게 될 것이다.”

孟子曰 爲政不難 不得罪於巨室²¹⁾ 巨室之所慕 一國慕之 一國所慕 天下慕之 故沛然德教 溢乎四海²²⁾

맹자가 말하기를 “천하에 질서가 서면 인격이 모자라는 사람이 인격자의 부림을 받고 작은 인물이 큰 인물의 부림을 받는다. 천하가 무질서하면 작은 인물이 큰 인물을 부리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린다. 이 두 사실은 천운(天運)이니, 천운에 순종하는 자는 남고 천운을 거슬리는 자는 멸망한다.

제정공이 ‘이미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으면 이는 그와 절교하는 셈이다’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나라에 딸을 주었다.

요새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스승으로 섬기되 그의 명령을 받기를 수치로 여기니, 이는 제자로서 스승에게 명령을 받기를 수치로 아는 것과 같다.

20) [평설] 수신제가(修身齊家) 이후에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한다는 사상은 『대학』사상이라 할 수 있다. 모름지기 공맹의 가르침이 수신(修身)을 주장으로 삼는 치평(治平)의 도(道)이기 때문이다.

21) 거실(巨室): 대대로 내려오는 공신의 집안.

22) [평설] 지도층의 의사는 대중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도층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바로 전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될 것이요 전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자면 그를 대변하는 지도층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를 수치로 여기거든 문왕을 스승으로 하는 것이 제일 옳은 일이니, 문왕을 스승으로 하면 큰 나라는 5년이요 작은 나라는 7년이면 반드시 천하에 정치를 펴게 될 것이다. 옛 시에

상나라 자손이 그 수가 십만만 되랴.
상제가 이미 명하신 바라
주나라에 복종할 따름이다.

주나라에 복종할 따름이라
천명이란 변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
은나라 벼슬아치 잘난 그들이건만
서울에 모여 관제(裸祭)를 돕게 되는 거다.

라 하였고, 공자는 ‘인정이란 사람이 많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 군주가 인정을 좋아하면 천하에 적이 없을 것이다’라 하였다.

요즈음은 천하에 적이 없기를 바라면서 인정에 의하지 않으니, 이는 뜨거운 것을 손에 쥐고도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 옛 시에

뉘라서 뜨거운 걸 손에 쥐고서
물을 끼얹지 않으려 할까?

하였다.”

孟子曰 天下有道 小德役大德 小賢役大賢 天下無道 小役大 弱役強 斯二者天也 順天者存 逆天者亡 齊景公曰 旣不能令 又不受命 是絕物也 涕出而女於吳²³⁾ 今也小國師大國而恥受命焉 是猶弟子而恥受命於先師也 如恥之 莫若師文王 師文王 大國五年 小國七年 必爲政於天下矣 詩云商之

孫子²⁴⁾ 其麗不億 上帝既命 侯于周服 侯服于周 天命靡常 殷士膚敏 裸²⁵⁾
將于京 孔子曰 仁不可爲衆也 夫國君好仁 天下無敵今也欲無敵於天下而
不以仁 是猶執熱而不以濯也 詩云誰能執熱²⁶⁾ 逝不以濯²⁷⁾

맹자가 말하기를 “인(仁)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
어야지! 위험을 안전으로 알고, 재앙을 유익한 양 여기며, 멸망하게
될 그것을 형락하게 하니, 인(仁)을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어찌하여 나라를 망치고 집안을 치패하게 할 까닭이 있겠는
가! 아이들의 노래에 이런 것이 있다.

창랑수 맑거들랑 내 갓끈을 씻음 직하지
창랑수 흐리걸랑 내 발목을 씻음 직하지

공자는 ‘애들아, 듣거라. 맑으면 갓끈을 씻고, 흐리면 발목을 씻는
다니, 물이란 저 되기에 마련이야’라 하셨다.

대체로 사람들은 제 자신을 제가 업신여긴 후라야 남이 그를 업
신여기는 것이며, 집안도 반드시 제가 부서지게 만든 연후에 남이
그를 쳐부수는 것이며, 나라도 제가 쳐부순 연후에 남이 그를 쳐부
수는 것이다. 「태갑」에 ‘하늘이 낸 잘못은 피할 수나 있지만, 제가
저지른 잘못은 피해날 길도 없느니라’ 하였는데, 이를 두고 이른 말
이다.”

23) 여어오(女於吳): 오(吳)는 만이지국(蠻夷之國)이나 세부득이(勢不得已)하여 그의 딸을 주게 된 고사.

24) 시운상지손자(詩云商之孫子): 「대아(大雅)」 ‘문왕(文王)’ 편.

25) 관제(禘祭): 종묘의 제례 때 울창의 향주(香酒)를 땅에 부어 강신케 하는 식전(式典).

26) 청운수능집열(請云誰能執熱): 「대아(大雅)」 ‘유유(柔柔)’ 편.

27) [평설] 치세(治世)에는 대인(大人)이 소인(小人)을 거느리고 난세(亂世)에는 소인(小人)이 대인(大人)
을 부리게 되니 이는 본말이 전도된 셈이다. 이는 세도의 쇠퇴를 뜻하기 때문이다.

孟子曰 不仁者可與言哉 安其危而利其菑 樂其所以亡者 不仁而可與言 則何亡國敗家之有 有孺子歌曰 滄浪之水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²⁸⁾濁兮 可以濯我足 孔子曰 小子聽之 清斯濯纓 濁斯濯足矣 自取之也 夫人必自侮然後 人侮之 家必自毀而後 人毀之 國必自伐而後 人伐之 太甲曰 天作孽猶可違 自作孽不可活 此之謂也²⁹⁾

맹자가 말하기를 “결·주가 천하를 잃은 것은 그가 백성을 잃은 것이니, 백성을 잃었다는 것은 그가 민심을 잃었다는 것이다. 천하를 얻는 데도 방도가 있으니, 그가 백성을 얻으면 곧 천하를 얻는 것이 된다. 그가 백성을 얻는 데는 방도가 있으니, 그가 민심을 얻으면 곧 백성을 얻는 것이 된다. 그가 민심을 얻는 데는 방도가 있으니,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함께 모여서 하며,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키지 않아야 하느니라. 민중이 인애로운 사람에게 따르는 품이란 물이 낮은 데로 흐르듯 하고, 짐승들이 텅 빈 들판을 내달듯 한다.

그러므로 연못을 위해서 물고기를 몰아 주는 자는 수달개요, 숲을 위해서 참새 떼를 몰아 주는 자는 새매요, 탕왕과 무왕을 위해서 백성을 몰아 주는 자는 걸왕과 주왕인 것이다. 이제 천하의 군왕 가운데 인정을 좋아하는 이가 있다면, 제후들이 모두 그를 위해서 백성을 몰아다 줄 터이니, 왕노릇을 안 하려 하더라도 할 수 없이 되고야 말 것이다.

요즈음 왕노릇을 하고파 하는 것은 마치 7년 난병에 3년 묵은 쭉을 구하는 것 같으니, 그나마도 묵혀 두지 않으면 평생을 두고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나마도 인정에 뜻을 두지 않으면, 평생

28) 창랑지수(滄浪之水): 수명(水名). 한수(漢水)의 동(東)이 창랑(滄浪)이다.

29) [평설] 맹자의 목적론적 자율성을 엿볼 수 있다. 목표는 인(仁)에 있고, 그의 책임은 오로지 내게 있을 따름이다. 자기의 잘못은 하늘도 어찌할 길이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토록 근심과 치욕에 묻혀 주검과 멸망의 구렁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옛 시에

그 어찌 착하달 수 있나!
서로 붙들고 물에 빠져 허우대는 것을.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孟子曰 桀紂之失天下也 失其民也 失其民者 失其心也 得天下 有道 得其民 斯得天下矣 得其民 有道 得其心 斯得民矣 得其心 有道 所欲 與之聚之 所惡 勿施爾也 民之歸仁也 猶水之就下 獸之走曠也故爲淵馭魚者 獺也 爲叢馭爵³⁰⁾者 鷓也 爲湯武馭民者 桀與紂也今天下之君 有好仁者 則諸侯皆爲之馭矣 雖欲無王不可得已 今之欲王者 猶七年之病 求三年之艾³¹⁾也 苟爲不畜 終身不得 苟不志於仁 終身憂辱 以陷於死亡 詩云其何能淑³²⁾ 載胥及溺 此之謂也³³⁾

맹자가 말하기를 “‘내 따위가 알 수 있나.’ 이렇게 말하는 자와는 서로 이야기할 나위가 못 된다. ‘내가 웬 걸 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하는 자와는 서로 함께 일할 수가 없다. 입을 말하는 쪽쪽 예(禮)·의(義)를 비방하는 그것을 자포(自暴)라 하고, 내 자신 인(仁)에서 살거나 의(義)에 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것을 자기(自棄)라 하는 것이다. 인(仁)이란 사람들이 편안히 설 수 있는 집이요, 의(義)란 사람들이

30) 작(雀): 작(雀).

31) 애(艾): 쑥. 쑥은 진재(陳材)로서 오래수록 약효가 있다고 한다.

32) 시운기하능숙(詩云其何能淑): 「대야(大雅)」 ‘상유(桑柔)’편.

33) [평설] 악정(惡政)은 인정(仁政)을 위한 촉진작용을 지니고 있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소위 걸주(桀紂)는 탕무(湯武)를 위하여 존재했던 것처럼 보이니 말이다. 것처럼 폭정에 쫓기는 민생들은 인정(仁政)을 구심점으로 하여 물밑듯 쏟아지는 힘은 아무도 막아낼 길이 없는 것이다.

바르게 걸을 수 있는 길이다.

편안한 집을 텅 비워 놓고 살지 않으며, 바른길을 버리고 그 길로
가지 않으니 슬픈 일이야”

孟子曰 自暴³⁴者不可與有言也 自棄者不可與有爲也 言非禮義 謂之自暴也 吾身不能居仁由義 謂之自棄也 仁 人之安宅也 義 人之安路也 曠安宅而弗居 舍正路而不由 哀哉³⁵

맹자가 말하기를 “길이란 가까운 데 있는 것을 이를 먼 데에서 구하려 하며, 일이란 쉬운 데 있는 것을 이를 어려운 데에서 구하려 하는데, 사람마다 저제금 그의 아버이를 아버지로 섬기고 그의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면 천하는 태평할 것이다.”

孟子曰 道在爾而求諸遠 事在易而求諸難 人人親其親³⁶長其長³⁷而天下平³⁸

맹자가 말하기를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상관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리라. 상관의 신임을 얻는 데는 방도가 있으니, 친구들에게서 신용을 못 얻으면 상관의 신임을 얻지 못하리라. 친구들에게서 신용을 얻는 데는 방도가 있으니 아버이를 효도로

34) 폭(暴): 해(害).

35) [평설] 인(仁)은 집에 비유하였고 의(義)는 길에 비유하였다. 그러므로 이인(里仁)－거인(居仁)이니 의로(義路)니 하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자포자기란 곧 인택(仁宅)과 의로(義路)를 버린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6) 친기친(親其親): 효자야(孝慈也).

37) 장기장(長其長): 제야(弟也).

38) [평설] 효제의 도가 바로 평천하(平天下)하는 길이거나 효제처럼 자신의 문제요, 가깝다 하기 쉬운 일은 또다시 없을 것이다.

써 섬겨 기쁘게 못 해드리면 친구들의 신용을 못 얻으리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데는 방도가 있으니, 자기 자신을 반성하여 정성이 부족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못 해드릴 것이다. 자기 자신을 성실하게 하는 데는 방도가 있으니 선에 밝지 못하면 제 자신을 성실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성이란 하늘의 도리요, 정성이 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인 것이다. 정성이 지극한데 감동하지 않는 법이 없고, 정성이 부족한데 감동되는 법도 없다.”

孟子曰 居下位而不獲乎上 民不可得而治也 獲於上有道 不信於友 弗獲於上矣 信於友有道 事親弗悅 弗信於友矣 悅親有道 反身不誠 不悅於親矣 誠身有道 不明乎善 不誠其身矣是故 誠者³⁹⁾天之道也 思誠⁴⁰⁾者人之道也 至誠而不動者 未之有也 不誠未有能動者也⁴¹⁾

맹자가 말하기를 “백이가 주왕을 피하여 북해 기슭에서 살더니, 문왕이 나섰다는 소문을 듣고 ‘어찌 그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나. 나는 들었다. 서백은 늙은이를 잘 북돋아 준다는 것을!’이라 하였고 태공이 주왕을 피하여 동해 기슭에서 살더니, 문왕이 나섰다는 소문을 듣고

‘어찌 그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나. 나는 들었다. 서백은 늙은이를 잘 북돋아 준다는 것을!’이라 하였다.

이 두 노인은 천하에 위대한 노인들인데, 그들이 그를 따르게 되니 이는 천하의 부로(父老)들이 다 따르는 셈이다. 천하의 부로들이

39) 성자(誠者): 지성(至誠)이 곧 지성(至聖)이니 성자(誠者)는 성인(聖人)이다.

40) 사성(思誠): 차성(次聖)은 학이득지(學而得之)하니 사성자(思誠者)는 학자(學者)다.

41) [평설] 성(誠)이 윤리의 근본임을 밝히고 있다. 윤리뿐만이 아니라 천도로서의 성은 형이상적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불성무물(不誠無物(『중용』)의 사상도 여기서 연유하였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모두 따르니 그들의 제자들은 어디로 가랴!

제후들 가운데 문왕과 같은 정치를 펴는 이가 있다면, 7년이 못
되어서 반드시 온 천하에 정치를 펴게 되고야 말 것이다.”

孟子曰 伯夷辟紂 居北海之濱 聞文王作興 曰盍歸乎來 吾聞西伯⁴²⁾善養
老者⁴³⁾ 太公⁴⁴⁾辟紂 居東海之濱 聞文王作興 曰盍歸乎來 吾聞西伯 善
養老者二老者 天下之大老也而歸之 是天下之父歸之也 天下之夫歸之 其
子焉往 諸侯有行文王之政者 七年之內⁴⁵⁾ 必爲政於天下矣⁴⁶⁾

맹자가 말하기를 “염구가 계씨의 재상이 되어 그의 행실을 고치
게 하지도 못하고 더욱이 세곡을 전보다 곱절이나 올리니 공자는
‘구는 내 제자가 아니야. 애들아. 북을 울려 그의 죄상을 폭로하는
것이 옳다’ 하셨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군왕이 인정(仁政)을 펴지 않고 제 배만 채우
면 모두 공자에게 버림을 받는 존재인 것이니, 하물며 억지로 전쟁
을 일으켜 땅덩이를 얻자고 싸우는 통에 사람 죽은 시체가 들판에
그득하고, 성터를 빼앗자고 싸우는 통에 사람 죽인 시체가 성안에
그득함에 있어서랴. 이는 땅속에다 사람의 고기를 마구 먹여대는 셈
이니, 그 죄는 죽어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좋아하는 자는 최고 형벌로 처단하고, 제후들과

42) 서백(西伯): 문왕 이전의 벼슬 이름.

43) 선양노자(善養老者): 오십자의백(五十者衣帛), 칠십자식육(七十者食肉)의 선정(善政)을 의미한다.

44) 태공망(太公望): 여상(呂尚), 주왕조(周王朝)의 공신(功臣)으로 제후(齊侯)로 봉하다.

45) 칠년지내(七年之內): 역(易)에서 육획(六劃)이 진(盡)하면 칠수(七數)에서 다시 시작하므로 칠(七)은 재귀(再歸)의 수(數)다. 그런 데에서 칠(七)이란 수자를 쓴 것이다.

46) [평설] 현인들은 폭정을 피하여 일시적 피세(避世)행위를 취하더라도 선정을 위해서는 기꺼이 다시 모여드는 것이다. 현인들은 선정참여를 그의 본무로 삼기 때문이다.

연맹을 맺는 자는 그다음 형벌이요, 황무지를 개간하여 노력을 강요하는 자는 그다음 죄에 해당할 것이다.”

孟子曰 求⁴⁷⁾也爲季氏⁴⁸⁾宰 無能改於其德而賦粟倍 他日 孔子曰 求非我徒也 小子鳴鼓⁴⁹⁾攻之 可也 由此觀之 君不行仁政而富之 皆棄於孔子者也 況於爲之強戰 爭地以戰 殺人盈野 爭城以戰 殺人盈城 此所謂率土地而食人肉 罪不容於死 故善戰者服上刑 連諸侯者次之 辟草萊任土地者次之⁵⁰⁾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가진 것 중에 눈동자처럼 선량한 것은 없다. 눈동자는 그의 잘못을 감추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도 빛나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도 흐리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찌 속일 수 있으랴”

孟子曰 存乎人者 莫良於眸子⁵¹⁾ 眸子不能掩其惡 胸中正則眸子瞭焉 胸中不正則眸子眊焉 聽其言也 觀其眸子 人焉廋哉⁵²⁾

맹자가 말하기를 “공손한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검박한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남을 업신여기고 남의 것을 빼앗

47) 구(求): 공자 제자.

48) 계씨(季氏): 노경(魯卿) 계손(季孫).

49) 오고(鳴鼓): 군례(軍禮)의 정공(正攻).

50) [평설] 맹자는 항상 정치의 잘못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지면 그것은 간접적 살인이라고까지 극언한다. 징세(徵稅)에 의한 수탈(收奪)은 단연코 용서받지 못할 중죄(重罪)로 규정함은 이 까닭인 것이다.

51) 모자(眸子): 눈동자. 마음이 순정(純正)하면 눈동자도 안정(安靜)하고 물욕(物欲)에 마음이 설레면 눈동자도 설렌다.

52) [평설]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러므로 마음의-보이지 않는-선악도 눈은 속이지 못하는 것이다. 항상 맑고 바른 눈동자를 간직함으로써 마음의 청순(淸純)을 가꾸도록 해야 함은 이 까닭인 것이다.

는 군주는 백성들이 불순하지나 않은가 그것만을 걱정하니, 어떻게 공손하고 검박할 수 있겠는가? 공손과 검박이 어찌 부드러운 목청과 웃는 낯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이겠는가!”

孟子曰 恭者不侮人 儉者不奪人 侮奪人之君 惟恐不順焉 惡得爲恭儉 恭儉豈可以聲音笑貌⁵³⁾爲哉⁵⁴⁾

순우곤이 말하기를 “남녀 사이는 서로 손수 주고받지 않는 것이 예라지요?”

맹자가 말하기를 “예입니다.”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그를 구원하는 데 손으로 합니까?”

“형수가 물에 빠져도 그를 구원하지 않으면 그는 승냥이나 늑대 같은 자입니다. 남녀가 서로 손수 주고받지 않는 것은 예요,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그를 손으로 구원하는 것은 권(權)입니다.”

이제 천하가 물에 빠지다시피 되었는데 선생은 이를 구원하지 않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천하가 물에 빠지다시피 되었을 때 이를 구원하는 데는 도로써 하고,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이를 구원하는 데는 손으로 하는 것이니, 당신은 천하를 손으로 구원하고 싶단 말인가?”

淳于髡⁵⁵⁾曰 男女授受不親禮與 孟子曰 禮也 曰嫂溺則援之以手乎 曰嫂溺不援 是豺狼也 男女授受不親 禮也 嫂溺援之以手者 權⁵⁶⁾也 曰今天下

53) 성인소모(讜言笑貌): 교언영색과 비슷하다.

54) [평설] 폭군은 순종을 요구한다. 그러나 교언영색은 결코 폭군의 부정을 바로잡는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55) 순우곤(淳于髡): 제(齊)의 변론가.

溺矣 夫子之不援 何也 曰天下溺 援之以道 嫂溺援之以手 子欲手援天下乎⁵⁷⁾

공손추가 말하기를 “군자는 제 아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맹자가 말하기를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바로잡아 주려 해도 그렇게 안 되면, 그다음에는 마구 눈을 부릅떠야 된다. 눈을 부릅뜨게 되면 도리어 정의(情誼)를 상하게 되는 것이니, ‘아버지가 나더러 바르게 하라 하면서 아버지도 아직 옳게 못 하시는걸’이라고 한다면 이는 부자간의 정의가 서로 상하는 것이라 부자간에 정의가 상하는 것은 안 된 일이다.

옛날에는 아들을 서로 바꾸어서 가르쳤다.

부자간에는 서로 잘하라 잘하라 하지 않는 법이니, 서로 잘하라 잘하라 하면 사이가 성글어진다. 사이가 성글어지면 이보다 더 큰 불상사는 없는 것이다.”

公孫丑曰 君子之不教子 何也 孟子曰 勢不行也 教者必以正 以正不行 繼之以怒 繼之以怒則反夷矣 夫子教我以正 夫子未出於正也 則是父子相夷⁵⁸⁾也 父子相夷則惡矣古者 易子而教之 父子之間 不責善 責善則離 離則不祥 莫大焉⁵⁹⁾

56) 권(權): 방편.

57) [평설] 권(權)이란 본시 저울추로서 저울의 경중을 조절하여 알맞은 점을 결정짓는다. 그러므로 권도(權道)는 방편이기는 하지만 그가 닿는 곳은 정도(正道)인 것이다. 권도(權道)를 흔히 부정(不正)한 방편으로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58) 이(夷): 상어(傷也).

59) [평설] 유교에서는 부자간의 친애의 정의(情誼)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 그러므로 교자(教子)나 책선(責善)도 친애의 정을 손상시키는 선-정도-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도 이 까닭인 것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섬기는 일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큰가 하면 어버이 섬기는 일이 제일 크지. 단속하는 일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큰가 하면 제 몸단속하는 일이 제일 크지. 제 몸가짐을 허술히 하지 않으면서 제 어버이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의 이야기는 들었으나, 제 몸가짐을 허술히 하면서 제 어버이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의 이야기는 나는 듣지 못했다.

어느 것이고 섬기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라마는 어버이 섬기는 것이 섬기는 근본이다. 어느 것이고 단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라마는 제 몸단속하는 것이 단속의 근본이다.

증자가 증석을 봉양하는 데 언제나 술과 고기를 갖추었고, 상을 물리치실 때에는 언제나 반드시 ‘누구에게 주리까’ 하고 물었으며, 남은 것이 있느냐고 물으면 ‘있습니다’라고 꼭 대답하였다. 증석이 죽고 증원이 증자를 봉양할 때 언제나 술과 고기를 갖추었고, 상을 물리치실 때에는 ‘누구에게 주리까’ 하고 묻지 않았다. ‘남은 것이 있느냐’고 물으면 ‘없습니다’라 하였으니, 이는 다시 또 드리기 위해 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위 입이나 육체를 봉양한다는 것이니, 증자같이 하는 것이 그의 뜻을 봉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버이를 섬기는 데는 증자같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孟子曰 事孰爲大 事親爲大 守孰爲大 守身爲大 不失其身而能事其親者 吾聞之矣 失其身而能事其親者 吾未之聞也 孰不爲事 事親 事之本也 孰不爲守 守身 守之本也 曾子⁶⁰養曾皙⁶¹ 必有酒肉 將徹 必請所與 問有餘 必曰有 曾皙死 曾元⁶²養曾子 必有酒肉 將徹 不請所與 問有餘 曰亡

60) 증자(曾子): 공자의 제자. 명은 참(參). 『효경』의 저자.

61) 증석(曾皙): 증자의 부(父).

矣 將以復進也 此所謂養口體者也 若曾子則可謂養志也 事親若曾子者
可也⁶³⁾

맹자가 말하기를 “남의 잘못은 꼬집어낼 것이 없고, 정치도 이러
니저러니 하잘것없다. 오직 위대한 인물만이 군왕의 마음이 그릇됨
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 군왕이 인애로우면 따라서 인애롭게 되지
않을 수 없고, 군왕이 외로우면 따라서 외롭게 되지 않을 수 없고,
군왕이 바르면 따라서 바르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한번 군왕이 바
르게 되면 국가는 안정되는 것이다.”

孟子曰 人不足與適也 政不足間也 惟大人⁶⁴⁾爲能格⁶⁵⁾君心之非 君仁莫
不仁 君義莫不義 君正莫不正 一正君而國定矣⁶⁶⁾

맹자가 말하기를 “생각지도 않았던 치사를 듣는 수가 있고, 잘하
자는 데도 휘방을 받는 수가 있다.”

孟子曰 有不虞⁶⁷⁾之譽 有求全之毀⁶⁸⁾

62) 증원(曾元): 증자의 아들.

63) [평설] 효(孝)는 양지(養志)가 양구체(養口體)에 우선한다. 전자는 정신적 효(孝)요 후자는 육체적 효(孝)라 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정신적 봉양에도 두 면이 있으니 무우지효(無憂之孝)는 소극적인 면이요 열락지효(悅樂之孝)는 적극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증자의 효(孝)야말로 양지(養志)에 따른 적극적 효(孝)라 해야 할 것이다.

64) 대인(大人): 대덕자(大德者).

65) 격(格): 정(正).

66) [평설] 한 사람 군왕(君王) - 최고위자(最高位者) - 의 정신 자세를 바르게 하면 그의 예하(隸下)의 모든 사람들은 따라서 바르게 될 것이다. 오직 대덕자(大德者)만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거나 유도(儒道)가 대중적이지 아니요 ‘일정군(一正君)’에 주력하는 소이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67) 우(虞): 도(度). 헤아림.

68) 휘(毀): 비방. [평설] 굳은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면 간혹 비방을 받는 수가 있더라도 언젠가는 치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잘못을 저지른 후에 이를 감추려다가 도리어 크게 비난을 받는 수가 없지 않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을 쉽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까닭이다.”

孟子曰 人之易其言也 無責耳矣⁶⁹⁾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의 걱정거리란 남의 스승이 되기를 좋아하는 데 있느니라.”

孟子曰 人之患在好爲人師⁷⁰⁾

악정자가 자오를 따라 제나라를 가게 되었다. 악정자가 맹자를 만난즉,

맹자가 말하기를 “그대도 나를 만나러 왔는가?”

“선생님은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대가 여기 온 지 며칠 되었지?”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왔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

“사관을 정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군은 그렇게 배웠는가? 사관을 정한 후라야 어른을 찾아 뵈우라고 했던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다. 그러므로 전자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후자는 권장할 일이 되지 못할 것이다.

69) [평설] 책임이란 말의 행동화이니,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치고 행동이 부실하지 않는 자는 없다. 무책임한 말을 경계함은 이 까닭인 것이다.

70) [평설] 공자는 가이위인사(可以爲人師)라 하였는데 이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하게 되기 때문이지 만 범인(凡人)은 그런 줄도 모르고 스승을 자처하며 자만하니 그런 태도가 걱정이 되는 것이다.

樂正子 從於子敖⁷¹⁾之齊 樂正子見孟子 孟子曰 子亦來見我乎 曰先生何爲出此言也 曰子來幾日矣 曰昔者 曰昔者則我出此言也 不亦宜乎 曰舍館未定 曰子聞之也 舍館定然後 求見長者乎 曰克有罪⁷²⁾

맹자가 악정자더러 “군이 자오를 따라온 것은 거저 얻어먹기 위해서인 거야. 나는 생각지도 않았다. 옛 성인의 가르치심을 배운 사람이 얻어먹기 위해서 그럴 줄은…….”

孟子謂樂正子曰 子之從於子敖來 徒餽⁷³⁾也 我不意子學古之道而以餽⁷⁴⁾也

맹자가 말하기를 “불효에 세 가지가 있는데 후손이 끊어진 것이 가장 큰 불효다. 순이 부모에게 아뢰지 않고 장가를 드신 것은 후손이 끊어질까 봐서 그러신 것이니, 군자는 이를 아뢰는 것이나 다름없이 생각한다.”

孟子曰 不孝有三⁷⁵⁾ 無後爲大 舜不告而娶⁷⁶⁾ 爲無後也 君子以爲猶告也⁷⁷⁾

71) 자오(子敖): 제왕(齊王)의 총신(寵臣).

72) [평설] 어른을 뵈는 절차-예-가 늦음을 꾸짖는 말이다. 악정자(樂正子)는 곧장 스승을 찾아뵈는 것이 옳았던 것이다.

73) 포찰(餽): 먹고 마시는 것.

74) [평설]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는 ‘거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의도행(徒意徒行)을 경계하는 소이도 이와 같은 뜻에서일 것이다.

75) 삼불효(三不孝): 부모를 불의에 빠뜨린 것. 가빈친로(家貧親老)한데 벼슬살지 않는 것. 자손을 두지 못한 것.

76) 불고이취(不告而娶): 순(舜)은 요(堯)의 두 딸인 용황(娥皇), 여영(女英)에게 장가들었지만 그의 아버지 고수(瞽瞍)에게 고(告)하지 않았다.

77) [평설] 대대손손 가통을 존중함은 유교의 막중한 도리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고해야 하는 소절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무시해도 좋은 것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인(仁)이란 실상 아버이를 섬기는 그것이다. 의(義)란 실상 형을 따르는 그것이다. 지(智)란 실상 이 두 가지를 알고 버리지 않는 그것이다. 예(禮)란 실상 이 두 가지를 알맞게 빛내는 그것이다. 락(樂)이란 실상 이 두 가지를 즐겨워하는 것이니 즐거우면 우러나는 것이요, 우러나면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만둘 수 있느냐고 한다 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발은 쩡충거리며 손으로는 춤을 추게 되는 것이다.”

孟子曰 仁之實⁷⁸⁾事親是也 義之實從兄是也 智之實 知斯二⁷⁹⁾者弗去是也 禮之實 節文斯二者是也 樂之實樂斯二者 樂則生矣 生則惡可已也 惡可已則不知足之蹈之手之舞之⁸⁰⁾

맹자가 말하기를 “천하 사람들이 기뻐 날뛰면서 자기에게 따르려 하는데, 천하 사람들이 기쁘게 자기를 따르려 하는 것을 보고도 하찮게 여긴 것은 오직 순만이 그러했다. 아버이의 뜻을 받들지 못하면 사람으로 칠 수 없으며,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아들로 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순은 아버지 섬기는 도리를 다했기 때문에 고수도 기뻐하게 되었고, 고수가 기뻐했기 때문에 천하가 감화하였으며, 고수가 기뻐했기 때문에 온 천하의 아비와 아들이 제 직분을 다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를 가리켜 곧 큰 효도라고 이르는 것이다.”

78) 실(實): 명실상부(名實相符)의 실(實).

79) 사(斯二): 인(仁)과 의(義).

80) [평설] 인은 혈연적 친친이요 의는 향당적 존현으로 분기되는 것이다. 예악도 급기야는 이 인의에 근거한 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孟子曰 天下大悅而將歸己 視天下悅而歸己 猶草芥也 惟舜爲然 不得乎親 不可以爲人 不順乎親 不可以爲子 舜盡事親之道而瞽瞍⁸¹⁾底豫 瞽瞍底豫⁸²⁾而天下化 瞽瞍底豫而天下之爲父子者定 此謂大孝⁸³⁾

81) 고수(瞽瞍): 순(舜)의 부(父)의 명(名).

82) 저예(底豫): 기뻐하기에 이르다.

83) [평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으니 이는 효지상주의(孝至上主義)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순(舜) 같은 천자도 효에 있어서는 면책이 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대효(大孝)는 도리어 천자로서의 덕 중에서도 제1의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루 하

맹자가 말하기를 “순은 저풍 지방에서 낳고, 부하 지방으로 옮겼다가 명조 지방에서 죽으니, 동녘 지방 사람이다.

문왕은 기주 지방에서 낳고, 필경 지방에서 죽으니, 서녘 지방 사람이다.

지리적 상거가 천여 리나 되고, 시대적 간격이 천여 년이나 되지만 자기의 뜻을 전 중국에 퍼뜨린 점에 있어서는 빠깁 대쪽을 다시 합치듯 들어맞는다.

앞서 난 성인이나 뒤에 난 성인이나 그 규범은 마찬가지로다.”

孟子曰 舜生於諸馮 遷於負夏 卒於鳴條¹⁾ 東夷之人也 文王生於岐周²⁾ 卒於畢郢 西夷³⁾之人也地之相去也 千有餘里 世之相後也 千有餘歲 得志行乎中國 若合符節先聖後聖 其揆一也⁴⁾

1) 제풍·부하·명조(諸馮·負夏·鳴條): 땅 이름.

2) 기주·필경(岐周·畢郢): 땅 이름.

3) 동이·서이(東夷·西夷): 이거왕도일천팔백리(夷距王都一千八百里)라 동이(東夷), 서이(西夷)라 한 것이다.

4) [평설] 도-진리-는 시공을 초월한다. 어찌 순(舜)과 문왕에 한(限)한 일이라. 동서고금 통한 진리일 것이다.

자산이 정나라 정사를 보살필 때 자기가 탄 가마로 진·유 강에서 사람을 건너 주었다.

맹자가 말하기를 “동정하는 것이지만, 정치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해 11월에는 징검다리를 만들고, 12월에는 큰 다리를 만들어 주면 백성들이 건너기에 성가실 것이 없으리라.

군자로서 그의 정치를 고르게 하면, 행길에서 사람을 비켜 세워도 상관이 없다. 어떻게 사람마다 하나하나씩 건너 주고 있단 말이나.

그러므로 위정자가 개인개인 따져가면서 좋도록 할 양이면 시간이 없어서도 못할 노릇이리라.”

子產⁵⁾聽鄭國之政 以其乘輿 濟人於溱洧⁶⁾ 孟子曰 惠而不知爲政歲十一月 徒杠成 十二月興梁成 民未病涉也 君子平其政 行辟人可也 焉得人人而濟之故爲政者 每人而悅之 日亦不足矣⁷⁾

맹자가 제선왕께 고하기를 “군왕이 신하를 손발같이 여기면 신하도 군왕을 복심(腹心)같이 생각하고, 군왕이 신하를 개나 말같이 여기면 신하도 군왕을 길거리 친구같이 생각하고, 군왕이 신하를 먼지 부스러기같이 여기면 신하도 군왕을 원수같이 생각합니다.”

왕이 말하기를 “의례(儀禮)에 ‘옛 군왕을 위해서 복을 입는다’고 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복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간하는 대로 실행하고, 진언하는 대로 들어주어, 그의 혜택이 백

5) 자산(子產): 정(鄭)나라 대부 공손교 지명(知名)의 현인(賢人).

6) 주유(溱洧): 이수명(二水名)이나 제인(濟人)한 곳은 이수합류지처(二水合流之處)다.

7) [평설] 정치는 지공무사(至公無私)한 것이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개개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사사로운 일이다. 그러므로 사혜(私惠)는 도리어 공정한 정치활동의 방해가 될지언정 보탬을 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사정(私情)에는 냉담해야 할는지 모른다.

성에게 미치고, 그가 사정이 있어 떠나게 되면 군왕은 사람을 시켜 국경까지 인도해주며, 다시 또 그가 가는 곳까지 앞질러 보내 주되, 3년이 지나도록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면 그 때서야 비로소 그의 소유 토지를 몰수하는 법입니다. 이를 일러 세 가지 예의가 있다는 것이니, 그러면 군왕을 위하여 복을 입을 것입니다.

요즈음은 신하로서 간하여도 실행하지 않고, 진언도 듣지 않아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않고, 그가 사정이 있어 떠나게 되면 억지로 붙잡아 매놓고, 심지어는 그가 가는 곳까지 쫓아가서 찢절매게 만들고, 떠나는 즉시 그의 토지를 몰수하여 버리니, 이는 원수라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무슨 복을 입을 것입니까?”

孟子告齊宣王曰 君之視臣如手足 則臣視君如腹心 君之視臣如犬馬 則臣視君如國人 君之視臣如土芥 則臣視君如寇讐王曰 禮爲舊君有服 何如斯可爲服⁸⁾矣 曰諫行言聽 膏澤下於民 有故而去 則君使人導之出疆 又先於其所往 去三年不反然後 收其田里 此之謂三有禮焉 如此則爲之服矣 今也爲臣 諫則不行 言則不聽 膏澤不下於民 有故而去 則君搏執之 又極之於其所往 去之日 遂收其田里 此之謂寇讐 寇讐何服之有⁹⁾

맹자가 말하기를 “아무 죄도 없는데 사(士) 벼슬아치를 죽이면 대부는 그것을 이유로 떠나야 옳고, 아무 죄도 없는데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면 사 벼슬아치는 그것을 이유로 옮겨가야 옳으니라.”

8) 복(服): 상복(喪服).

9) [평설] 수족(手足)과 복심(腹心)과의 관계는 혈맥이 상통하는 일체관계다. 견마(犬馬)와 국민(國人) 같은 관계는 부즉불리(不即不離)하는 남남의 관계요 이해로 얽힌 사이다. 토개(土芥)와 구수(寇讐)의 비유는 생사를 거루는 극한상황이다. 그러므로 군신관계는 신축성이 있는 의미관계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혈연적인 부자관계와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孟子曰 無罪而殺士 則大夫可以去 無罪而戮民 則士可以徙¹⁰⁾

맹자가 말하기를 “군왕이 인애로우면 인애롭지 않을 수 없고, 군왕이 의로우면 의롭지 않을 수 없느니라.”

孟子曰 君仁莫不仁 君義莫不義¹¹⁾

맹자가 말하기를 “형식적인 예와 기만적인 의를 큰 인물은 하지 않는다.”

孟子曰 非禮之禮 非義之義 大人弗爲¹²⁾

맹자가 말하기를 “알맞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을 길러 주고, 재간 있는 사람이 재간 없는 사람을 길러 준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어진 부형을 가진 것을 하나의 기쁨으로 여기리니, 만일 알맞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을 내버려두며, 재간 있는 사람이 재간 없는 사람을 내버려두면, 잘나고 못난 그 사이가 한 치 두 치 정도가 아닐 것이다.”

孟子曰 中¹³⁾也養不中 才也養不才 故人樂有賢父兄也 如中也棄不中 才

10) [평설] 죄 없는 벼슬아치나 죄 없는 백성을 죽이는 나라는 무례(無禮)뿐만이 아니라 무도무법(無道無法)의 나라다. 그런 곳에 어찌 오래 머무를 수 있겠는가?

11) [평설] 군왕(君王)에게는 풍화(風化)의 덕이 있어야 한다. 군왕이 인의에 투철하면 밑에 있는 신하나 백성들로서 인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드물 것이다. 이를 일러 덕풍(德風)이라 부를 만한 것이다.

12) [평설] 얼핏 보아서 예(禮)나 의(義)란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것들은 흔히 외식적(外飾物)이요 형식적이기 쉽기 때문에 예(禮)의 본질은 내실에 있고 의(義)의 본질도 선아위선(善我爲善)의 길을 닦는 데 있는 것이다.

13) 중(中): 과불급(過不及)이 없고 불편불의(不偏不倚)한 자.

也棄不才 則賢不肖之相去其間 不能以寸¹⁴⁾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이란 하지 않겠다는 모진 마음이 있고서야, 무슨 일이건 함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孟子曰 人有不爲¹⁵⁾也而後 可以有爲¹⁶⁾

맹자가 말하기를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다가, 글썽 후환을 어떻게 막아낼 작정인가!”

孟子曰 言人之不善 當如後患何¹⁷⁾

맹자가 말하기를 “중니님은 극단적인 일은 하지 않으신 분이이다.”

孟子曰 仲尼不爲已甚者¹⁸⁾

맹자 “큰 인물은 그 말대로 꼭 믿어져야 하리라는 생각도 않으려

14) 불능이촌(不能以寸): 치 정도로 썰 수 없을 만큼 크다.

[평설] 현부형(賢父兄)은 언제나 못난이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15) 불위(不爲): 극기의 일면이다.

16) [평설] 불위(不爲)는 불위선(不爲善)이 아니라 불위악(不爲惡)이니 오악(惡惡)의 반면(反面)이다. 그러므로 유위(有爲)는 유위선(有爲善)으로서의 호선(好善)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오악(惡惡)할 줄 알아야 호선(好善)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17) [평설] 후환이란 주로 자기 자신의 불선(不善)을 감당하지 못하는 데에서 온다. 사람이란 본래 완성(完善)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불선(不善)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잘못만을 들출 수 있을 것인가?

18) 불위이십자(不爲已甚者): 응용중도(雍容中道)하기 때문에 불위이십(不爲已甚)하나, 지선지성(至善至誠)의 면에서는 오히려 철저를 기(期)한 분이 중니(仲尼)다.

[평설] 이십(已甚)은 ‘무리(無理)한 것’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무리는 억지인지도 모른다. 억지란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 병인 것이니, 공자가 어찌 그런 잘못을 저지르겠는가?

니와, 그 행동대로 꼭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않는다. 오직 의리에 맞아야만 한다고 할 따름이다.”

孟子曰 大人¹⁹⁾者言不必²⁰⁾信 行不必果 惟義所在²¹⁾

맹자가 말하기를 “큰 인물은 그의 빨가숭이 때의 어린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孟子曰 大人者 不失其赤子之心²²⁾者也

맹자가 말하기를 “살았을 적 봉양만으로 큰일을 다한 양 할 수 없고, 오직 죽음을 치상하는 일이라야 큰일이라고 할 수 있다.”

孟子曰 養生者不足以當大事²³⁾ 惟送死可以當大事²⁴⁾

맹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순순히 사람을 지도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다. 자신이 스스로 체득하면 거기에 안정하게 된다. 거기에 안정하게 되면 거기에 깊이 의뢰하게 된다. 거

19) 대인(大人): 유위자(有位者).

20) 필(必): 기(期).

21) 유의소재(惟義所在): 의(義)를 따를 뿐 언(言)과 행(行)에 의(義) 아님이 발견되면 곧 바꾸어야 한다. [평설] 공자는 “신근어의(信近於義) 언가복야(言可復也)”[「논어」]라 하였는데 이는 의(義)가 신(信)에 우선함을 보여준 자이다. 언행(言行)도 의(義)보다는 앞서지 못함은 이 때문인 것이다.

22) 적자지심(赤子之心): 순일무위지심(純一無偽之心). 적자(赤子)란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의 이름이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주색재권(酒色財權)에서 초연한 자를 가리킨 것이다.

23) 대사(大事): 상사(喪事)의 뜻.

24) [평설] 상제례(喪祭禮)－사사(事死)의 예(禮)－가 사생(事生)의 예(禮)보다도 더 중요함을 역설한 자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양생(養生)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에 의뢰하게 되면 어느 모에서든지 끌어내다가 그의 근본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제 자신이 모든 것을 체득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孟子曰 君子深造之以道²⁵⁾ 欲其自得之也 自得之則居之安 居之安則資之深 資之深則取之左右逢其原 故君子欲其自得之也²⁶⁾

맹자가 말하기를 “널리 배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려 하는 것은, 장차 도리어 그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孟子曰 博學而詳說之 將以反說約²⁷⁾也²⁸⁾

맹자가 말하기를 “선(善)이라서 억지로 사람을 제 뜻대로 굴복시키려 드는 자 중에는 실상 사람을 굴복시킬 줄 아는 사람이 없다. 선으로 사람을 길러내어야만, 천하를 복종시킬 수가 있다. 천하의 인심이 복종하지 않고서, 왕노릇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孟子曰 以善服人者 未有能服人者也 以善養人然後 能服天下 天下不心服而王者 未之有也²⁹⁾

25) 심조지이도(深造之以道): 도는 도(道)이니 순순(循循)히 유도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데까지 이르게 한다.

26) [평설] 도(道)의 깨달음은 깊이 자득(自得)함을 원칙으로 삼는다. 설명 타율적인 각성의 강요가 있다. 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자율적 자각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득(自得)일 수 있는 것이다.

27) 약(約): 요약.

28) [평설] 이는 공자(孔子)의 박문약례(博文約禮)를 풀이한 자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박학(博學)은 박문(博文)이요 설약(說約)은 약례(約禮)로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맹자의 박학(博學)·설약(說約)에서 전자는 후자의 목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9) [평설] 제아무리 선정이라 하더라도 강제적 방법에 의한다면 천하의 민심은 이를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역시 선정은 목양(牧養)의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말이 진실하고도 불길할 리는 없다. 불길한 사실은 잘난 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孟子曰 言無實不祥 不祥之實³⁰⁾ 蔽賢者當之³¹⁾

서자가 말하기를 “중니님께서 자주 물을 찬양하여 말씀하기를 ‘물이로다. 물이로다’ 하시니, 물에서 무엇을 취하여 하시는 말씀인가요?”

맹자가 말하기를 “용솟음쳐 흐르는 샘의 원천은 밤낮을 쉬지 않고 흘러, 구렁진 곳에 가득히 차면, 또다시 흘러 넓은 바다에까지 다르니, 그 근본이 있는 것은 다 이와 같은지라, 이 점을 취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그 근본이 없다고 하면 7, 8월 두 달 사이에 빗물이 모여 구렁창 개울에 가득하게 되지만, 그것이 말라붙게 되는 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실정보다 지나친 평판을 군자는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徐子曰 仲尼亟稱於水曰 水哉水哉 何取於水也 孟子曰 原泉混混 不舍³²⁾ 晝夜 盈科³³⁾ 而後進 放乎四海 有本者如是 是之取爾 苟爲無本 七八月³⁴⁾ 之間雨集 溝澮皆盈 其涸也 可立而待也 故聲聞過情 君子恥之³⁵⁾

30) 불상지실(不祥之實): 실(實)은 명실상부, 곧 언행일치의 실(實)인데 불상지실(不祥之實)은 불일치(不一致)의 언행 중에서도 현인을 가로막는 언동을 의미한다.

31) [평설] 맹자는 현인만이 시폐광구(時敝匡救)의 대임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여기었다. 그러므로 현인의 진로를 가로막는 자는 곧 상서(祥瑞) 아닌 재앙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한 것이다.

32) 사(舍): 식아(息也).

33) 과(科): 두량아(斗量也)

34) 칠팔월(七八月): 지금은 6, 7월.

35) [평설] 물의 미덕은 쉬지 않고 흐르며 알찬 후에 나아가 사해(四海)로 내닫는 데 있다. 이는 황하수(黃河水)의 흐름을 보고 한 말이다. [평설] 근본-실(實)-이 없는 명성은 소나기처럼 하루아침도 지

맹자가 말하기를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얼마 되지 않으니, 일반 사람들은 그 점을 버리고, 군자는 그 점을 간직한다.

순은 만물의 사리에 밝고, 인간 윤리를 명찰하사, 인의에 순응하여 이를 실천하신지라, 인의를 억지로 강행하신 것은 아니다.”

孟子曰 人之所以異於禽獸者 幾希³⁶⁾ 庶民去之 君子存之舜明於庶物 察於人倫 由仁義行 非行仁義也³⁷⁾

맹자 “우왕은 달콤한 술을 싫어하시고, 착한 말씨를 좋아하셨다. 탕왕은 모든 일을 알맞도록 하며 잘난 이를 내세우는데도 그의 출신을 가리지 않았다.

문왕은 민중을 보살피되 어디가 상한 데가 있는 것처럼 어루만지고 도(道)를 뵈히 보시면서도 아직 모르시는 양 하시었다.

무왕은 가깝다고 해서 허물없이 굴지도 않고, 멀다고 해서 잊지도 않으셨다.

주공은 이 삼대의 왕을 한데 뭉쳐 생각하사, 이 네 가지 사실을 실천하려 하셨다. 만일 사리에 맞지 않는 대목이 있으면, 우러러보며 생각하되 밤낮을 헤아리지 않았고, 다행히 깨닫게 되면 앞서서 꼬박 날 새기를 기다리시었다.”

맹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명부어실(名浮於實) - 성문과정(聲聞過情) - 은 치지(耻之) 정도가 아니라 불상(不祥)이 이보다도 더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다.

36) 기희(幾希): 소(少). 미(微).

37) [평설]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는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비슷한 점이 많으니,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코로 맡고 혀로 핥는 점이 같다. 그러나 오직 도심만이 인간에게 있을 따름인데 그것은 자극히 미소(微少)한지라 그것마저 없어진다면 짐승과 다를 데가 없는 것이다. 인의란 곧 이 도심에서 우러나온 자에 지나지 않고 순(舜)은 이 점을 명찰(明察)하여 서정(庶政)을 펴낸 것이다.

孟子曰 禹惡旨酒³⁸⁾而好善言 湯執中 立賢無方 文王 視民如傷³⁹⁾ 望道而未之見 武王 不泄邇 不忘遠 周公 思兼三王⁴⁰⁾ 以施四事⁴¹⁾ 其有不合者 仰而思之 夜以繼日 幸而得之 坐以待旦⁴²⁾

맹자가 말하기를 “왕다운 이의 행적이 잦아지자 시(詩)의 정신도 사라졌다. 시의 정신이 사라진 그 뒤에 『춘추』를 지은 것이다.

진나라의 『승』이나 초나라의 『도올』이나 노나라의 『춘추』나 다 같은 저술이다.

그 사적은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 등의 이력이요, 그 문장은 역사적 기록이니, 공자는 ‘그 대의는 구(丘)가 몰래 따왔더니라’ 하셨다.”

孟子曰 王者之跡⁴³⁾熄而詩亡 詩亡然後 春秋作⁴⁴⁾晉之乘⁴⁵⁾ 楚之檮杌⁴⁶⁾ 魯之春秋 一也 其事則齊桓晉文 其文則史 孔子曰其義則丘竊取之矣⁴⁷⁾

맹자가 말하기를 “군자의 영향도 5대면 끊어지고, 소인의 영향도 5대면 끊어진다. 나는 직접 공자의 제자는 못 되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배워 보고 싶은 사람이다.”

38) 우악지주(禹惡旨酒): 『전국책(戰國策)』 권7 「위책(魏策)」 ‘혜왕(惠王) 조(恂).

39) 시민여상(視民如傷): 불면 날까 쥐면 깨질까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

40) 삼왕(三王): 하은주(夏殷周).

41) 사사(四事): 우탕문무(禹湯文武)가 행(行)한 일.

42) [평설] 삼왕(三王)의 장점을 겸비한 주공을 찬양한 글이다. 게다가 주공은 아이계일(夜以繼日)하도록 근면하였음이 더욱 감명 깊다.

43) 왕자지적(王者之迹): 왕정(王政)의 업적.

44) 사망연후춘추작(詩亡然後春秋作): 풍송주포(讖誦誅褒)하던 시정신(詩精神)이 없어지자 『춘추』로 대의명분을 밝혔다.

45) 승(乘): 진(晉)나라 역사.

46) 도올(檮杌): 초(楚)나라 역사.

47) [평설] 『시』나 『춘추』나 다 같이 의리를 밝히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모두 시대정신과 유리된 『시』나 『춘추』는 없음을 의미한다.

孟子曰 君子之澤五世而斬 小人⁴⁸⁾之澤⁴⁹⁾五世⁵⁰⁾而斬 予未得爲孔子徒也
予私淑諸人也⁵¹⁾

맹자 “차지해도 좋고 안 차지해도 좋을 때 차지하면 깨끗한 마음
씨에 험티가 생기리라. 주어도 좋고 안 주어도 좋을 때 준다면 동정
하는 마음씨에 험결이 생기리라. 죽어도 좋고 안 죽어도 좋을 때 죽
으면 용기에도 험결이 있게 되리라.”

孟子曰 可以取 可以無取 取傷廉可以與 可以無與 與傷惠 可以死 可以
無死 死傷勇⁵²⁾

방몽이 예에게서 활쏘기를 배웠다. 예의 쏘는 법을 살살이 배우고
나서 천하에 예만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자 이에 예를 죽였다.
맹자가 말하기를 “이는 예에게도 또한 죄가 있습니다.”
공명익이 말하기를 “아무래도 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좀 가볍다고나 할까. 왜 죄가 없다고야 하겠소.
정나라 사람이 자락유자를 시켜 위나라를 쳐들어가게 하였는데,
위나라에서는 유공지사를 시켜 그를 뒤쫓게 했습니다.
자락유자가 말하기를 ‘나는 오늘 몸이 아파서 활을 잡을 수가 없
다. 나는 인제 꼭 죽었구나.’

48) 군자·소인(君子·小人): 그의 지위로써 나는 것이다.

49) 택(澤): 여택(餘澤)

50) 오세(五世): 부자상계(父子相繼)를 일세(一世)라기도 하고, 30년을 일세(一世)라기도 하는데 오세(五世)의 오(五)는 그의 대채(大體)를 의미한 수(數)다.

51) [평설] 사숙(私淑)이란 간접적으로 몰래 배워 자신이 선(善)하게 되었다는 뜻에서 맹자가 공자를 사숙(私淑)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다. 오대(五代)라는 짧지 않은 시대적 간격을 초월해서라도 공자를 사숙(私淑)하고자 하는 맹자의 열의가 넘쳐흐른다.

52) [평설] 상염(傷廉)·상혜(傷惠)·상용(傷勇)은 다 실중(失中)의 취(取)요 여(與)요 용(勇)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하인을 불러 묻기를 ‘내 뒤를 쫓는 자가 누구지?’

그 하인이 말하기를 ‘유공지사입니다.’

‘나는 인제 살았다.’

‘유공지사는 위나라에서도 이름난 활의 명수인데 선생의 말씀에 나는 살았다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유공지사는 윤공지타에게서 활쏘기를 배웠고, 윤공지타는 내게서 활쏘기를 배웠으니, 저 윤공지타는 단정한 인물이다. 그가 벗을 가리되 반드시 단정한 인물을 골랐을 것이다.’

유공지사가 내달려와서 ‘선생은 왜 활을 잡지 않으십니까?’

‘나는 오늘 몸이 언짢다. 그래서 활을 잡을 수 없다.’

‘저는 윤공지타에게서 활쏘기를 배웠고, 윤공지타는 선생에게서 활쏘기를 배웠는데, 나는 차마 선생의 활법으로 선생을 해칠 수가 없구려. 그러나 오늘의 일은 군왕의 시키신 일이니, 나는 그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고, 활통에서 화살을 빼 들고 수레바퀴에다 두드려서 쇠붙이를 빼버린 다음 화살 네 개를 쏘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逢蒙⁵³⁾學射於羿⁵⁴⁾ 盡羿之道 思天下 惟羿爲愈己 於是殺羿 孟子曰 是亦羿有罪焉 公明儀曰 宜若無罪焉 曰薄乎云爾 惡得無罪 鄭人使子濯孺子侵衛 衛使庾公之斯⁵⁵⁾追之 子濯孺子曰 今日我疾作 不可以執弓 吾死矣夫 問其僕曰 追我者誰也 其僕曰庾公之斯也 曰吾生矣 其僕曰庾公之斯 衛之善射者也 夫子曰吾生何謂也 曰庾公之斯 學射於尹公之他 尹公之他⁵⁶⁾ 學射於我 夫尹公之他端人也 其取友必端矣 庾公之斯至曰 夫子何爲不執弓 曰今日我疾作 不可以執弓 曰小人學射於尹公之他 尹公之他

53) 봉몽(逢蒙): 예(羿)의 부하.

54) 예(羿): 유공(有窮)의 군주. 활의 명수로서 하왕(夏王)의 왕위(王位)를 빼앗다.

55) 수공지사(庾公之斯): 위장(衛靜).

56) 윤공지타(尹公之他): 인명(人名). 두 ‘지(之)’자(字)는 조사(助辭).

學射於夫子 我不忍以夫子之道 反害夫子 雖然今日之事君事也 我不敢廢
抽矢扣輪 去其金 發乘矢而後反⁵⁷⁾

맹자가 말하기를 “서자도 더러운 것을 뒤집어쓰고 있으면, 사람마다 모두 코를 쥐어 잡고 슬슬 지나쳐 버릴 것이다.

아무리 추악한 인간이라도, 목욕재계하면 상제의 제사를 모실 수 있을 것이다.”

孟子曰 西子⁵⁸⁾蒙不潔則 人皆掩鼻而過之雖有惡人 齊戒沐浴則可以祀上帝⁵⁹⁾

맹자 “천하 사람들의 본성을 논할 때에는 그의 흔적만 보면 된다. 그의 흔적이란 순순히 되는 그것으로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

아는 체하는 사람의 병통은 억지로 들이 파는 데 있다. 안다는 사람도 우왕이 물을 이끌어 내듯 한다면, 아는 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병통도 없어진다. 우왕이 물을 이끌어 낼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을 고장으로 내리뻗으니, 만일 안다는 사람도 아무 일이 없는 길로 술술 풀어 내놓으면, 그의 지혜도 또한 위대한 것이 될 것이다.

하늘은 높다 별떼들은 멀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는 행적을 찾아내면, 천 년 후의 동지가 어느 날인가 앉아서 알 수도 있을 것이다.”

57) [평설] 제가 배운 스승을 죽이는 판국에 스승의 도로 스승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대조적이다. 역시 교육은 활쏘기 같은 기술의 전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제지도(師弟之道)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질 따름이다.

58) 서자(西子): 미부인(美婦人).

59) [평설] 제아무리 문장학식(文章學識)이 순미(純美)한 사람도 한번 그의 행동을 더럽히면 사람마다 그를 천오(賤惡)할 것이니 이는 마치 서자(西子) 같은 미인이라도 불결한 것을 뒤집어쓰고 있으면 사람마다 그를 싫어하는 것과 같다. [평설] 상제도 섬기는 자의 성심(誠心)에 따라 그를 보살필 따름이다. 어찌 악인이라고 해서 그를 버릴 것인가? 악인도 목욕재계하고 오면 가까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상제인 것이다.

孟子曰 天下之言性也 則故⁶⁰)而已矣 故者以利⁶¹)爲本 所惡於智者 爲其
 鑿也 如智者 若禹之行水也 則無惡於智矣 禹之行水也 行其所無事也 如
 智者 亦行其所無事 則智亦大矣 天之高也 星辰之遠也 苟求其故 千歲之
 日至 可坐而致也⁶²)

공행자가 아들의 상사(喪事)를 당했을 적에 우사(右師) 왕관이 조문을 갔다. 문안에 들어선즉 앞으로 나아가 우사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사의 곁으로 가서 우사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맹자는 우사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우사가 못마땅하여 “여러 사람이 다 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맹자만은 나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이는 나를 경원하기에 그런 거야.”

맹자가 이 말을 듣고 “예에 있어서 조정에서는 남의 자리를 넘어 서서는 서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며, 층계를 넘어뛰어서는 음을 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나는 예의를 지키려 한 것인데, 자오는 날더러 경원한다 하니 이상하지 않은가?”

公行子⁶³) 有子之喪 右師⁶⁴)往吊 入門 有進而與右師言者 有就右師之位
 而與右師言者 孟子不與右師言 右師不悅曰 諸君子皆與驩言 孟子獨不與
 驩言 是簡驩也 孟子聞之曰 禮朝廷不歷位而相與言 不踰階而相揖也 我
 欲行禮 子敖⁶⁵)以我爲簡 不亦異乎⁶⁶)

60) 고(故): 이연지적(已然之跡).

61) 이(利): 순리(順利).

62) [명실] 성(性)이란 지나온 자취와 같다. 자취는 억지스럽지 않고 순리(順利)대로 흐르는 것이라야 한다. 그것은 마치 우왕(禹王)의 물줄기와 같은 것이라. 억지란 곧 인위적인 것이니 순리(順利)는 곧 자연의 도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맹자의 성(性)은 순자의 그것처럼 인위(人爲)－위(僞)－적(的)인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선고(善故)를 지닌 것임을 알 수 있다.

63) 공행자(公行子): 제나라 대부.

64) 우사(右師): 벼슬이름. 이때의 우사(右師)는 왕환(王驩)이었다.

맹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그의 본심을 잘 간직하는 데 있다. 군자는 마음속에 인(仁)을 간직하고, 마음속에 예(禮)를 간직하고 있다.

인을 간직한 이는 남을 사랑하고, 예를 간직한 이는 남을 공경한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남이 그를 사랑하고, 남을 공경하는 사람은 언제나 남이 그를 공경한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가 내게 함부로 덤비면 군자는 반드시 자기를 반성한다. 내게 사랑이 모자랐던 것이며, 예의가 부족했던 것이기에 그렇지. 이런 일을 어찌하여 당하게 되었을까 하고

그가 자기반성을 하여 보아도 사랑했고 자기반성을 하여 보아도 예의를 갖추었는데 그래도 함부로 덤벼드는 일이 여전하면 군자는 또다시 자기를 반성한다. 내게 아마도 충성된 마음이 부족하지나 않았더냐 하고.

자기반성을 하여 보아도 충성되었는데, 그래도 함부로 하는 일이 여전하면 군자는 ‘이 사람 주책없는 사람으로군. 이렇게 되면 짐승과 다를 것이 어디 있나. 짐승더러 무어니무어니 따질 것이 있느냐’ 한다.

그러므로 군자에게는 평생을 두고 못 잊는 걱정은 있으나, 갑자기 받는 환란은 없다. 걱정이란 그야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니, 순도 인간이요 나도 또한 인간인데 순은 천하의 본보기가 되어 후세에까지 전하게 되었는데 나는 한갓 시골뜨기를 면하지 못했으니 그것이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걱정할까? 순같이 하면 그만이리라. 만

65) 자오(子敖): 왕환(王驩)의 자(字)

66) [평설] 왕환(王驩)의 관료의식에 대한 비판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소(阿諛)한 것인데 왕환은 그런 줄도 모르고 맹자의 태도가 지나치게 간약(簡約)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맹자는 정당한 예(禮)로써 왕환의 과분(過分)한 요구를 견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 그가 군자라면 갑자기 받는 환란은 없을 것이다.

인애롭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예의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으리니, 만일 갑자기 받는 환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군자라면 그것을 환란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孟子曰 君子所以異於人者 以其存心⁶⁷⁾也 君子以仁存心 以禮存心 仁者愛人 有禮者敬人 愛人者人恒愛之 敬人者人恒敬之 有人於此 其待我以橫逆 則君子必自反也 我必不仁也 必無禮也 此物奚宜至哉 其自反而仁矣 自反而有禮矣 其橫逆由是也 君子必自反也 我必不忠 自反而忠矣 其橫逆由是也 君子曰 此亦妄人也已矣 如此則與禽獸奚擇哉 於禽獸又何難焉 是故君子有終身之憂 無一朝之患也 乃若⁶⁸⁾所憂則有之 舜人也 我亦人也 舜爲法於天下 可傳於後世 我由未免爲鄉人也 是則可憂也 憂之如何 如舜而已矣 若夫君子所患則亡矣 非仁無爲也 非禮無行也 如有一朝之患 則君子不患矣⁶⁹⁾

우· 직은 태평시절에 세 번이나 제 집 문전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았으니 공자는 그들을 현인이라 하였다.

안자는 난세를 만나 움막 속에서 살며, 한 바구니 밥과 한 종지 물로 만족했는데, 남은 그런 고생을 견디지 못할 것이로되, 안자는 자기의 즐거움을 고치려 하지 않았으니, 공자는 그를 현인이라 하였다.

맹자는 말하기를

“우· 직· 안회는 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다.

67) 존심(存心): 존인심(存仁心) 존의심(存義心). 존예(存禮)경(敬)심(心).

68) 내약(乃若): 비록 그러나.

69) [평설] 인간과 금수와의 차이는 그리 많지 않다. 단 인간에게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도심이 있는 것이다. 이 도심이 때에 따라 인의예지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평설] 군자는 이 도심에 의하여 매일 스스로를 반성해야 하기 때문에 도심이란 바로 도덕적 분별력이라 해야 할는지 모른다. 이를 도덕률이라 하거나 인간이 인간답고 나아가서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바로 이 도심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는 천하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자기 때문에 빠진 것이라 생각하였고, 직은 천하에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자기 때문에 굶주리는 것같이 생각하였다. 그러기에 것처럼 바쁘게 서둘렀던 것이다.

우·직·안자가 처지를 바꾸어 놓는다면, 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제 한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쥐어박치는 일이 있을 때는, 비록 머리 풀어 산발한 채 관끈을 주섬주섬 매면서 말리러 가도 좋다.

마을 근처에서 쥐어박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머리 풀어 산발한 채 관끈을 주섬주섬 잡아매면서 말리러 간 이는 얼빠진 것이니, 이 때는 비록 문을 꼭꼭 닫아버려도 좋을 것이다.”

禹⁷⁰⁾稷⁷¹⁾ 當平世 三過其門而不入 孔子賢之 顏子當難世 居於陋巷⁷²⁾
一簞食 一瓢飲 人不堪其憂 顏子不改其樂 孔子賢之 孟子曰禹稷顏回同道
禹思天下有溺者 由己溺之也 稷思天下有飢者 由己飢之也 是以 如是其
急也 禹稷顏子 易地則皆然 今有同室之人 鬪者 救之 雖被髮纓冠而救之
可也 鄉隣 有鬪者 被髮纓冠而往救之 則惑也 雖閉戶 可也⁷³⁾

공도자가 말하기를 “광장은 전군을 통틀어 다 불효자라 하는데, 선생은 그와 함께 노시며, 또 게다가 그에게 경의까지 표하시니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흔히 불효라는 것에 다섯 가지가 있다. 그들의 수족을 게을리하여 부모 봉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 첫째 불효요, 도박·잡기·음주 등을 즐기면서 부모 봉양을 돌보지 않는

70) 우(禹): 요(堯) 순(舜) 두 제(帝)를 섬겼고 후에 순(舜)의 뒤를 이어 천자가 되었다.

71) 직(稷): 요(堯)·순(舜)시절에 농업을 맡았던 현신(賢臣).

72) 누항(陋巷): 빈민굴(貧民窟).

73) [평설] 치세(治世)에는 우직(禹稷)처럼 적극 참여해야 하고 난세(亂世)에는 안회(顏回)처럼 처항자락(處巷自樂)하는 것이 군자시중(君子時中)의 도(道)인 것이다.

것이 둘째 불효요, 구두쇠 같은 재물 욕심에 제 처자만을 알면서 부모 봉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 셋째 불효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함부로 깔렁대며 부모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이 넷째 불효요, 옷기를 좋아하여 싹패들과 휩쓸러 다니면서 부모의 신변에까지 위험이 미치게 하는 것이 다섯째 불효니 장자에게 이 중의 하나라도 있는가?

그런데 장자는 아들과 아버지리 서로 잘 하기를 요구하다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서로 잘 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친구끼리나 할 일이지, 부자가 서로 잘 하기를 요구하면 은의(恩誼)를 손상하는 폐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장자는 어찌 가족들을 데리고 살고 싶지 않으랴.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까이할 수 없는 것이다. 마누라를 내보내고 아들을 멀리하여 평생을 두고 거두지 못했으니, 그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는 죄도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이런 경우는 장자에게 한한 일인 것이다.”

公都子曰 匡章⁷⁴通國 皆稱不孝焉 夫子與之遊 又從而禮貌之 敢問何也 孟子曰 世俗所謂不孝者五 惰其四肢 不顧父母之養 一不孝也 博奕好飲酒 不顧父母之養 二不孝也 好貨財私妻子 不顧父母之養 三不孝也 從耳目之欲 以爲父母戮 四不孝也 好勇鬪狠 以危父母 五不孝也 章子有一於是乎 夫章子 子父責善而不相遇也 責善 朋友之道也 父子責善 賊恩之大者 夫章子 豈不欲有夫妻子母之屬哉 爲得罪於父 不得近 出妻屏子 終身不養焉 其設心以爲不若是 是則罪之大者 是則章子已矣⁷⁵

74) 광장(匡章): 제인야(齊人也). 불효에도 효처럼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다.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불효요 부모를 욕되게 하거나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불효인 것이다.

75) [평설] 부자책선(父子責善)은 바람직한 것이 못 되는 것이다. 책선(責善)은 봉우지도(朋友之道)이기 때문이다. 봉우지도(朋友之道)로 어찌 부모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증자가 무성 땅에 있을 적에 월나라 군사가 쳐들어왔다. 어느 사람이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왜 안 떠나시는가요?”

“내 집에 남은 사람들을 재우되 울나무 같은 것은 상하지 않도록 하라.”

적군이 들어간즉 “내 집 울안을 수리하여 놓아라. 나는 곧 돌아갈 테다” 하고,

적군이 물러간즉 증자는 돌아왔다. 곁에 있던 사람이 “선생을 모실 적에 것처럼 충성을 다했고, 극진히 존경하였는데, 적군이 오자 먼저 떠나시어 백성들이 그대로 따르게 하시고, 적군이 물러가자 되 돌아오시니 좀 안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니,

심유행이 말하기를 “이 점은 그대들이 잘 모를 거야. 전에 심유의 집에 지계꾼들의 반란이 있었는데 선생을 따르던 70인의 제자는 아무도 이 난리를 치르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자사가 위나라에 있을 적에 제나라 군사가 쳐들어왔다.

어느 사람이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왜 안 떠나시는가요?”

자사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떠나 버리면 주군은 누구와 더불어 지켜 내실 것인가” 하였다.

맹자가 말하기를 “증자와 자사는 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다. 증자는 스승이요 부형이며, 자사는 신하요 지위도 낮다. 증자와 자사가 처지를 바꾸어 놓는다면 다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曾子居武城⁷⁶⁾ 有越寇 或曰寇至 盍去諸 曰無萬人於我室 毀傷其薪木 寇退則曰 修我牆屋 我將反 寇退 曾子反 左右曰 待先生如此之忠且敬也

76) 무성(武城): 노읍명(魯邑名).

寇至則先去 以爲民望 寇退則反 殆於不可 沈猶行⁷⁷⁾ 曰是非汝所知也 昔沈猶有負芻之禍 從先生者七十人 未有與焉 子思居於衛 有齊寇 或曰寇至 盍去諸 子思曰 如伋去 君誰與守 孟子曰 曾子子思同道 曾子師也父兄也 子思臣也微也 曾子子思易地則皆然⁷⁸⁾

저자가 말하기를 “왕이 몰래 사람을 시켜 선생의 참모습을 캐보려고 하는데, 과연 일반 사람과 좀 다른 데가 있으신지?”

맹자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일반 사람과 다를 까닭이 있겠는가? 요순도 일반 사람과 똑같은 분이실 따름이다.”

儲子⁷⁹⁾曰 王使人問夫子 果有以異於人乎 孟子曰 何以異於人哉 堯舜與人同耳⁸⁰⁾

제나라 사람 중에 마누라와 첩을 한집에 두고 지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남편이 밖으로 나가면 언제나 술과 고기를 싫도록 먹고 돌아오곤 하였다. 그의 마누라가 음식을 같이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다 부자가 아니면 존귀한 어른들뿐이었다. 그 마누라가 그의 첩더러,

“남편이 밖으로 나가면 술과 고기를 싫도록 먹고 돌아오곤 하는데, 음식을 같이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다 부자요 존귀한 어른들이라 하지만, 여태껏 고귀한 어른이라고는 한 사람도 찾아오는 일

77) 심유행(沈猶行): 증자의 제자

78) [평설] 시중(時中)의 도(道)는 획일적이 아닌 데 있다. 똑같은 난리에도 증자는 피했고, 자사는 피하지 않았으니 이유는 여하간에 획일적이지 아니라는 점에서 시중(時中)의 태도라 해야 할 것이다.

79) 저자(儲子): 제인(齊人)이다.

80) [평설] 성범일어론(聖凡一如論)의 입장인 것이다. ‘요순여인동(堯舜與人同)’을 달리 표현하면 ‘인개기이위요순(人皆可以爲堯舜)’인 것이다. 이는 인간은 날 때부터 동권(同權)이고 평등임을 보여 준다.

이 없으니, 내가 주인의 가는 곳을 가만히 따라가 볼까 하오” 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슬금슬금 남편의 가는 곳을 뒤쫓아가니, 온 성중을 다 돌아도 한 사람도 서로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드디어 동문 밖 공동묘지 굴두덩 사이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가더니, 그의 남은 것은 비렁질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또다시 들레들레 돌아보면서 다른 데로 가니, 이것이 곧 그의 싫도록 얻어먹는 방법이였다. 그의 마누라가 돌아와서 그의 첩더러,

“남편이란 평생을 존경하며 살아갈 사람인데 인제 와 보니 이러저러 합디다” 하고,

그의 첩과 함께 흥을 보면서 안마당에서 서로 울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 된 사람은 그런 줄도 모르고 슬금슬금 밖으로부터 돌아와서는 그의 아내와 첩에게 제법 뽐냈다.

군자의 경우를 들어서 이런 사실을 관찰하자면, 사람들이 부귀와 출세를 구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그의 아내나 첩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고, 서로 울게 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드물 것이다.”

齊人有一妻一妾而處室者 其良人出則必壓酒肉而後反 其妻問所與飲食者則盡富貴也 其妻告其妾曰 良人出則必壓酒肉而後反 問其與飲食者 盡富貴也 而未嘗有顯者來 吾將鬪良人之所之也 蚤起施從良人之所之 徧國中 無與立談者 卒之東郭墦間之祭者 乞其餘不足 又顧而之他 此其謂壓足之道也 其妻歸告其妾曰 良人者所仰望而終身也 今若此 與其妾訕其良人而相泣於中庭 而良人未之知也 施施從外來 驕其妻妾 由君子觀之 則人之所以求富貴利達者 其妻妾不羞也 而不相泣者幾希矣⁸¹⁾

81) [평설] 이는 벼슬아치들의 염치를 모르는 태도에 일침을 놓은 셈이다. 물욕에 사로잡혀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자는 마치 공동묘지에서 음식을 받아먹는 위인과 다를 데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로 부녀자들 앞에서 떳떳한 벼슬아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만장 상

만장이 묻기를 “순이 밭에 나아가 가을 하늘을 우러러 호소하며 울었다니, 왜 호소하며 울었던가요?”

맹자가 말하기를 “원망하는 생각이 골똘하셨던 것이다.”

“부모가 사랑하시거든 기뻐하면서 잊지 않아야 하며, 부모가 미워하시거든 노력하면서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런데 순은 원망하였던가요?”

“장식이 공명고에게 묻기를 ‘순이 밭에 나아간 사실은 나도 진작 들었거니와, 하늘에 호소하며 울었고, 더구나 부모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공명고는 말하기를 ‘그 점은 내가 모르는 일일 것이다’ 하였으니, 대체로 공명고는 효자의 마음인들 걱정이 없을 수는 없고, 나는 내 힘이 닳도록 밭을 갈아 그것으로 자식 된 직분을 다하면 그만이지,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게야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요임금이 그의 아홉 아들과 두 딸로 하여금 많은 벼슬아치와 소와 양과 곡식창고를 갖추어, 논밭 두텁에서 일하고 있는 순을 섬기게

하니, 천하의 선비들이 대부분 그에게로 갔다. 요임금은 천하의 일을 서로 보살피다가 그에게 옮겨주려 하였던 것이지만, 순은 부모의 뜻을 받들지 못한지라 곤경에 빠진 사람처럼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이 하셨다.

천하 선비들이 기꺼이 따라 주기를 사람마다 바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그의 근심을 풀 길이 없었고, 어여쁜 계집이란 사람마다 바라겠지만 요임금이 그의 두 딸을 처로 주어도 그것으로는 그의 근심을 풀 길이 없었고, 재물이란 사람마다 바라겠지만 천하를 차지하는 부(富)로도 그것으로는 그의 근심을 풀 길이 없었고, 귀(貴)란 사람마다 바라겠지만 천자가 되는 귀로도 그것으로는 그의 근심을 풀 길이 없었다. 사람들이 즐거이 따라 춤과 어여쁜 계집과 부와 귀도 그의 근심을 풀어 줄 수 없었고, 오직 부모의 뜻을 받들게 되어야만 그의 근심을 풀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란 어릴 적에 부모를 따르다가 장성하여 어여쁜 계집을 알게 되면 귀여운 계집을 찾게 되고, 처자를 두게 되면 처자를 어여뵈여기고, 벼슬아치가 되면 주군을 경모(敬慕)하되 주군의 괴임을 못 받으면 초조한 마음을 건잡지 못하는 것인데, 지극한 효성은 평생을 두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이니, 50이 되어도 그리워하는 모습을 나는 위대한 순에게서 이를 보았던 것이다.”

萬章問曰 舜往于田 號泣于旻天 何爲其號泣也 孟子曰怨慕也¹⁾ 萬章曰 父母愛之 喜而不忘 父母惡之 勞而不怨 然則舜怨乎 曰長息¹⁾ 問於公明高²⁾曰 舜往于田則吾旣得聞命矣 號泣于旻天 于父母則吾不知也 公明高

1) 장식(長息): 공명고(公明高)의 제자.

曰 是非爾所知也 夫公明高 以孝子之心爲不若是愬 我竭力耕田 共爲子職而已矣 父母之不我愛 於我何哉 帝使其子九男二女³⁾ 百官牛羊倉廩備 以事舜於畎畝之中 天下之士 多就之者 帝將胥天下而遷之焉 爲不順於父母 如窮人無所歸¹ 天下之士悅之 人之所欲也 而不足以解憂 好色人之所欲 妻帝之二女 而不足以解憂 富人之所欲 富有天下 而不足以解憂 貴人之所欲 貴爲天子 而不足以解憂 人悅之 好色 富貴 無足以解憂者 惟順於父母 可以解憂 人少則慕父母 知好色則慕少艾 有妻子則慕妻子 仕則慕君 不得於君則熱中 大孝 終身慕父母 五十而慕者 予於大舜見之矣⁴⁾

만장이 문기를 “옛 시에

장가를 들자면 어떻게 하오?
부모님께 여쭙어야지.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말을 믿어야 한다면 순같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순이 여쭙지 않고 장가든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맹자가 말하기를 “여쭙면 장가를 들지 못할 것이니, 남녀가 한 집을 마련함은 인간의 떳떳한 길인데, 만일 여쭙지 않음은 인간의 떳떳한 길을 버리게 되므로 부모를 원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쭙지 않았던 것이다.”

“순이 여쭙지 않고 장가드신 사실은 나도 진작 알고 있으나 요임금이 순에게 딸을 주면서 아뢰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요임금도 그 사실을 아뢰면 딸을 줄 수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2) 공명고(公明高): 증자의 제자.

3) 구남이녀(九男二女): 요제(堯帝)는 십남이녀(十男二女)를 두었는데 장자는 여기서 제외되었다. 이녀(二女)는 용황(娥皇)·여영(女英)의 두 딸인데 이를 통째 순(舜)에게 준 것이다.

4) [평설] 순(舜)은 위대한 제왕-천자-인 동시에 대효이기도 한 것이다. 오히려 대효이기에 대제가 되었다고 해야 할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요순지도효제이(堯舜之道孝弟而矣)라고 맹자는 설파하지 않았는가, 효지상주의(孝至上主義)도 이에 이르면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 부를 직한 것이다.

“부모가 손을 시켜 창고를 수선하도록 해놓고, 사다리를 떼 후, 고수는 창고에 불을 질렀고, 우물 바닥을 긁어내라 한즉 손은 셋길로 빠져나왔는데 그런 줄을 모르고 그들은 샘 뚜껑을 덮어 버렸다. 그리고 상은 ‘뚜껑으로 도군(都君)을 덮어 버린 꾀는 다 내 공적입니다. 소와 양은 부모님의 차지, 창고도 부모님의 차지, 창칼은 내 차지, 거문고도 내 차지, 활도 내 차지, 두 형수는 내 집 살림을 보게 할 테야’ 하고서 상은 손이 거처하는 방으로 들어간즉 손이 걸상에 앉아서 거문고를 타고 있거늘, 상이 ‘오래 못 뵈었기에 걱정이 되어서……’ 하면서 어색해하니, 손은 ‘자, 여기 있는 여러 신하들을 너는 나를 대신하여 다스려 보련?’ 이렇게 하였다니, 글썄올시다.

손은 상이 자기를 죽이려 하였던 것을 몰랐던가요?”

“왜 몰랐을 것이냐. 상이 걱정하면 자기도 걱정하고, 상이 기뻐하면 자기도 기뻐했다.”

“그렇다면 손은 거짓 기뻐하셨나요?”

“아니다. 옛날에 산 물고기를 정나라 자산에게 준 사람이 있었는데, 자산은 청직이더러 그것을 연못에다 기르도록 하였다. 청직이는 그것을 삶아 먹어 버리고서 돌아와 여쭙되 ‘처음에 버리니까 느릿느릿 느리대더니 얼마잖아서 꼬리를 치면서 힘차게 달아나던데요.’

자산은 ‘저 갈 데로 갔구나. 저 갈 데로 갔구나’ 하였다.

청직이가 나와서 ‘누가 한 소린고, 자산은 잘 아는 사람이라고 나는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게 삶아 먹어 버렸는데 저 갈 데로 갔구나. 저 갈 데로 갔구나 한단 말이야’ 하더라니, 그러므로 군자는 그럴듯한 방법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이치에 맞잖은 방법으로는 속여 내기 어려운 것이다. 그가 형을 경애(敬愛)하는 그런 태도로 왔기 때문에

정말로 믿고 기뻐하신 것이지, 왜 거짓으로 속이실 리가 있느냐!”

萬章問曰 詩云娶妻如之何⁵⁾ 必告父母 信斯言也 宜莫如舜 舜之不告而娶何也 孟子曰 告則不得娶 男女居室 人之大倫也 如告則廢人之大倫 以巽父母 是以不告也 萬章曰 舜之不告而娶則吾既得聞命矣 帝之妻舜而不告何也 曰帝亦知告焉則不得妻也 萬章曰 父母使舜完廩捐階 瞽瞍焚廩 使浚井出 從而揜之 象曰 謾蓋都君 咸我績 牛羊父母 倉廩父母 干戈朕 琴朕 箠朕 二嫂⁶⁾ 使治朕棲 象⁷⁾ 往入舜宮 舜在牀琴 象曰鬱陶思君爾 忸怩 舜曰惟茲臣庶 汝其于予治 不識 舜不知象之將殺己與 曰奚而不知也 象憂亦憂 象喜亦喜 曰然則舜僞喜者與 曰否 昔者有饋生魚於鄭子產 子產使校人 畜之池 校人 烹之 反命曰始舍之 圉圉焉 少則洋洋焉 攸然而逝 子產曰得其所哉 得其所哉 校人出曰孰謂子產智 予既烹而食之 曰得其所哉 得其所哉 故君子可欺以其方 難罔以非其道 彼以愛兄之道來 故誠信而喜之 奚僞焉⁸⁾

만장이 묻기를 “상이 날마다 순을 죽이기로만 일을 삼았는데, 천자가 된 후로는 그를 추방하였으니 무슨 까닭인가요?”

맹자가 말하기를 “영지를 봉해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추방한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

“순이 공공을 유주로 귀양 보내고, 환두를 송산으로 추방하고, 삼묘를 삼위에서 죽이고, 곤은 우산에서 목을 졸라, 이 넷의 죄를 처벌한즉 천하가 모두 복종한 것은 못된 인간들을 없애 버린 까닭입니다. 상은 아주 못된 인간인데 유비 지방을 영지로 봉해 주었으니 유

5) 시운취처여지하(詩云娶妻如之何): 「제풍(齊風) 남산지편(南山之篇).

6) 이수(二嫂): 제요(帝堯)의 이녀(二女)인 응황(娥皇)·여영(女英) 곧 순(舜)의 두 처(妻).

7) 상(象): 순(舜)의 이모제(異母弟).

8) [평설] 요(堯)가 순(舜)에게 이녀(二女)를 준 것은 아득한 고사라 상고할 길이 아득하지만 어쩐지 사리에 벗어나는 느낌이 없지 않다. 과연 맹자의 친필인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완고한 부모와 우애를 모르는 형제 사이에서 지극한 효성(孝誠)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데도 순(舜)의 대효(大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비 지방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지신 어른도 대체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남이라고 하면 없애 버리고, 아우라고 하면 영지를 봉해 주니 말입니다.”

“마음이 인애로운 사람은 그의 아우에게 대하여 노염을 품지도 않고, 원한은 그 자리에서 풀어 버리며, 따뜻하게 귀애하여 줄 따름이다. 따뜻하게 하여 주는 것이란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그것이요, 귀애하여 주는 것이란 그를 넉넉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하는 그것이니, 유비 지방을 영지로 봉해 준 것은 존귀하고 넉넉하게 하여 준 것이라, 자신은 천자가 되고, 아우는 하찮은 사내가 되게 하면 그를 따듯이 귀애하여 준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어느 사람은 ‘추방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까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상은 제나라에서 아무 일도 제 맘대로는 할 수 없고, 천자가 이 속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며, 조세를 받게 하니 그러므로 추방했다고 하는 것이다. 어찌 그가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하지만 언제나 만나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자주 와서 뵈옵도록 하였던 것이다.

조공 받을 때가 아니라도
정사를 핑계하여
유비지방 군주와 만나니라.

한 것은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萬章問曰 象日以殺舜爲事 立爲天子則放之 何也 孟子曰封之也 或曰放

焉 萬章曰 舜流共工⁹⁾于幽州¹⁰⁾ 放驩兜¹¹⁾于崇山¹²⁾ 殺三苗¹³⁾于三危¹⁴⁾ 殛鯀¹⁵⁾于羽山¹⁶⁾ 四罪而天下咸服 誅不仁也 象至不仁 封之有庠 有庠之人 奚罪焉 仁人 固如是乎 在他人則誅之 在弟則封之 曰仁人之於弟也 不藏怒焉 不宿怨焉 親愛之而已矣 親之 欲其貴也 愛之 欲其富也 封之有庠 富貴之也 身爲天子 弟爲匹夫 可謂親愛之乎 敢問或曰 放者何謂也 曰象不得有爲於其國 天子使吏治其國而納其貢稅焉 故謂之放 豈得暴彼民哉 雖然 欲常常而見之 故源源而來 不及貢 以政接于有庠 此之謂也¹⁷⁾

함구멍이 문기를 “옛말에 ‘인격이 높으신 분은 군왕도 신하로 삼을 수 없고, 아버도 아들로 삼을 수 없으니, 순이 남면하여 제왕이 되시매 요는 제후를 거느리고 북면하여 나가 뵈옵고, 고수도 북면하여 조정에 나가 뵈오니 순이 고수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시니라’ 하였습시다.

공자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온 천하가 위태위태하여 찌옥짜옥하였다’ 하셨으니, 글썽울시다, 정말 그랬던가요?”

맹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그런 말은 식자들의 말이 아니라 동녘 들꾼들이 지껄이는 소리다. 요가 늙으시자 순이 섭정이 되었는데, 「요전」에 이르기를 ‘28년 만에 방훈이 돌아가시자 백성들은 제 부모

9) 공공(共工): 관명(官名).

10) 유주(幽州): 허북성(河北省)에 있다.

11) 환두(驩兜): 인명(人名). 공공(共工)과 결탁하여 악사(惡事)를 꾀하던 자.

12) 숭산(崇山): 남방에 있는 산명(山名).

13) 삼묘(三苗): 국명(國名). 주(周)에 불복(不服)하던 나라.

14) 삼위(三危): 서방의 지명.

15) 곤(鯀): 우(禹)의 부(父).

16) 우산(羽山): 동방의 산명(山名).

17) [평설] 봉건시대에 있어서 천자가 무능-때로는 포악-한 친족에게 봉지를 주는 일례인 것이다. 그에게 영지는 주되 정사와 실권은 반드시 유능한 이숙(吏屬)으로 하여금 장악하게 하였다. 이는 그의 학정을 미리 봉쇄하기 위한 심려 때문인 것이다.

처럼 3년상을 치렀고, 온 천하의 음악을 금하였다’ 하였고,

공자는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없고, 백성들에게는 두 사람의 군왕이 없느니라’ 하셨으니, 순이 진작 천자가 되고, 또 천자의 제후를 거느리고 요임금의 3년상을 치렀다면 이는 천자가 두 분이었던 셈이 된다.”

“순이 요를 신하로 삼지 않았던 사실은 나도 진작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옛 시에,

통틀어 하늘 밑은 왕의 땅 아님이 없고
이 땅 끝가는 바다 끝까지 왕의 신하 아님이 없어라.

하였으니, 순이 이미 천자가 되었거늘 고수가 어찌 신하가 아니오리까?”

“이 시는 그런 뜻이 아니다. 나라 일에 시달려 부모조차 봉양할 겨를이 없을 때에 ‘이 일도 나라 일이 아님이 아니로되, 나 홀로 뽑혀서 시달리다니!’라 하니, 그러므로 시를 해석할 적에 글자에 구애되어 구절의 뜻을 그르쳐도 안 되고, 구절의 뜻에 구애되어 전체의 뜻을 그르쳐도 안 된다. 진의를 밝혀 그 뜻을 해석하여야만 그 진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니, 만일 그 구절의 말에만 구애된다면, ‘운한(雲漢)’의 시에,

주나라 머리 검은 백성들
남은 사람 있던가. 한 사람도 없어라.

하였으니, 이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주나라에 남은 사람이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된다.

효자에게는 부모를 존엄하게 하여 드림보다 더 지극한 일이 없을
것ियो, 부모를 존엄하게 하여 드림에는 온 천하를 가지고 봉양함보
다 더 지극한 일은 없을 것이다. 천자의 아버가 되었으니 존엄의 지
극이요, 온 천하를 가지고 봉양하니 부양의 지극함이라, 옛 시에,

길이길이 효도를 생각하라
효도를 생각하고 본보기 되라.

함은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옛 글에

조심조심 고수를 뵈니
온 몸에 바늘 일고 마음은 떨리고
그러자 고수도 따라서 좋게 하시네.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도 아들을 함부로 못 한다는 것이다.”

咸丘蒙¹⁸⁾問曰 語云盛德之士 君不得而臣 父不得而子 舜南面¹⁹⁾而立 堯
帥諸侯 北面而朝之 瞽瞍亦北面而朝之 舜見瞽瞍 其容有蹙 孔子曰於斯
時也 天下殆哉岌岌乎 不識 此語誠然乎哉 孟子曰否 此非君子之言 齊東
野人之語也 堯老而舜攝也 堯典²⁰⁾曰 二十有八載 放勳乃徂落 百姓如喪
考妣三年 四海遏密八音²¹⁾ 孔子曰 天無二日 民無二王 舜既爲天子矣
又帥天下諸侯 以爲堯三年喪 是二天子矣 咸丘蒙曰 舜之不臣堯則吾既得
聞命矣 詩云 普天之下²²⁾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 而舜既爲天子矣
敢問瞽瞍之非臣如何 曰是詩也 非是之謂也 勞於王事而不得養父母也

18) 함구몽(咸丘蒙): 제인(齊人)으로 맹자의 제자.

19) 남면(南面): 고대로 군왕은 남면(南面)하고 신하는 북면(北面)에 앉는 법이다.

20) 요전(堯典): 『서경』의 편명(篇名).

21) 팔음(八音): 金(鐘)·石(磬)·絲(琴)·竹(笛)·匏(缶)·土(磁)·革(鼓)·木(柷)

22) 시운보천지하(詩云普天之下): 「소아(小雅)」 북산지편(北山之篇).

曰此莫非王事 我獨賢勞也 故說詩者不以文害辭 不以辭害志 以意逆志 是爲得之 如以辭而已矣 雲漢之詩²³⁾ 曰周餘黎民 靡有孑遺 信斯言也 是周無遺民也 孝子之至 莫大乎尊親 尊親之至 莫大乎以天下養 爲天子父尊之至也 以天下養 養之至也 詩曰永言孝思²⁴⁾ 孝思維則 此之謂也 書曰 祇載見瞽瞍²⁵⁾ 夔夔齊栗 瞽瞍亦允若 是爲父不得而子也²⁶⁾

만장이 말하기를 “요가 천하를 순에게 주었다니 사실인가요?”
 맹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천자가 천하를 남에게 줄 수는 없다.”
 “그러면 순이 천하를 차지했는데 누가 주었습니까?”
 “하늘이 주었지.”
 “하늘이 주었다니, 이래라저래라 소곤소곤 명령을 내리신 것인가요?”
 “아니다. 하늘은 말로 하지 않고 행동과 사실로 보여 줄 따름이다.”
 “행동과 사실로 보여 준다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천자가 사람을 하늘에 추천할 수는 있지만 하늘로 하여금 그에게 천하를 주게 할 수는 없다. 제후가 사람을 천자에게 추천할 수는 있지만 천자로 하여금 그에게 제후의 자리를 주게 할 수는 없다. 대부가 사람을 제후에게 추천할 수는 있지만 제후로 하여금 그에게 대부의 지위를 주게 할 수는 없다. 옛날에 요가 순을 하늘에 추천하자 하늘이 이를 받아들이고, 그를 백성들 앞에 내세우니 백성들이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하늘은 말로 하지 않고 행동과 사실로 보여 줄 따름이다’라 하는 것이다.”

23) 운한지시(雲漢之詩): 「대야(大雅) 편명(篇名).

24) 시왕영언효시(詩曰永言孝思): 「대야(大雅) 하무지편(下武之篇).

25) 서왕지재견고수(書曰祇載見瞽瞍): 「대우모(大禹謨) 편.

26) [평설] 천자의 효를 서술하고 있다. 대효(大孝)는 천하의 부귀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다. 입신양명(立身揚名)하야 이현부모(以顯父母)의 극치인 것이다. [평설] 이는 효의 면에서는 간접적인 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출세로 부모에게 만족의 희열을 안겨드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무우지효(無憂之孝)의 밝은 반면이기도 한 것이다.

“그를 하늘에 추천하자 하늘이 이를 받아들이고, 그를 백성들 앞에 내세우자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시켜 제사를 모시게 한즉 귀신들이 받아 자시니, 이는 하늘이 받아들인 것이요, 그를 시켜 일을 보살피게 한즉 일이 잘 다스려져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니, 이는 백성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하늘이 주었으며 백성들이 주었으니 그러므로 ‘천자가 천하를 남에게 줄 수는 없다’ 하는 것이다. 순이 요를 28년간이나 도운 것은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늘의 힘인 것이다. 요가 돌아가시자 3년상을 치르고 순이 요의 아들을 피하여 남하의 남쪽으로 갔건만 천하의 제후들이 조정에 나와 뵈옵되 요의 아들에게 가지 않고 순에게로 가며, 일을 매조지하여 달라는 무리들도 요의 아들에게 가지 않고 순에게로 가며, 기쁜 노래도 요의 아들을 위하여 부르지 않고 순을 위하여 부르니, 그러므로 ‘하늘이라’ 하는 것이니, 그렇게 된 연후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천자의 위에 오르셨고, 요의 궁전을 거처하셨으니, 요의 아들을 내쫓았다면 이는 빼앗은 것이라 하늘이 준 것은 아니다. 「태서」란 글에,

하늘이 보시되 우리 백성을 통하여 보시고
하늘이 들으시되 우리 백성을 통하여 들으신다.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萬章曰 堯以天下與舜 有諸 孟子曰否 天子不能以天下與人然則舜有天下也 孰與之乎 曰天與之 天與之者 諄諄然命之乎 曰否 天不言 以行與事

示之而已矣 曰以行與事 示之者 如之何 曰天子能薦人於天 不能使天與之天下 諸侯能薦人於天子 不能使天子 與之諸侯 大夫能薦人於諸侯 不能使諸侯 與之大夫 昔者堯薦舜於天而天受之 暴²⁷⁾之於民而民受之 故曰天不言 以行與事 示之而已矣 曰敢問薦之於天而天受之 暴之於民而民受之 如何 曰使之主祭而百神享之 是天受之 使之主事而事治 百姓安之 是民受之也 天與之人與之 故曰天子不能以天下與人 舜相堯二十有八載 非人之所能爲也 天也 堯崩 三年之喪畢 舜避堯之子於南河²⁸⁾之南 天下諸侯朝覲者 不之堯之子²⁹⁾而之舜 訟獄者不之堯之子而之舜 謳歌者 不謳歌堯之子而謳歌舜 故曰天也 夫然後之中國 踐天子位焉 而居堯之宮 逼堯之子 是篡也 非天與也 泰誓³⁰⁾曰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此之謂也³¹⁾

만장이 문기를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우 때에 이르러 인정(人情)이 쇠퇴하자 잘난 이에게 전해 주지 않고, 아들에게 전해 주었다니 사실인가요?”

맹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늘이 잘난 이에게 전하자면 잘난 이에게 전하고 아들에게 전하자면 아들에게 전한다. 옛날에 순이 우를 하늘에 천거한 지 17년 만에 순이 돌아가시자 3년상을 치르고 우가 순의 아들을 피하여 양성으로 갔건만, 천하의 백성들이 따르기를 요가 돌아가시자 요의 아들을 따르지 않고 순을 따르듯 하였다. 우가 익을 하늘에 천거한 지 7년 만에 우가 돌아가시자 3년상을 치르고 익이 우의 아들을 피하여 기산 북쪽으로 갔건만, 조정에

27) 폭(暴): 폭로(暴露).

28) 남하(南河): 개봉(開卦) 부근(附近).

29) 요지자(堯之子): 단주(丹朱).

30) 태서(泰誓): 『시경』 편명(篇名).

31) [평설] 천여지(天與之)의 사상은 곧 천명사상이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정치적 천명사상이다. 그러나 이는 민수지(民受之)가 뒷받침함으로써 성립되는 천명사상인 것이다. 민수지(民受之)의 조건부는 곧 민본주의적 천명사상임을 의미한다. 천(天)의 이목(耳目)은 민(民)이니 만(民) 없이는 천(天)은 촌시(寸時)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이민위천(以民爲天)의 사상이라 이르는 것이다.

나와 뵈옵거나 일을 매조지하여 달라는 무리들이 익에게 가지 않고 계에게로 가서 ‘우리 군왕의 아들이다’ 하며, 기쁜 노래도 익을 위하여 부르지 않고 계를 위하여 부르며 ‘우리 군왕의 아들이다’ 하였다. 단주도 못났고 순의 아들도 못났다. 순이 요를 돕고 우가 순을 도운 것은 햇수도 길고 백성들이 오래도록 그의 혜택을 입었다. 계는 잘난 이라 능히 우의 도를 잘 이어감 직하였고, 익이 우를 도운 것은 햇수도 짧고 백성들이 혜택을 입은 기간도 그리 오래지 않았다. 순·우·익의 상거가 오래고 먼 것과 아들이 잘나고 못난 것은 다 하늘의 일이라,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 하늘의 일이요, 그렇게 끌어내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 천명인 것이다.

하찮은 사나이로 천하를 차지하는 자란 인격이 순·우 같은 데다가 또 천자가 그를 천거하여야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중니님은 천하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대대로 천하를 차지하여 오다가 하늘의 버림을 받는 자는 걸·주 같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익·이윤·주공이 천하를 차지하지 못했다.

이윤이 탕을 도와 천하의 왕이 되게 하였는데 탕이 돌아가시자 태정은 못 나서고 외병은 2년이요 중님은 4년이더니, 태갑이 탕의 제도 규범을 뒤엎기로 하매 이윤이 그를 동 따로 3년간 추방하였다. 태갑이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를 원망하며 자신을 수양하여 동 땅에서 인의의 정신을 받들어 이윤의 교훈만을 듣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박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주공이 천하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익이 하나라에서의 경우와 이윤이 은나라에서의 경우와 비

숫하다.

공자는 ‘당 우는 밀려 주고 하후·은·주는 이어갔으나 그 의에 알맞기는 마찬가지다’ 하셨다.”

萬章問曰 人有言 至於禹而德衰 不傳於賢而傳於子 有諸 孟子曰不 不然也 天與賢則與賢 天與子則與子 昔者舜薦禹於天十有七年 舜崩 三年之喪畢 禹避舜之子於陽城³²⁾ 天下之民 從之 若堯崩之後 不從堯之子而從舜也 禹薦益於天七年 禹崩 三年之喪畢 益避禹之子於箕山³³⁾之陰³⁴⁾ 朝覲訟獄者 不之益而之啓曰吾君之子也 謳歌者 不謳歌而謳歌啓曰吾君之子也 丹朱之不肖 舜之子亦不肖 舜之相堯 禹之相舜也 歷年多 施澤於民 久 啓賢能敬承繼禹之道 益之相禹也 歷年少 施澤於民 未久 舜禹益相去 久遠 其子之賢不肖 皆天也 非人之所能爲也 莫之爲而爲者 天也 莫之致而至者 命也 匹夫而有天下者 德必若舜禹而又有天子薦之者 故仲尼不有天下 繼世以有天下 天之所廢 必若桀紂者也 故益伊尹周公 不有天下 伊尹相湯 以王於天下 湯崩 太丁³⁵⁾未立 外丙二年 仲壬四年 太甲顛覆湯之典刑 伊尹放之於桐三年 太甲悔過 自怨自艾 於桐處仁遷義三年 以聽伊尹之訓己也 復歸于亳 周公之不有天下 猶益之於夏 伊尹之於殷也 孔子曰 唐虞³⁶⁾禪 夏后殷周繼 其義一也³⁷⁾

만장이 묻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윤이 음식을 미끼로 탕에게 벼슬을 요구했다니 사실인가요?”

맹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윤이 유신의 들녁에서

32) 양성(陽城): 송산(嵩山)의 밑.

33) 기산(箕山): 송산(嵩山)의 밑에 있다.

34) 음(陰): 산의 음(陰)은 산의 북쪽 으스스한 곳.

35) 태정(太丁): 탕왕(湯王)의 태자.

36) 당우(唐虞): 당요우순(唐堯虞舜)의 약(略).

37) [평설] 왕위의 선양도 결코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니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하의민(天下之民)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평설] 또한 왕자(王者)의 현불초(賢不肖)도 인위적일 수가 없다. 비인지소능위(非人之所能爲)란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평설] 여기서 천(天)이란 막지위위자(莫之爲而爲者)로서 자연의 순리로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명(命)이란 막지치이지자(莫之致而至者)로서 타율적 숙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받같이하면서 요순의 도를 즐기고 있었다. 의리 아닌 일이거나 도리에 어긋난 일이면 천하를 온통 녹으로 주어도 모르는 척하였고, 망아지 수레를 천대나 주어도 본체만체하였다. 의 아닌 일이거나 도에 어긋난 일이면 한 오라기도 남에게 주지 않고 한 오라기도 남에게서 받지 않았다.

탕이 폐백을 보내면서 그를 초빙한즉 덤덤한 말씨로 ‘나야 탕이 폐백을 갖추어 초빙하려 하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나야 밭고랑에 묻혀 요순의 도를 즐기며 사는 맛에 당할 것인가!’ 하였다. 여러 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맞아오게 한즉 이윽고 울적 태도를 바꾸어 ‘내가 밭고랑에 묻혀 요순의 도를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 내가 어찌 우리 군왕으로 하여금 요순 같으신 군왕이 되게 함만 같으랴! 내가 어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요순의 백성같이 되게 함만 같으랴! 내가 어찌 내 자신이 직접 당면하여 봄만 같으랴! 하늘이 이 백성을 내실 적에 먼저 안 이가 뒤로 알 이를 깨우쳐 주며 먼저 깨달은 이가 뒤로 깨달을 이를 깨우쳐 주게 하시니, 나는 하늘이 내신 백성들 중에 먼저 깨달은 사람이라, 나는 이 도로 이 백성을 깨우쳐 주려 하는 것이니, 내가 그들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하였다.

하늘이 내신 백성들 중에 하찮은 사내, 하찮은 계집 하나라도 요순에게 받는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자기가 밀뜨려 진 구렁 속으로 밀어 넣은 것같이 생각하였으니, 그가 천하의 중책을 가로막는 품이 이러한지라, 그러므로 탕에게 나아가 하나를 정벌하여 백성들을 건져내도록 타일렀던 것이다.

나는 자기를 구부려 남을 바로잡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하물며 자기를 더럽혀 가지고 천하를 바로잡자는 사람이겠는가!

돌팔이 집에서 쉬고 제나라에서는 내시 척환의 집에서 쉬셨다 하니 사실인가요?”

맹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일 좋아하는 패들이 지어 낸 소리다. 위나라에서는 안수유 집에서 쉬셨는데 미자의 처는 자로의 처와 자매간이라 미자가 자로더러 ‘공자가 내게서 쉬시면 위나라의 재상이 될 수 있지.’ 자로가 그대로 아뢰면 공자는 ‘모두가 천명인 것이다’ 하셨으니, 공자는 나아갈 때는 예로써 하고 물러갈 때도의로써 하시매, 되거나 안 되거나 ‘모두가 천명인 것이다’ 하셨으니, 부스럼 따는 돌팔이나 내시 척환의 집에서 쉬셨다면 이는 의도 없고 천명도 없는 셈이다. 공자가 노나라와 위나라에서 언짢게 여김을 받았는데, 송나라 사마 환이 길목을 지켜 죽이려는 판을 당하자 변복을 하고 송나라를 지날 제, 이때는 공자가 액을 당하시던 판이라, 진나라 후작 주라는 이의 신하인 사성정자의 집에서 쉬시었다. 나는 가까이 있는 신하는 누구를 재워 주는가, 먼 데서 온 신하는 누구의 집에서 묵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들었다. 공자 같은 이가 부스럼 따는 돌팔이나 내시 척환의 집에서 쉬셨다면 공자다운 데가 어디 있겠는가?”

萬章問曰 或謂孔子於衛 主癯疽⁴³⁾ 於齊主侍人⁴⁴⁾瘠環⁴⁵⁾ 有諸乎 孟子曰 否 不然也 好事者爲之也 於衛主顏讎由⁴⁶⁾ 彌子⁴⁷⁾之妻 與子路之妻 見

43) 용저(癯疽): 양의(瘍醫).

44) 시인(侍人): 엄인(奄人). 환자(宦者). 관녀(官女)들과 함께 관오(官輿)에 자유출입(自由出入)할 수 있도록 궁형으로 거세된 자.

45) 척환(瘠環): 인명(人名).

46) 안수유(顏讎由): 위(衛)나라 현대부(賢大夫). 『사기』에는 안탁추(顏鞫)로 되어 있다.

47) 미자(彌子): 위령공(衛靈公)의 행신(幸臣)인 미자하(彌子瑕). 자로의 동서.

弟也 彌子謂子路曰 孔子主我 衛卿可得也 子路以告 孔子曰 有命 孔子
 進以禮 退以義 得之不得 曰有命 而主癰疽與侍人瘠環 是無義無命也 孔
 子不悅於魯衛 遭宋桓司馬⁴⁸⁾ 將要而殺之 微服而過宋 是時孔子當阬 主
 司城貞子⁴⁹⁾ 爲陳侯周臣 吾聞觀近臣 以其所爲主 觀遠臣 以其所主 若孔
 子 主癰疽與侍人瘠環 何以爲孔子⁵⁰⁾

만장이 문기를 “어느 사람이 ‘백리해는 진나라 목축업자에게 양의
 가죽 다섯 장을 받고 몸을 팔아 소먹이꾼이 되어 가지고, 그 인연으
 로 진 목공에게 벼슬을 구했다’ 하니 믿어도 좋을까요?”

맹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일을 좋아하는 패들이 지
 어낸 소리다. 백리해는 우리나라 사람이다. 진나라 사람이 수곡 땅의
 구슬과 굴 땅에서 난 말 네 필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길을 빌려 곱나라
 를 정벌하려 하였는데 궁지기는 안 된다고 간하였고 백리해는 간하
 지 않았다. 우공에게 간하더라도 아무 소용없을 줄을 알고 떠나 진
 나라로 갔으니, 그때 나이가 벌써 70이었다. 글썽 소먹이꾼이 되어
 진목공에게 벼슬을 요구하는 그것이 더러운 짓인 줄을 몰랐다면 지
 혜 있는 이라 하겠는가? 간할 필요가 없다 하고 간하지 않았으니 지
 혜 없는 이라 하겠는가? 우공이 망하리라는 것을 알고 먼저 떠난 것
 이니 지혜 없는 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진나라에서 등용되어
 목공과는 서로 일함 직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도와주었으니 지혜 없
 는 이라 할 수 있는가? 진나라를 도와 그의 주군의 이름을 천하에

48) 송환사마(宋桓司馬): 송(宋)나라 사마(司馬)인 환씨(桓氏).

49) 사성정자(司城貞子): 사성(司城)은 관명(官名). 정자(貞子)는 그의 이름.

50) [평설] 공자가 천하를 주유하던 시절에는 액도 많았고 오해도 많았다. 혹자는 벼슬을 얻기 위하여
 세도거나 그의 측근의 집에서 묵었다는 것이다. 벼슬을 얻고 못 얻는 것을 천명으로 돌리는 공자의
 태도는 소극적인 듯하지만 사실인즉 구도자의 정신적 자세는 모름지기 그래야 하지 않을까? 벼슬
 이란 함 직하지만 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떨치게 하고 후세에 전하도록 해놓았으니 현인이 아니고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팔아 그의 주군의 일을 성취시켜 주는 따위는 시골구석에서 쯤 체하는 무리들도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현인이 그런 짓을 할 것인가?”

萬章問曰 或曰百里奚⁵¹⁾ 自鬻於秦養牲者 五羊之皮 食牛 以要秦穆公⁵²⁾ 信乎 孟子曰否 不然 好事者爲之也 百里奚 虞⁵³⁾人也 晉人以垂棘⁵⁴⁾之璧 與屈⁵⁵⁾産之乘 假道於虞 以伐虢 宮之奇⁵⁶⁾諫 百里奚不諫 知虞公之不可諫而去之秦 年已七十矣 曾不知以食牛 干秦穆公之爲汚也 可謂智乎 不可諫而不諫 可謂不智乎 知虞公之將亡而先去之 不可謂不智也 時舉於秦 知穆公之可與有行也而相之 可謂不智乎 相秦而顯其君於天下 可傳於後世 不賢而能之乎 自鬻以成其君 鄉黨自好者不爲 而謂賢者爲之乎⁵⁷⁾

51) 백리해(百里奚): 우(虞)의 현신(賢臣).

52) 진목공(秦穆公): 오패(五羆)의 한 사람.

53) 우(虞): 소국명(小國名).

54) 수극(垂棘): 진(晉)나라 영토(領土). 명옥(名玉)의 산지(產地).

55) 굴(屈): 지명(地名). 양마(良馬)의 산지.

56) 궁지기(宮之奇): 우(虞)의 현신(賢臣).

57) [평설] 유도(儒道)는 곧 사환(仕宦)의 도(道)인 것이다. 그러므로 벼슬을 얻지 못하면 물고기가 물을 갖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러나 벼슬을 얻되 올바른 방법-길-으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야말로 유인(儒人)의 올바른 태도-자세-가 아닐 수 없다. 맹자가 백리해(百里奚)에 대한 잡음을 극구 변호하는 것도 사실인즉 유도(儒道)의 본질을 밝히려는 점에서인 것이다.

만장 하

맹자 “백이는 눈으로 얼룩덜룩한 빛깔은 보지도 않고, 귀로 시끄러운 소리는 듣지도 않으며, 군왕다운 군왕이 아니면 섬기지 않고, 백성다운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았다. 평화로운 때는 나아가고 어지러우면 물러났다.

횡포한 정치를 빗어내는 데나, 횡포한 인민들이 머문 곳에서는 배겨 살지 못하고, 시골뜨기와 함께 있으면 마치 예복과 예모를 갖추고 진흙밭에 앉는 느낌을 가졌다.

주의 시대를 만나 북해 기슭에서 살면서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렸으니, 그러므로 백이의 풍격(風格)을 듣는 사람이면 뻔뻔한 위인도 청렴하게 되고, 겁쟁이도 굳은 의지를 갖게 된다.

이윤은 ‘누구를 섬긴들 군왕이 아니며 누구를 부린들 백성이 아니라’ 하고, 평화로운 때에도 나아가고 어지러운 시절에도 나아갔다. 또 ‘하늘이 이 백성을 내실 적에 먼저 안 이가 뒤로 알 이를 깨우쳐 주며, 먼저 깨달은 이가 뒤로 깨달은 이를 깨우쳐 주게 하시니, 나는 하늘이 내신 백성들 중에 먼저 깨달은 사람이라, 나는 이 도로 이 백성들을 깨우쳐 주리라’ 하며, 하늘이 낸 백성들 중에 하찮은 사내,

하찮은 계집 하나라도 요순에게서 받는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군자가 밀뜨려 진구렁 속으로 몰아넣은 것같이 생각하였으니, 그가 천하의 중책을 맡는 품이 이러하였다.

유하혜는 좀 지꺼분한 군왕이라도 수치로 알지 않았으며, 하찮은 벼슬도 낮다 생각지 않고 나아가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자기의 좋은 재주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 버림을 받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곤궁하게 되더라도 가슴을 태우지 않았다. 시골뜨기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양 차마 그 곁을 떠나지 못했다. ‘너는 녀요 나는 나지. 내 곁에서 웃옷을 벗고 빨가숭이가 된들 그대가 어찌 나를 더럽힐 수 있을 것인가?’ 하였으니, 그러므로 유하혜의 풍격을 듣는 사람이면 조불조불한 사람도 너그러워지며 꺾렁뱅이도 묵직하게 된다. 공자가 제나라를 떠나실 때는 일어 놓은 쌀을 건져 가지고 가셨으며 노나라를 떠나실 때는 ‘천천히 나는 가겠노라’ 하셨으니, 이는 부모의 나라를 떠나는 도리인 것이다. 속히 물러섬 직하면 물러가고, 오래 머무름 직하면 오래 있고, 그대로 있음 직하면 그대로 눌러 있고, 벼슬함 직하면 벼슬살이하신 이가 공자다.”

“백이는 성인 중에도 맑고 깨끗하신 분이요, 이윤은 성인 중에도 일을 가로막는 분이요, 유하혜는 성인 중에도 화려하신 분이요, 공자는 성인 중에도 때에 알맞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

공자는 한데 뭉쳐 크게 이룩하신 분이니, 한데 뭉쳐 크게 이룩하였다는 것은 쇠소리로 울려 옥소리로 매조지하는 것이라, 쇠소리로 울린다는 것은 음악의 곡조를 시작하는 것이요, 옥소리로 매조지한다는 것은 음악의 곡조를 끝맺는 것이니, 곡조를 시작하는 것이란 지혜 있는 이의 일이요, 곡조를 매조지하는 것이란 성인의 일인 것이다.

지혜란 비유하자면 기교요, 성(聖)이란 비유하자면 힘이다. 마치 백 보 밖에서 활을 쏘는 것 같으니, 거기까지 가는 것은 네 힘이지만 그것을 맞추는 것은 네 힘이 아닌 것이다.”

孟子曰 伯夷 目不視惡色 耳不聽惡聲 非其君不事 非其民不使 治則進 亂則退 橫政之所出 橫民之所止 不忍居也 思與鄉人處 如以朝衣朝冠 坐於塗炭也 當紂之時 居北海之濱 以待天下之清也 故聞伯夷之風者 頑夫廉 懦夫有立志 伊尹 曰何事非君 何使非民 治亦進 亂亦進 曰天之生斯民也 使先知 覺後知 使先覺 覺後覺 予天民之先覺者也 予將以此道覺此民也 思天下之民 匹夫匹婦 有不與被堯舜之澤者 若已推而內之溝中 其自任以天下之重也 柳下惠 不羞汚君 不辭小官 進不隱賢 必以其道 遺佚而不怨 阨窮而不憚 與鄉人處 由由然不忍去也 爾爲爾 我爲我 雖袒裋褌 裋於我側 爾焉能浼我哉 故聞柳下惠之風者 鄙夫寬 薄夫敦 孔子之去齊 接淅而行 去魯 曰遲遲 吾行也 去父母國之道也 可以速則速 可以久則久 可以處則處 可以仕則仕 孔子也 孟子曰 伯夷 聖之清者也 伊尹 聖之任者也 柳下惠 聖之和者也 孔子 聖之時者也 孔子之謂集大成 集大成也者 金聲而玉振¹⁾之也 金聲也者始條理也 玉振之也者 終條理也 始條理者 智之事也 終條理者 聖之事也 智譬則巧也 聖譬則力也 由射於百步之外也 其至 爾力也 其中 非爾力也²⁾

북궁기가 문기를 “나라 황실에서 작과 녹을 나누는 데 어떻게 하였던가요?”

맹자가 말하기를 “그의 자세한 내용은 알 길이 없다. 제후들이 자기네들께 해로우므로 이를 꺼려하여 모두 그 기록을 없애 버린 것이

1) 금성옥진(金聲玉振): 악기 중에 금성(金聲) - 종성(鐘聲) - 으로 시작할 때 반드시 옥성(玉聲) - 경(磬) - 으로 이어야 소리를 진양(振揚)시킨다. 백이(伯夷) · 이윤(伊尹) · 유하혜(柳下惠)는 금성(金聲)에 그쳤으나 공자는 옥진(玉振)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2) [평설] 공자의 시증은 자유자재(自由自在)하다. 사지구속(仕止久速)을 공자는 임의로 선택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요, 시의(時義)에 맞추어 결행하는 것이다. 시의(時義)의 기준은 역시 도(道)요 그것은 왕도(王道)일 것이다. 그것은 또한 위민부모(爲民父母)로서의 애민(愛民) · 홀민(恤民) · 목민지도(牧民之道)라 해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 그의 개략을 들은 일이 있다. 천자(天子)가 한 지위요, 공(公)이 한 지위요, 후(侯)가 한 지위요, 백(伯)이 한 지위요, 자(子)·남(男)이 같은 한 지위니, 그래서 다섯 등급이다. 군(君)이 한 지위요, 경(卿)이 한 지위요, 대부(大夫)가 한 지위요, 상사(上士)가 한 지위요, 중사(中士)가 한 지위요, 하사(下士)가 한 지위니, 그래서 여섯 등급이다. 천자의 제도는 영지가 사방 1,000리요, 공후는 모두 사방 100리요, 백은 70리요, 자·남은 50리니, 그래서 네 등급이다. 60리가 못 되면 천자를 직접 뵈옵지 못하니 제후에게 소속시켜 ‘부용(附庸)’이라 불렀다.

천자의 경은 영지를 받되 후와 비슷하고, 대부는 영지를 받되 백과 비슷하고, 원사(元士)는 영지를 받되 자·남과 비슷하다.

큰 나라의 영토는 사방이 100리니 군왕은 경 봉록의 10배요, 경의 봉록은 대부의 4배요, 대부는 상사의 곱절이요, 상사는 중사의 곱절이요, 중사는 하사의 곱절이요, 하사는 평민 출신 벼슬아치와는 봉록이 같으니 그 봉록은 밭같이 수입에 가름하리만큼 된다. 그다음가는 나라의 영토는 사방이 70리니 군왕은 경 봉록의 10배요, 경의 봉록은 대부의 3배요, 대부는 상사의 곱절이요, 상사는 중사의 곱절이요, 중사는 하사의 곱절이요, 하사와 평민 출신 벼슬아치와는 봉록이 같으니, 그 봉록은 밭같이 수입에 가름하리만큼 된다.

작은 나라의 영토는 사방이 50리니 군왕은 경 봉록의 10배요, 경의 봉록은 대부의 곱절이요, 대부는 상사의 곱절이요, 상사는 중사의 곱절이요, 중사는 하사의 곱절이요, 하사와 평민 출신 벼슬아치와는 봉록이 같으니 봉록은 밭같이 수입에 가름하리만큼 된다. 농민들의 차지는 일꾼 한 사람에게 백 모니, 백 묘를 쓸어 모으면 상농군

은 아홉 식구를 먹이고, 그다음은 여덟 식구를 먹이고, 중농군은 일곱 식구를 먹이고, 그다음은 여섯 식구를 먹이고, 하농군은 다섯 식구를 먹이니, 평민 출신 벼슬아치의 봉록은 이런 표준으로 차등을 낸다.”

北宮錡³⁾問曰 周室班⁴⁾爵祿也 如之何 孟子曰 其詳不可得而聞也 諸侯惡其害己也 而皆去其籍 然而軻也嘗聞其略也 天子一位 公一位 侯一位 伯一位 子男同一位 凡五等也 君一位 卿一位 大夫一位 上士一位 中士一位 下士一位 凡六等 天子之制 地方千里 公侯 皆方百里 伯 七十里 子男 五十里 凡四等 不能五十里 不達於天子 附於諸侯 曰附庸 天子之卿 受地視侯 大夫 受地視伯 元士 受地視子男 大國地方百里 君十卿祿 卿祿 四大夫 大夫 倍上士 上士 倍中士 中士 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 祿足以代其耕也 次國地方七十里 君十卿祿 卿祿 三大夫 大夫 倍上士 上士 倍中士 中士 倍下士 下士 與庶人在官者 同祿 祿足以代其耕也 小國地方五十里 君十卿祿 卿祿 二大夫 大夫 倍上士 上士 倍中士 中士 倍下士 下士 與庶人在官者同祿 祿足以代其耕也 耕者之所獲 一夫百畝 百畝之糞⁵⁾ 上農夫 食九人 上次 食八人 中食七人 中次 食六人 下食五人 庶人在官者 其祿 以是爲差⁶⁾

만장이 묻기를 “친구를 사귀자면 어떻게 합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어른이래서 떠세하지 않고 존귀하대서 으스대지 않고 형제들이 있어서 유세 부리지 않고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그의 인격을 사귀는 것이라 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 맹헌자는 100승의 집안이다. 그에게 친구 다섯 사람이 있었는데

3) 북궁기(北宮錡): 위나라 사람.

4) 반(班): 서열(序列).

5) 백묘지분(百畝之糞): 분(糞)이란 비료로서 기름진 땅이란 뜻이다.

6) [평설] 이는 고전적 관제의 일단이다. 관작의 등급과 거기에 따른 봉록체제의 정연함을 엿볼 수 있다.

데 악정구·목중 그리고 그 밖에 세 사람의 이름은 내가 시방 잊어 버렸는데 현자가 이 다섯 사람과 더불어 사귄 적에 그의 집안을 떠 세한 것도 아니요, 이 다섯 사람들도 또 그의 집안을 의세하여 사귄 것도 아니다.

100승 집안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의 군주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으니, 비혜공이 ‘내가 자사에게는 스승으로 대하였고, 안반은 친구로 사귀었고, 왕순·장식은 나를 섬기던 사람들이다’ 하였다. 작은 나라의 군주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큰 나라 군왕에도 그런 분이 있었으니, 진평공이 해당을 대할 적에 그가 들어오라 하면 들어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먹으라 하면 먹되 비록 나물밥이나 쫄면 죽이라도 배불리 먹지 않는 일이 없었으니, 그는 배불리 먹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거저 그렇게 하였을 따름이지 하늘이 준 지위를 그와 함께 나눠 가진 것도 아니며, 하늘이 준 그의 직분을 그와 함께 다스린 것도 아니며, 하늘이 준 봉록을 그와 함께 먹은 것도 아니니, 이는 선비로서 현인을 존경하는 태도였지 왕공으로서 현인을 존경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순이 요임금을 뵈러 갔을 때에 임금은 사위를 별궁에다 재우 시고, 계다가 순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었다. 서로 가름가름 손도 되고 주인도 되었으니, 이는 천자로서 하찮은 사내와 벗하는 태도다.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귀한 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요,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잘난 이를 존경한다는 것이니, 귀한 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나 잘난 이를 존경하는 것이나 그 뜻은 마찬가지다.”

萬章 問曰 敢問友 孟子曰 不挾長 不挾貴 不挾兄弟而友 友也者 友其德也 不可以有挾也 孟獻子⁷⁾ 百乘之家也 有友五人焉 樂正裘 牧仲 其三人則予忘之矣 獻子之與此五人者 友也 無獻子之家者也 此五人者 亦有獻子之家 則不與之友矣 非惟百乘之家爲然也 雖小國之君 亦有之 費惠公⁸⁾ 曰吾於子思則師之矣 吾於顏般則友之矣 王順長息則事我者也 非惟小國之君爲然也 雖大國之君 亦有之 晉平公之於亥唐⁹⁾也 入云則入 坐云則坐 食云則食 雖疏食菜羹 未嘗不飽 蓋不敢不飽也 然終於此而已矣 弗與共天位也 弗與治天職也 弗與食天祿也 士之尊賢者也 非王公之尊賢也 舜尙見帝 帝館甥于貳室 亦饗舜 迭爲賓主 是天子而友匹夫也 用下敬上 謂之貴貴 用上敬下 謂之尊賢 貴貴尊賢 其義一也¹⁰⁾

만장이 묻기를 “폐백을 갖추어 교제할 적에는 어떤 마음씨로 하여야 합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존경하는 마음씨어야 하느니라.”

“퇴치고 또 퇴치는 것을 불공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존귀한 어른이 보내주실 때 ‘이걸 받아야 옳은가? 받아서는 안 되는가?’ 망설이면서 받기 때문에 불공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퇴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까닭을 붙여 퇴치지 말고 마음으로도만 퇴치면서 ‘이것은 백성들에게서 빨아들인 불순한 물건이야’ 하면서, 다른 핑계를 대면서 퇴치더라도 안 될까요?”

“그런 이와 사귄 적에 도리에 알맞고, 물건을 보내되 예의를 갖추면 그때는 공자께서도 받으셨다.”

7) 맹헌자(孟獻子): 노나라 현대부(賢大夫)인 중손멸(仲孫蔑).

8) 비혜공(費惠公): 비읍(費邑)의 군주.

9) 해당(亥唐): 진나라 현인.

10) [평설] 벗을 사귄다는 것은 그의 인격과 벗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도나 부자와 사귄다면 그것은 벗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되고, 나아가서는 아첨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벗이란 어디까지나 인격 대 인격의 접촉인 것이다.

“여기에 가령 성문 밖에서 남의 물건을 약탈하는 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이와 사귄 적에 도리에 알맞고 그가 예물을 바칠 적에 예의를 갖추었다면 그 약탈물을 받아도 좋을까요?”

“안 될 말이다. 「강고」에 ‘재물 까닭에 사람을 죽여 넘어뜨리고 죽음 따위를 시시하게 여기는 자를 누구나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였는데, 이런 자는 타이를 것도 없이 없애 버려야 할 자이다. 은이 하늘 받고 주가 은을 받되 사양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잘한 일이라 하거니와 그따위 물건들이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요즈음 제후들은 백성들에게서 받아들이는 품이 마치 약탈하는 것과 같은데 만일 그들이 극진한 예의를 갖춘다면 군자도 이를 받아 들인다니 무슨 말씀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대의 생각으로는 왕 되실 분이 나온다면 요새 제후들을 모조리 없애 버릴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들을 타일러도 고치지 않을 때 없애 버릴 것으로 생각하는가? 대체 제 소유물이 아닌 것을 빼앗는 자를 도적이라 하되 그 뜻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 듯하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을 사실 적에 노나라 사람들이 사냥꾼 놀이를 한즉 공자도 따라서 사냥꾼 놀이를 하셨으니 사냥꾼 놀이도 상관인데 그가 보내준 것을 받는 것쯤이야…….”

“그렇다면 공자께서 벼슬을 할 적에 도리로써 섬기지 않았던가요?”

“도리로써 섬기셨지.”

“도리로써 섬기셨다면 왜 사냥꾼 놀이 같은 것을 하셨을까요?”

“공자는 먼저 제기(祭器)의 이름을 바르게 기재했고, 이곳저곳에서 가져오는 음식 따위는 그 제기에 담지 않으셨다.”

“왜 떠나 버리시지 않으셨던가요?”

“어떻게 될 법도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 봄 직도 하였으나 안 되게 되었으므로 떠나 버리셨다. 그러므로 3년 이상 머무는 고장이라고는 없으셨다. 공자는 어떻게 될 법도 할 때는 벼슬살이하셨고, 예의를 갖추어 오면 벼슬살이하셨고, 공공연한 봉양의 예를 갖추면 벼슬살이를 하셨다. 계환자에게서는 어떻게 될 법도 한 벼슬살이요, 위령공에게서는 예의를 갖추어 온 벼슬살이요, 위효공에게서는 공공연한 봉양의 벼슬살이였었다.”

萬章 問曰 敢問交際 何心也 孟子曰恭也 曰卻之 卻之爲不恭 何哉 曰尊者賜之 曰其所取之者義乎 不義乎 而後受之 以是爲不恭 故弗卻也 曰請無以辭卻之 以心卻之曰 其取諸民之不義也 而以他辭 無受 不可乎 曰其交也以道 其接也以禮 斯孔子受之矣 萬章曰 今有禦人於國門之外者 其交也以道 其餽也以禮 斯可受禦與 曰不可 康誥¹¹⁾ 日殺越人于貨 罔不畏死 凡民 罔不誨 是不待教而誅者也 殷受夏 周受殷 所不辭也 於今爲烈 如之何其受之 曰今之諸侯取之於民也 猶禦也 苟善其禮際矣 斯君子受之 敢問何說也 曰子以爲有王者作 將比今之諸侯而誅之乎 其教之不改而後 誅之乎 夫謂非其有而取之者 盜也 充類至義之盡也 孔子之仕於魯也 魯人 獵較 孔子亦獵較 獵較 猶可 而況受其賜乎 曰然則孔子之仕也 非事道與 曰事道也 事道 奚獵較也 曰孔子先簿正祭器 不以四方之食 供簿正 曰奚不去也 曰爲之兆也 兆足以行矣而不行而後 去 是以未嘗有所終三年淹也 孔子有見行可之仕 有際可之仕 有公養之仕 於季桓子¹²⁾ 見行可之仕也 於衛靈公 際可之仕也 於衛孝公 公養之仕也¹³⁾

11) 강고(康誥): 「주서(周書) 편명(篇名).

12) 계환자(季桓子): 노경(魯卿) 계손사(季孫斯).

13) [평설] 불의(不義)의 화(貨)를 받아도 좋을까? 맹자는 이 점에 대하여 예(禮)로써 그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예교(禮敎)의 한계를 넘어선 불의(不義)는 용대(容貸)할 수 없으나 예교(禮敎)로써 개사(改峻)의 길이 열릴 자의 예물(禮物)은 그것이 비록 불의지화(不義之貨)라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면 받아도 좋다는 입장인 것이다. 여기에 당대 제후들의 불의지록(不義之祿)을 받아야 하는 사유(士儒)들의 고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벼슬살이하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가난 때문인 경우도 있다. 장가드는 것이 양친하기 위해서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양친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 가난 때문인 경우에는 존귀한 자리를 버리고 낮은 자리에 앉는다. 흡족한 것을 버리고 근색함에 만족한다. 존귀한 자리를 버리고 낮은 자리에 앉으며 흡족함을 피하고 근색함에 만족하자면 어떤 것이 좋을까? 딱딱이 야경꾼도 좋으리라. 공자도 언젠가 창고지기가 되었을 적에 ‘셈만 잘 맞추면 되겠지!’ 하시고, 언젠가 목장지기가 되시어 ‘소나 양이 통통하게 살찌기만 하면 되겠지!’ 하셨다.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큰소리를 치는 것도 잘못이요, 남의 조정에 나섰으면서 자기 도를 펴지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孟子曰 仕非爲貧也 而有時乎爲貧 娶妻非爲養也 而有時乎爲養爲貧者 辭尊居卑 辭富居貧 辭尊居卑 辭富居貧 惡乎宜乎 抱關擊柝孔子嘗爲委吏矣 曰會計當而已矣 嘗爲乘田矣 曰牛羊 茁壯長而已矣位卑而言高 罪也 立乎人之本朝¹⁴⁾而道不行 恥也¹⁵⁾

만장이 말하기를 “선비는 제후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는다니 왜 그럴까요?”

맹자가 말하기를 “차마 그리 못 하는 것이다. 제후가 나라를 잃고 나서 제후에게 몸을 의탁하는 것은 예지만, 선비가 제후에게 몸을 의탁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14) 본조(本朝): 조정(朝廷)의 상위(上位).

15) [평설] 선비라도 때에 따라서는 생활을 위한 취직이 있는 것이다. 생활이란 부모봉양이나 처자양육이 일차적 목적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소위 군자의 행도(行道)와는 구별되는 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때에는 공자도 천직을 불사(不辭)하였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랴.

“군왕이 좁쌀을 보내 주면 받아야 할까요?”

“받아야지.”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까닭에서인가요?”

“군왕으로서 할 길 없는 백성에게는 본래 골고루 주는 법이다.”

“골고루 주면 받고 선물로 주면 받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요?”

“차마 그리 못 하는 것이다.”

“차마 그리 못 한다는 것은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습니다.”

“딱딱이 야경꾼도 본래의 직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왕에게서 길리움을 받는 것이니, 본직이 없는데도 위에서 선물을 주는 것은 대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군왕이 먹을 것을 보내 주면 받아야 한다니, 글썄올시다. 자주 받아도 좋을까요?”

“목공이 자사에게 대하여 자주 문안을 드리고 자주 솔에 찢 고기를 보내 드리니, 자사가 언짢아하시며 끝장에는 심부름꾼을 끌고 대문 밖으로 나와서 북쪽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면서 퇴치며 ‘이제사 주군이 나를 개나 말같이 기르시려는 것을 알았다’ 하셨으니, 이런 일이 있는 후로는 갖다 바치는 일이 없어졌다. 현인을 좋아하면서 등용하지도 못하고 또 봉양하지도 못한다면, 현인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군왕이 군자를 봉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봉양한다고 할 수 있을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왕명으로 보내 드립니다’ 하면 머리를 조아리면서 받는 것이니, 그 후에 창고지기는 좁쌀을 늘 보내 줄 것이며, 부엌데기는 고기를 늘 보내 줄 것인데 ‘왕명으로 보내 드립니다’ 하지 않았으니, 자사는

술에 찢 고기 까닭에 자기를 자주 귀찮게 절하도록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 군자를 봉양하는 도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요가 순에 대하여 그가 난 아홉 아들로 섬기게 하고 두 딸로 시집을 가게 하고, 많은 벼슬아치와 소와 양과 곡창을 쓸어 모아, 논밭 두렁에서 일하고 있는 순을 봉양하게 하시고, 그 후에 그를 등용하여 윗자리에 앉히니, 그러므로 ‘왕공으로서 현인을 존경하신 분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萬章曰 士之不託諸侯 何也 孟子曰 不敢也 諸侯失國而後 託於諸侯 禮也 士之託於諸侯 非禮也 萬章曰 君餽之粟¹⁶⁾則受之乎 曰受之 受之何義也 曰君之於氓¹⁷⁾也 固周之 曰周之則受 賜之則不受 何也 曰不敢也 曰敢問其不敢 何也 曰抱關擊柝者 皆有常職 以食於上 無常職而賜於上者 以爲不恭也 曰君餽之則受之 不識 可常繼乎 曰 繆公之於子思也 亟問亟餽鼎肉 子思不悅 於卒也 禦使者 出諸大門之外 北面稽首再拜 而不受曰 今而後 知君之犬馬畜伋¹⁸⁾ 盖自是 臺無餽也 悅賢不能舉 又不能養也 可謂悅賢乎 曰敢問國君 欲養君子如何 斯可謂養矣 曰以君命將¹⁹⁾之 再拜稽首而受 其後廩人 繼粟 庖人 繼肉 不以君命將之 子思以爲鼎肉 使己僕僕爾亟拜也 非養君子之道也 堯之於舜也 使其子九男事之 二女 女焉 百官牛羊倉廩備 以養舜於畎畝之中 後舉而加諸上位 故曰王公之尊賢者也²⁰⁾

만장이 말하기를 “제후를 만나보시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16) 속(粟): 식량(食糧).

17) 맹(氓): 망명(亡命)의 유민(游民).

18) 급(伋): 자사(子思)의 이름.

19) 장(將): 행(行).

20) [평설] 벼슬아치-사(士)-의 생활은 물욕에 초연해야 함에 있다. 누구에게나 기탁(寄託)함은 금물(金物)이요, 예(禮) 아닌 재화를 받아도 안 되는 것이다. 구도자로서의 청렴은 사(士)의 속성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성안에 있으면 ‘저잣거리의 신하’라 하고, 들녘에 있으면 ‘덤불 같은 신하’라 부르니 다 평민을 가리킨 말이다. 평민은 예물을 바친 후 신하가 되지 않으면 감히 제후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예인 것이다.”

“평민은 부역 나오라 하면 나가서 일을 하되, 군왕이 만나고 싶어서 부르면 나아가 만나지 않으니 왜 그런가요?”

“부역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만 만나러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군왕이 만나고 싶어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아는가?”

“문견이 넉넉한 까닭이기도 하고, 그가 잘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견이 넉넉한 까닭이라면 천자도 스승을 부르지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제후이겠는가? 잘났기 때문이라면 나는 아직 잘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를 불렀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목공이 자주 자사를 만나 ‘옛날 천승의 국왕이 선비와 더불어 벗하였다니 그 일은 어떻습니까?’

자사는 언짢게 여겨-‘옛사람이-‘섬겼다’고 한 것이겠지. 어찌 ‘벗했다’고 했겠는가 하였으니, 자사가 언짢게 여기신 것은 어찌 ‘지위로는 그대는 군왕이요 나는 신하니 어찌 감히 군왕과 더불어 벗할 것이며, 인격으로는 그대가 나를 섬겨야 할 처지니 어찌 나와 벗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천승의 군왕이 서로 벗하자 하더라도 안 될 일인데 함부로 불러올 수 있겠는가?

제경공이 사냥을 나셨을 때 사냥터지기를 부르는 데 정(旌)기를 쓰셨다. 오지 않으므로 죽이려고 하였다. 뜻있는 선비는 진구렁에 떨어질 각오가 되어 있으며, 용사는 제 목 달아날 각오가 서 있는 법이라 하니, 공자는 어느 점을 취했느냐 하면, 저를 부르는 예로 부르

지 않았기에 안 간 그 점이다.”

“사냥터지기를 부를 적에는 무엇으로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가죽 관을 사용한다. 평민은 전(旃)기를 사용하고, 사(士)는 기(旂)를 사용하고, 대부는 정(旌)기를 사용한다.

대부를 부르는 예로 사냥터지기를 부르니 그는 죽어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사를 부르는 예로 평민을 부르면 평민이 어찌 갈 수 있겠는가! 하물며 현인이 아닌 사람을 부르는 방법으로 현인을 부르는 경우가 있겠는가! 현인을 만나보고 싶어 하면서 그 방법으로써 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들어오라 하면서 문을 꼭꼭 닫아서는 것과 같다. 대체 의(義)는 길이요 예(禮)는 문이니, 군자라야만 이 길을 거쳐서 이 문으로 드나들 수 있을 것이다. 옛 시에,

주나라 길은 숫돌 바닥 같구나
곧은 품이 화살과도 같고 군자는 거저 밟는 곳ियो
소인은 본보기로 보는 곳이다.

하였다.”

“공자는 군왕이 부르실 때 멩에 맨다는 핑계로 터덕거리지 않고, 바로 쫓아가셨는데 그러면 공자께서 잘못하셨는가요?”

“공자께서는 그때 벼슬아치로 관직에 계셨기 때문이니, 그 벼슬자리 까닭에 부름을 받으셨던 것이다.”

萬章曰 敢問不見諸侯 何義也 孟子 曰在國曰市井之臣 在野曰草莽之臣 皆謂庶人 庶人不傳質爲臣 不敢見於諸侯 禮也 萬章曰 庶人召之役則往 役 君欲見之 召之則不往見之 何也 曰往役義也 往見不義也 且君之欲見

之也 何爲也哉 曰爲其多聞也 爲其賢也 曰爲其多聞也 則天子 不召師而況諸侯乎 爲其賢也 則吾未聞欲見賢而召之也 繆公 亟見於子思曰 古千乘之國 以友士 何如 子思不悅曰 古之人 有言曰 事之云乎 豈曰友之云乎 子思之不悅也 豈不曰以位則子君也 我臣也 何敢與君友也 以德則子事我者也 奚可以與我友 千乘之君 求與之友而不可得也 而況可召與齊景公田 招虞人以旌 不至 將殺之 志士 不忘在溝壑 勇士 不忘喪其元 孔子 奚取焉 取非其招不往也曰敢問招虞人何以 曰以皮冠 庶人以旃 士以旂 大夫以旌 以大夫之招 招虞人 虞人死不敢往 以士之招 招庶人 庶人 豈敢往哉 況乎以不賢人之招 招賢人乎 欲見賢人而不以其道 猶欲其入而閉之門也 夫義路也 禮門也 惟君子 能由是路 出入是門也 詩云 周道如底²¹⁾ 其直如矢 君子所履 小人所視 萬章曰 孔子君命召 不俟駕而行 然則 孔子非與 曰孔子 當仕有官職而以其官 召之也²²⁾

맹자가 만장더러 “한 고을의 좋은 선비라야 한 고을 좋은 선비와 벗을 하고, 한 나라의 좋은 선비라야 한 나라의 좋은 선비와 벗을 하고, 천하의 좋은 선비라야 천하의 좋은 선비와 벗을 하느니라. 천하의 좋은 선비들과 벗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옛사람들과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니, 그의 시를 읊으며 그의 글을 읽는데 그 사람들을 몰라서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그 시대를 평론하는 것이니, 이것이 치올라가서 벗한다는 것이다.”

孟子謂萬章曰 一鄉之善士 斯友一鄉之善士 一國之善士 斯友一國之善士 天下之善士 斯友天下之善士 以友天下之善士 爲未足 又尙²³⁾論古之人 頌其詩 讀其書 不知其人 可乎 是以 論其世也 是尙友也²⁴⁾

21) 시운주도여저(詩云周道如底): 「소아(小雅)」 대동지편(大東之篇).

22) [평설] 따지고 보면 공적인 급여는 받아도 좋지만 - 난민을 위한 구호 - 사적인 증여는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역은 왕명이라면 나아가야 하지만 예(禮)로써 부르지 않는 왕명은 왕명이라도 이에 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현인을 부를 때는 반드시 예법(禮節)의 절차를 겪어야 하는 소아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3) 상(尙): 상(上). 위로 올라간다.

제선왕이 경(卿)에 대하여 물은즉 맹자가 말하기를 “왕은 어떤 경에 대하여 물으시는지?”

“경이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게 있습니다. 친척의 경이 있고 탄 성바지의 경이 있습니다.”

“친척의 경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주군에게 큰 허물이 있으면 간하고 거듭거듭 일러도 듣지 않으면 왕위를 바꾸어 버립니다.”

왕이 부루퉁하여 얼굴빛을 변한다.

“왕께서는 달리 생각지 마십시오. 왕께서 신에게 물으시기에 신이 바른대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이 얼굴빛을 가라앉힌 뒤에 탄 성바지의 경에 대하여 좀 알고 싶다고 하시매 “주군에게 허물이 있으면 간하고 거듭거듭 일러도 듣지 않으면 떠나 버립니다.” 그렇게 대답하였다.

齊宣王 問卿²⁵⁾ 孟子曰 王 何卿之問也 王曰卿不同乎 曰不同 有貴戚之卿 有異姓之卿 王曰 請問貴戚之卿 曰君 有大過則諫 反覆之而不聽則易位 王勃然變乎色 曰王勿異也 王問臣 臣不敢不以正對 王色定然後 請問異姓之卿 曰君 有過則諫 反覆之而不聽則去²⁶⁾

24) [평설] 선사(善士)란 행선지사(行善之士)다. 행선지사(行善之士)가 그리 흔하지 않는 데서라면 선사(善士)도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다. 향(鄉)이건 일국(一國)이건 아니면 천하이건 선사(善士)이기를 기약하는 이만이 그가 사는 곳의 선사(善士)와 벗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사(善士)를 자기(自期)한다면 당대에 만족하지 말고 옛 성현-선사(善士)-과도 그들의 시와 글을 통하여 벗하도록 노력함 직한 것이다. 거기서 비로소 천하지선사(天下之善士) 외에 상우(尙友)의 경지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25) 경(卿): 높은-최상위-벼슬아치.

26) [평설] 봉건시대에는 동성이성(同姓異姓)의 벼슬아치가 구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동성지경(同姓之卿)의 지친(至親)으로서의 일가(一家)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왕위를 바꿀 수도 있지 만 이성지경(異姓之卿)은 의리로 맺은 사이이기 때문에 역위(易位)를 꾀하는 역신(逆臣)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그들에게는 간쟁이 있을 따름이요 불청(不聽)하더라도 그 이상의 행동은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고자 상

고자가 말하기를 “성(性)이란 버들가지와 같고, 희(義)란 바구니와 같으니, 인간의 성으로 인의(仁義)를 실천한다는 것은, 마치 버들가지로 바구니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그대는 버들가지의 본성 그대로를 살려 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잖으면 버들가지를 휘어잡아 바구니를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버들가지를 억지로 휘어잡아 바구니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또한 사람의 본성을 억지로 휘어잡아 인의를 실천한다고 생각할 것인가? 천하 사람들을 끌어다가 잘못 인의를 그르치게 하는 것은 필시 그대의 학설 때문인가 보다.”

告子曰 性猶杞柳¹⁾也 義猶柎捲也 以人性爲仁義 猶以杞柳爲柎捲 孟子曰 子能順杞柳之性而以爲柎捲乎 將戕賊杞柳而後 以爲柎捲也 如將戕賊杞柳 而以爲柎捲 則亦將戕賊人 以爲仁義與 率天下之人而禍仁義者 必子之言夫²⁾

1) 성유기류(性猶杞柳): 성 자체에 선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류(杞柳)처럼 이 도구 저 도구 어느 것이나 될 수 있는 소질일 따름이란 비유.

2) [평설] 인의는 행인행의(行仁行義)로서 인간(人間)의 자행자득(自行自得)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인의를 기호(嗜好)하므로 즐겨 이를 실천하지만 고자는 인위적인 강계에 의하여 부득

고자가 말하기를 “성(性)이란 여울물과 같은지라 동쪽으로 터놓으면 동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놓으면 서로 흐르나니, 인간의 본성에 선하거나 선하지 않거나 하는 구분이 없는 것은, 마치 물이란 동서로 구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물이란 정말 동서를 구분하지 않지만 위아래로 구분하지 않는가? 인간의 성이 선한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으니, 인간은 누구나 선하고 물은 언제나 아래로 흐르는 법이다. 이제 물을 손으로 치면 위로 뛰어 이마 위를 벗어나게 할 수 있고, 마구 끌어당기면 산 위로 올릴 수도 있지만, 그야 어찌 물의 본성이랄 수 있겠는가? 쏠리는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 인간이 선하지 않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은, 그 본성이 또한 이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告子曰 性猶湍水³⁾也 決諸東方則東流 決諸西方 則西流 人性之無分於善不善也 猶水之無分於東西也 孟子曰 水信無分於東西 無分於上下乎 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人無有不善 水無有不下 今夫水 搏而躍之⁴⁾ 可使過頽 激而行之 可使在山 是豈水之性哉 其勢則然也 人之可使爲不善 其性 亦猶是也⁵⁾

고자가 말하기를 “태어난 그대로를 성(性)이라 합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태어난 그대로를 성이라 함은, 흰 것은 희다고

이 이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자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인의를 기호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다.

- 3) 성유단수(性猶湍水): 성이란 선악 어느 쪽이고 끄는 대로 갈 수 있다는 비유.
- 4) 박이약지(搏而躍之): 성이 악하게 됨은 억지로 되는 것이 마치 물의 상행이란 억지로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란 비유.
- 5) [평설] 고자는 선악이란 본성과는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성에서의 윤리적 가치는 부정한다. 그러나 맹자는 성의 기호(嗜好)로서 선은 인간 본유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인가?”

“그렇습니다.”

“흰 깃의 흰 것과 흰 눈의 흰 것과 같으며, 흰 눈의 흰 것과 흰 옥의 흰 것과 같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의 본성과 소의 본성과 같으며, 소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과 같다는 말인가?”

告子曰 生之謂性⁶⁾ 孟子曰 生之謂性也 猶白之謂白與 曰然 白羽之白也 猶白雪之白 白雪之白 猶白玉之白與 曰然然則犬之性 猶牛之性 牛之性 猶人之性與⁷⁾

고자가 말하기를 “식욕이니 색욕이니가 성(性)인 것이니, 인(仁)이란 안에 있지 밖에 있지 않고, 의(義)란 밖에 있지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왜 인은 안에 있고, 의는 밖에 있다고 하는가?”

“그가 어른이기에 나는 그를 어른으로 모시니, 어른이란 내게 있는 것이 아님은, 마치 그것이 희기에 나는 그를 희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흰 것이란 밖으로 쫓아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밖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흰 말의 흰 것과 흰 사람의 흰 것과 다를 것이 없지만, 글썄 말이

6) 생지위성(生之謂性): 난 그대로를 성이란 뜻이라면 좋으나 그 동일성을 인물동등(人物同得)이란 데에 맹자의 이의(異議)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견우인(犬牛人)이 동일성이 되기 때문이다.

7) 우지성유인지성어(牛之性猶人之性與): 인간의 성은 호선오악하는 인의(仁義)의 성(性)이요 우(牛)는 복역임중식추치축(服軛任重食芻齧)의 성이니 동일성으로 논할 수 없다는 것이 고자의 ‘생지위성(生之謂性)’에 대한 맹자의 반어법적인 답변이다. ‘유(猶)……어(與)’는 반어(反語)의 부정이다.

[평설] 이는 고자의 성백지설이다. 성에는 본무선악(本無善惡)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맹자의 질문에 고자는 대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견우인지성(犬牛人之性)이 같지 않다는 점에 대한 대답을 맹자는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장성하다고 해서 어른이라는 것과 사람이 장성하다고 해서 어른이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인가? 그러면 장성한 것을 의라 하는가? 어른으로 모시는 것을 의라 하는가?”

“내 아우라고 하면 그를 사랑하고, 진나라 사람의 아우라면 사랑하지 않으니, 이는 그래야만 자신의 마음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에 있다는 것이요, 초나라 사람이 어른이기에 어른으로 모시고, 내 집 어른도 어른이기에 어른으로 모시니, 이는 어른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나라 사람의 불고기가 맛있다는 것이나 자기네 물고기가 맛있다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으니, 대체 물건치고는 다 그런 것이니, 그렇다면 불고기 맛도 밖에 있다는 말인가?”

告子曰 食色 性也⁸⁾ 仁內也 非外也 義外也 非內也 孟子曰 何以謂仁內 義外⁹⁾也 曰彼長而我長之 非有長於我也 猶彼白而我白之 從其白於外也 故謂之外也 曰異於白馬之白也 無以異於白人之白也 不識 長馬之長也 無以異於長人之長與 且謂長者義乎 長之者義乎 曰吾弟則愛之 秦人之弟 則不愛也 是以我爲悅者也 故謂之內 長楚人之長 亦長吾之長 是以長爲悅者也 故謂之外也 曰者秦人之炙 無以異於者吾炙 夫物則亦有然者也 然則者炙 亦有外與¹⁰⁾

8) 식색성(食色性也): 이는 생물의 감각적인 면만을 성이라 한 것이니 이 역시 인물동성론(人物同性論)이다. 그러나 만물 중 인간만은 감각 이외에 인의의 도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맹자의 성에 대한 견해다.

9) 인내외의(仁內義外): 고자는 식색이 바로 성이지만 인내설(仁內說)만은 맹자설에 공명하고 의내설(義內說)은 반대한다. 이것이 맹자의 ‘성(性)=인(仁)·의(義)·설(說)에 대한 고자의 인내외설(仁內義外說)이다.

10) [평설] 고자의 인내설(仁內說)은 그의 성백지설에 모순되는 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성을 식색의 본능적 충동 또는 기호로 간주하는 그의 기본 입장에서 이탈된 설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그의 인내설(仁內說)은 비록 의외설(義外說)과 결들였지만 맹자설에의 접근을 의미하기도 한다.

맹계자가 공도자더러 묻기를 “왜 의(義)가 안에 있다는 거요?”

“내가 공경하는 그 마음을 실행하는 것이므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이 만형보다 한 살이 위라면 누구에게 먼저 경의를 표할까요?”

“만형에게 경의를 표해야지요.”

“술을 칠 때는 누구에게 먼저 드릴까요?”

“마을 사람에게 먼저 쳐야 합니다.”

“경의를 표하는 마음은 내게 있고 어른 됨은 그에게 있으니, 과연 밖에 있는 것이지 안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도자가 대답을 못 하고 맹자에게 여쭙즉,

맹자가 말하기를 “‘아저씨에게 먼저 경의를 표하는가? 아우에게 먼저 경의를 표하는가?’ 물으면 그는 ‘아저씨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하리라. ‘아우가 신위(神位)에 있을 경우에 누구에게 경의를 표하는가?’ 그렇게 물으면 그는 ‘아우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하리라.

그대가 ‘아저씨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것은 어디로 간 셈이냐?’ 묻는다면 그는 ‘신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리라. 그대도 또한 ‘신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라. 늘 드리는 공경은 형에게 드리는 것이요, 갑자기 드리는 공경은 마을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다.”

계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아저씨를 공경하게 되면 아저씨를 공경하고, 아우를 공경하게 되면 아우를 공경하게 되니, 과연 밖에 있지 안에서 우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도자가 말하기를 “겨울철에는 끓는 물을 마시고 여름철에는 보통 물을 마시니, 그렇다면 마시고 먹는 것도 밖에 있구려!”

孟季子¹¹⁾問公都子曰 何以謂義內也 曰行吾敬 故謂之內也 鄉人 長於伯兄一歲則誰敬 曰敬兄 酌則誰先 曰先酌鄉人 所敬在此 所長在彼 果在外 非由內也 公都子不能答 以告孟子 孟子曰 敬叔父乎 敬弟乎 彼將曰 敬叔父 曰弟爲尸則誰敬 彼將曰 敬弟 子曰 惡在其敬叔父也 彼將曰 在位故也 子亦曰 在位故也 庸敬在兄 斯須之敬在鄉人 季子聞之 曰敬叔父則敬 敬弟則敬 果在外 非由內也 公都子曰 冬日則飲湯 夏日則飲水 然則飲食 亦在外也¹²⁾

공도자가 말하기를 “고자는 ‘성(性)에는 선한 것도 없고 선하지 않은 것도 없다’ 하고, 어느 사람은 ‘성은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선하지 않게 될 수도 있으므로 문왕과 무왕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고, 유왕과 여왕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괴팍한 것을 좋아한다’ 하고, 또 어느 사람은 ‘성에는 선한 이도 있고 선하지 않은 이도 있으니, 그러므로 요는 군왕이 되었는데도 상 같은 애가 있었고, 고수가 아버지지만 순 같은 아들이 있었고, 주는 형의 아들이 되고 또 군왕이기는 하지만 미자 계와 왕자 비간과 같은 이가 있었다’ 하는데, 이제 ‘성이란 선한 것이다’ 하시니, 그렇다면 그들의 말은 모두 잘못 인가요?”

맹자가 말하기를 “그의 정상을 따지고 보면 선할 수 있다는 것이니, 그래서 선하다는 것이다. 만일 선하지 않은 짓을 하는 따위는 본바탕의 죄는 아닌 것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다.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다. 공경하는 마음도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

11) 맹계자(孟季子): 맹중자(孟仲子)의 아우.

12) [평설] 의외(義外)·의내(義內) 양설에 대한 시비는 결론을 못 얻은 느낌이다. 맹계자(孟季子)는 고자의 설을 따르고 공도자(公都子)는 맹자의 설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의 토론은 무승부의 감이 있다. 성론에서의 크나큰 쟁점이 아닐 수 없다.

음도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仁)이요,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의(義)다. 공경하는 마음이 예(禮)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지(智)다. 인·의·예·지는 밖으로부터 자신을 녹아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래 지니고 있는 것이언만, 이를 미처 깨닫지 못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구하면 얻을 것이요. 버리면 잃을 것이다’ 하는 것이니, 사람에게 따라 곱절이니 다섯 곱절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제 본 소질을 그대로 다 발휘하지 못하기에 그런 것이니, 옛 시에

하늘이 내신 못 백성들 사물이 있으면 법칙도 있지.
백성들은 변하지 않는 그것을 붙잡고 그런 덕을 좋아하느니라.

하였으니,

공자는 ‘이 시를 지은이는 이치를 아는 사람일 게야. 그러므로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도 있으니, 백성들은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까닭에 이 같은 좋은 덕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하셨다.”

公都子曰 告子曰 性 無善無不善¹³⁾也 或曰性可以爲善 可以爲不善 是故文武興則民好善 幽厲興則民好暴 或曰有性善 有性不善 是故以堯爲君而有象 以瞽瞍爲父而有舜 以紂爲兄之子 且以爲君而有微子啓王子比干 今日性善 然則彼皆非與 孟子曰 乃若其情則可以爲善¹⁴⁾矣 乃所謂善也若夫爲不善 非才之罪也 惻隱之心 人皆有之 羞惡之心 人皆有之 恭敬之心 人皆有之 是非之心 人皆有之 惻隱之心仁也 羞惡之心義也 恭敬之心禮

13) 성무선무불선(性無善無不善): 고자 성론의 구체적인 결론이니 성기류설(性杞柳說)의 설명이다.

14) 내약기정칙카이위선(乃若其情則可以爲善): 여기에 정(情)이란 감정(感情)·성정(性靜)의 정(情)이 아니라 진정(眞靜)·실정(實靜)의 정(情)이다. 곧 진실한 모습, 진실한 인간성의 모습은 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맹자는 성선이라 하였다.

也 是非之心智也 仁義禮智 非由外鑠我也 我固有之也 弗思耳矣 故曰求則得之 舍則失之 或相倍蓰而無算者 不能盡其才者也 詩曰天生蒸民¹⁵⁾ 有物有則 民之秉夷 好是懿德¹⁶⁾

맹자가 말하기를 “풍년에는 자제들이 서로 돕고, 흉년에는 자제들이 서로 괴팍스럽게 된다. 하늘이 그들의 소질을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쏟도록 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보리씨를 뿌려 흙을 덮어 주되 토질이 같고 그 시기도 같으면 풀썩풀썩 자라나서 하지 때가 되면 죄다 익어 버린다. 비록 다른 데가 있다손 치더라도 땅이 걸거나 자갈밭이거나, 비와 이슬이 길러 주는 정도라거나 순간 데가 고르지 않거나 하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므로 종류가 같으면 서로 비슷비슷한 것이니 어찌 사람에게서만 이를 의심하겠는가? 성인도 우리와 같은 부류의 인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용자는 ‘발의 크기를 모르고 신발을 만들더라도 삼태기는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하였으니, 신발이 서로 비슷비슷한 것은 천하 사람의 발이란 같기 때문이다. 입이 맛을 가리는 데에도 비슷한 데가 있으니, 역아는 우리의 입맛을 먼저 아는 사람이다. 만일 입이 맛을 가리는 점이 마치 그 본성이 사람마다 달라 짐승과 나와 다른 것과 같은 따위라면 천하 사람들이 어떻게 역아의 입맛에 맞출 수 있겠는가?

맛에 대해서는 천하가 다 역아에게 기대하나니, 이는 천하 사람의 입맛이 서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이다. 귀도 또한 그렇다. 소리에 관

15) 시왕천생증민(詩曰天生蒸民): 「대아(大雅)」 증민지편(蒸民之篇).

16) [평설] 맹자의 성설은 성선가능설(能爲)이요 성선적 경향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근거를 인의에 지의 사단에 두고 있는 것이다. 구즉득지(求則得之) 사즉실지(舍則失之)는 사단을 두고 이른 말이고 인간의 자율적 능력력에 큰 비중을 둔 말이 아닐 수 없다.

해서는 천하가 다 사광에게 기대하나니, 이는 천하 사람의 듣는 귀가 서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이다.

눈도 또한 그렇다. 자도를 보면 천하에 그의 아리따움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 자도의 아리따움을 모르면 그는 눈이 먼 사람이리라. 그러므로 ‘입맛이 맛을 가려내는 점도 같고, 귀가 소리를 골라 듣는 점도 같고, 눈이 빛깔의 아름다움을 아는 점도 같다. 속마음에 있어서만 유독 같은 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니 속마음에 있어서 같은 점이란 무엇일까? 리(理)니 의(義)니 하고 부르는 것이니, 성인은 우리 마음속에 같은 점이 있는 그것을 먼저 알고 있을 따름이라, 리(理)와 의(義)가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는 것은 마치 여러 가지 고기의 요리가 우리들의 입맛을 돋우어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孔子曰 爲此詩者 其知道乎 故有物必有則 民之秉夷也 故好是懿德 孟子曰 富歲子弟多賴 凶歲子弟多暴 非天之降才爾殊也 其所以陷溺其心者然也 今夫粳麥 播種而稷之 其地同 樹之時又同 淳然而生 至於日至之時 皆熟矣 雖有不同 則地有肥磽 雨露之養 人事之不齊也 故凡同類者 舉相似也 何獨至於人而疑之 聖人與我同類者 故龍子曰 不知足而爲屨 我知其不爲簣也 屨之相似 天下之足同也 口之於味 有同耆也 易牙先得我口之所耆者也 如使口之於味也 其性與人殊 若犬馬之與我不同類也 則天下何耆 皆從易牙之於味也 至於味 天下期於易牙¹⁷⁾ 是天下之口相似也 惟耳亦然 至於聲 天下期於師曠¹⁸⁾ 是天下之耳相似也 惟目亦然 至於子都¹⁹⁾ 天下莫不知其姣也 不知子都之姣者 無目者也 故曰口之於味也 有同耆焉 耳之於聲也 有同聽焉 目之於色也 有同美焉 至於心 獨無所同然乎

17) 역아(易牙): 옛날 맛을 잘 가릴 줄 알던 사람. 적아(狄牙)라고도 한다.

18) 사광(師曠): 귀 밝기로 유명했던 사람. 자는 자야(子野).

19) 자도(子都): 옛날 미인.

心之所同然者何也 謂理也義也 聖人先得我心之所同然耳 故理義之悅我心 猶芻豢²⁰⁾之悅我口²¹⁾

맹자가 말하기를 “우산에 있는 나무들이 전에는 울창해서 좋더니 만 큰 나라 성 밖에 있기 때문에 수다한 사람들이 도끼로 찍어내니 무성할 수 있겠는가? 이는 밤낮이 가름가름 숨 띄워 주고, 비와 이슬이 적시어 주므로 새움이 돌아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소나 양떼가 짓궂게 쫓아가서 뜯어먹는 까닭에 저렇게 맨송맨송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그 맨송맨송한 산을 보고 전에는 산에 나무라고는 없는 것처럼 여기나 그것이 어찌 산의 본성일 것인가?

비록 사람에게 간직한 본성에도 어찌 인의(仁義)의 마음이 없을 것인가? 그의 양심을 내던져 버리는 그것은 마치 도끼로 나무를 찍어 버리는 관계와 같아서 조석으로 쳐버린다면 곱게 될 수 있겠는가? 밤낮으로 가름가름 숨 띄워 주고, 새벽의 신선한 기운을 마시어 주어도 그가 좋고 그름을 가리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데가 별로 없다면, 이는 조석으로 그가 저지르는 행위가 그의 본성을 잡아 가두어 버리기 때문이니, 본성을 잡아 가두기만 하면 밤 지난 상쾌한 기분이 남아 있을 리가 없고, 밤 지난 좋은 기분이 남아 있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으리니, 사람들이 짐승 같은 것을 보고 전에는 그에게 사람다운 소질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나 이것이 어찌 사람의 본 정(情)이겠는가?

그러므로 잘 기르기만 하면 크지 않는 물건이 없고, 잘 기르지 못

20) 추환(芻豢): 추(芻)는 초식동물이요 환(豢)은 곡식동물이므로 여러 가지 종류의 동물이 된다.

21) [평설] 씨앗이 가장 중요하다. 그 씨앗을 길러 키워야 한다. 그 씨앗은 인간이면 누구나 똑같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면 찾아져 버리지 않는 물건이 없다.

공자는 ‘붙잡으면 간직되고, 버리면 없어진다. 때 없이 들고나기 때문에 그 고장도 알 수 없다’ 하셨는데, 이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 말씀인가 한다.”

孟子曰 牛山²²⁾之木 嘗美矣 以其郊於大國也 斧斤 伐之 可以爲美乎 是其日夜之所息 雨露之所潤 非無萌蘖之生焉 牛羊 又從而牧之 是以 若彼濯濯也 人見其濯濯也 以爲未嘗有材焉 此豈山之性也哉 雖存乎人者 豈無仁義之心哉 其所以放其良心者 亦猶斧斤之於木也 旦旦而伐之 可以爲美乎 其日夜之所息 平旦之氣 其好惡與人相近也者幾希 則其旦晝之所爲 有梏亡之矣 梏之反覆 則其夜氣不足以存 夜氣不足以存 則其違禽獸不遠矣 人見其禽獸也 而以爲未嘗有才焉者 是豈人之情也哉故苟得其養 無物不長 苟失其養 無物不消孔子曰 操則存 舍則亡²³⁾ 出入無時 莫知其鄉 惟心之謂與²⁴⁾

맹자가 말하기를 “왕이 지혜롭지 못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소이다.

비록 천하에 손쉽게 자라는 물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하루 동안만 별을 바짝 쬐이게 하고, 열흘 동안을 차게 한다면 살아날 놈은 하나도 없으리다. 내가 벌 기회도 드물고 내가 물러가면 왕의 마음을 시켜 버릴 무리들이 모여들 터이니, 난들 어떻게 새싹이 움돋게 할 수 있겠소이까?

22) 우산(牛山): 제나라 동남에 있는 산 이름.

23) 조즉존사즉망(操則存舍則亡): 인의지심(仁義之心)은 행수어묵지간(行睡語默之間)에 놓치기가 쉬운 것이므로 아차 잘못했다는 후회가 없도록 잘 조심하라는 뜻.

24) [평설] 야기(夜氣)는 정기(靜氣)요 청기(淸氣)인 것이다. 어쩌면 호연지기인지도 모른다. 인간에게 잠재한 선단(善端)의 기화(氣化)인지도 모른다. 양기설(養氣說)의 근원이 되는 자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한 야기(夜氣)는 인정(人情)이고 인의지심(仁義之心)이니 항상 이를 북돋우고 길러서 키워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체 바둑 두는 기술이란 잔기술에 지나지 않지만 한 골수로 뜻을 두고 두지 않으면 이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혁추라는 사람은 온 나라를 통틀어도 드문 명수입니다. 혁추로 하여금 두 사람에게 바둑을 가르치게 할 때 그중 한 사람은 한 골수로 뜻을 모아 혁추의 말만 골똘히 듣고, 한 사람은 듣기는 듣지마는 딴 정신으로는 기러기가 날아올 것이니 줄살로 활을 당겨 이놈을 쏘아보리라. 그런 생각을 한다면 비록 둘이서 함께 배운다손 치더라도 서로 같은 기술은 될 수 없을 것이니, 이는 그들의 지능이 같지 않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하겠습니까.”

孟子曰 無或²⁵⁾乎王²⁶⁾之不智也 雖有天下易生之物也 一日暴²⁷⁾之 十日寒之 未有能生者也 吾見 亦罕矣 吾退而寒之者至矣 吾如有萌焉 何哉 今夫奕之爲數 小數也 不專心致志 則不得也 奕秋 通國之善奕者也 使奕秋 誨二人奕 其一人 專心致志 惟奕秋之爲聽 一人 雖聽之 一心 以爲有鴻鵠 將至 思援弓繳而射之 雖與之俱學 弗若之矣 爲是其智弗若與 曰非然也²⁸⁾

맹자가 말하기를 “물고기도 욕심이 나고, 곰의 장심살도 욕심이 나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가 없다면 물고기를 버리고 곰의 장심살을 차지하라. 삶도 바라는 것이요, 의(義)도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가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

25) 혹(或): 혹(惑).

26) 왕(王): 제왕(齊王).

27) 폭(暴): 폭(曝).

28) [평설] 인간이 지닌 도심-성선의 근거-의 씨는 극히 미소하다. 그러므로 이를 기르는 자율적 힘-노력-이 강대하지 않는 한 이는 제구실을 다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인심은 그 힘이 크기 때문이다. 일일폭지(一日暴之) 십일한지(十日寒之)는 그 힘의 비율을 10:1로 간주한 것을 의미한다. 극기의 노력이 지난한 까닭은 여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를 취하리라. 삶도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하고 싶은 것이 삶보다도 더한 것이 있으니, 그러므로 구차히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며, 죽음이란 또한 싫은 것이지만, 싫은 것에 죽음보다 더한 것이 있으니, 그러므로 환란도 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일 사람이 하고 싶은 것에 삶보다도 더한 것이 없다고 하면 살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떠한 수단인들 안 쓸 것이며, 사람이 싫어하는 것에 죽음보다 더한 것이 없다면, 환란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인들 못 할 것인가?

그러기에 살 수 있더라도 수단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에 환란을 피할 수 있더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일에 삶보다 더한 것이 있고, 싫은 일에 죽음보다 더한 것이 있으니, 현인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지만, 현인은 이 마음을 잘 간직하여 잃어버리지 않을 따름이다.

한 바구니의 밥과 한 그릇의 콩죽을 얻어먹으면 살고 얻어먹지 못하면 죽더라도 혀를 끝끝 차면서 준다면 길거리의 사람이라도 반겨 받지 않을 것이며 발길로 툭툭 차면서 준다면 비렁뱅이도 달콤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만종(萬鍾)의 녹이면 예의를 가리지 않고 받으니, 만종의 녹이 내게 다 무엇을 보태어 주는가? 아마도 집간이나 고이 꾸밀 수 있고, 처첩을 거둘 수 있고 가난뱅이 친구들이 내게 와서 얻어먹게 되는 정도이겠지.

앞선에는 자신이 죽게 되어도 받지 않더니 이제 집간이나 꾸미게 된단니까 만종의 녹을 받고, 앞선에는 자신이 죽게 되어도 받지 않더니, 이제 처첩을 거두게 된단니까 만종의 녹을 받고, 앞선에는 자신이 죽게 되어도 받지 않더니, 이제 가난뱅이 친구들이 내게 와서

얻어먹게 된다니까 예의를 가리지 않고, 만종의 녹을 받으니 그 때 그만 퇴락할 수 없어서 받는 것인가? 이런 것을 일러 제 본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孟子曰 魚我所欲也 熊掌 亦我所欲也 二者 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者也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 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生亦我所欲 所欲有甚於生者 故不爲苟得也 死亦我所惡 所惡有甚於死者 故患有所不辟也 如使人之所欲 莫甚於生 則凡可以得生者 何不用也 使人之所惡 莫甚於死者 則凡可以辟患者 何不爲也由是則生而有不用也 由是則可以辟患而有不爲也 是故 所欲 有甚於生者 所惡 有甚於死者 非獨賢者有是心也 人皆有之 賢者 能勿喪耳 一簞食 一豆羹 得之則生 弗得則死 噲爾而與之 行道之人 弗受 蹴爾而與之 乞人 不屑也 萬鍾²⁹⁾則不辯禮義而受之 萬鍾 於我何加焉 爲宮室之美 妻妾之奉 所識窮乏者得我與 鄉³⁰⁾爲身 死而不受 今爲宮室之美 爲之 鄉爲身 死而不受 今爲妻妾之奉 爲之 鄉爲身 死而不受 今爲所識窮乏者得我而爲之 是亦不可以已乎 此之謂失其本心³¹⁾

맹자가 말하기를 “인(仁)이란 사람의 마음이요, 의(義)란 사람의 길이다. 제 길을 버리고 제 길로 가지 않으며 제 본마음을 내던지고 다시 찾을 줄을 모르니 슬픈 일이야! 사람들은 제 답이나 개가 달아나면 찾을 줄을 알지만 제 본심을 내던지고도 찾을 줄을 모른다.

학문의 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내던져 버린 제 본심을 찾자는 데에 있을 따름이다.”

29) 종(鍾): 육곡사두(六斛四斗).

30) 향(鄉): 향(嚮).

31) [평설] 생(生)보다도 더 중한 의(義)가 있으니 의(義)를 위하여 생(生)을 버리는 것이 존귀함은 이 까닭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義)를 버리고 생(生)만을 취하는 것은 몰육 때문이니 만일 몰육 때문에 의(義)를 버린다면 그는 그야말로 인간의 본심-본성-을 버린 사람이 될 따름인 것이다.

孟子曰 仁人心也 義人路也 舍其路而不由 放其心而不知求 哀哉 人有雞
犬放則知求之 有放心³²⁾而不知求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³³⁾而已矣³⁴⁾

맹자가 말하기를 “이제 무명지 손가락이 굽어서 펴지를 못하면, 쭈시고 아파서 일을 못 할 지경이 아니라도, 펴준다는 사람만 있으면 진나라니 초나라니 길도 멀다 하지 않고 쫓아가니, 이는 손가락이 남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남의 것과 같지 않으면 언짢게 여기면서, 자기의 본심이 남과 같지 않은 것은 언짢게 여길 줄 모르니, 이런 것을 가리켜 일의 갈피를 분간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孟子曰 今有無名之指 屈而不信³⁵⁾ 非疾痛苦事也 如有能信之者 則不遠
秦楚之路 爲指之不若人也 指不若人 則知惡之 心不若人 則不知惡 此之
謂不知類也³⁶⁾

맹자가 말하길 “아름드리 좋은 나무를 키워 내자면 사람마다 어떻게 길러야 할 것쯤은 다 잘 알고 있으나, 제 자신이 어떻게 수양하여야 할 줄은 모르고 있으니, 어찌 제 자신을 아끼는 품이 오동이나 가락나무를 아끼는 것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소견이 없는 품도 이만

32) 방심(放心): 인(仁)이라고 하는 안택(安宅)을 버린 것.

33) 구기방심(求其放心): 인(仁)이란 안택(安宅)을 도로 찾는 노력(努力).

34) [평설] 인(仁)을 인심(人心)으로 파악하면 실천윤리로서의 인(仁)을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여기서의 인심(人心)은 아마도 신명이 깃든 도심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도심만이 신명과도 통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仁)을 심(心) 쪽에서 본다면 사단지심(四端之心)으로 표현될 인간의 마음으로 풀 수도 있을 것이다.

35) 신(伸): 신(伸).

36) 류(類): 경중(輕重). 비류(比類).

[평설] 인성의 본질인 도심만큼 존귀한 것은 없다. 만일 도심에 흠이 있다면 그것은 곧 인간이 병들어 있음을 의미한다. 맹자는 수족보다도 본심의 병을 더욱 경계한 것은 그것은 곧 인성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맹자의 학은 이처럼 심성의 내면세계를 크게 중요시하고 있다.

저만해야지.”

孟子曰 拱把之桐梓 人苟欲生之 皆知所以養之者 至於身 而不知所以養之者 豈愛身 不若桐梓哉 弗思甚也³⁷⁾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제 육체는 어디를 물론하고 아낀다. 어디를 물론하고 아끼면 이를 북돋아 주어야 할 것이다. 한 뼉 남짓한 거죽이라도 아끼지 않는 곳이 없다면 한 뼉 남짓한 거죽이라도 북돋아 주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착하고 착하지 않는 것을 가려내는 것은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냐? 제 자신이 차지해야 할 것을 가려내자는 데 있는 것일 따름이다.

몸에도 귀하고 천한 것이 있고, 크고 작은 것이 있으니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해쳐도 안 되며, 천한 것으로 귀한 것을 해쳐도 안 되는 것이니, 작은 것을 기르면 작은 인물이 되고, 큰 것을 기르면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제 정원의 수목을 가꾸는 사내가 오동이나 가나무는 버리고 신대추나무 가시를 길러낸다면 보잘것없는 일꾼이 될 것이다. 손가락 한 개를 길러내자고 어깨나 등골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있다면, 그는 낭질(狼疾) 환자가 되고 말 것이다.

먹고만 지나가는 사람을 남들은 천하게 여길 것이니 작은 것인 몸을 기르기 위해서 큰 것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먹고만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옳은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입과 배통

37) [평설] 자신을 기른다는 것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도심-성-을 기른다는 것이다. 선(善)의 씨앗을 키운다는 것이다. 결코 육체의 봉양이 아님은 다시 말할 나위 없다.

아리가 어찌 한 뼘 남짓한 거죽만을 위해서 있을 것일까?”

孟子曰 人之於身也 兼所愛 兼所愛則兼所養也 無尺寸之膚 不愛焉則無尺寸之膚 不養也 所以考其善不善者 豈有他哉 於己 取之而已矣 體有貴賤³⁸⁾ 有大小 無以小害大 無以賤害貴 養其小者 爲小人 養其大者 爲大人 今有場師 舍其梧櫟 養其楓棘 則爲賤場師焉 養其一指 而失其肩背而不知也 則爲狼疾人也 飲食之人 則人賤之矣 爲其養小以失大也 飲食之人 無有失也 則口腹 豈適爲尺寸之膚哉³⁹⁾

공도자가 묻기를 “다 같은 사람이언만 혹은 큰 인물이 되고 혹은 작은 인물이 되니 왜 그럴까요? 맹자 ‘대체(大體)인 마음을 따르면 큰 인물이 되고, 소체(小體)인 육체를 따르면 소인이 되느니라.”

“다 같은 사람인데도 혹은 대체를 따르고 혹은 소체를 따르니 왜 그럴까요?”

“귀나 눈의 구실이란 생각하는 힘이 없으므로 물욕으로 인해서 가리워지는 것이니, 물욕과 물욕이 서로 얽히면 그곳으로 끌려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마음의 구실이란 생각하는 힘이 있으므로 생각하면 깨닫게 되고 생각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이는 하늘이 내게 주신 천성이니, 먼저 대체를 확립하여 놓으면 소체는 대체를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래야만 큰 인물이 되는 것이다.”

公都子問 曰鈞是人也 或爲大人 或爲小人 何也 爲小人 孟子曰 從其大體爲大人 從其小體爲小人 曰鈞是人也 或從其大體⁴⁰⁾ 或從其小體⁴¹⁾ 也

38) 귀체·대체(貴體·大體): 심지(心志), 천체(賤體)·소체(小體): 구복(口腹).

39) [평설] 심(心)과 신(身)의 관계는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의미한다. 정신이 육체에 우선함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맹자에 있어서의 정신은 곧 성의 본질인 도심 바로 그것인 것이다.

40) 대체(大體): 심(心), 도심(道心). 이성(理性).

曰耳目之官 不思⁴²⁾而蔽於物 物交物則引 之而已矣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 此天之與我者 先立乎其大者 則其小者 不能奪也 此爲大人而已矣⁴³⁾

맹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준 벼슬이 있고 사람이 준 벼슬이 있으니, 인애롭고 의롭고 충실하며 믿음직하여 착함을 즐기면서 꾸준히 나아가는 그것은 하늘이 준 벼슬이요, 공(公)이니 경(卿)이니 대부(大夫)니는 사람이 준 벼슬이다. 옛사람들은 하늘이 준 벼슬을 가다듬어 가면서 사람이 준 벼슬이 그 뒤를 따르게 하였다.

요새 사람들은 하늘이 준 벼슬을 가다듬어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이 준 벼슬을 구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준 벼슬을 얻고 나면 하늘이 준 벼슬은 버려 버리니 얼빠진 수작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끝장에는 제 자신을 망쳐버릴 따름인 것이다.”

孟子曰 有天爵者 有人爵⁴⁴⁾者 仁義忠信 樂善不倦 此天爵也 公卿大夫 此人爵也 古之人 修其天爵而人爵從之 今之人 修其天爵 以要人爵 既得人爵而棄其天爵 則或之甚者也 終亦必亡而已矣⁴⁵⁾

맹자가 말하기를 “귀하게 되고 싶은 마음은 사람마다 다 같다. 사

41) 소체(小體): 인심(人心), 감성(感性).

42) 사(思): 판단(判斷), 비판(批判).

43) [평설] 대인이란 결코 신장체대(身長體大)한 자를 가리킨 것이 아니다. 위대한 인격을 지닌 대현군자(大賢君子)를 의미한다. 그는 바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인이고 그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의 체(體) - 대(大) · 소체(小體) - 는 질량을 지닌 유형한 자가 아니라 거저 ‘것’이란 의미로 쓰인 자에 지나지 않는다.

44) 작(爵): 주어진 것으로서 귀(貴)한 것을 의미한다.

45) [평설] 인인(仁人)이다 의인(義人)이다 충신지인(忠信之人)이다 하는 이름은 실로 하늘에서 얻은 귀한 이름이다. 그러므로 유형(有形)한 교지(教旨)도 사령장(辭令狀)도 없다. 그것은 곧 인간성에 근거한 작위이니 어찌 일인의 군주에게서 받은 작위에 비길 수 있을 것인가?

람이면 누구나 다 귀한 것을 지니고 있지만 생각해 내지 않을 따름이다.

사람이 귀하게 만들어 준 것은 진정한 귀(貴)가 아니다. 조맹이 귀하게 만들어 준 것은 조맹이 천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옛 시에

이미 술에 취했고
이미 덕에 배불러!

라 하였으니, 인의로 배가 불렀기에 남의 기름진 음식을 바라지 않는 것이요, 좋은 평판과 드날리는 명예가 온몸에 젖어 있으니, 남이 수놓아 준 옷쯤은 거들떠볼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孟子曰 欲貴者 人之同心也 人人 有貴於己者 弗思耳人之所貴者 非良貴⁴⁶⁾也 趙孟⁴⁷⁾之所貴 趙孟能賤之 詩云 既醉以酒⁴⁸⁾ 既飽以德 言飽乎仁義也 所以不願人之膏粱之味也 令聞廣譽施於身 所以不願人之文繡也⁴⁹⁾

맹자가 말하기를 “인(仁)이 인(仁) 아님을 이겨내는 것은, 마치 물이 불을 이겨냄과 같다. 요새 인을 실천한답시는 사람들은, 마치 한 종지 물로 한 수레나 되는 장작더미 불을 끄려고 하는 것과 같은지라, 이때에 불이 꺼지지 않으면 물은 불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라

46) 양귀(良貴): 선천적 작위. 도심.

47) 조맹(趙孟): 진나라 경(卿) 벼슬아치다.

48) 시운기취이주(詩云既醉以酒): 「대야(大雅)」 기취지편(既醉之篇)

49) [평설] 사람이 준 벼슬은 그 사람의 손으로 다시 뺏을 수도 있지만 하늘이 준 벼슬은 사람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기에 진실로 양귀(良貴)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작(人爵)은 일시적인 것이요, 천작(天爵)은 영원한 것이다.

고 떠들어대니, 그런 사람은 인아님에 가담하는 품이 이만저만한 자가 아니다. 제 자신도 끝장에는 망하고야 말 것이다.”

孟子曰 仁之勝不仁也 猶水勝火 今之爲仁者 猶以一杯水 救一車薪之火也 不熄則謂之水不勝火 此 又與於不仁之甚者也亦終必亡⁵⁰⁾而已矣⁵¹⁾

맹자가 말하기를 “오곡은 씨앗 중에도 아름다운 종자지만, 만일 익지 않으면 피나 조만도 못한 것이니, 인(仁)도 또한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는 데에서만 그 결과가 빛날 것이다.”

孟子曰 五穀⁵²⁾者 種之美者也 苟爲不熟 不如萁稗 夫仁 亦在乎熟之而已矣⁵³⁾

맹자가 말하기를 “예라는 사람이 남에게 활쏘기를 가르칠 때 반드시 힘껏 끌어당기도록 주의를 시켰고, 배우는 사람도 힘껏 끌어당기는 데 반드시 주의를 하였다.

대목(大木)이 남을 깨우쳐 줄 때도 반드시 곡척과 정규를 썼고, 배우는 사람도 반드시 또한 곡척과 정규를 썼다.”

50) 망(亡): 실(失).

51) [평설] 질(質)과 아울러 양(量)도 문제가 된다. 소선(小善)은 대악(大惡)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그 까닭이다. 적선지가(積善之家)라야 종필유경(終必有慶)은 그 까닭인 것이다. 사수지선(斯須之善)으로 는 적악(積惡)을 화(禍)를 면치 못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52) 오곡(五穀): 벼·조·콩·기장·보리.

53) [평설] 성숙-원숙-을 미덕으로 삼는 것은 선(善)은 성과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행선(行善)은 동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행(善行)의 과정과 결과에 있는 것이니 원숙한 최종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이 까닭인 것이다.

孟子曰 羿⁵⁴⁾之教人射 必志於彀 學者 亦必志於彀 大匠 誨人 必以規矩
學者 亦必規矩⁵⁵⁾

54) 예(羿): 활 잘 쏘던 사람.

55) [평설] 교육에는 방법이 있고 방법에는 기준이 있는 것이다. 인간교육의 기준은 선에 있고 선(善)의 기준은 천부도심(天賦道心)의 계발에 있으니 도심이야말로 인간교육의 구구인 것이다.

고자 하

임나라 사람이 옥려자더러 묻기를 “예의와 음식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의가 중요하지.”

“색과 예의와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의가 중요하지.”

“예의를 차려가며 먹어야 한다면 굶어죽겠고, 예의를 차리지 않고 먹자면 얻어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의를 차려야 할까요? 예의를 차려야만 한다면, 마누라를 얻을 수 없고,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면 마누라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의를 갖추어서 맞아들여야 할까요?”

옥려자는 대답을 못 하고 그다음 날 추 땅으로 가서 맹자에게 그대로 여쭙즉,

맹자가 말하기를 “그걸 대답하는데 무엇이 어렵담. 그 근본을 헤아리지 않고 가지만을 간추린다면, 한 치 남짓한 나무로 높은 지붕 마름 끝보다 높게 할 수 있을 거야! 쇠붙이가 날개깃보다 무겁다는 것은 어찌 한 갈고리 쇠붙이가 한 수레 북덕이의 날개깃보다도 무거

우리라는 것을 말한 것일까?

먹는 것의 중요한 것과 예의의 하찮은 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한다면 어찌하여 먹는 것만이 중요할 것이며, 색의 중요한 것과 예의의 중요한 것과는 서로 비교한다면 어찌하여 색만이 중요할 것인가!

그대가 가거들랑 ‘형의 어깨를 비틀어야만 빼앗아 먹을 수 있고, 비틀지 않으면 얻어먹을 수가 없다고 하여도, 그래도 형의 어깨를 비틀 텐가? 동편 이웃집 담장을 뛰어넘어 가서 그 집 처녀를 끌고 와야만 장가들 수 있고 끌고 오지 않으면 장가들 수가 없다고 하여도, 그래도 끌고 올 텐가?’ 그렇게 대답하라.”

任¹⁾人 有問屋廬子²⁾曰 禮與食 孰重 曰禮重 色與禮 孰重 曰禮重 曰以禮食則飢而死 不以禮食則得食 必以禮乎 親迎則不得妻 不親迎則得妻 必親迎乎 屋廬子不能對 明日之鄒³⁾ 以告孟子 孟子曰 於答是也 何有不揣其本而齊其末 方寸之木 可使高於岑樓 金重於羽者 豈謂一鈞金與一輿羽之謂哉 取食之重者 與禮之輕者 而比之 奚翅食重 取色之重者 與禮之輕者 而比之 奚翅色重 往應之曰 紵兄之臂 而奪之食則得食 不紵則不得食 則將紵之乎 踰東家牆而摟其處子則得妻 不摟則不得妻 則將摟之乎⁴⁾

조교가 묻기를 “사람마다 다 요순같이 될 수 있다니 그럴 수 있을까요?”

맹자가 말하기를 “그렇다.”

1) 임(任): 제초지간(齊楚之間)의 작은 나라 이름.

2) 옥려자(屋廬子): 맹자의 제자. 이름은 연(連).

3) 추(鄒): 맹자의 고향.

4) [평설] 식색은 인간의 감성적 본능이요 예는 형식적 구속인 것이다. 본능적 충족을 위하여 예를 버릴 것인가? 예를 존중하기 위하여 본능적 감정을 버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예의 기능은 본능의 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의 조절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제가 듣기에는 문왕은 키가 열 자요, 탕왕은 키가 아홉 자라 하는데, 제 키가 아홉 자 네 치나 됩니다. 거저 조밥만 먹고 지날 따름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다. 실행하면 되는 것이야.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의 힘으로는 병아리 한 마리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는 힘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100근(鈞)의 무게도 들 수 있다 하면 힘센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확 같은 역사의 일을 한다면 그도 또한 오확같이 된 것이다. 어째서 사람들은 미리서부터 이겨내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것인지! 제가 힘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는 것을 공손하다 하는 것이요, 어른들의 앞장을 재빨리 넘어서는 것을 불공스럽다 하는 것이니, 천천히 따라가는 따위의 일을 누구는 못 할 일일 것이냐? 하려 하지 않는 까닭이니, 요순의 도라는 것도 효성스럽고 공손하면 되는 것이다.

그대가 요의 의복을 입고 요의 말을 외우고 요의 하는 일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요인 것이요, 그대가 결의 의복을 입고 결의 말을 외우고 결이 하는 일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결인 것이다.”

“제가 주의 추군을 만나게 되면 집 한 채는 빌릴 수 있으니, 거기 머물러 선생의 문하에서 학업을 닦고 싶습니다.”

“그 도라는 것은 마치 큰길과 같으니, 어찌 알기 어려운 일일 것이냐? 사람들의 병통은 이것을 찾으려 하지 않는 데 있으니, 그대가 돌아가서 이것을 구한다면 선생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曹交⁵⁾問曰 人皆可以爲堯舜⁶⁾ 有諸 孟子曰然 交聞文王十尺 湯九尺 今

交九尺四寸以長 食粟而已 如何則可 曰奚有於是 亦爲之而已矣 有人於此 力不能勝一匹雛 則爲無力人矣 今曰舉百鈞 則爲有力人矣 然則舉烏獲之任 是亦爲烏獲而已矣 夫人 豈以不勝爲患哉 弗爲耳 徐行後長者 謂之弟⁷⁾ 疾行先長者 謂之不弟 夫徐行者 豈人所不能哉 所不爲也 堯舜之道 孝弟而已矣 子服堯之服 誦堯之言 行堯之行 是堯而已矣 子服桀之服 誦桀之言 行桀之行 是桀而已矣 曰交得見於鄒君 可以假館 願留而受業於門 曰夫道 若大路然 豈難知哉 人病不求耳 子歸而求之 有餘師⁸⁾

공손추가 묻기를 “고자가 ‘소변(小弁)의 시(詩)는 소인의 시입니다’ 하더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왜 그렇게 말하는가?”

“원망했기에 그렇습니다.”

“고지식하기도 하다. 고영감의 시의 해석은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자. 월나라 사람이 활을 끌어당겨 쏘아 죽이려 할 때, 그는 꺾꺾 웃으면서 상대자를 타이르는 것은 다름 아니라 탄 남으로 치워 버리는 까닭이요, 그의 형이 활을 끌어당겨 쏘아 죽이려 할 때 그는 눈물을 푹푹 떨어뜨리면서 그 형을 타이르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를 동기간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소변시의 원망은 친척을 친애하는 까닭이요, 친척을 친애함은 곧 인(仁)인 것이니 고지식도 하지. 고영감의 시의 해석은!”

“개남(凱風)의 시는 왜 원망하지 않았는가요?”

“개풍은 친척의 허물이 적은 것이요, 소변은 친척의 허물이 큰 것

5) 조교(曹交): 조군(曹君)의 아우.

6) 인개기이위요순(人皆可以爲堯舜): 사람마다 요순과 같은 ‘인의(仁義)의 인(人)’이 될 수 있다는 뜻.

7) 제(弟): 제(悌).

8) [평설] 요순 같은 성(聖)은 인간의 목표-목적-요 목표에 도달하고 못 함은 범인의 책임인 것이다. 성인(聖人)이란 결코 절대적 존재가 아니다. 범인에게도 가능성 존재인 것이다. 문제는 거기까지 가려는 의욕-입지(立志)-과 의욕의 실천 여하에 있을 따름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율적 위불위(爲不爲)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니, 친척의 허물이 큰데도 원망하지 않으면 이는 더욱 멀리하는 셈이요, 친척의 허물이 적은데도 원망한다면 이는 지나친 감정이니, 더욱 멀리하는 것도 불효인 것이요, 지나친 감정도 불효인 것이다.

공자는 ‘순은 지극한 효자이다. 신이 되어도 그리워하시니’ 하셨다.”

公孫丑問曰 高子⁹⁾曰 小弁¹⁰⁾ 小人之詩也 孟子曰 何以言之 曰怨 曰固哉 高叟之爲詩也 有人於此 越人 關弓而射之 則已 談笑而道之 無他 疏之也 其兄關弓而射之 則已垂涕泣而道之 無他 戚之也 小弁之怨 親親也 親親仁也 固矣夫 高叟之爲詩也曰凱風¹¹⁾ 何以不怨 曰凱風 親之過小者也 小弁 親之過大者也 親之過大而不怨 是愈疏也 親之過小而怨 是不可磯也 愈疏不孝也 不可磯 亦不孝也 孔子曰 舜其至孝矣 五十而慕¹²⁾

송경이 초나라로 갈 때, 맹자는 그를 석구에서 만나 “선생은 어디로 가시렵니까?”

송경이 말하기를 “내가 듣기에도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준비한다기에 나는 초왕을 만나서 그리 못 하도록 말리려 하는데, 초왕이 싫어하면 나는 진왕을 만나서 그리 못 하도록 타일러 볼까 합니다. 두 왕 중에 뜻 맞는 분이 한 분은 있겠지요?”

“저는 그 자세한 내용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요지만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9) 고자(高子): 제인(齊人)이다.

10) 소변(小弁): 「소아(小雅) 편명(篇名).

11) 개풍(凱風): 「패풍(邶風) 편명(篇名).

12) [평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크게 돌로 나누면 혈연관계와 비혈연관계라 할 수 있다. 혈연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밀착관계이므로 상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노여움과 원망도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노여움이 없다면 그만큼 정이 소원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비혈연관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처럼 맹자의 시론(詩論)은 인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둘의 불리한 점을 지적해 주려고 합니다.”

“선생의 뜻으로 말하면 장하십니다. 그러나 선생의 주장은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생이 이해로 따져서 진·초 두 나라 왕을 세복하시면 진·초 두 나라 왕이 이해라는 점에 다소곳하여 삼군의 출병을 중지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삼군의 병사들도 출병의 중지를 즐거하면서 이해에 있어서 다소곳해질 것입니다. 남의 신하가 된 자로 이해를 따져가면서 그의 주군을 섬기고, 남의 아들이 된 자로 이해를 따져가면서 그의 아버지를 섬기며, 남의 아우가 된 자로 이해를 따져가면서 그의 형을 섬긴다면 이는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형과 아우가 결국 인과 의를 떠나서 이해만을 따지면서 접촉하게 될 것이니, 그러고도 망하지 않을 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선생이 인과 의로 진·초 두 나라의 왕을 세복하시면 진·초의 왕은 인과 의라는 점에 다소곳하여 삼군의 출병을 중지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삼군의 병사들도 출병의 중지를 즐거하면서 인과 의에 대하여 다소곳해질 것입니다. 남의 신하가 된 자로 인의의 정신으로 그의 주군을 섬기고 남의 아들이 된 자로 인의의 정신으로 그의 아버지를 섬기며, 남의 아우가 된 자로 인의의 정신으로 그의 형을 섬긴다면 이는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형과 아우가 이해를 떠나서 인의의 정신으로 서로 접촉하게 될 것이니, 그렇다면 왕노릇 못 할 자는 결코 없을 것이니, 왜 하필 이해라는 것을 내세우십니까?”

宋經¹³⁾ 將之楚 孟子遇於石丘 曰先生 將何之 曰吾聞秦楚構兵 我將見

13) 송경(宋經): 송(宋)은 성이요 경(經)은 이름인데 공리주의의 묵자학과 맹자가 공리주의를 배격함은 양혜왕과의 문답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유교도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주장하는 실리적인 면이 없

楚王 說而罷之 楚王 不悅 我將見秦王 說而罷之 二王我將有所遇焉 曰 軻也 請無問其詳 願聞其指 說之將如何 曰我將言其不利也 曰先生之志 則大矣 先生之說則不可 先生 以利說秦楚之王 秦楚之王 悅於利 以罷三軍之師 是三軍之士 樂罷而悅於利也 爲人臣者 懷利以事其君 爲人子者 懷利以事其父 爲人弟者 懷利以事其兄 是君臣父子兄弟 終去仁義 懷利以相接 然而不亡者 未之有也 先生 以仁義說秦楚之王 秦楚之王 悅於仁義 而罷三軍之師 是三軍之士 樂罷而悅於仁義也 爲人臣者 懷仁義以事其君 爲人子者 懷仁義以事其父 爲人弟者 懷仁義以事其兄 是君臣父子兄弟 去利 懷仁義 以相接也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何必曰利

맹자가 추나라에 있을 적에 계임이란 이가 임나라의 섭정으로 있으면서 패물을 보내어 서로 사귀고자 하였는데 이를 받기만 하고 갚지 않았으며, 평륙에 있을 적에 저자라는 이가 재상으로 있으면서 패물을 보내어 서로 사귀고자 하였는데, 이것도 받기만 하고 갚지 않았다. 그 후에 추나라를 거쳐 임나라로 가서 계자를 만났고, 평륙을 거쳐 초나라로 가서는 저자를 만나지 않았다. 옥려자가 기뻐하고 “나는 질문할 재료를 얻었다” 하면서 묻기를 “선생께서 임나라에 가서는 계자를 만나시고 제나라에 가서는 저자를 만나지 않으시니, 그가 재상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게 아니야. 옛 글에 ‘받들어 올리는 데는 예의범절이 많으니라. 예의범절이 예물만도 못하면 받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다 함은, 받들어 올리는 정성이 부족한 탓이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받들어 올린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옥려자가 알아듣고 만족하거늘, 어느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다. 옥려자는 “계자는 추나라로 갈 수 없었기에 예물만 보낸 것이요, 저

지 않으나 사상적 근간은 인의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자는 평육 지방으로 갈 수 있었건만 예물만 보냈기 때문이다.”

孟子居鄒 季任¹⁴⁾ 爲任處守 以幣交 受之而不報 處於平陸¹⁵⁾ 儲子¹⁶⁾爲相 以幣交 受之而不報他日 由鄒之任 見季子 由平陸之齊 不見儲子 屋廬子喜曰 連得間矣問曰 夫子之任 見季子之齊 不見儲子 爲其爲相與 曰非也 書曰享多儀¹⁷⁾ 儀不及物 曰不享 惟不役志于享爲其不成享也 屋廬子悅 或問之 屋廬子 曰季子 不得之鄒 儲子 得之平陸¹⁸⁾

순우근이 말하기를 “먼저 명예와 공로를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요, 명예와 공로를 뒤로 미루는 사람은 나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선생께서는 시방 삼경 벼슬의 한 사람으로 있으면서 명예와 공로가 아직 위아래로 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떠나시니, 인을 주장하는 사람도 대체 그럴 수 있는가요?”

맹자가 말하기를 “현명한 자신이 낮은 지위에 앉아서 어리석은 사람을 섬기지 않은 이가 백이입니다. 다섯 차례 탕왕에게 나아가고 다섯 차례나 걸왕에게 나아간 이가 이윤입니다. 찌꺼분한 군주도 싫어하지 않고 하찮은 벼슬도 사양하지 않은 이가 유하혜입니다. 이 세 분이 서로 방법은 같지 않으나 그들이 생각하는 점은 같으니, 같다는 점은 무엇인가? 인(仁)이니, 군자는 또한 인이면 그만인데 행동이 같을 필요야 있는가?”

14) 계인(季任): 임군(任君)의 아우.

15) 평육(平陸): 제나라의 고을이름.

16) 저자(儲子): 제의 재상.

17) 서왕향다의(書曰享多儀): 「주서(周書)」 ‘낙고(洛誥).’

18) [평설] 예물은 성의의 표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가 예물에 미치지 못한다면-직접 드릴 수 있는데도 사람을 시켜 예물만 보내는 경우-이는 예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보답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다.

“노목공 시대에 공의자가 정승이 되고 자유·자사가 신하로 있게 되었는데도 노나라는 자꾸 깎이기만 하였으니, 이렇듯 현인이라도 국가에 별로 이로울 것이 없는 품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나라는 백리해를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고, 진나라는 그를 채용했기 때문에 패업을 이루었으니, 현인을 채용하지 않으면 망하는 법이라, 어찌 영토가 깎이우는 정도일 것인가?”

“옛날 왕표라는 사람이 기수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해서 사람들은 노래를 잘 읊었고, 면구라는 사람이 고당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나라 서쪽 사람들은 노래를 잘 불렀고, 화주와 기량의 처는 남편이 죽자 슬피 울었기 때문에 나라 안 풍속을 일변하게 하였으니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는 법이라, 할 일을 하고도 공이 나타나지 않는 일을 나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현인이 있을 터이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제가 반드시 그 사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공자께서 노나라 법무장관이 되셨는데, 왕은 아직 그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있을 무렵에, 제사에 쓰고 남은 볏은 고기를 보내 주지 않으므로 의관을 벗을 사이도 없이 급히 떠나 버리시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 고기 때문이라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무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공자로 말하면 자그마한 허물이나 마 핑계로 하여 물러서려 한 것이지, 구차한 이유를 만들어 떠나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이니, 군자의 하는 일을 범범한 사람들은 본시 모르는 것입니다.”

淳于髡 曰先名實者 爲人也 後名實者 自爲也 夫子 在三卿之中 名實 未

加於上下而去之 仁者 固如此乎 孟子曰 居下位 不以賢事不肖者 伯夷也 五就湯 五就桀者 伊尹也 不惡汚君 不辭小官者 柳下惠也 三者不同道 其趨一也 一者何也 曰仁也 君子亦仁而已矣 何必同 曰魯繆公之時 公儀子¹⁹⁾爲政 子柳子思爲臣 魯之削也滋甚 若是乎賢者之無益於國也曰虞不用百里奚而亡 秦穆公 用之而霸 不用賢則亡 削何可得與 曰昔者 王豹²⁰⁾處於淇而河西善謳 綿駒處於高唐 而齊右善歌 華周杞梁²¹⁾之妻 善哭其夫而變國俗 有諸內 必形諸外 爲其事而無其功者 髡未嘗覩之也 是故 無賢者也 有則髡必識之 曰孔子爲魯司寇²²⁾ 不用 從而祭 燔肉不至 不脫冕而行 不知者 以爲爲肉也 其知者 以爲爲無禮也 乃孔子則 欲以微罪行 不欲爲苟去 君子之所爲 衆人 固不識也²³⁾

맹자가 말하기를 “오패(五霸)는 삼왕(三王)의 죄인ियो, 요즈음 제후들은 오패의 죄인ियो, 요즈음 대부들은 요즈음 제후들의 죄인이다. 천자가 제후에게 가는 것을 ‘순수’라 하고, 제후가 천자를 뵈옵는 것을 ‘술직’이라 하는데, 봄에는 밭갈이 농사를 돌보아 그들의 부족을 보충해 주며, 가을에는 추수의 형편을 살펴서 그들의 부족한 힘을 도와준다. 그들의 강토 안에 들어서 볼 때, 토지는 개간되고, 들녘은 가꾸어지고, 노인을 봉양하며 잘난 이를 존경하고, 잘난 인물들이 벼슬자리에 있으면 경사스러운 일이니, 그들에게는 토지를 더 주어 축하의 뜻을 표하고, 그들의 강토 안에 들어서 볼 때 토지는 진털밭대로 있고 늙은이를 돌보지 않으며, 잘난 이들이 버림을 받고,

19) 공의자(公儀者): 명(名)은 휴(休).

20) 왕표(王豹): 위인(衛人).

21) 화주·기양(華周·杞梁): 두 사람이 다 전사한 재신(齊臣).

22) 사구(司寇): 관명(官名). 현(現) 법무장관.

23) [평설] 명실(名實)이란 그의 직명(職名)에 부합되는 실명(實名)을 이름이다. 재상은 재상이란 이름에 부응하는 실상(實相)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명실상부함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명부어실(名浮於實)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명실(名實)의 효과는 결코 짧은 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그의 실적은 쌓이는 것이요 결코 헛된 일이 없는 것이다.

패악한 인물들이 벼슬자리에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니, 한번 와 뵈옵지 않으면 벼슬을 낮추고, 두 번 와 뵈옵지 않으면 영토를 깎아버리고, 세 번 와 뵈옵지 않으면 군사를 일으켜 그를 탄 곳으로 옮겨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천자는 그의 죄를 나무라는 것이지 그를 정복하는 것이 아닌데, 제후들은 정복이 앞을 서며 죄는 나무라지 않으니, 다섯 사람의 패자들은 모두 제후들을 끌고 다른 제후들을 정벌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오패는 삼왕의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패 중에는 환공이 가장 강성하였는데 규구의 모임에서 제후들이 회생을 묶어 놓고, 맹약의 글월을 올렸으되, 피까지는 적시지 않고 이르기를

첫째, ‘불효자는 죽이고 세자는 바꾸지 말 것이며, 첩으로 본처를 삼지 마라.’

둘째, ‘잘난 이를 존경하고 인재를 양육하여 덕 있는 이를 표창하라.’

셋째,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것들에게 따듯이 하여 주고, 손님이나 길손들의 형편을 잊지 않도록 하라.’

넷째, ‘벼슬아치들에게 세습제를 쓰지 말고, 벼슬 일을 겸하지 않도록 할지며, 선비를 고르되 적임자를 얻도록 하고, 대부들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다섯째, ‘물구비는 억지로 굽히지 말고 저축쌀의 출고를 막지 말며, 영지를 봉했거든 보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고

‘여러 우리 동맹자들은 한 번 맹약한 후에는 서로 의좋게 지나도록 하자’ 하였는데, 요즈음 제후들은 다 이 금법을 침범했으니 그러므로 ‘요즈음 제후들은 오패의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주군의 잘못을 조장하는 자는 오히려 그 죄가 적되 주군의 잘못을

선동시키려는 자는 그 죄가 크다. 요새 대부들은 거의 주군의 잘못을 선동시키니 그러므로 ‘요즈음 대부들은 요즈음 제후들의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孟子曰 五霸²⁴者 三王²⁵之罪人也 今之諸侯 五霸之罪人也 今之大夫 今之諸侯之罪人也 天子適諸侯 曰巡狩 諸侯朝於天子 曰述職 春省耕而補不足 秋省斂而助不給 入其疆 土地辟 田野治 養老尊賢 俊傑在位則有慶 慶以地 入其疆 土地荒蕪 遺老失賢 掎克在位則有讓 一不朝則貶其爵 再不朝則削其地 三不朝則六師 移之 是故 天子 討而不伐 諸侯 伐而不討 五霸者 搜諸侯 以伐諸侯者也 故曰 五霸者 三王之罪人也 五霸 桓公爲盛 葵丘²⁶之會 諸侯束牲²⁷載書²⁸而不歃血²⁹ 初命曰 誅不孝 無易樹子 無以妾爲妻 再命曰 尊賢育才 以彰有德 三命曰 敬老慈幼 無忘賓旅 四命曰 士無世官 官事無攝 取士必得 無專殺大夫 五命曰 無曲防 無遏糴 無有封而不告 曰凡我同盟之人 既盟之後 言歸於好 今之諸侯 皆犯此五禁 故曰 今之諸侯 五霸之罪人也 長君之惡 其罪小 逢君之惡 其罪大 今之大夫 皆逢君之惡 故曰 今之大夫 今之諸侯之罪人也³⁰

노나라에서 신자로 하여금 장군을 삼으려 하니,
맹자가 말하기를 “백성을 가르치지 않고 전쟁에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라 하는 것이니, 백성에게 재앙

24) 오패(五霸): 제환공(齊桓公) · 진문공(晉文公) · 진목공(秦穆公) · 송양공(宋襄公) · 초장공(楚莊公).

25) 삼왕(三王): 하우왕(夏禹王) · 상탕왕(商湯王) · 주문무왕(周文武王).

26) 규구(葵丘): 하남성(河南省) 개봉부(開封府) 진류현(陳留縣)의 동방.

27) 속생(束牲): 생육(牲肉)을 묶어 감중(坎中)에 놓고 지지(地氈)에게 제사드리는 것.

28) 재서(載書): 맹약의 서문을 생육(牲肉) 위에 놓는 일.

29) 삼혈(歃血): 소 · 양 · 돼지나 닭 · 개 · 말 등의 피를 입술에 발라 천신지지(天神地氈)에게 맹약하는 고속(古俗).

30) [평설] 삼왕(三王)과 제후와 대부의 벼슬은 상하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다 같이 인정(仁政)-왕도정치-을 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필을 잘못하였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구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상사에 대한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왕정(王政)에 대한 죄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을 내리는 패들은 요순 시대에는 용납되지 못했다.

단번에 싸워 제나라를 정복하여 남양을 차지하게 된다 하더라도
잘한 일이라 할 수는 없다.”

신자가 폴쑥 언짢은 태도로 “그런 말을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내가 분명히 그대에게 알려주리다. 천자의 영지는 사방이 1,000리인데, 1,000리가 못 되면 제후들을 접대할 수 없고, 제후들의 영지는 사방이 100리인데, 100리가 못 되면 종묘에 간직한 글밭들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주공을 노나라에 봉했을 적에 사방이 100리였습니다. 토지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100리로 줄인 것입니다. 태공을 제나라에 봉했을 적에 사방이 100리였습니다. 토지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100리로 줄인 것입니다.

이제 노나라에는 사방 100리 되는 것이 다섯이나 있으니 그대는 왕노릇할 이가 나오면 노나라는 깎이올 차례라고 생각하는가? 보탬을 받을 차례라고 생각하는가?

거저 저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이 사람에게 주는 그런 짓도 인인(仁人)은 하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남의 것을 얻어 와야 한다는 말인가?

군자가 주군을 섬기는 도리란 힘써 그의 주군이 도리에 알맞은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여 인(仁)에 뜻을 두게만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魯欲使慎子³¹⁾ 爲將軍 孟子曰 不教民而用之 謂之殃民 殃民者 不容於堯舜之世 一戰勝齊 遂有南陽³²⁾ 然且不可慎子 勃然不悅曰 此則滑釐所不

31) 신자(慎子): 노나라 신하. 이름은 활리(滑釐).

32) 남양(南陽): 제나라 고을 이름.

識也 曰吾明告子 天子之地 方千里 不千里 不足以待諸侯 諸侯之地 方百里 不百里 不足以守宗廟之典籍 周公之封於魯 爲方百里也 地非不足而儉於百里 太公之封於齊也 亦爲方百里也 地非不足也 而儉於百里 今魯方百里者五 子以爲有王者作 則魯在所損乎 在所益乎 徒取諸彼 以與此 然且仁者 不爲 況於殺人以求之乎 君子之事君也 務引其君以當道 志於仁而已³³⁾

맹자가 말하기를 “요즈음 군왕을 섬긴다는 사람은 ‘나는 주군을 위하여 토지를 넓히고 창고를 가득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요새는 이런 사람들을 소위 좋은 신하라 하고, 옛사람들은 소위 민중의 적이라는 것들이다. 주군이 도를 실천할 염의도 내지 않고 인에 뜻을 두지도 않는데, 그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니, 이는 결과 같은 자를 부강하게 만드는 셈이다.

‘나는 주군을 위하여 이웃 나라와 친선을 맺게 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떠드는 자들이 요새 소위 좋은 신하라는 것들이요, 옛사람들이 소위 민중의 적이라는 것들이다. 주군이 도를 실천할 염의도 내지 않고 인에 뜻을 두지도 않는데, 그를 억지로 싸우게 하니, 이는 결과 같은 자를 돕는 셈이다.

요즈음의 도를 따르면서 요즈음의 풍속을 고치지 않는다면 천하를 그에게 준다 하더라도 하루아침도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할 것이다.”

孟子曰 今之事君者曰我能爲君 辟土地 充府庫 今之所謂良臣 古之所謂民賊也 君不鄉道 不志於仁 而求富之 是富桀也 我能爲君 約與國 戰必克

33) [평설] 유교는 부전론(不戰論)이 아니라 비전론(非戰論)이기는 하지만 의전론(義戰論)인 것이다. 그러므로 침략론은 절대반대입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영지의 확장보다도 내정의 선치(善治)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今之所謂良臣 古之所謂民賊也 君不鄉道 不志於仁 而求爲之強戰 是輔
桀也由今之道³⁴⁾ 無變今之俗³⁵⁾ 雖與之天下 不能一朝居也³⁶⁾

백규가 말하기를 “나는 이십 분의 일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어떨
까요?”

맹자가 말하기를 “그대의 도는 맥도(貉道)라는 것입니다. 10,000호
장안에 질그릇장이가 하나면 될까요?”

“안 되겠지요. 그릇을 쓰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맥 땅에서는 오탁이 나지 못하고, 오직 좁쌀만이 나
는데, 성곽이나 가옥이나 종묘나 제사 같은 예절이 없고, 제후의 폐
백이나 향연 따위도 없으며, 여러 벼슬아치들도 없으니, 그러므로
이십 분의 일을 받아들여도 넉넉합니다.

이제 중국에 살면서 인륜을 버리고 지도자도 없다면 어찌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질그릇장이가 적어도 나라를 이룩할 수 없는데, 하물며 지도자도
없어서 될 말인가?

요순의 도보다도 가볍게 하려는 사람은 대퇴에 대하여 소퇴인 셈
이요, 요순의 도보다도 중하게 하려는 사람은 대결에 대하여 소결인
셈입니다.”

白圭³⁷⁾曰 吾欲二十而取一 何如孟子曰 子之道 貉³⁸⁾道也 萬室之國 一

34) 금지도(今之道): 요즈음의 그릇된 도.

35) 금지속(今之俗): 요즈음의 그릇된 습속.

36) [평설] 부국을 영토 확장에 두고 강국임을 전쟁에 호소하는 따위는 민중의 적이다. 왕정-인정(仁政)-은 내치에 있으니 선정의 요체는 내정의 성과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37) 백규(自圭): 주나라 사람인데 명(名)은 단(丹).

人陶則可乎 曰不可 器不足用也 曰夫貉 五穀不生 惟黍生之 無城郭宮室 宗廟祭祀之禮 無諸侯幣帛饗飧 無百官有司 故二十取一而足也 今居中國 去人倫 無君子 如之何其可也 陶以寡 且不可以爲國 況無君子乎 欲輕之 於堯舜之道者 大貉 小貉也 欲重之於堯舜之道者 大桀³⁹⁾ 小桀也⁴⁰⁾

백규가 말하기를 “제의 치수법은 우왕보다 낮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그대는 잘못이요. 우왕의 치수법은 물의 도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왕은 사해로 한 구렁을 삼았고, 그대는 이웃 나라로 구렁을 삼았습니다.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벽차 흐르는 물이라 하는데, 벽차 흐르는 물이 곧 홍수라, 인애로운 사람이면 이런 짓을 싫어하는 법이니, 그대는 잘못입니다.”

白圭曰 丹之治水也 愈於禹 孟子曰 子過矣 禹之治水 水之道也 是故禹以四海爲壑 今吾子以隣國爲壑 水逆行 謂之洚水 洚水者 洪水也 仁人之所惡也 吾子過矣⁴¹⁾

맹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미덥지 않으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38) 맥(貉): 북방의 흑한지대로서 만족(蠻族)의 소거지(所居地). 세곡을 허부룩하게 하여 정치의 실을 거두지 못하는 곳.

39) 걸(桀): 폭군으로서 가림주구하던 군주.

40) [평설] 세율(稅率)은 구일제(九一制)·십일조(十一條)를 이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지나친 것은 안 되지 만 보다 적어도 국비(國費) 충당(充當)의 부족을 가져오므로 좋지 않은 것이다. 전자가 소위 결도(桀道)요 후자가 소위 맥도(貉道)인 것이다. 맹자 왕정(王政)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다.

41) [평설] 우도(禹道)는 순수지도(順水之道)이니 이는 유도의 근본사상이다. 순천지도(順天之道)는 곧 순자연지도(順自然之道)요 그것이 인성론적 입장에서는 순성선지도(順性善之道)가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역성(逆性)·불성(拂性)을 해서는 안 되듯이 역수(逆水)로 치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맹자의 천인일여(天人一如) 사상이 깃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孟子曰 君子不亮⁴²⁾ 惡乎執⁴³⁾

노나라에서 악정자에게 정치를 맡기려 할 제
맹자가 말하기를 “나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서 잠을 못 이루었다.”
공손추가 말하기를 “악정자는 군센 사람인가요?”

“아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다.”

“학식이 뛰어난가요?”

“아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기뻐서 잠을 못 이루시었는지요?”

“그 인물됨이 착한 것을 좋아하느니라.”

“착한 것을 좋아하면 그만인가요?”

“착한 것을 좋아하면 천하도 그만인데 노나라쯤이야! 대체 진정으로 착한 것을 좋아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천리도 가볍게 여기고 쫓아와서 착한 일을 일러 줄 것이요, 대체 진정으로 착한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난 체하네, 나는 벌써 알고 있는데……’ 할 것이니, 잘난 체하는 그 목소리나 얼굴빛은 어진 사람을 천리 밖으로 쫓아 버리는 셈이라, 선비들이 천 리 밖에 가 있게 된다면 중상과 모략을 즐기고 간삼 부릴 줄 아는 무리들만이 모이게 될 것이니, 중상모략을 즐기고 간삼부리기를 좋아하는 무리들과 함께 산다면 나라를 다스리고 싶다 한들 될 법이나 한 일인가?”

42) 亮(亮): 양(諒). 신(信).

43) [평설] 미덥지 않은 군자라면 어찌 할 길이 없을 것이다.

魯欲使樂正子 爲政 孟子曰 吾聞之 喜而不寐 公孫丑曰 樂正子 强乎 曰否 有知慮乎 曰否 多聞識乎 曰否然則 奚爲喜而不寐 曰其爲人也好善 好善 足乎曰好善 優於天下 而況魯國乎 夫苟好善 則四海之內 皆將輕千里而來 告之以善 夫苟不好善 則人將曰詆訑 予既已知之矣 詆訑之聲音 顏色 距人於千里之外 士止於千里之外 則讒諂面諛之人 至矣 與讒諂面諛之人居 國欲治 可得乎⁴⁴⁾

진자가 말하기를 “옛날 군자들은 어떻게 하면서 벼슬을 살았던가요?”

맹자가 말하기를 “나아가는 경우가 셋이요 물러서는 경우가 셋이다. 맞아들이되 경의를 표하며 예의를 갖추고, 진언할 때 그 진언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면 나아가고, 예의 갖춘 태도는 아직 시들지 않았으나 진언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만둔다.

그다음은 비록 그 진언은 실행하지 않더라도 맞아들이되 경의를 표하며 예의를 갖추면 나아가고, 예의 갖춘 태도가 시들면 그만둔다.

그다음은 아침도 못 끓이고 저녁도 못 끓여서 굶주려 문 밖을 나올 수 없을 때 주군이 이런 사정을 알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그의 도를 실행하지 못하고, 그의 진언대로 쫓을 수도 없으나, 내 영토 안에서 굶주리게 한다면 그것은 내 수치다’ 하고 먹을 것을 보내주면 이는 받아도 좋으나 죽음을 면할 정도에 그쳐야 한다.”

陳子曰 古之君子 何如則仕 孟子曰 所就三 所去三 迎之致敬 以有禮 言將行其言也 則就之 禮貌未衰 言弗行也 則去之其次 雖未行其言也 迎之致敬以有禮 則就之 禮貌衰則去之 其下 朝不食 夕不食 飢餓不能出門戶

44) [평설] 호선(好善)은 호현락선(好賢樂善)을 의미한다. 선정이란 곧 현인을 좋아하는 정치이어야 하고 입현(立賢)의 정치라면 면참지인(面諂之人)이 걸 틈이 없어질 것이니 맹자의 희이불매(喜而不寐)도 이해함 직하지 않는다.

君聞之曰吾 大者 不能行其道 又不能從其言也 使飢餓於我土地 吾恥之
周⁴⁵⁾之 亦可受也 免死而已矣⁴⁶⁾

맹자 “순은 밭갈이하다가 출세하고, 부열은 토수 노릇 하다가 등용되고, 교격은 생선장사하다가 등용되고, 관이오는 감옥지기에서 등용되고, 손숙오는 바닷가에서 등용되고, 백리해는 저잣거리에서 등용되었다.

그러므로 하늘이 큰 임무를 그 사람에게 맡기려 할 때에는 꼭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의 육체를 피로하게 하고, 그의 창자를 굶주리게 하고, 그의 살림을 텅 비게 하되, 그가 하는 일마다 어수선하게 만드나니, 이렇듯 마음을 두들겨 참을성이 있게 하는 것은, 그가 못하는 일을 더욱더욱 더 잘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인 것이다.

사람들은 잘못해 본 후에야 고칠 줄을 알고, 마음이 지치고 생각이 막혀 본 후에야 분발하며, 얼굴빛에 나타나고 소리에까지 내품게 된 후에야 깨닫게 된다. 나라 안에 법도 차리는 사람이나 귀 거슬리는 소리를 지껄이는 선비가 없고 국외에 적성(敵性) 가진 나라나 침략을 꿈꾸는 외국이 없으면 그 나라는 언제나 망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우환 가운데 생존이 있고, 안락 속에 죽음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孟子曰 舜發於畎畝之中 傅說⁴⁷⁾ 舉於版築之間 膠鬲⁴⁸⁾ 舉於魚鹽之中

45) 주(周): 주(周).

46) [평설] 군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요 다음은 진언(進言)의 가납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없다면 신하로서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이다. 이를 일러 용퇴(勇退)라 이를 것이다.

47) 부열(傅說): 은의 무정(武丁) 때의 현상(賢相).

48) 교격(膠鬲): 은주(殷紂)의 재상이다가 나중에는 불우하게 지낸 현인(賢人).

管夷吾⁴⁹⁾ 舉於士 孫叔敖⁵⁰⁾ 舉於海 百里奚 舉於市 故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⁵¹⁾益其所不能 人恒過然後 能改 困於心 衡於慮而後 作 徵於色 發於聲而後 喻入則無法家拂弼士 出則無敵國外患者 國恒亡 然後 知生於憂患而死於安樂也⁵²⁾

맹자 “교육하는 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니, 내가 그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는 것을 그리 오긋이 생각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그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는 한 방법인 것이다.”

孟子曰 教亦多術矣 予不屑之教誨也者 是亦教誨之而已矣⁵³⁾

49) 관이오(管夷吾): 관중(管仲).

50) 손숙오(孫叔敖): 초인(楚人).

51) 증(曾): 증(曾).

52) [평설] 쇠붙이도 불 속에서 단련되어야 하듯 인간도 고초를 겪지 않고서는 유용지인(有用之人)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고초를 겪어야 함은 하늘의 뜻으로 돌릴 것은 그것의 지극한 진리성을 뒷받침하려는 뜻에서였으리라. [평설] 최악의 고난은 결코 인위적일 수는 없다. 이처럼 인의(人慾)를 초월한 고난의 극복은 오로지 하늘의 뜻임을 믿는 데에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를 일러 하늘의 시련이라 함 적하지 않는가?

53) [평설] 이는 역설적 교육방법이다. 스스로 깨우칠 기회를 주는 간접적 방법이라고나 할는지 모르는 방법인 것이다.

진심 상

맹자가 말하기를 “자기의 본심을 그대로 쏟아 행동하면 자기의 본성을 알 수 있으니, 자기의 본성을 알면 하늘도 알 수 있으리라. 자기의 본심을 간직하고 자기의 본성을 기르는 것이 바로 하늘을 섬기는 것이 된다. 일찍 죽거나 오래 산다거나의 따위는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수양하면서 사생(死生)을 기다리는 것이 천명에 따르는 길인 것이다.”

孟子曰 盡其心¹⁾者 知其性²⁾也 知其性則知天³⁾矣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殀壽不貳 修身以俟之 所以立命也⁴⁾

맹자가 말하기를 “천명 아님이 없으니 올바른 것이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천명을 아는 사람은 위험한 단장 밑에는 서지 않는다. 제 할 일을 다 하고 죽는 것은 올바른 천명이라 하

1) 진기심(盡其心): 본심 그대로 갈심진력(竭心盡力)하라. 본심대로 나가면 가이위선(可以爲善)이기 때문이다.

2) 지기성(知其性): 천명(天命)의 성(性)을 알 수 있다.

3) 지천(知天): 인위의 대(動)인 천명을 알 수 있으리라.

4) [평설] 성(性)의 근원을 천에 두었으니 이는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 사상을 배태하게 한 자일 것이다. 양성(養性)·입명(立命)이 동일한 소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졌고, 억지로 붙잡혀 죽는 것은 올바른 운명이 아니다.”

孟子曰 莫非命⁵⁾也 順受其正 是故 知命者 不立乎巖牆之下 盡其道而死者 正命也 桎梏死者 非正命也⁶⁾

맹자가 말하기를 “구하면 얻을 것이요 버리면 잃을 것이니, 그런 것을 구하면 얻을수록 유익할 것이다. 내게서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는 데에는 수단이 필요하고, 얻고 못 얻음은 운명인 것이니, 그런 것을 구하면 얻어도 별것 없다. 자기 밖에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孟子曰 求則得之 舍則失之 是求有益於得也 求在我者⁷⁾也 求之有道 得之有命 是求無益於得也 求在外者⁸⁾也⁹⁾

맹자가 말하기를 “만물의 이치가 다 내게 갖추어 있느니라. 자기를 반성하면서 정성을 다할 때는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고, 힘써 충서의 도를 실천하면 인(仁)이란 코앞에 있는 것이다.”

孟子曰 萬物皆備於我¹⁰⁾矣 反身而誠 樂莫大焉 強恕而行 求仁莫近焉¹¹⁾

5) 명(命): 정명(正命)이나 비명(非命)이나 명(命) 아님이 아니로되[宿命論的] 우리에게는 정명(正命)을 받아들일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自由意志에 의한). 이것이 바로 군자수신(君子修身)의 도(道)인 것이다.

6) [평설] 정명(正命)과 정명(定命)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수신이사명(修身以俟命)할 때 얻어지는 천명이기 때문에 윤리적이지만 후자는 결정론적 숙명이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것이다. 유교는 전자의 입장을 취한다.

7) 구재이자(求在我者): 본성(本性)의 도(道).

8) 구재외자(求在外者): 부귀리달(富貴利達) 따위.

9) [평설] 내게서 구하는 것은 도심이니 도심을 찾아내면 인간으로서의 자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남에게서 구하는 것은 부귀이니, 부귀란 얻더라도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곧장 남의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구심적(求心的) 내성(內省)을 요구하는 것은 이 까닭인 것이다.

10) 만물개비어(萬物皆備於我): 인간 당위의 인의의 도는 가자가지의 만사이지만 (만물) 이는 모두 자신의 본성에 갖추어 있다. 그러므로 반신(反身-忠) 이성(而誠-恕)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갖

맹자가 말하기를 “실천하면서도 이를 똑똑히 알지 못하고, 습관이 되다시피 되었어도 이를 살필 줄 모르니, 한평생을 두고 그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많다.”

孟子曰 行之而不著焉 習矣而不察焉 終身由之而不知其道者 衆也¹²⁾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이란 부끄러움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孟子曰 人不可以無恥 無恥之恥 無恥矣¹³⁾

맹자가 말하기를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중대한 일의 하나다.

얼러맞추기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을 턱이 없다.

사람 같지 않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사람 같을 데가 어디 있겠는가?”

추어 있지 않다면 반신(反身)할 수 없지 않는가? 충서란 곧 반신이성(反身而誠)함이고 반신이성(反身而誠)할 수 있는 까닭은 만물개비어(萬物皆備於我)이기 때문이니 여기에 만물이란 곧 충서(忠恕)의 도(道)를 따르게 마련이다.

- 11) [평설] 자신이란 만사만물을 성취시킬 수 있는 가능성 존재다. 가능성 극치에 인간 지략(至樂)의 도(道)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극치점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誠)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12) [평설]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평생토록 습관화되어 있지만 일반 대중은 그런 줄을 모른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것처럼 사람의 도리란 어려운 것이 아니요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 13) [평설]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의지단야(義之端也)라 하였는데 부끄럽게 여길 줄 안다는 것은 곧 의(義)를 알게 되는 꼬투리가 되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오악(惡惡)에 의한 행선(行善)의 시초가 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孟子曰 恥之於人 大矣 爲機變之巧者 無所用恥焉不恥不若人 何若人有¹⁴⁾

맹자가 말하기를 “옛날 잘난 임금들은 착한 것을 좋아하되 세력 따위는 아랑곳없이 여겼으니 옛날의 잘난 선비라고 어찌 그렇지 않았는가? 자기의 도를 즐기면서 남의 세력 따위는 아랑곳없이 여겼으니, 그러므로 왕공이라도 예의를 극진하게 갖추지 않으면, 그들을 자주 만날 수 없었다. 자주 만날 수도 없었던 것인데 하물며 그들을 맞아다가 신하로 삼을 수 있었겠는가?”

孟子曰古之賢王 好善而忘勢¹⁵⁾ 古之賢士 何獨不然 樂其道而忘人之勢 故王公不致敬盡禮則不得亟見之 見且猶不得亟 而況得而臣之乎¹⁶⁾

맹자가 송구천더러 “그대는 이 나라 저 나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가? 내가 그대에게 이 나라 저 나라로 돌아다니는 데 관해서 이야기하리다. 사람들이 알아주더라도 무심상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무심상하게 여기시오.”

“어떻게 해야 무심상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덕을 존중하고 의를 즐기는 태도라면 넉넉히 무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비는 궁한 처지에도 의를 잃지 않고, 영달의 지위에 있더라도 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궁한 처지에도 의를 잃지 않기

14) [평설] 기변지교(機變之巧)는 공자의 교인영색에 해당되는 자로서 보다 더 심하여 속임수까지 끼는 자이다. 이런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오악(惡惡)이니 호선(好善)은 오악(惡惡)으로 비롯해야 함은 이 까닭인 것이다.

15) 세(勢): 권세(權勢), 추세(趨勢).

16) [평설] 왕도는 때로는 세속적 권도(權道)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쯤 아랑곳없이 여기는 자야말로 옛날 현인들이었다. 그러므로 세도의 왕좌에 앉은 군주라 하더라도 그들 현인은 함부로 다루지 못했던 것이다. 맹자 자신의 슬회인지도 모른다.

때문에 선비는 자기 본분을 지킬 수 있고, 영달의 지위에 있더라도 도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하게 되면 그 혜택이 백성들에게 미치고 자기의 뜻을 못 펴면 자신을 수양하여 세상의 본보기가 되려고 하였으니, 궁한 처지에는 오로지 자신을 깨끗이 하려고 하였고, 영달의 지위에서는 겸하여 천하 사람들과 함께 착한 일을 행하려고 하였습
니다.”

孟子謂宋句踐¹⁷⁾曰子 好遊乎 吾語子遊 人知之 亦囂囂 人不知 亦囂囂 曰何如斯可以囂囂矣 曰尊德樂義則可以囂囂矣 故士 窮不失義 達不離道窮不失義故 士得己焉 達不離道故 民不失望焉 古之人 得志 澤加於民 不得志 修身見於世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¹⁸⁾

맹자가 말하기를 “문왕 같은 이가 나와야만 정신을 차리는 것이 일반 민중이다. 그러나 뛰어난 위인들이사 문왕이 아니더라도 제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孟子曰待文王而後 興者凡民也 若夫豪傑¹⁹⁾之士 雖無文王 猶興²⁰⁾

맹자 “한·위 같은 부호의 집을 다 준다 하더라도 그다지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훨씬 뛰어난 인물이라.”

17) 송구천(宋句踐): 송(宋)은 성이요 구천(句踐)은 이름이다.

18) [평설] 이는 공자의 인부지이불은(人不知而不慍)의 경지인 것이다. 천하를 주유하는 자라면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본무로 삼아야겠지만 그것은 결코 자기 영달과 결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를 줄 길 줄 아는 자만이 담담여수(淡淡如水)의 심경(心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9) 호걸(豪傑): 재주가 지나친 사람.

20) [평설] 대중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야 하고 뛰어난 인물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대중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다.

孟子曰附之以韓魏之家²¹⁾ 如其自視欲然則過人 遠矣²²⁾

맹자 “안락하게 해 줄 목적으로 백성을 부리면 비록 수고롭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살리기 위하다가 잘못 백성들을 죽이게 되면 비록 죽더라도 죽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孟子曰以佚道使民 雖勞不怨 以生道殺民 雖死不怨殺者²³⁾

맹자가 말하기를 “패자의 백성들은 큰소리를 하며 즐겨 날뛰다. 왕자의 백성들은 흐늘흐늘 아무렇지도 않은 양하게 보인다.

죽이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이롭게 하여 주어도 그 공을 모르며, 백성들이 날로 착하게 되더라도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는지 모른다.

대체로 군자가 지나간 곳이면 모두가 그대로 감화되고 그가 있는 곳이면 신묘한 결과를 맺는다. 윗사람 아랫사람 할 것 없이 하늘과 땅과 함께 움직이니, 어찌 ‘거저 좀 도움이 된다’ 할 정도이겠는가?”

孟子曰霸者之民 驩虞如也 王者之民 皞皞如也 殺之而不怨 利之而不庸 民日遷善而不知爲之者夫君子 所過者化 所存者神²⁴⁾ 上下與天地同流 豈曰小補之哉²⁵⁾

21) 한위지가(韓魏之家): 진나라 육향(六鄉) 중의 두 집안인데 부유하기로 이름나 있다.

22) [평설] 대장부란 부귀불능음(富貴不能淫)이다. 부귀란 어어(於我)에 여부운(如浮雲)이라고 자술한 공자의 뜻을 받은 것이다.

23) [평설] 민심은 지도자의 저의에 민감한 것이다. 목(牧)은 민(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牧)이 만일 목(牧) 자신을 위하여 민(民)을 부린다면 민심(民心)은 결코 그에게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24) 신(神): 치(治).

25) [평설] 소리가 나고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시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왕정(王政)의 깊은 효과는 자신들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국은(國恩)도 내게는 아랑곳없는 양 태평세월을 구가하는 것이 곧 그것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인자한 말씨도 인자하다는 소문이 인심 속으로 파고 들어감만 같지 못하다. 좋은 정치제도도 좋은 교육으로 민심을 얻음만 같지 못하다. 좋은 정치제도는 백성이 이를 두려워하고, 좋은 교육은 백성이 이를 사랑하나니, 좋은 정치제도는 백성의 재산을 불려 주거나 좋은 교육은 백성의 마음을 사게 되는 것이다.”

孟子曰仁言 不如仁聲之入人深也善政²⁶⁾不如善教之得民也 善政民畏之 善教民愛之 善政得民財 善教得民心²⁷⁾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안 배운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양능이라 하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알게 되는 그 힘을 양지라 한다.

두세 살 난 어린애도 그들의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는 애는 없고, 그들이 자란 후에 그들의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애는 없다.

아버이를 친애함이 인이요, 어른을 공경함이 의이니 다름 아니라 이는 온 천하에 두루 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孟子曰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所不慮而知者 其良知也孩提之童 無不知愛其親也 及其長也 無不知敬其兄也親親仁也 敬長義也 無他 達之天下也²⁸⁾

맹자가 말하기를 “순이 깊은 산중에서 살 때에는 나무와 돌 사이

26) 정(政): 전장제도(典章制度).

27) [평설] 전자는 역복(力服)이요 후자는 심복(心服)이니 왕정(王政)은 심복(心服)에 있음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28) [평설] 선천적 지혜와 능력은 성인의 기초가 되는 자이다. 그러므로 효제의 능(能)도 선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천부량심설(天賦良心說)을 방불하게 하고 있다.

에서 지냈고, 사슴이나 멧돼지를 데리고 놀았으니, 깊은 산 들녘과 다른 데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좋은 말 한 마디를 듣고, 좋은 행동 한 가지를 보면 마치 강물이 터지듯 그를 쫓아 따르는 힘을 막을 길이 없었다.”

孟子曰 舜之居深山之中 與木石居 與鹿豕遊 其所以異於深山之野人者 幾希 及其聞一善言 見一善行 若決江河 沛²⁹⁾然莫之能禦也³⁰⁾

맹자가 말하기를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하며, 욕심내서는 안 될 일은 욕심내지 말아야 하나니, 거저 그러면 되는 것이다.”

孟子曰 無爲其所不爲 無欲其所不欲 如此而已矣³¹⁾

맹자가 말하기를 “인간으로서 그의 도덕적인 지혜나 방법론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 자는 언제나 그들이 참고 견디어야 할 재난 가운데에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돌보아 줄 길 없는 외로운 신하라거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조심하며, 환란을 걱정하는 마음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리에 통달하게 되는 것이다.”

孟子曰 人之有德慧術知者 恒存乎疢疾³²⁾ 獨孤臣孽子 其操心也危 其慮

29) 패(沛): 패(霈).

30) [평설] 순(舜)은 그의 직업에 따른 처지는 법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여인동(與人同)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선의지만은 도도한 강하처럼 막을 길 없는 점이 법인과 다른 것이다.

31) [평설] 기소불위(其所不爲)는 불선(不善)한 행위일 것이요 기소불욕(其所不欲)은 부귀에 대한 탐욕일 것이다. 어찌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患也深 故達³³⁾

맹자가 말하기를 “임금만을 알뜰히 섬기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임금만을 섬기는 그것으로 자기만족을 챙기는 사람이다.

사직을 안정시켜 주는 신하가 있으니, 그는 사직만을 안정시켜 주는 것으로 자기만족을 챙기는 사람이다.

천민(天民)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사리에 통달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상을 천하에 펴 직한 때가 되어야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대인(大人)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자기를 바르게 한 후에 사물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다.”

孟子曰 有事君人者 事是君則爲容悅者也 有安社稷³⁴⁾臣者 以安社稷爲悅者也有天民³⁵⁾者 達可行於天下而後 行之者也 有大人³⁶⁾者 正己而物正者也³⁷⁾

맹자가 말하기를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하지만, 천하의 왕이 되는 따위는 그 안에 들지 않았다. 부모가 나란히 살아가시고, 형제들도 연고 없음이 첫째 즐거움이요, 우러러보아도 하늘

32) 진질(疾病): 재환(災患).

33) [평설] 환난과 역경은 도리어 인격을 다듬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다. 시련연이란 한 인간의 성장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 까닭인 것이다.

34) 사직(社稷): 국가(國家).

35) 천민(天民): 천명(天命)을 받은 자.

36) 대인(大人): 성인(聖人).

37) [평설] 한 사람의 군주를 섬기는 자는 하찮은 위인이다. 그다음은 한 국가만을 위하는 자이다.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명을 자각하는 자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인물은 수기치인의 도를 천하에 퍼려는 요순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요순은 수기이안백성(修己以安百姓)이라 했던 것이다.

에 부끄러울 일이 없고, 옳드려 보아도 사람에게 부끄러울 일이 없
음이 둘째 즐거움이고, 천하의 영재들을 모아 그들을 교육함이 셋째
즐거움이라,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하지만 천하의 왕이
되는 따위는 그 안에 들지 않았다.”

孟子曰 君子有三樂 而王天下 不與存焉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仰不
愧於天 俯不作於人 二樂也 得天下英才 而教育之 三樂也 君子有三樂 而
王天下 不與存焉³⁸⁾

맹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토지를 넓히고 백성들을 모이게 하는
일을 바라기는 하지만, 그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천하의 복판에 서서 사해의 민생이 안정하도록 하는 일을 군자는
즐기지만 그의 소성(所性)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군자의 소성은 비록 뜻을 크게 펴게 되더라도 더 나아질 것이 없
고 비록 궁하게 산다 하더라도 더딜 것이 없으니, 그의 본분이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군자의 소성에는 인의예지가 마음속 깊이 뿌리박혀 있고 이것이
빛으로 나타날 때에는 부들부들하게 얼굴에 핑기며, 등골 밖으로 넘
쳐서 온몸에 젖게 되니 자신은 말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다.”

孟子曰 廣土衆民 君子欲之 所樂 不存焉 中天下而立 定四海之民 君子樂
之 所性 不存焉 君子所性³⁹⁾ 雖大行⁴⁰⁾ 不加焉 雖窮居 不損焉 分定故也

38) [평설] 왕천하(王天下)가 삼락(三樂)에서 제외(除外)된 것은 부귀란 인생지락(人生至樂)과는 아랑곳없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9) 소성(所性): 소기호(所嗜好).

君子所性 仁義禮智 根於心 其生色也 睟然見於面 盎於背 施於四體 四體不言而喻⁴¹⁾ (存漏 考子所性 據大帶 不加漏 雖窮居 不損焉 鈴定故也 君子所性 仁義禮智 根於心, 其生籠也 降然見於面. 臺於背 施於四體 四體 不言而喻)

맹자가 말하기를 “백이가 주왕을 피하여 북해 기슭에서 살더니 문왕이 일어섰다는 소문을 듣고 ‘어찌 그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나. 나는 들었다. 서백은 늙은이를 잘 북돋아 준다는 것을’이라 하였고, 태공이 주왕을 피하여 동해 기슭에서 살더니, 문왕이 일어섰다는 소문을 듣고 ‘어찌 그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나, 나는 들었다. 서백은 늙은이를 잘 북돋아 준다는 것을’이라 하였으니, 천하에 늙은이를 잘 북돋아 주는 이가 있다면 어진 사람들이 자기의 돌아갈 곳으로 여기는 것이다.

농사짓 담 비탈에 뽕나무를 심어서 한 사람의 여인이 누에를 치면, 늙은이도 명주옷을 입기에 넉넉할 것이며 암탉 다섯 마리와 암 돼지 두 마리를 철따라 잡고 철따라 깨이면 늙은이도 고기를 먹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백묘지기 논 밭갈이를 한 사내가 간다면 여덟 식구쯤은 주리지 않게 하기에 넉넉할 것이다.

소위 서백이 늙은이를 잘 북돋아 준다 함은 그가 밭과 동리의 제도를 잘 꾸며서 그들에게 나무를 심고 가축을 기르도록 가르치며 그들의 처자를 단속하여 늙은이들을 잘 북돋아 주도록 한 데 있으니, 신이 되면 명주라야 따뜻하고 일흔이 되면 고기라야 배부른지라, 따

40) 대행(大行): 왕도(王道)가 대행(大行)한다.

41) [평설] 광제중민(廣濟衆民)은 군자의 소무(所務)이기는 하지만 군자의 지락(至樂)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도덕적 만족에서 얻어진 안정을 군자는 바라는 것이다.

뜻하지 않고 배부르지 않은 것을 일러 얻어 배고프다는 것이니, 문왕의 백성치고는 얻어 배고픈 늙은이가 없었다는 것은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孟子曰 伯夷辟紂 居北海之濱 聞文王作興 曰盍歸乎來 吾聞西伯⁴²⁾ 善養老者 太公 辟紂居東海之濱 聞文王作興 曰盍歸乎來 吾聞西伯 善養老者 天下有善養老者 則仁人 以爲己歸矣 五畝之宅 樹墻下以桑 匹婦蠶之 則老者足以衣帛矣 五母鷄 二母彘 無失其時 老者足以無失肉矣 百畝之田 匹夫耕之 八口之家可以無飢矣 所謂西伯 善養老者 制其田里 教之樹畜 導其妻子 使養其老 五十非帛不煖 七十非肉不飽 不煖不飽 謂之凍餒 文王之民 無凍餒之老者 此之謂也⁴³⁾

맹자가 말하기를 “그들의 논밭을 잘 가꾸게 하고, 세금을 허부룩하게 하여주면, 백성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철따라 식량을 조절하게 하고, 부리는 데도 규칙을 세워 주면, 재물도 쓰고 남으리만큼 될 것이다.

백성들은 물과 불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지만, 해 질 무렵에 남의 집 문지방을 두들기면서 물과 불을 달라더라도 주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은, 이는 쓰고도 남을 정도인 까닭이다. 성인이 천하를 다스릴 적에 콩이나 좁쌀이 물불과 같이 되게 하는 것이니, 콩이나 좁쌀이 물불과 같이 된다면, 인애롭지 않게 될 자 어디 있을 것이냐?”

孟子曰 易其田疇 薄其稅斂 民可使富也 食之以時 用之以禮 財不可勝用

42) 서백(西伯): 문왕으로 추존되기 전의 칭호.

43) [평설] 문왕의 인정(仁政)도 양로지정(養老之政)을 그의 근간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양로지정(養老之政)도 따지고 보면 식육(食肉) 의백(衣帛)의 시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왕정(王政)이란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정치인지도 모른다.

也 民非水火 不生活 昏暮 叩人之門戶 求水火 無弗與者 至足矣 聖人
治天下 使有菽粟 如水火 菽粟 如水火 而民 焉有不仁者乎⁴⁴⁾

맹자가 말하기를 “공자께서 동산에 오르사 노나라가 작다 하시고, 태산에 오르사 천하가 작다 하시니, 그러므로 바다를 보아 버린 사람과는 물의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성인의 문하에서 놀던 사람과는 하찮은 이야기 따위는 꺼낼 수가 없다.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의 굽이치는 물결을 보아야 한다. 해와 달은 흰하게 밝아서 공기마다 반드시 그 빛을 밝혀 준다.

흐르는 물이란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서는 더 흐르지 못하는 것이니, 군자가 도에 뜻을 둘 때에도 마디마디 빛을 내지 않고서는 통달할 수 없는 법이다.”

孟子曰 孔子 登東山而小魯 登太山而小天下 故觀於海者 難爲水 遊於聖人之門者 難爲言 觀水有術 必觀其瀾 日月 有明 容光 必照焉 流水之爲物也 不盈科 不行 君子之志於道也 不成章 不達⁴⁵⁾

맹자가 말하기를 “닭 울 무렵부터 일어나서 차근차근 착한 일만 하는 자는 순의 무리들이다. 닭 울 무렵부터 일어나서 차근차근 이 곳만을 찾는 자는 도척의 무리들이다. 순과 도척이 어디가 다른가를 알고자 한다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쫓느냐 착한 일을 하느냐의 구별에 달린 것이다.”

44) [평설] 군자는 부(富)를 삼야 하지만 정치는 민부(民富)에 있는 것이다. 민부(民富)하고서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을 이는 절대로 없다.

45) [평설] 문건은 총합적이고 포괄적인 입장에서 얻도록 해야 하고, 일의 실천은 빛을 보는 곳에서 그 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찌 반딧불이나 뚝뚝물처럼 일시적이어서야 되겠는가?

孟子曰 鷄鳴而起 孳孳爲善者 舜之徒也鷄鳴而起 孳孳爲利者 跖之徒也
欲知舜與跖之分 無他 利與善之間也⁴⁶⁾

맹자가 말하기를 “양자는 자기만을 위하여려고 하였으니, 한 오라기의 털을 뽑아서 천하가 이롭게 된다 하더라도 하지 않았다.

목자는 골고루 사랑하였으니, 이마가 닳고 발꿈치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천하가 이롭다면 그렇게 하였다.

자막은 중을 고집했으니, 중을 고집한 것은 근리(近理)하기는 하지만, 중을 고집하면서 권을 쓰지 않으면 하나만을 고집하는 것과 같으니라.

하나만을 고집함을 미워하는 까닭은 도를 그르치게 되기 때문이니, 하나만을 치켜들다가 백을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孟子曰 楊子 取爲我 拔一毛而利天下 不爲也墨子 兼愛 摩頂放踵 利天下 爲之 子莫 執中 執中 爲近之 執中無權 猶執一也所惡執一者 爲其賊道也 舉一而廢百也⁴⁷⁾

맹자 “주린 자는 무엇이나 달게 먹고, 목마른 자는 무엇이나 달게 마시니, 이는 음식의 제맛을 채 가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리고 목마른 것이 이를 방해하기 때문이니, 어찌 입이나 배 속만이 기갈의 방해를 받을 것인가? 사람의 마음도 이와 비슷한 방해를 받는

46) [평설] 순(舜)과 도적(盜跖)의 구분은 이(利)와 선(善)에 달려 있으니 선(善)이란 다름 아닌 인의일 따름이다.

47) [평설] 하나만을 고집하면 시중지(時中之義)에 반(反)하기 때문에 집중(執中)하여야 하는 것이요, 집중무권(執中無權)이면 또한 집일(執一)이 되고 말기 때문에 이도 또한 거일이폐백(舉一而廢百)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양(楊)·묵(墨)은 다 같이 위아겸애(爲我兼愛)로 집일(執一)하기 때문에 시중(時中)할 수 없으니, 양자(楊子)의 위아(爲我)는 수기(修己)요 묵자(墨子)의 겸애(兼愛)는 치인(治人)의 도(道)로서 수기치인(修己治人)이란 곧 유자(儒者)의 도(道)이지만 그들은 오직 집일무권(執一無權)하여 시중지(時中之義)를 모르기 때문에 맹자는 그들의 도(道)를 변박(辯駁)하는 것이다.

다. 사람들이 기갈의 해를 받듯이 그렇듯 마음에 해를 받지 않게 된다면 남만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孟子曰 飢者甘食 渴者甘飲 是未得飲食之正也 飢渴害之也 豈惟口腹有飢渴之害 人心亦皆有害人能無以飢渴之害 爲心害則不及人 不爲憂矣⁴⁸⁾

맹자가 말하기를 “유하혜는 삼공의 벼슬로도 그의 절개가 변하지 않았다.”

孟子曰 柳下惠不以三公⁴⁹⁾易其介⁵⁰⁾

맹자가 말하기를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우물 파는 일에 비해보면, 아홉 길 우물을 팠더라도 샘물이 솟을 때까지 파지 않으면 그 우물은 버린 것과 같으니라.”

孟子曰 有爲者辟若掘井 掘井九仞而不及泉 猶爲棄井也⁵¹⁾

맹자 “요·순은 천성을 타고났고, 탕왕·무왕은 애써 노력했고, 다섯 사람의 패왕들은 하는 체하였던 것이다. 오래도록 하는 체만 하고 제 본성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니, 어찌 본성이란 그렇지 않다는

48) [평설] 설령 부귀가 남만 못하더라도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에 주리고 목마른 양하여 인간의 본성을 잃을까 그것이 걱정인 것이다.

49) 삼공(三公):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

50) [평설] 삼공(三公)은 부귀의 극치다. 그런 것쯤 거들떠보지 않는 인물이라면 비범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1) [평설]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도정이 제아무리 멀더라도 거기에 이르지 않고서는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인간 상달(上達)의 길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마치 구인(九仞)을 파내려 가서 부딪히는 ‘샘’과 같은 것이다.

것을 깨달을 수 있었겠는가?”

孟子曰 堯舜性之也 湯武身之也 五霸假之也 久假而不歸 惡知其非有也⁵²⁾

공손추가 말하기를 “이윤이 ‘나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는 가까이 할 수 없다’ 하고, 태갑을 동 지방으로 내쫓으니, 백성들이 크게 좋아 했고, 태갑이 허물을 깨닫자 다시 돌려오니, 백성들은 또 크게 기뻐하였다고 하는데, 현인이 남의 신하가 되어 가지고 그의 주군이 잘나지 못했다고 해서 글썽 내쫓아도 관찮을까 모르겠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이윤과 같은 생각으로라면 모르거니와 이윤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면 자리를 빼앗는 것이 된다.”

公孫丑曰 伊尹曰 予不狎于不順 放太甲于桐 民大悅 太甲賢 又反之 民大悅 賢者之爲臣也 其君不賢則 固可放與 孟子曰 有伊尹之志則可 無伊尹之志則篡也⁵³⁾

공손추가 말하기를 “옛 시에 ‘일 없이 먹지 앓음이여!’ 하였는데 군자랍신 이들이 손수 밭갈이하지 않고 먹으니, 이는 무슨 까닭입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그 나라에 있을 때 그의 주군이 채용하여 주면 나라는 안정되고 부강하게 되며, 군왕은 존귀하게 되고, 백성은 번영하게 되며, 그의 자제들이 그를 따르면 효제충신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니, ‘일 없이 먹지 앓음이여!’란 이보다 더 클 데가 어

52) [평설] 본성을 잃고도 잃은 줄도 모르고 있다. 다시 찾되 자신 속에 간직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53) [평설] 티 없는 충성심은 지나치게 보이는 행동도 용납이 된다. 이윤(伊尹)이 태갑(太甲)에 대한 태도가 그것인 것이다.

디 있겠는가?”

公孫丑曰 詩曰不素⁵⁴⁾餐兮 君子之不耕而食 何也 孟子曰 君子居是國也 其君用之則安富尊榮 其子弟從之則 孝弟忠信 不素餐兮 孰大於是⁵⁵⁾

왕자 짐이 문기를 “사 벼슬아치는 무슨 일을 하여야 합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이상을 높이 가져야 한다.”

“이상을 높이 가져야 한다 함은 무슨 말씀인지?”

“인의가 있을 따름이니, 한 사람이라도 죄 없이 죽이는 것은 인이 아니요, 제 것이 아닌 것을 빼앗는 것은 의가 아니다. 살 곳이 어디냐 하면 인이 바로 그곳이요, 갈 길이 어디냐 하면 의가 바로 그 길이다. 인의 집에 살면서 의의 길을 걸으면, 대인의 일이란 그만인 셈이다.”

王子堯⁵⁶⁾ 問曰士何事孟子曰尚志 曰何謂尚志 曰仁義而已矣 殺一無罪 非仁也 非其有而取之 非義也² 居惡在 仁是也 路惡在 義是也 居仁由義 大人之事 備矣⁵⁷⁾

맹자가 말하기를 “중자는 의 아닌 방법으로는 제나라를 통째 주어도 받지 않으리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믿는 사실이지만, 이는 그가 한 그릇 밥이나 한 단지 국물을 본체만체하는 정도의 의에 불과

54) 시왈불소(詩曰不素): 「위풍(魏風)」 별단지편(伐檀之篇).

55) [평설] 국가에의 봉사가 결코 농경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정신문화에의 공헌도 결코 높고먹는 유(類)가 아닐 것이다.

56) 숙(堯): 제나라 왕자(王子).

57) [평설] 선비란 인의의 실천자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공리를 멀리하며 인의를 생활신조로 삼는 자의 이름인 것이다.

한 것이다. 의란 인륜에 더 덮을 일이 없거늘 그는 친척도 군신도 상하도 무시하는 태도이니, 적은 사실을 가지고 그 큰 사실까지를 믿는대서야 어찌 될 법이나 한 일이겠는가?”

孟子曰 仲子⁵⁸⁾不義 與之齊國而弗受 人皆信之 是舍簞食豆羹之義也 人莫大焉 亡親戚君臣上下 以其小者 信其大者 奚可哉⁵⁹⁾

도응이 묻기를 “순은 천자가 되고 고요는 법관이 되었을 때 고수가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맹자가 말하기를 “집행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순은 말리지 않을까요?”

“그야 순이 어찌 말릴 수 있겠느냐! 고요도 그의 권한을 받은 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은 천하를 헌신짝 버리듯 하고, 몰래 엮고서 도망쳐 으스스한 곳가로 가서 살되, 평생을 즐겁게 살면서 천하도 내사 아랑곳없다 할 것이다.”

桃應⁶⁰⁾問曰 舜爲天子 皋陶爲士⁶¹⁾ 瞽瞍殺人則如之何 孟子曰 執之而已 矣然則舜不禁與 曰夫舜惡得而禁之 夫有所受之也然則舜 如之何 曰舜視棄天下 猶棄敝蹠也 竊負而逃 遵海濱而處 終身訖然樂而忘天下⁶²⁾

58) 중자(仲子): 진중자(陳仲子).

59) [평설] 인륜관계에서 친친(親親)은 인(仁)이요 존현(尊賢)은 의(義)이니 이보다도 더한 덕이 있겠는가. 진중자(陳仲子)의 의(義)는 비인륜지사(非人倫之事)이기에 소의(小義)라 하는 것이다.

60) 도응(桃應): 맹자의 제자.

61) 사(士): 판관장(判官長).

62) [평설] 아버지의 살인죄를 천자는 집행하지 못하리라는 일설이 있다(다산설). 음미함 직하다.

맹자가 범 땅에서 제나라로 가서 멀리 제왕의 아들을 바라다보고 한숨지어 말하기를 “거처란 기상(氣象)을 달리하게 만들고, 생활은 체모(體貌)를 변하게 하는 것이니, 영향이 클 손! 거처로다. 그야 누구나 사람의 자식이 아니겠느냐!”

다시 맹자가 말하기를 “왕자는 그의 궁실이나 거마나 의복이 거의 다른 사람과 같겠지만 왕자의 모습이 저렇듯 훌륭한 것은 그의 거처가 것처럼 만들어 준 것이니, 하물며 넓은 천하를 내 집으로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떻겠는가?

노나라 주군이 송나라로 가서 질택의 문에 이르니, 문지기가 ‘이분은 우리의 주군이 아니지만 그 음성이 어찌도 그리 우리 주군과 비슷할까’ 하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사는 품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孟子 自范⁶³⁾之齊 望見齊王之子 喟然嘆曰 居移氣 養移體 大哉居乎 夫非盡人之子與 孟子曰 王子宮室車馬衣服 多與人同而王子若彼者 其居使之然也 況居天下之廣居者乎 魯君之宋 呼於埳澤⁶⁴⁾之門 守者曰此非吾君也 何其聲之似我君也 此無他 居相似也⁶⁵⁾

맹자 “먹여 주되 사랑하지 않는 것은 돼지 취급이기에 그렇고, 사랑하되 존경하지 않는 것은 짐승 취급이기에 그렇다.

공경하는 마음은 폐백을 드리기 전부터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공경하면서도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군자는 그런 데 헛되이 매달려서는

63) 범(范): 제읍(齊邑).

64) 질택(埳澤): 송나라 성문의 이름.

65) [평설] 환경은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물며 인(仁)－천하지광거(天下之廣居)－을 내집인 양 살고 있는 자의 인품은 가히 짐작할 만한 것이다.

안 되는 법이다.”

孟子曰 食而弗愛 豕交之也 愛而不敬 獸畜之也 恭敬者 幣之未將者也 恭敬而無實 君子不可虛拘⁶⁶⁾

맹자 “사람의 형색이란 하늘이 준 본성이요, 오직 성인만이 그 형색에 맞추어 살 수 있을 것이다.”

孟子曰 形色天性也 惟聖人然後 可以踐形⁶⁷⁾

제선왕이 상례의 기한을 주리려고 한즉,
공손추가 말하기를 “기년 상을 모시면 오히려 그만두는 것보다는 나올까요?”

맹자가 말하기를 “이는 어떤 사람이 제 형의 어깨를 비트는 것을 보고, 그대는 그 사람더러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과 같으니, 어쨌든 효제의 길을 제대로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다.”

어느 왕자가 어머니의 상사를 당하자, 그의 선생이 두어 달 상례만을 권한즉,

공손추가 말하기를 “그럴 경우는 어떤가요?”

맹자가 말하기를 “이는 끝까지 모시자 해도 그럴 수 없는 처지니, 비록 하루를 모시어도 그만두는 것보다는 나으리니, 그야 제선왕은

66) [평설] 물질로 사람을 낚는다면 그것은 사람을 금수 취급하는 것이요, 성의(誠意)는 있다면서 식록(食祿)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수작일 수밖에 없다. 성의(誠意)와 식록(食祿)이 일치함으로써 비로소 사람대접의 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67) [평설] 사람의 형색은 만물 중 가장 존엄한 것이니 그도 또한 천명이 아닐 수 없다. 성도 거기에 머무르고 있으니 인간의 형색은 그것이 바로 성인 것이니, 성인(聖人)만이 그 형색-성-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말리지 않는데 그만두고자 하기 때문에 나는 말하는 것이다.”

齊宣王欲短喪 公孫丑曰 爲朞之喪 猶愈於已乎 孟子曰 是猶或紕其兄之臂 子謂之姑徐徐云爾 亦教之孝弟而已矣 王子有其母死者 其傅爲之請數月之喪 公孫丑曰 若此者 何如也曰 是欲終之而不可得也 雖加一日 愈於已 謂夫莫之禁而弗爲者也⁶⁸⁾

맹자 “군자가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때맞춰 내리는 비가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고, 인격을 양성하여 주는 것이 있고, 재능을 펴게 하여 주는 것이 있고, 묻는 데 대답하여 주는 것이 있고, 그를 사숙하여 자기의 사표로 삼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 다섯 가지가 군자로서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인 것이다.”

孟子曰 君子之所以教者五 有如時雨化之者 有成德者 有達財者 有答問者 有私淑艾者 此五者 君子之所以教也⁶⁹⁾

공손추가 말하기를 “도는 아득하고 아름다워 마치 하늘에나 오르는 것 같아서, 미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왜 우리 곁에서 날마다 날마다 그를 따르게 해 주지 않을까요?”

맹자가 말하기를 “큰 목수는 터분한 목수장이의 말을 듣고서 제 먹줄을 고치지 않으며, 예는 터분한 활장이의 말을 듣고서 제 활법을 고치지 않느니라.

68) [평설] 유교의 후장론(厚葬論)의 입장에서 단상(短喪)은 그만두는 것보다는 낫지만 효자의 정을 토대로 한다면 그야 3년상은 절대적인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69) [평설] 왕화(王化)는 곧 교화의 것이다. 교화의 방법도 가지가지이지만 공맹을 만고의 스승이라 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군자는 활을 당기되 쏘지는 않고, 활기에 찬 태도로 도에 꼭 맞추어 버티고 섰으면, 그럴 수 있는 사람만이 그를 따르느니라.”

公孫丑曰 道則高矣美矣 宜若登天然 似不可及也² 何不使彼 爲可幾及而日孳孳也 孟子曰 大匠 不爲拙工 改廢繩墨 羿不爲拙射 變其穀率君子引而不發 躍如也 中道而立 能者從之⁷⁰⁾

맹자가 말하기를 “천하에 성인의 도가 행해지는 시절에는 세상에 도가 행해지도록 희생적으로 노력하고, 천하에 도가 행해지지 못하는 시절에는 자기의 영달을 희생해서라도 도를 살려야 하는 것이니, 나는 아직 제 도를 남 때문에 희생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孟子曰 天下有道 以道殉身 天下無道 以身殉道未聞以道殉乎人者也⁷¹⁾

공도자가 말하기를 “등경이 선생의 문하에 있을 때에는 예의를 갖추었을 법한데, 아무런 응답도 없으셨다니 웬일이십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제라서 귀한 체하면서 묻고, 제라서 잘난 체하면서 묻고, 제라서 어른인 체하면서 묻고, 제라서 공로가 있는 체하면서 묻고, 제라서 까닭이 있는 체하면서 물을 때는 다 응답을 않는 법이니, 등경에게는 이 중의 두 가지가 있었느니라.”

70) [평설] 도란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바르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남은 그를 따를 것이다.

71) [평설] 도-진리-는 부귀영달에 우선하는 것이다. 어찌 도를 저버림으로써 스스로를 욕되게 해서야 되겠는가?

公都子曰 滕更⁷²⁾之在門也 若在所禮而不答 何也¹ 孟子曰 挾貴而問 挾賢而問 挾長而問 挾有勳勞而問² 挾故而問 皆所不答也 滕更 有二焉⁷³⁾

맹자가 말하기를 “그만두어서는 안 될 일을 그만두는 사람은 그만두지 않는 일이 없고, 후하게 대접할 사람을 박하게 대우하는 사람은 박하게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날래게 앞으로만 가는 사람은 물러서는 것도 그만치 빠르다.”

孟子曰 於不可已而已者⁷⁴⁾ 無所不已 於所厚者⁷⁵⁾ 薄 無所不薄也其進 銳者 其退速⁷⁶⁾

맹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것을 아낄 뿐 인애를 펴 푸는 것이 아니요, 백성을 대할 적에는 그들에게 인애롭게 하여 줄 뿐 친척같이 하여 주는 것은 아니니, 친척에게는 친척같이 하여 주되 백성들에게는 인애롭게 하여 주며 백성들에게는 인애롭게 하여 주면서 물건은 아껴야 하는 것이다.”

孟子曰 君子之於物⁷⁷⁾也 愛之而弗仁 於民也 仁之而弗親²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⁷⁸⁾

72) 등경(滕更): 등군(滕君)의 아우.

73) 유이언(有二焉): 협귀(狹貴)와 협현(狹賢).

[평설] 외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예란 오로지 경심(敬心)의 형식화이기 때문이다.

74) 불가이자(不可已者): 수신(修身).

75) 소후자(所厚者): 자신(自身).

76) [평설] 자신의 일에 등한한 사람은 결국 모든 일에 등한할 것이다.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 모든 일이 바로 설 것이다.

77) 물(物): 금수(禽獸)와 초목(草木).

78) [평설] 차별에이다. 금수를 어찌 인간처럼 대할 수 있으며 친척을 어찌 일반민중처럼 대접할 수 있

맹자가 말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모르는 것이 없으나 꼭 해야 할 일을 서두르는 것이요, 인애로운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현인과 친해야 할 일이 제 일인 양 서두르는 것이니, 요순과 같은 지혜로도 모든 사물에 미치도록 못한 것은 먼저 할 일을 급하게 서두른 까닭이요, 요순과 같은 인애로도 사람들을 고루 사랑하지 못한 것은 현인과 친하기에 바빴던 까닭이다. 3년상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서 시복이니 소공의 예니만을 살피려 하고 밥술을 함부로 뜨고 국물을 질질 흘리면서 제라서 ‘고기는 이로 끊어서는 안 되지요’ 하고, 묻는 따위는 모두 저 할 일을 모르는 부류들인 것이다.”

孟子曰 知者無不知也 當務之爲急 仁者無不愛也 急親賢之爲務 堯舜之知而不徧物 急先務也 堯舜之仁不徧愛人 急親賢也不能三年之喪而總小功之察 放飯流歠而問無齒決 是之謂不知務⁷⁹⁾

겠는가? 유교에서는 목가에서처럼 겸애(兼愛)라 하지 않고 별애(別愛)라 하는 것은 이 까닭인 것이다.
79) [평설] 모든 일에는 본말이 있게 마련이다. 본말이 일시에 겸전하기 어려울 때는 그의 근본을 먼저 다루어야 한다. 군자가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 것도 그의 일례인 것이다.

진심 하

맹자가 말하기를 “인애로운 이가 아니로다. 양혜왕이여! 인애로운 이는 제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버릇을 가지고 제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도 사랑하고, 인애롭지 못한 이는 제가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버릇을 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것까지 사랑하지 않느니라.”

공손추가 말하기를 “무슨 뜻이오리까?”

“양혜왕은 영토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게 하고, 참패하자 다시 또 이를 만회하려 하되, 못 이길까 봐서 그의 사랑하는 자제들까지 몰아세워 전장에서 죽게 하니, 이런 짓을 가리켜 제가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버릇을 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것까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孟子曰 不仁哉 梁惠王也 仁者 以其所愛¹⁾ 及其所不愛²⁾ 不仁者 以其所不愛 及其所愛 公孫丑曰 何謂也 梁惠王 以土地之故 糜爛其民而戰之 大敗 將復之 恐不能勝故 驅其所愛子弟 以殉之 是之謂以其所不愛 及其所愛也³⁾

1) 소애(所愛): 자제(子弟), 백성(百姓).

2) 소불애(所不愛): 토지(土地), 영토(領土).

맹자가 말하기를 “『춘추』라는 책에는 정의의 전쟁은 없으니, 저것이 이것보다 낫다는 것쯤은 있을 것이다. 정복이란 뜻은 위사람이 아랫사람을 정벌한다는 것이니, 이웃 적국끼리 서로 정복하는 것은 아니다.”

孟子曰 春秋 無義戰 彼善於此則有之矣 征者 上伐下也 敵國 不相征也⁴⁾

맹자가 말하기를 “책 속에 있는 것을 다 믿는다면 책이 없느니만도 못하다. 나는 「무성」편에서도 두세 장밖에 취택할 것이 없다고 본다. 인애로운 이는 천하에 적이 없으니, 그 지극한 인으로 그 불인함을 정벌하매 어찌 피를 흘려 방패를 적실 까닭이 있겠느냐!”

孟子曰 盡信書⁵⁾則不如無書 吾於武成⁶⁾ 取二三策而已矣 仁人 無敵於天下 以至仁 伐至不仁 而何其血之流杵也⁷⁾

맹자가 말하기를 “어느 사람이고 ‘나는 진을 잘 친다. 나는 전쟁을 잘 한다’ 하면 큰 죄가 될 것이다.

군왕이 인을 좋아하면 천하에 적이 없으리니, 남쪽을 행하여 정벌하면 북쪽 오랑캐가 원망하고, 동쪽을 행하여 정벌하면 서쪽 만족들이 원망하되 ‘왜 우리들은 뒤로 미루시나!’ 할 것이다. 무왕이 은나

3) [평설] 주전론(主戰論)에 대한 반론이다. 그 이유로서는 인민의 전쟁도구화—다시 말하면 살인도구화(殺人道具化)—에 있다. 어찌 애민(愛民)의 군주로서 그럴 수 있겠는가?

4) [평설] 정벌(征伐)은 정치(正之)이니 의(義)가 불의(不義)를 바르게 하는 작용이다. 그러므로 정전(征戰)은 있을 수 있지만 전쟁은 허락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굴복을 위한 싸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5) 서(書): 『서경』.

6) 무성(武成): 『서경』 「주서(周書)」 편명(篇名).

7) [평설] 의전(義戰)은 부전이승(不戰而勝)하는 법이다. 어찌 꼭 혈전(血戰)에 의하여만 승리를 거둘 것인가? 그러므로 전쟁기록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라를 정벌할 때는 장갑차가 300량이요, 결사대가 3,000명뿐이었다.

왕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백성들을 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한즉 마치 사슴뿔이 먹이를 보고 땅 위로 쏠리듯 백성들은 머리를 조아렸다. 정벌이란 바로잡는다는 말이니 제각기 바로잡고자 할진대 전쟁의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孟子曰 有人 曰我善爲陳 我善爲戰 大罪也國君 好仁 天下 無敵焉 南面而征 北狄怨 東面而征 西夷怨 曰奚爲後我 武王之伐殷也 革車三百兩 虎賁三千人王曰 無畏 寧爾也 非敵百姓也 若崩厥角稽首 征之爲言正也 各欲正己也 焉用戰⁸⁾

맹자가 말하기를 “기술아치들은 남에게 그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그 잔손질까지는 일러 줄 수 없는 것이다.”

孟子曰 梓匠輪輿 能與人規矩 不能使人巧⁹⁾

맹자가 말하기를 “순이 볏은 쌀을 먹고 풀잎으로 요기하던 시절에는 일생을 그렇게 마칠 것 같더니, 그가 천자가 되어서는 비단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거문고를 튕기며 두 계집을 다루되 마치 전투터 그런 양 싶었다.”

8) [평설] 의전론(義戰論)으로서 부전이승(不戰而勝)을 의전(義戰)의 극치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9) [평설] 도의 극치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각하여야 하는 것이다.

孟子曰舜之飯糗茹草也 若將終身焉 及其爲天子也 被袵衣鼓琴 二女果¹⁰⁾
若固有之¹¹⁾

맹자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야 남의 친척을 죽이는 죄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 남의 아버지를 죽이면 그 사람도 그의 아버지를 죽일 것이요, 남의 형을 죽이면 그 사람도 그의 형을 죽일 것이니, 그렇다면 제 손으로 아비나 형을 죽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것일 따름이다.”

孟子曰 吾今而後 知殺人親之重也 殺人之父 人亦殺其父 殺人之兄 人亦殺其兄 然則非自殺之也 一間耳¹²⁾

맹자가 말하기를 “옛날에 관을 둔 것은 난폭한 짓을 막자던 것이는데 이 마적에 관을 둔 것은 되레 난폭한 짓을 하자는 데 있다.”

孟子曰 古之爲關也 將以禦暴¹³⁾今之爲關也 將以爲暴

맹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도를 따르지 않으면 처자도 도를 따르지 않을 것이요, 남을 부리되 도로 부리지 않으면 처자도 맘대로 부릴 수 없을 것이다.”

10) 과(果): 나(裸).

11) [평설] 빈천시절에는 빈천에 적응하고 부귀시절에는 부귀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 군자 시중(時中)의 도인 것이다.

12) [평설] 복수는 법 이전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어쨌든 살인복수가 아니더라도 남에게의 원한은 되돌아오기 마련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13) [평설] 입법정신과는 달리 그것이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방법을 위한 특권이 법법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孟子曰 身不行道 不行於妻子 使人不以道 不能行於妻子¹⁴⁾

맹자가 말하기를 “이해타산에 밝은 사람은 흉년도 그를 죽이지 못하고, 인격이 투철하면 알궂은 세상도 그의 뜻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孟子曰 周于利者 凶年不能殺 周于德者 邪世不能亂¹⁵⁾

맹자가 말하기를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승의 나라도 사양할 수 있거니와, 진정 그러한 인물이 아니면 한 단지 밥이나 한 그릇 국 물에도 탐내는 빛을 얼굴에 나타낼 것이다.”

孟子曰 好名之人 能讓千乘之國 苟非其人 簞食豆羹見於色¹⁶⁾

맹자가 말하기를 “인인과 현인을 믿지 않으면 나라 구석이 텅 비고, 예의와 정의가 서지 않으면 위아래가 어지럽고, 정치를 게을리 하면 국가의 재정이 부족할 것이다.”

孟子曰 不信仁賢則國空虛無禮義則上下亂 無政事則財用不足¹⁷⁾

14) [평설] 도는 자신으로부터 비롯하지 않거나 사람을 부리되 도로써 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처자도 어찌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15) [평설] 매사에 용의주도해야 하겠지만 더욱 덕을 이루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16) [평설] 모든 것은 내적 진실성이 문제다. 겉으로 꾸미는 자는 하찮은 일 때문에도 그의 바닥이 드러나고 말 것이다.

17) [평설] 현인은 나라의 지주요 예는 상하의 질서요 정사란 이용후생인 것이다. 국가 성립 3대 요건인 양하다.

맹자가 말하기를 “인자는 아니로되 나라쯤은 얻는 수가 있어도, 아예 인자가 아니고서 천하를 얻는 일은 없다.”

孟子曰 不仁而得國者有之矣 不仁而得天下未之有也¹⁸⁾

맹자가 말하기를 “백성이 가장 귀중한 것이요, 사직이란 그다음이요, 임금은 가장 경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시골 사람의 마음을 사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을 사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마음을 사면 대부가 된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갈아 버린다. 희생도 탐두고 제곡도 정결하여 제때에 제사를 모시되, 가뭄이 들거나 물난리가 난다면 사직을 바꾸어 버린다.”

孟子曰 民爲貴 社稷¹⁹⁾次之 君爲輕是故得乎丘民而爲天子 得乎天子爲諸侯 得乎諸侯爲大夫 諸侯危社稷則變置犧牲既成 粢盛既潔 祭祀以時 然而旱乾水溢則變置社稷²⁰⁾

맹자가 말하기를 “성인은 백 대를 두고도 우리의 스승이니 백이나 유하혜 같은 분이 곧 그렇다. 그러므로 백이의 풍격을 듣는 사람이면 뻔뻔한 사람도 청렴하게 되고, 겁쟁이도 뜻을 굳게 세우게 된다. 유하혜의 풍격을 듣는 사람이면 꺾렁뱅이도 묵직하게 되고, 조

18) [평설] 패도로 제후국을 차지할 수는 있으나 왕도(王道)－인정(仁政)－가 아니고서는 왕천하(王天下)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왕천하(王天下)란 세계평화를 가져오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19) 사직(社稷): 사(社)는 지신(地神), 직(稷)은 곡신(穀神)을 제사드리는 단(壇)이니, 사직이란 백성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곳이다. 이는 군왕이 건국하면 반드시 사직단을 쌓으니 사직이란 바로 국가란 뜻으로 쓰인 것이다.

20) [평설] 천자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천자일 수가 없으니 민(民)이 최귀(最貴)한 것이다. 민본주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불조불한 사람도 너그러워지게 된다. 백 대 앞서 나서 것처럼 분발한 그들의 이야기를 백 대 후에 듣고도 분발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성인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때 바로 친히 접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했겠는가?”

孟子曰 聖人百世之師也 伯夷柳下惠是也 故聞伯夷之風者 頑夫廉 懦夫有立志 聞柳下惠之風者 薄夫敦 鄙夫寬 奮乎百世之上 百世之下 聞者莫不與起也 非聖人而能若是乎 而況於親炙之者乎²¹⁾

맹자가 말하기를 “인(仁)이란 곧 인간인 것이니, 합쳐서 말하면 도인 것이다.”

孟子曰 仁也者人也 合而言之 道也²²⁾

맹자가 말하기를 “공자께서 노나라를 떠나실 때 ‘천천히 나는 가겠노라’ 하셨으니, 이는 모국을 떠나는 도리인 것이요, 제나라를 떠나실 때는 일어 놓은 쌀을 건져 가지고 떠나셨으니 이는 남의 나라를 떠나는 도리인 것이다.”

孟子曰 孔子之去魯 曰遲遲吾行也 去父母國之道也 去齊接淅而行 去他國之道也²³⁾

21) [평설] 성인의 감화력은 구원광대(久遠廣大)한 것이다. 당대뿐만 아니라 백세의 먼 훗날까지 뻗어간다. 백세의 스승이란 이를 두고 이른 말이 아닐 수 없다.

22) [평설] 의(義)자의의(義也者宜也)가 누락된 듯하다. 그러므로 합언언(合而言之)란 인(仁)과 의(義)를 두고 이른 말이라 해야 할 것이다.

23) [평설] 조국-모국-을 떠나는 발길은 더딘 것이다. 어찌 남의 나라처럼 훌훌히 떠나 버릴 수가 있겠는가?

맹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진·채 근처에서 액을 당하신 것은, 상하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孟子曰 君子之居於陳蔡之間 無上下之交也²⁴⁾

맥계가 말하기를 “저는 몹시 평판이 나쁩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괘념할 것 없어. 선비란 본래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도 하는 거야. 옛 시에

걱정이 쌓여 초조한 마음
못사람의 미움을 혼자 받나니.

하였으니, 이는 공자를 두고 이른 말이요,

이에 그들의 노염은 풀 길이 없건만
그렇다고 명성이 덜지도 않나니.

이는 문왕을 두고 이른 말이다.”

貉稽²⁵⁾曰 稽大不理於口 孟子曰 無傷也 士憎茲多口 詩云憂心悄悄²⁶⁾
慍于群小 孔子也 肆不殄厥慍²⁷⁾ 亦不隕厥問 文王也²⁸⁾

24) [평설] 상하란 군주와 신하다. 그들 중에는 교제함 직한 현인이 없었다는 것이다.

25) 맥계(貉稽): 맥(貉)은 성, 계(稽)는 명(名).

26) 시운우심초초(詩云憂心悄悄): 「괘풍(邶風)」 백단지편(柏舟之篇).

27) 사불진결운(肆不殄厥慍): 「대야(大雅)」 먼지편(緝之篇).

28) [평설] 군자란 미움받는 것을 두렵게 여겨서는 안 된다. 악인으로부터는 오히려 미움을 받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현인들은 자기의 빛난 것을 가지고 남을 빛내 보려고 하는데, 요새 사람들은 자기의 컴컴한 것을 가지고 남을 빛내 보려고 한다.”

孟子曰 賢者以其昭昭 使人昭昭 今以其昏昏 使人昭昭²⁹⁾

맹자가 고자더러 “산길 좁은 골짜기도 사람들이 자주 다니면 길이 트이지만, 이를 버려두면 넝쿨이 이를 막아 버린다. 이제 네 마음이 넝쿨로 막혀 있구나!”

孟子謂高子曰山徑之蹊間 介然用之而成路 爲間不用則茅塞之矣 今茅塞子之心矣³⁰⁾

고자가 말하기를 “우의 음악이 문왕의 음악보다 낫더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왜 그렇게 말하는가?”

“우의 북줄은 벌레 먹은 것처럼 되어 있기에 그러합니다.”

“어찌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성문의 수레바퀴 티는 두 필 말의 힘만으로 그렇게 되겠는가!”

高子曰 禹之聲 尙文王之聲孟子曰 何以言之 曰以追蠡 曰是奚足哉 城門之軌 兩馬之力與³¹⁾

29) [평설] 현인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지만 암매(闇昧)한 자가 어찌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은 자수(自修)로부터 시작됨은 이 까닭인 것이다.

30) [평설] 자수(自修)의 공(功)이 쌓이면 길이 트이지만 버려두면 터졌던 길도 막히고 마는 것이다. 쉬지 않는 노력은 이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31) [평설] 오랜 세월 때문에 그렇게 닳은 것이지 음악 자체의 우열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우열은 질에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나라에 기근이 들자 진진이 말하기를 “국민들은 모두 선생께서 다시 당 땅의 곡식을 풀어내도록 할 줄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러지 않으실 것 같구려.”

맹자가 말하기를 “그런 것은 빙부나 할 짓이야. 진나라 사람에 빙부란 자가 있었는데, 곤잘 범을 두들겨 잡더니, 졸지에 훌륭한 벼슬 아치가 되었다. 그러자 언젠가 들판에 나갔더니, 무리들이 범을 쫓고, 쫓기는 범은 산비탈을 끼고 버티매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을 제, 멀리서 빙부가 나타나자 무리들은 쫓아가 그를 맞아들였다. 예전 버릇대로 빙부는 어깨를 건어채며 차에서 내리니, 무리들은 모두 기뻐하였으나 뜻있는 선비들은 그를 비웃었느니라.”

齊饑 陳臻曰 國人皆以夫子將復爲發棠 殆不可復 孟子曰 是爲馮婦³²⁾也 晉人有馮婦者善搏虎 卒爲善士 則之野 有衆逐虎 虎負嵎 莫之敢撓 望見馮婦 趨而迎之 馮婦攘臂下車 衆皆悅之 其爲士者笑之³³⁾ (馮婦 攘下率索皆悅之 其爲企者 笑之)

맹자 “맛과 입과의 관계, 빛과 눈과의 관계, 소리와 귀와의 관계, 냄새와 코와의 관계, 편안함과 육체와의 관계는 타고난 본성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천명을 따라야 할 점도 있으니, 군자는 그에 대한 본성은 논하지 않는다. 부자간은 인애로워야 하고, 군신 간은 의리가 있어야 하고, 빈주 간은 예의를 지켜야 하고, 현인은 지혜로워야 하고, 천도는 성인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천명이라 할 수 있지만 인

32) 빙부(馮婦): 빙(馮)은 성이요 부(婦)는 이름이다.

33) [평설] 군자는 출신성분보다도 현재를 존중한다. 현재의 본질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중(時中)의 도(道)와도 합치하는 자가 아닐 수 없다.

성문제도 있는 것이니, 군자는 그에 대한 천명은 논하지 않느니라.”

孟子曰 口之於味也 目之於色也 耳之於聲也 鼻之於臭也 四肢於安佚也 性也 有命焉³⁴⁾ 君子不謂性也 仁之於父子也 義之於君臣也 禮之於賓主也 智之於賢者也 聖人之於天道也 命也 有性焉 君子不謂命也³⁵⁾

호생불해가 묻기를 “악정자는 어떤 인물인가요?”

맹자가 말하기를 “착한 인물이요 믿음직한 인물입니다.”

“무엇을 착하다 하고, 무엇을 믿음직하다고 합니까?”

“하고 싶어 하는 그것이 바로 착한 것이요, 자신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요, 그것에 충실한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요, 충실하면서 광채가 빛나면 그것이 바로 크다는 것이요, 크면서 남을 감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성인인 것이요, 성인이면서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신인 것이니, 악정자는 앞의 둘 사이의 인물이요 나중 넷의 밑에니라.”

浩生不害³⁶⁾問曰 樂正子 何人也 孟子曰 善人也 信人也何謂善 何謂信 曰可欲之謂善有諸己之謂信 充實之謂美充實而有光輝之謂大 大而化之之謂聖聖而不可知之謂神 樂正子 二之中 四之下也³⁷⁾

맹자가 말하기를 “목자의 설을 피하면 반드시 양자에게로 돌아오

34) 유명언(有命焉): 인간에게는 구목이비의 기호대로만 따를 수 없는 숙명적인 일면이 있다.

35) 불위명야(不謂命也): 인간은 인의예지의 성을 따라야지 부득이 숙명을 말해서는 안 된다. [평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니 감성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성적 판단에 의한 행동만이 있을 따름이다.

36) 호생불해(浩生不害): 호생(浩生)은 성, 불해(不害)는 명(名)인데 제인(齊人)이다.

37) [평설] 선(善)·신(信)·미(美)·대(大)·성(聖)·신(神)은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하는 단계다. 악정자(樂正子)는 이제 첫 출발의 단계에 서 있는 것이다.

고, 양자의 설을 피하면 반드시 유교로 돌아올 것이니 한 번 돌아만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양·묵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고삐 떴 돼지를 쫓을 제 벌써 우리 속으로 들어왔건만, 또다시 이를 붙잡아 매려고 한다.”

孟子曰 逃墨必歸於楊 逃楊必歸於儒 歸 斯受之而已矣 今之與楊墨辯者 如追放豚 既入其苙 又從而招之³⁸⁾

맹자가 말하기를 “포목으로 받는 세금이 있고, 곡식으로 받는 세금이 있고, 노력으로 받는 세금이 있는데, 군자는 그중 한 가지만을 받으면 다른 두 가지는 허부룩하게 하여 준다. 두 가지를 제대로 받으면 백성들이 굶게 되고, 세 가지를 다 받으면 가족들은 서로 흩어지고 만다.”

孟子曰 有布縷之征 粟米之征 力役之征 君子用其一 緩其二 用其二而民有殍 用其三而父子離³⁹⁾

맹자가 말하기를 “제후의 보배에 세 가지가 있으니, 영토와 백성과 정치이다. 금은보화를 보배로 삼는 자가 있다면, 기어코 재앙은 그를 사로잡고 말 것이다.”

孟子曰 諸侯之寶三 土地 人民 政事 寶珠玉者 殃必及身⁴⁰⁾

38) [평설] 양(楊)·묵(墨)의 도도 그의 일방적인 면만 수정한다면 유(儒)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양(楊)은 수기(修己)에 치우치고 묵(墨)은 치인(治人)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양(楊)·묵(墨)이 조화를 이루면 수기치인의 유(儒)가 되겠기 때문이다. 억지로 그들을 공격 위주로 다를 필요는 없는 것이다.

39) [평설] 징세(徵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들은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면 가렴의 폭정이 될 것이다. 민생(民生)은 박렴(薄斂)을 즐겨 구가할 것임은 너무도 당연하다.

분성괄이 제나라 벼슬을 살 때 맹자가 말하기를 “죽을 거야. 분성괄은.”

분성괄이 죽게 되니, 제자들이 묻기를 “선생님께서서는 어찌하여 그가 죽게 될 줄을 아셨습니까?”

“그 사람 된 품이 잔재주는 있어도 군자의 큰 도는 모르는 사람이니, 그러기에 죽히 제 자신을 망치고야 말 것을 알았던 것이다.”

盆成括⁴¹⁾ 仕於齊 孟子曰 死矣 盆成括 盆成括 見殺 門人 問曰 夫子 何以知其將見殺 曰其爲人也 小有才 未聞君子之大道也 則足以殺其軀而已矣⁴²⁾

맹자가 등나라로 가서 상궁에서 쉴 때, 삼던 신을 문지방 위에 얹어 놓은 것이 있더니, 그 집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다.

어느 사람이 묻기를 “이런 일도 있을까요? 함께 온 사람이 감추었구려!”

“당신은 함께 온 사람이 신 도적할 양으로 온 줄 알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학과를 벌여 놓으실 제, 가는 자를 쫓아가지도 않고 오는 자를 물리치지도 않으시니,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오면 그야 받아들이시었을 따름이겠지요.”

孟子之滕 館於上宮⁴³⁾ 有業屨於牖上 館人 求之弗得 或問之曰 若是乎

40) [평설] 재화를 보배로 삼는 것은 재화(災禍)를 자초하는 길이다. 토지를 가꾸며 인민을 사랑하고 정사를 바로잡는다면 제후의 일은 그만인 것이다.

41) 분성괄(盆成括): 분성(盆成)은 성, 괄(括)은 명(名).

42) [평설] 군자의 정도를 모르면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것을 안 맹자는 마치 공자가 자르는 용기가 지나쳐서 객사(客死)하리라 예언한 것이 적중한 사례와도 비슷하다. 권세와 재화를 경계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從者之度也 日子以是 爲竊履來與 曰殆非也 夫子之設科也 往者不追 來者不拒 苟以是心至 斯受之而已矣⁴⁴⁾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마다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그것이 인(仁)이요, 사람마다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니,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 철저하면 그것이 의(義)다. 사람들이 능히 남을 해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확충할 수만 있다면 인은 이루 다 쓰지 못하리만큼 넉넉할 것이요, 사람들이 능히 답을 넘거나 문지방을 뚫지 않으려는 마음을 확충할 수만 있다면 의는 이루 다 쓰지 못하리만큼 넉넉할 것이다.

사람들이 능히 이놈저놈 하는 말을 듣지 않으리만큼 충실하게 된다면, 어디를 가거나 의 아닌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선비로서 안 할 말을 한다면 이는 말로써 남의 마음을 떠보자는 수작이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잠자코 남의 마음을 떠보자는 수작이니, 이는 모두 답을 넘고 문지방을 뚫는 부류들인 것이다.”

孟子曰 人皆有所不忍 達之於其所忍 仁也 人皆有所不爲 達之於其所爲 義也 人能充無欲害人之心 而仁 不可勝用也 人能充無穿踰之心 而義 不可勝用也 人能充無受爾汝之實 無所往而不爲義也 士未可以言而言 是以言詘之也 可以言而不言 是以不言詘之也 是皆穿踰之類也⁴⁵⁾

맹자가 말하기를 “말이란 비근하되 그 뜻은 깊고도 먼 것이 좋은

43) 상궁(上宮): 별궁(別宮)의 이름.

44) [평설] 학생을 도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일이다. 맹자는 학생들의 순정을 믿고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45) [평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악한 일을 하지 않는 태도는 인의의 근본이다. 또한 해야 할 말, 해서 안 될 말을 굳자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말이요, 도란 간략하되 그 영향은 크고도 넓은 것이 좋은 도니, 군자의 하는 말이란 역대 아래도 먼 양하여 코앞에 바로 도가 있는 것이다.

군자가 스스로 지키는 도는 제 자신을 수양하면서 천하를 태평하게 함에 있다.

사람들의 잘못은 제 밭을 버리고, 남의 밭풀만을 매자는 데 있으니, 그들은 남에게서 찾자는 것에는 힘을 쏟고, 제가 하여야 할 일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孟子曰 言近而指⁴⁶⁾遠者 善言也 守約而施博者 善道也 君子之言也 不下帶而道存焉 君子之守 修其身而天下平人病 舍其田而芸人之田 所求於人者重 而所以自任者輕⁴⁷⁾

맹자가 말하기를 “요·순은 천성이 그러하신 분이요, 탕·무는 본성을 찾아내신 분이요. 몸집을 움직여 가고 오고 하는 모든 범절이다 예에 알맞은 것은, 그의 빛나는 인격이 극치에 도달한 까닭이다. 죽은 이를 위하여 통곡하면서 슬퍼하는 것은 산 사람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요, 평생토록 지키던 인격을 굽히지 아니하는 것은 녹을 바라는 뜻에서 그러는 것도 아니며, 언제나 말씨를 믿음직하게 하는 것은 그릇된 행실을 바른 체하자는 데에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군자란 법도대로 살면서 천명을 기다릴 따름이다.”

孟子曰 堯舜性者也 湯武反之也 動容周旋 中禮者 盛德之至也 哭死而哀 非爲生者也 經德不回 非以干祿也 言語必信 非以正行也 君子 行法 以俟

46) 지(指): 지(지).

47) [평설] 말은 『논어』에서처럼 손쉬운 말들이지만 그 뜻만은 깊어야 한다. 도도 간략하면서 어디나 통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까다로운 논리나 규칙이 없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벼슬아치들과 이야기할 때는 예사로 하고, 그의 으리으리한 모습에 눈을 팔지 마라. 집의 높이가 여러 길이 되고, 추녀 둘레는 여러 자가 되는 따위를, 나는 출세하더라도 그런 짓은 않는다. 밥상 앞에 진수성찬이 길 넘게 쌓이고, 모시고 앉은 색시가 수백 명이 되는 따위를, 나는 출세하더라도 그런 짓은 않는다. 흐늘흐늘 놀면서 술이나 마시고, 차마를 달려 사냥질을 하는 데 뒤따르는 무리가 수천이나 되는 따위는, 나는 출세하더라도 그런 짓은 않는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 나는 하지 않는 것들이요, 내게 있는 것은 다 옛 성인들이 하던 법도니 내가 왜 그들을 두려워하겠는가?”

孟子曰 說大人則藐之 勿視其巍巍然 堂高數仞 榑題數尺 我得志 弗爲也 食前方丈 侍妾數百人 我得志 弗爲也 般樂飲酒 驅騁田獵 後車千乘 我得志 弗爲也 在彼者 皆我所不爲也 在我者皆古之制也 吾何畏彼哉⁴⁹⁾

맹자가 말하기를 “정신을 수양함에는 욕심을 적게 가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으니, 그 인물 됨이 욕심이 적으면, 인격이 좀 부족하다손 치더라도 얼마 상관이지 아니리라. 그 인물 됨이 욕심이 많으면 인격적인 점이 다소 있다손 치더라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孟子曰 養心 莫善於寡欲 其爲人也寡欲 雖有不存焉者 寡矣 其爲人也多

48) [평설] 성인(聖人) - 군자 - 의 길은 예에 알맞음에 있는 것이다. 예란 진정한 의식화한 자이지만 그것은 결코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진정대로 살면서 천명을 기다리는 태도이어야 하는 것이다.

49) [평설] 제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더라도 부질없는 사치나 허세를 군자는 멀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옛 성인의 법도인데 요즈음 사람들은 곧잘 큰 궁실과 술과 계집으로 호사의 극치를 이루려고 하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欲 雖有存焉者 寡矣⁵⁰⁾

증석이 대추를 좋아하시매 증자는 차마 대추를 먹지 못했다. 공손추가 묻기를 “회와 불고기와 대추와 어느 것이 더 맛이 있는가요?”

맹자가 말하기를 “회나 군고기일 거야.”

“그러면 증자께서는 왜 회나 군고기는 자시되 대추는 자시지 않았는가요?”

“회나 군고기는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지만 대추만은 독특한 것이다.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것은 꺼리되 성만은 꺼리지 않으니, 성이란 다 같은 것이지만 이름이란 독특한 것이기 때문이다.”

曾皙嗜羊棗 而曾子不忍食羊棗 公孫丑問曰膾炙與羊棗孰美 孟子曰膾炙哉 公孫丑曰然則曾子何爲食膾炙而不食羊棗 曰膾炙所同也 羊棗所獨也 諱名不諱姓 姓所同也 名所獨也⁵¹⁾

만장이 묻기를 “공자께서 진나라에 계실 때 ‘돌아가자꾸나! 우리 고을에 남아 있는 무리들은 너무 지나치게 눈만 높고 염부룩하여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면서 옛 모습을 못 고치고 있구나!’ 하셨으니, 공자께서 진나라에 계실 때 왜 노나라의 지나친 미치광이들을 생각하셨는가요?”

맹자가 말하기를 “공자께서는 ‘중용의 길을 걷는 사람을 얻지 못할 때에 그래도 사괴임즉 하기는 그야 지나친 미치광이나 고집 센

50) [평설] 과욕설(寡欲說)이다. 이는 무욕설(無欲說)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절대적 무욕일 수는 없다. 희로애락이 있기 때문이다. 칠정(七情)의 조절은 역시 과욕이 그의 중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51) [평설] 진정한 효자는 양지(養志)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서는 부모의 뜻을 받들고 돌아가 시더라도 그가 즐기던 시절물(時節物)에 옷깃을 바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억지구러기들일 거야. 지나친 미치광이는 진취성이 있고, 고집 센 억지구러기들은 하지 않는 대목이 있느니라’ 하셨으니, 공자께서 어찌 중용의 도를 바라지 않았을까마는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 것을 생각하신 것이다.”

“어떤 것을 지나친 미치광이라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금장·중석·목피 같은 사람은 바로 공자께서 말하는 그 지나친 미치광이들일 것이다.”

“왜 그들을 지나친 미치광이라 합니까?”

“그들의 이상은 크고 높아서 ‘옛사람들이야! 옛사람들이야’ 하되, 슬며시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말이 행동을 열싸 주지 못한 데가 있는 사람들이다. 지나친 미치광이도 얻어 볼 수가 없을 때는 지꺼분한 짓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와 함께 사귀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고집 센 억지구러기들이라, 이들이 곧 그 다음가는 사람들이다.”

“공자께서 ‘내 집 문을 지나면서 내 방까지 들어오지 않더라도 나는 조금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야 저 근엄한 체하는 패들일 거야. 근엄한 체하는 패들은 덕을 손상하는 무리들이다’ 하셨으니, 어째서 그들은 근엄한 체하는 패라 하게 되는가요?”

“무엇을 그렇게 재재거리는지. 말하되 제 행실을 돌보지 않고, 행동도 말대로 하지 않으면서 거저 ‘옛사람들이야. 옛사람들이야’ 하며, ‘행동이란 왜 그렇게 깨끗하게 서릿발 칠 거야 있나. 이 세상에 났으니 이 세상 사람이 되어서 모두 좋아라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본심은 감추어 두고 세상에 아첨하는 무리들이 곧 근엄한 체하는 패들인 것이다.”

“온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근엄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면 어디를 가거나 근엄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공자께서는 덕을 손상한다고 생각하셨으니 어찌된 일인가요?”

“비난하자 해도 비난할 거리는 없고, 툭 쏘아 주자 해도 쏘아 줄 거리가 없기는 하다. 거저 세상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며, 지꺼분한 세상과도 합류하면서 살아가는 품이 충실하고 믿음직한 것 같으며, 행실도 깨끗한 양하여 못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고, 자기도 그런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요순의 도로 들어갈 수 없게 되니, 그러므로 ‘덕을 손상하는 무리들이다’ 하는 것이다.

공자께서 ‘비슷하면서 같지 않은 것을 싫어하나니, 가라지를 싫어함은 나락 모와 혼동될까 걱정되기 때문이요, 거짓부렁이 잔소리꾼을 싫어함은 진실한 의인과 혼동될까 걱정되기 때문이요, 말 잘하는 패를 싫어함은 믿음직한 사람과 혼동될까 걱정되기 때문이요, 음란한 정나라 민요를 싫어함은 고상한 음악과 혼동될까 걱정하기 때문이요, 자줏빛을 싫어함은 붉은 빛과 혼동될까 걱정하기 때문이요, 근엄한 체하는 패들을 싫어함은 올바른 인격자와 혼동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하셨으니, 군자는 바른길로 돌아서야만 하는 것이니, 길이 바르기만 하면 서민들은 털고 일어날 것이요, 서민들이 털고 일어나면 거기에는 사특한 것이 없을 것이다.”

萬章 問曰 孔子在陳 曰 盍歸乎來 吾黨之士 狂簡 進取 不忘其初 孔子在陳 何思魯之狂士 孟子曰 孔子 不得中道而與之 必也狂狷乎 狂者 進取 狷者 有所不爲也 孔子豈不欲中道哉 不可必得故 思其次也敢問何如斯可謂狂矣 曰如琴張⁵²曾皙牧皮⁵³者 孔子之所謂狂矣 何以謂之狂也 曰其志嘒嘒然曰 古之人古之人 夷考其行而不掩焉者也 狂者 又不得 欲

得不屑不潔之士而與之 是猥也 是又其次也 孔子曰 過我門而不入我室 我不憾焉者 其惟鄉原乎 鄉原⁵⁴⁾ 德之賊也 曰何如 斯可謂之鄉原矣 曰何以是嚶嚶也 言不顧行 行不顧言 則曰 古之人 古之人 行何爲踽踽涼涼 生斯世也 爲斯世也 善斯可矣 闒然媚於世也者 是鄉原也 萬章曰 一鄉皆稱原人焉 無所往而不爲原人 孔子以爲德之賊 何哉 曰非之無舉也 刺之無刺也 同乎流俗 合乎汚世 居之似忠信 行之似廉潔 衆皆悅之 自以爲是 而不可與入堯舜之道 故曰德之賊也 孔子曰 惡似而者 惡莠 恐其亂苗也 惡佞 恐其亂義也 惡利口 恐其亂信也 惡鄭聲 恐其亂樂也 惡紫 恐其亂朱也 惡鄉原 恐其亂德也 君子反經而已矣 經正則庶民興 庶民興 斯無邪慝矣⁵⁵⁾

맹자가 말하기를 “요·순을 거쳐 탕왕에 이르기까지 헛수로 500년 남짓하니, 우왕과 고요 같은 분은 보고서 알았고, 탕왕 같은 분은 듣고서 알았느니라. 탕왕을 거쳐 문왕에 이르기까지 수로는 500년 남짓하니, 이윤과 내주 같은 분은 보고서 알았고, 문왕 같은 분은 듣고서 알았느니라. 문왕을 거쳐 공자에 이르기까지 헛수로는 500년 남짓하니, 태공망·산의생 같은 분은 보고서 알았고, 공자 같은 분은 듣고서 알았느니라. 공자를 거쳐 내려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헛수로는 100년 남짓하니, 성인의 세상과 떨어지기를 이처럼 그다지

52) 금장(琴張): 자장(子張). 거문고를 잘 뜯어서 금장(琴張)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다. 『장자』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이름은 쉼(侏).

53) 목피(牧皮): 미상(未祥).

54) 향원(鄉原): 원(原)은 원(愿)이니 한 고을에서 세속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 말이다. 도를 위하여 미치광이[狷]처럼 덤비지도 않고, 도를 위하여 억자들[猥 또는 狷] 쓰지도 않는 사람이나, 공자는 이런 위인을 싫어하였다.

55) [평설] 신념이 투철한 인물과 아세(阿世)하는 세속적인 인간과의 구별이 분명하다. 신념이 투철하면 결코 세속에 물들거나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다. 때에 따라서 그는 미치광이처럼 보이거나 고집불통으로 여겨지기도 할 것이다. 그의 호선오악(好善惡惡)은 결코 흐리멍덩하지 않기 때문이다. 향원(鄉原)이란 님 사람 아니라 호선오악(好善惡惡)이 불분명한 인간이다. 이 눈치 저 눈치 보아가면서 적당히 세류에 휩쓸려 지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세속인들의 승양을 받으며 살아가는 위인이다. 따지고 보면 평범한 일상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호선오악(好善惡惡)을 생명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는 입장에서 그를 덕의 적(賊)이라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멀지 않고, 성인이 계시던 곳과 가깝기를 이처럼 가깝건만 그런데도
도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니 그러면 아마도 없을 것인가 보다.”

孟子曰由堯舜至於湯 五百有餘歲 若禹臯陶則見而知之 若湯則聞而知之
由湯至於文王 五百有餘歲 若伊尹萊朱⁵⁶⁾則見而知之 若文王則聞而知之
由文王至於孔子 五百有餘歲 若太公望散宜生⁵⁷⁾則見而知之 若孔子則聞
而知之 由孔子而來 至於今 百有餘歲 去聖人之世 若此其未遠也 近聖人
之居若此其甚也 然而無有乎爾 則亦無有乎爾⁵⁸⁾

56) 내주(萊朱): 탕왕(湯王)의 신하.

57) 산의생(散宜生): 산(散)은 성, 의생(宜生)은 명(名). 문왕의 신하.

58) 연이무유호이, 즉역무유호(爾然而無有乎爾, 則亦無有乎爾): “없을 것인가 보다”는 “있고야 말 것이
다”라는 반어법. [평설] 맹자는 자기만이 공자의 후계자로서 공자의 도를 이어받을 수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자신인 것이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명감의 토로인 것이다. 이
때문에 공자의 군자학은 맹자에 이르러 현인학(賢人學)으로 꽃이 피고 공맹학은 이제 수기치인의
학으로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이른 것이다.

발문

이 책을 발행하게 된 것은 <이을호 전서> 초간본이 품절되어 찾는 독자들이 많았고, 전서의 증보와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망에 따른 것입니다. 전서가 발행된 이후에도 특히 번역본에 대한 일반 독자의 수요가 많아서 『간양록』을 출간하였으며, 『한글 사서』(한글 중용·대학, 한글 맹자, 한글 논어)는 비영리 출판사 ‘올재 클래식스’가 고전 읽기 운동의 교재로 보급하였고, 인터넷에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글 논어』는 교수신문에서 ‘최고의 고전번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간 선친의 학문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생전의 행적을 기리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서세(逝世) 이듬해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선친께서는 생전에 자신의 항일활동을 굳이 내세우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영광만세운동과 관련하여 옥고를 치렀던 일들을 사후에 추증한 것입니다.

향리 영광군에서도 현창사업이 있었습니다.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사적비(事績碑)가 영광읍 우산공원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금석(金石)의 기록 또한 바라지 않으신 것을 알기에 영광군에서 주관한 사적비의 건립 역시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세 5주년 때는 ‘선각자 현암 이을호 선생의 내면세계’를 주제로 한 학술심포지엄이 영광문화원 주최로 영광군에서 열렸습니다. 그의 학문이 “한국의 사상과 역사를 새롭게 연구하고, 우리 문화의 미래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음이 알려지자,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남지회’에서는 『현암 이을호』라는 책을 간행하여 여러 곳에 보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영광군에서는 전국 도로명주소 전환 사업 시 고택(故宅) 앞 길을 ‘현암길’로 명명하였습니다.

학계에서는 전남대학교가 ‘이을호 기념 강의실’을 옛 문리대 건물에 개설하여 그곳에 저서를 전시하고, 동양학을 주제로 하는 강의와 학술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선친의 학문 활동은 일제시대 중앙일간지와 『동양의학』 논문지 등에 기고한 논설들이 그 효시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 학문의 천착은 일생 동안 몸담으셨던 전남대학교에서 이루어졌음을 기린 것입니다. 지금은 생전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셨던 ‘호남의 문화와 사상’에 대한 연구도 뿌리를 내리게 되어 ‘호남학’을 정립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자학회에서 논문집 『현암 이을호 연구』를 간행하였고, 최근 출간한 윤사순 교수의 『한국유학사』에서 그 학문적 특징을 ‘한국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업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제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 학문이 하나의 논리와 체계를 갖춘 ‘현암학’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 출간이 ‘책을 통하여 그 학

문과 삶이 남기'를 소망하셨던 선친의 뜻에 다소나마 보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이 전집이 간행되기까지 원문의 번역과 교열에 힘써 준 편집위원 제위와 이 책을 출간하여준 한국학술정보(주)에도 사의를 드립니다.

2014년 첫 봄
장자 원태 삼가 씀

편집 후기

2000년에 간행된 <이을호 전서>는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편찬하였었다. 따라서 다산의 경학을 출발로, 그 외연으로서 다산학 그리고 실학과 한국 사상을 차례로 하고, 실학적 관점으로 서술된 한국 철학과 국역 『다산사서(茶山四書)』, 『다산학제요』 등을 실었던 것은, 다산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적 사유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 것이었으며, 그 밖의 『사상의학』과 『생명론』은, 선생이 한때 몸담았던 의학에 관계된 저술이었다.

지금은 초간본이 간행된 지 14년의 세월이 흘러, 젊은 세대들은 원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논문의 서술방식 또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집의 간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아 이번에 <현암 이을호 전서>를 복간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의 편찬은 대체적으로 선생의 학문적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간행되었던 <이을호 전서>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각 책을 따로 독립시켜 각자의 특색이 드러나도록 하

였다. 특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원문의 번역과 문장의 교열을 통하여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원문의 국역이었다. 저자는 문장의 서술과정에서 그 논증의 근거를 모두 원문으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인용문은 모두 국역하고 원문은 각주로 처리하였다. 또한 그 글의 출처와 인명들도 모두 검색하여 부기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전의 책은 그 주제에 따라 분책(分冊)하였기 때문에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한 책으로 엮었으나 이번 새로 간행된 전집은 다채로운 사상들이 모두 그 특색을 나타내도록 분리한 것이다. 이는 사상적 이해뿐 아니라 독자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서세 후에 발견된 여러 글들을 보완하고 추모의 글도 함께 실어서 그 학문세계뿐 아니라 선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이제 이와 같이 번역·증보·교열된 <현암 이을호 전집>은 선생의 학문이 한국사상연구의 현대적 기반과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한국 문화의 미래적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로서 손색이 없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甲午年 孟春

증보·교열 <현암 이을호 전서>복간위원회

안진오 오종일 최대우 백은기 류근성 장복동 이향준 조우진
김경훈 박해장 서영이 최영희 정상엽 노평규 이형성 배옥영

『현암 이을호 전서』 27책 개요

1. 『다산 경학사상 연구』

처음으로 다산 정약용의 철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저서이다. 공자 사상의 연원을 밝히고 유학의 근본정신이 어디에서 발원하였는가 하는 것을 구명한 내용으로서, 유학의 본령에 접근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신국판 346쪽).

2. 『다산 역학 연구』(上)

3. 『다산 역학 연구』(下)

다산의 역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책으로서 다산이 밝힌 역학의 성립과 발전적 특징을 시대적으로 제시하고 다산이 인용한 모든 내용을 국역하였다(신국판 上, 下 632쪽).

4. 『다산의 생애와 사상』

다산 사상을 그 학문적 특징에 따라서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의 사상으로 재해석한 책이다(신국판 260쪽).

5. 『다산학 입문』

다산의 시대 배경과 저술의 특징을 밝히고, 다산의 『사서오경(四書五經)』에 대한 해석이 그 이전의 학문, 특히 정주학(程朱學)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주제별로 서술하여 일표이서(一表: 經世遺表 / 二書: 牧民心書, 欽欽新書)의 정신으로 결실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한 책이다(신국판 259쪽).

6. 『다산학 각론』

다산학의 구조와 경학적 특징, 그리고 그 철학 사상이 현대정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 상세하게 논한 저서이다(신국판 691쪽).

7. 『다산학 강의』

다산학의 세계를 목민론, 경학론, 인간론, 정경학(政經學), 『목민심서』 등으로 분류하여 다채롭게 조명하여 설명한 책이다(신국판 274쪽).

8. 『다산학 제요』

『대학(大學)』, 『중용(中庸)』, 『논어(論語)』, 『맹자(孟子)』의 사서(四書)는 물론 『주역』, 『시경』, 『악경』 등 모든 경서에 대한 다산의 이해를 그 특징에 따라 주제별로 해석하고 그에 대한 특징을 서술한 방대한 책이다(신국판 660쪽).

9. 『목민심서』

다산의 『목민심서』를 현대정신에 맞도록 해석하고, 그 가르침을 현대인들이 어떻게 수용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재구성한 책이다(신국판 340쪽).

10. 『한국 실학사상 연구』

조선조 실학의 특징을, 실학의 개념, 실학사상에 나타난 경학(經學)에 대한 이해, 조선조 실학사상의 발전에 따른 그 인물과 사상 등의 차례로 서술한 것이다.(신국판 392쪽)

11. 『한 사상 총론』

단군 사상에 나타난 ‘한’ 사상을 연구한 것이다. 단군사상으로부터 ‘한’ 사상의 내용과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근대 민족종교의 특성에 나타난 ‘한’의 정신까지, 민족 사상을 근원적으로 밝힌 책이다(신국판 546쪽).

12. 『한국철학사 총설』

중국의 사상이 아닌 한국의 정신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철학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이 책은 한국의 정신, 특히 조선조 실학사상에 나타난 자주정신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이는 중국의 의식이 아닌 우리의 철학 사상의 특징을 밝혔다(신국판 611쪽).

13. 『개신유학 각론』

조선조 실학자들의 사상적 특징, 즉 윤희, 박세당, 정약용, 김정희

등의 사상을 서술하고 실학자들의 저서에 대한 해제 등을 모은 책이다(신국판 517쪽).

14. 『한글 중용·대학』

『중용』과 『대학』을 다산의 해석에 따라 국역한 것이며, 그 번역 또한 한글의 해석만으로서 깊은 내용까지 알 수 있도록 완벽한 책이다(신국판 148쪽).

15. 『한글 논어』

다산이 주석한 『논어고금주』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어』를 한글화한 책이며 해방 후 가장 잘된 번역서로 선정된바 있다(신국판 264쪽).

16. 『한글 맹자』

『맹자』를 다산의 『맹자요의』에 나타난 주석으로서 한글화하여 번역한 책이다(신국판 357쪽).

17. 『논어고금주 연구』

『여유당전서』에 있는 『논어고금주』의 전체 내용을 모두 국역하고, 그 사상적 특징을 보충 설명한 것이다. 각 원문에 나오는 내용과 용어들을 한(漢)나라로부터 모든 옛 주석에 따라 소개하고 다산 자신의 견해를 모두 국역하여, 『논어』에 대한 사상적 본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신국판 665쪽).

18. 『사상의학 원론』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 1838~1900)가 쓴 『동의수세보원』의 원문과 번역, 그리고 그 사상에 대한 본의를 밝힌 것으로서 『동의수세보원』의 번역과 그 내용을 원론적으로 서술한 책이다(신국판 548쪽).

19. 『의학론』

저자가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당시의 질병과 그 처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의학에 대한 서술이다(신국판 261쪽).

20. 『생명론』

저자가 만년에 우주에 대한 사색을 통하여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의 유기체적 관계로서 형성되고 소멸된다는 사상을 밝힌 수상록이다(신국판 207쪽).

21. 『한국문화의 인식』

한국의 전통문화에 나타난 특징들을 각 주제에 따라서 선정하고 그것들이 지니는 의미를 서술하였으며 또한, 우리 문화를 서술한 문헌들에 대한 해제를 곁들인 책이다(신국판 435쪽).

22. 『한국 전통문화와 호남』

호남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지리 풍속 의식과 저술들을 주제별로 논한 것이다(신국판 415쪽).

23. 『국역 간양록』

정유재란 때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의 스승이 되어 일본의 근대 문화를 열게 한 강항(姜沆)의 저서 『간양록』을 번역한 것이다(신국판 217쪽).

24. 『다산학 소론과 비평』

다산의 사상을 논한 내용으로서, 논문이 아닌 조그마한 주제들로 서술한 내용과 그 밖의 평론들을 모은 책이다(신국판 341쪽).

25. 『현암 수상록』

저자가 일생 동안 여러 일간지 및 잡지에 발표한 수상문을 가려 모은 것이다(신국판 427쪽).

26. 『인간 이을호』

저자에 대한 인품과 그 학문을 다른 사람들이 소개하여 여러 책에 실린 글들을 모은 책이다(신국판 354쪽).

27. 『현암 이을호 연구』

현암 이을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논문집으로서 그 학문과 사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그 업적이 앞으로 한국사상을 연구하는 기반을 닦았다는 것을 밝힌 책이다(신국판 579쪽).

지은이 소개 | 현암玄庵 이을호李乙浩(1910~1998)

전남 영광에서 출생했다. 중앙고보 시절에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1837~1900)의 제자, 해초海初 최승달崔承達로부터 사상의학四象醫學을 전수받고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동의수세보원>을 번역하여 사상의학의 현대적 개척자가 됐다. 영광에서 약국을 경영하면서 민족자강운동에 앞장섰다가 체포되어 옥중에서 <여유당전서>를 접하고, 출옥 후 한국 사상과 문화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광복과 함께 사재를 염출하여 영광민립중학교를 세우고 교육 운동에 진력했다.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부임해 다산 경학 사상 연구를 기초로 조선조 사상을 탐구하고, 민족 고유의 정신으로 한국 문화의 자주성을 발견하여 한국학의 개척자가 됐다. 이러한 업적으로 “한국 사상 연구의 현대적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생의 학문은 <현암 이을호 연구>를 비롯,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계속 연구되고 있으며 <현암 이을호 전서> 27책은 광복 후 개인 문집 중 가장 많은 양과 깊이를 인정받고 있다.

한글 맹자

©사단법인 올재

초판 발행 | 2018년 10월 31일

지은이 | 이을호

펴낸이 | 홍정욱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4길 10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ISBN | 979-11-5993-081-2 05150